

## 第2章 文 化

### 文化發祥의 史的側面

우리고장 原州의 文化를 이야기할 때 中國 黃河文明을 舉論하듯 廣闊한 地域의 사람들이 서로 交互하면서 쌓아올린 文化中에서 極히 좁은 地方인 原州의 獨自인 土着文化를 찾아내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人口密度가 희박하던 歷史 初期에서 原州는 山地가 많고 平野가 적어 사람이 모여 農耕社會를 이루고 살기에 適當한 곳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山기슭 등지에 모여 살며 住民들은 秋收하면 感謝하는 뜻으로 集團的인 祭天儀式을 올리고 詩의 生理인 呪文을 외우며 小說의 形態인 神話를 얘기하며 偶像을 만들어 놓고 踏地低昂(땅을 밟으며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는 춤)하는 춤을 추면서 原始生命感에 만족하였을 것이 聯想된다. 아직도 原州에는 巫俗으로서 祈雨祭 城隍堂祭等 形態를 달리하여 좀 남아있다. 三國時代의 原州는 이렇다 할 文化的 遺産이 없고 다만 統一 新羅期에 세워진 佛教寺刹의 九龍寺를 비롯하여 여러곳에 흐트러져 있는 당시의 建築美術, 彫刻, 繪畫등의 精巧한 藝術의 畵씨를 엿볼 수 있는 것이 多幸이다. 고려 중엽에 朱子學이 들어와 儒敎文化가 日益 隆盛하여집에 儒生들이 風光 좋은 勝地나 鄉里에 隱居 또는 藏修를 目的으로 精舍(私學)를 設置하면 志學의 靑少年들이 물러와 공부를 하던 곳이 原州에 생겨 후대에 書院 鄉校등 官學의 기틀이 잡혔고 李朝의 崇儒斥佛(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물리침)은 이에 加鞭(채찍질을 더가한다)을 하였다. 여기에 尊賢崇德講 格式的 享祀의 執行과 回顧的 講學을 일삼는 事大主義의 긴 뿌리가 原州에도 내렸다. 그동안 困敎儒士나 詩人들이 原州를 지나는 길에 지은 것, 또는 原州胎生인 詩人들의 詩吟, 書藝 文集등이 오늘까지 남게 되었다

#### 第1節 言 論

原州地方에 新聞이 普及된 것은 1925年頃 當時 柳 得春 元 周默등이 東亞日報 原州支局을 新設하고 新聞 普及業務를 開始하면서 부터였다. 당시 國內에서 發行된 新聞으로는 朝鮮日報, 東亞日報, 每日新聞 등이 이 地方에 普及되었다. 8.15解放은 3千萬同胞에게 感激과 歡喜를 주었다. 自由와 獨立의 만세 소리는 天地를 震動하였고 이러한 民族의 感激의 歡喜와 動向을 알리는 傳單은 벽보 筆寫新聞등으로 發行하게 되어 京鄉各地를 莫論하고 도처에 등장하였다. 오래동안 日帝의 쇠사슬아래 言論의 自由를 잃고있던 당시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拘碍됨이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速成新聞들이라 그 內容이 아무리 貧弱할지라도 大衆의 耳目과 關心을 모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素朴한 民衆心理를 土臺로 活字化된 新聞이 登場하였으니 社會에 끼친 영향이란 絶對한 것이었다. 朝鮮人民報가 1945年 9월에 재빨리 登場하여 高級紙를 使用하면서 舊每日新聞의 보급망을 확보하여 共產主義를 宣傳하고 左翼系로의 統合을 宣傳하였다. 겨우 그해 11월에 접어들어서 朝鮮日報과 東亞日報가 重刊되어 民族陣營의 新聞으로 登場하여 左翼系新聞인 朝鮮人民報의 허위성을 猛打하기에 이르렀다. 12月 29日의 信託統治의 뉴스가 傳해지자 新聞도 左右로 確然히 分立되어 新聞史上 심각한 左右 對立相을 露呈하였다. 이때 軍政當局은 1946年 5월에 登錄法을 公布하여 共產黨系列의 新聞은 抑制하였으므로 以後부터 言論界가 淨化되고 中立을 標榜하는 新

間도 그 位置를 維持하고 超然한 立場에 설수 있게 되었다. 原州에서는 1948년부터 中央에 日刊新聞과 東洋通信이 登場하였는데 政治에는 되도록 멀리하면서 地方의 뉴스만 忠實하러 하였다. 이어서 合同通信이 들어왔고 戰線新聞까지 들어와서 한때 原州에는 地方記者가 百餘名은 된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動亂以後에는 中央의 日刊紙를 비롯하여 무려 20餘種의 新聞 通信支局이 설치되어 이에 따른 地方支局 記者들도 더욱 늘어났다. 그보다 앞서 원주에서는 月刊雜誌로 「署光」이라는 冊이 出版되었다. 張潤, 張壹淳, 兩氏의 主動으로 出刊이 始作되었으나 2회를 발간하고 6.25動亂으로 中斷되고 말았다. 그후 江原道內에서 唯一했던 江原日報가 春川에서 發行되었으나 6.25動亂으로 諸般施設이 燒失되고 말았기 때문에 再建이 不可能하였다. 1947年 11月頃에 收復과 때를 같이하여 原州에서 發刊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때 李止淵이 1,000만원, 安鍾漢이 1,000만원, 李容萬, 洪範憲 등이 500만원 式을 合資하여 原州에다 江原日報社를 施設하고 發刊하기 始作하였다. 이때 名譽社長으로 金字鍾, 專務取締役으로 李容萬, 總務部長에 趙漢珪, 編輯局長에 嚴圭奭 記者에 朴永祿 등 諸氏였다. 그러나 不過 2年밖에 안되어서 江原道廳이 春川으로 收復하므로서 亦是 江原日報도 春川으로 들어가게 되어 이때 洪昌變에게 引繼되었다. 그後에 原州에서는 「月刊江原」이라는 雜誌가 出版되었고 「現代江原」이라는 雜誌도 한때 原州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후 民主黨이 執權하게 되자 言論機關의 登錄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더욱 亂脈相을 보이는가 하면 本社記者를 除外한 支社 支局의 記者가 늘어만 갔다. 그 中에는 他人의 비행을 內探하여 公갈하고 官吏의 부정을 捕捉하여 金品을 갈취하는 등 似而非 記者가 우글거려 社會의 地탄을 받기도 하였다. 5.16 革命이 일어나 비행이 두드러진 記者들의 淘汰가 사적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言論法의 엄격한 施設基準이 마련되자 地方新聞은 1961年 5月 26日 일제히 整理되자 地方의 支社 支局과 地方記者도 整理하였다.

(1) 6.25動亂으로 原州에서 續刊하던 江原日報는 春川으로 收復하므로 原州에는 江原日報 原州分室을 두었다.

(2) 中央紙를 普及하는 新聞支局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신문 원주지사

原州市 平原洞 194番地에서 李明世가 支社長으로 普及部數는 約 185部다.

(나) 경향신문 원주지국

原州市 中央洞 140番地에서 韓永熙가 支局長으로 約 1,500部를 普及한다.

(다) 중앙일보 원주지국

原州市 平原洞 349番地에서 김장용이 支局長으로 約 3,800部를 普及한다.

(라) 한국일보 원주지사

原州市 中央洞 63番地에서 張振榮이 支社長으로 約 2,000部를 普及한다.

(마) 동아일보 원주지국

原州市 中央洞 140番地에서 李錫載가 支局長으로 約 1,800部를 普及한다.

(바) 조선일보 원주지국

原州市 平原洞 348番地에서 金東玉이 支局長으로 約 3,000部를 普及한다.

(사) 신아일보 원주지국

原州市 中央洞 181番地에서 李秉瓚이 支局長으로 約 600部가 普及된다.

(아) 현대경제일보 원주지사

原州市 中央洞 60番地에서 白完基가 支社長으로 約 220部를 普及한다.

(자) 일요신문 원주지사

原州市 中央洞 60番地에서 白 完基가 支社長으로 約 1,100部를 普及한다.

(차) 독서신문 원주지사

原州市 鶴城洞 203의 19番地에서 李 錫龜가 支社長으로 約 1,000部를 普及한다.

(카) 강원일보 원주지사(地方紙로서는 道內에서 강원일보 뿐이다)

原州市 園洞 5番地에서 安 光勲이 支社長으로 約 2,400部를 普及하고 있다.

(3) 原州言論團體

(가) 原州의 記者團은 新聞支社 支局長 및 記者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그 運營에 있어 相互協助 하므로서 地方 言論暢達을 기하자는 目的下에 1945년에 創立되었다. 1950年 6.25動亂으로 記者團은 自然 解體되었는데 1951年 다시 같은 취지에서 再組織이 되었다. 그러나 그後 新聞支局 經營者보다 記者들이 核心이 되어 記事 取材와 報導에 있어서도 共同步調를 취하하는데 合議하고 合同的인 業務를 취하다 시피 하였다. 5.16 軍事革命으로 이들 團體는 解體되고 支局 支社 經營者 記者들을 總網羅하여 原州 記者協會를 組織하였다. 그러나 그후 一部の 離脫등으로 支社 支局經營者の 團體로 原州 新聞人協會로 組織하여 오늘에 이른다.

(나) 原州新聞記者俱樂部

百餘名을 넘던 新聞記者數가 亂脈相을 露呈하여 오던 것이 5.16革命으로 整備가 되고 各社에서 1名씩의 有給駐在記者를 두어 質을 높이는 한편 記者自身들의 體貌와 矜持로 社會의 지위와 信任이 한결 높아졌다. 韓國記者協會가 組織됨에 따라 原州에도 記者俱樂部가 1964년에 設立되었다.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地域社會 發展에 貢獻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 이 크럼의 會員數는 原州에 兩放送局記者와 地方紙인 江原日報 記者 그리고 中央에 各月刊紙 原州駐在 記者 등 15名이며 現在 幹事로는 李 海璋 記者가 在任하고 있다. 記者團의 幹事는 各社에서 巡番으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會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俱樂部 連絡事務室은 原州市廳 2層에 자리하고 있다.

會 員 名 單

중앙일보 기자 趙 廣 熙

동아일보 기자 李 在 華, 李 海 澤

신아일보 " 徐 玉 洙

강원일보 " 沈 世 旭, 孫 鍾 辰

한국일보 " 吳 雲 泳

조선일보 " 金 世 竣

서울신문 " 鄭 俊 敎

경향신문 " 朴 勝 浩

현대경제일보 方 富 成

K.B.S 기자

M.B.C 기자

李 完雨, 韓 基海, 韓 壽煥

劉 弘一, 元 鍾默, 權 寧門

(이상 15명)

신 문 보 급 현 황(원주시)

(1975. 5. 현재)

등별	구분	강원 일보	경향 신문	동아 일보	대한 일보	서울 신문	조선 일보	한국 일보	중앙 일보	신아 일보	서울 경제 신문	현대 경제 일보	기 타
73		1,149	1,001	1,822	474	1,717	2,579	920	1,728	546	24	138	
중	평 원 동	121	71	105	28	109	150	47	42	33	—	15	
중	앙 동	142	85	153	42	152	107	82	69	49	—	36	
원	인 동	169	147	225	76	165	251	125	252	68	—	43	

第5編 教育・文化

구분			강원 일보	경향 신문	동아 일보	대한 일보	서울 신문	조선 일보	한국 일보	중앙 일보	신아 일보	서울경 제신문	현대경 제일보	기 타
동별	일	산	75	116	145	42	173	288	102	231	54	10	12	
	개	운	69	58	127	28	158	62	81	94	43	2	1	
	명	륜	68	125	114	28	140	223	49	84	51	2	4	
	단	구	43	39	87	21	131	185	41	55	34	—	1	
	학	성 1	69	68	133	53	123	166	89	212	38	4	7	
	학	성 2	68	47	76	22	101	143	46	66	26	1	2	
	단	계	22	53	61	30	63	70	24	52	25	—	1	
	우	산	75	29	—	14	65	147	61	45	—	—	3	
	태	장 1	4	46	136	19	65	130	31	55	23	5	4	
	태	장 2	43	37	124	25	27	129	29	45	15	—	2	
	봉	산 1	40	29	156	25	79	180	56	78	25	—	5	
	봉	산 2	44	46	127	25	87	148	46	48	40	—	1	
	행	구	1	1	12	6	50	50	3	11	8	—	1	

신문 보급 현황(원성군)														(1975. 5. 현재)	
구분	강원 일보	경향 신문	동아 일보	대한 일보	서울 신문	조선 일보	한국 일보	중앙 일보	신아 일보	서울 경제	현대 경제	월간 신문	주간지	기	타
71	766	38	23	102	631	368	119	97	2	2	6	—	57	903	—
72	905	83	33	135	719	484	243	87	25	2	2	—	700	—	—
73	712	74	17	—	536	394	127	86	52	—	—	—	410	—	—
소 초	111	1	12	—	56	78	44	—	—	—	—	—	99	—	—
호 저	73	—	—	—	37	68	—	24	—	—	—	—	60	—	—
지 정	61	—	—	—	44	32	—	—	—	—	—	—	14	—	—
문 막	177	67	—	—	42	67	15	39	52	—	—	—	—	—	—
부 론	96	5	—	—	32	32	—	7	—	—	—	—	40	—	—
귀 래	42	—	—	—	71	42	35	—	—	—	—	—	43	—	—
흥 업	30	—	—	—	90	10	—	—	—	—	—	—	70	—	—
판 부	46	1	—	—	82	24	1	—	—	—	—	—	37	—	—
신 립	76	—	5	—	82	41	32	16	—	—	—	—	47	—	—

第2節 放 送

原州地方은 1,288m라는 높은 雉岳山과 白雲山에 둘러싸인 盆地 地帶라 電波捕捉이 잘 안되는 난청지구였다. 과거 倭政때 부터 普及된 라디오 청취율이 他地에 比하여 踏歩狀態를 벗어나지 못한데다 6.25動亂 後에는 더욱 청취율이 낮아졌다. 1956年度에는 中央에서 移動放送車를 가지고 放送中繼를 하기도 했으나 그것도 여이치 못하였다. 그 後에 原州市 中央洞에서 鄭海崙이 有線放送局을 新設하고 스피카 장치를 하여 電波를 有線으로 送電하는 등 原州의 放送은 말이 아니었다. 그러던 中 市民들은 難聽地區를 벗어나기를 갈구하고 있었으며 한편 放送局 유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64년에 서울中央放送局(KBS), 原州放送局이 新設되었고 1970년에는 文化放送 原州放送局이 新設되어 두개의 放送局과 TV中繼所를 白雲山에 設置하므로 난청은 해소되었다.

(1) 韓國放送公社 原州放送局

原州放送局은 原州市 台庄 1洞 807番地에 위치하고 있으며 公共 방송으로서의 啓導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국민총화를 이룩하고 유신이념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1964년 9월 1일



호출부호 HLCW, 주파수 1,190 KHZ, 출력 1KW로 개국하였으며 1965년 7월 30일 영월 중계소를 개설하여 호출부호 HLCV, 주파수 540 KHZ, 출력 1KW이며 1967년 5월 1일 주파수를 1150KHZ로 변경하고 1970년 4월 22일 백운산 TV 중계소(출력2K로) 개설하였으며 동년 12월 27일 寧越 無人 TV·R(출력10W)를 신설하였고 1971년 1월 5일 중앙방송국 업무부소속 원주 TV 사무소가 개소되어 춘천방송국으로 부터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4월 19일 평창중계소가 호출부호 HLCC, 주파수 560 KHZ, 출력 1KW로 개소되었고 6월 30일 上東무인 TV·R(출력10W)이 신설되었으며 73년 3월 1일 한국방송공사로 발족됨과 동시 기구를 확장하여 업무과, 신설과, 중앙방송국 TV 원주사무소와 백운산 TV중계소를 흡수하고 동년 平昌 無人 TV중계소를 신축하였으며 1974년 4월 14일 청사를 증축하고 7월 1일 1KW출력을 10KW로 증강 하였으며 11월 7일 平昌 無人 TV 중계소(3W) 설치하고 11월 15일 함백무인 TV중계소(3W)가 설치되었으며 1974년 12월 업무과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며 지방고유 문화를 발전 보급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잡급 1名으로 40名の 직원이 근무하며 1일 중앙프로는 18시간 13분이고 자국방송 시간은 2시간 47분으로 자국 주요방송은, 지방소식, 전도방송, 새마을 방송, 향토문화 육성 등의 방송이며 관할구역으로 영월중계소에 영월무인 TV·R 상동 무인 TV·R 쌍용무인 TV·R, 예미무인 TV·R이며 평창중계소에 평창 무인 TV·R 과 백운산 TV 중계소를 관할하고 있다.

## (2) 文化放送株式會社 原州放送局

原州文化放送局은 原州市 仁洞 242번지 가톨릭센타안에 위치하고 HLSX; 원주MBC 출력 1KW, 주파수; 1,300KHZ로서 1970년 7월 9일 原州放送株式會社로 設立되었다. 初代 代表理事로는 李 養鎬가 就任하였으며 9월 18日 無線局 許可取得(1KW)하여 19日에 開局했고 1971년 9월 9日 原州 文化放送株式會社로 상호 변경하였고, 10월 4日 嚴 漢俊이 社長職務代理로 就任했으며 1972년 1월 19日 代表理事로 嚴 漢俊이 就任하고 1973년 UHL STL을 시설하며 1974년 12월 30日에 無線局 변경 허가를 취득(10KW)하여 현재에 이르며 전파방송으로 행하는 商業廣告 및 文化 宣傳業을 통하여 기업 운영의 圓滑을 기하고 謙讓, 自立, 節制를 社是로 삼고 일하며 프로 제작에 있어 國家觀確立을 위한 放送內容과 새마을運動을 積極 推進하기 위하여 꽃피는 새마을 프로젝트작에 力點을 두고 全 로컬프로를 통하여 可及的 市民의 참가를 적극 권장하므로 지역사회의 問題點을 解決하고 우리생활을 보다 合理化하는데 努力하고 放送編成上에 있어 특히 다음 프로 構成은 生産的으로 風土改善을 위해 意義있는 프로로 ① 새마을 프로는 都市洞 農村洞에 밀착된 計劃에 의해 力點의이고 鼓舞的인 內容에 중점을 두고 ② 반장덕프로는 市民生活의 改善 또는 是正을 必要로 하는 內容으로서 市民의 소리를 反映하고 ③ 내고장 메아리프로는 내고장에서 惹起되는 諸問題中에서 政策的인 것이나 汎市民의인 先益問題에 관계된 事案등 大局의 見地에서 論說條로 建設的面에서 反映하고 ④ 안녕하세요 프로는 交通 氣象 突發事案등 1日生活에 直結되는 問題點을 中心取材로 하여 金금症을 解決하고 ⑤ 주부휴게실 프로는 主로 家庭主婦들을 相對로 안房 生活改善 또는 健康面 育兒 등 家庭生活에 도움을 주는데 力點을 둔 계획프로이며 방송현황은 서울 MBC의 基本프로 編成指針에 立脚하여 패키지, 리레이, 로컬 별로 편성하고 당사에서 作成된 週間放送計劃表에 따라 1日放送 自體製作에 力點을 두어 製作하며 방송프로 製作比率는 1日總放送時間 19시간 30분이며 週間 總放送時間은 136시간 10분이고 放送運行的 指標는 經濟秩序 確立을 위한 프로製作에 重點을 두며 企業取材 및 立體報道로 迅速 正確을 기하고 社會發展相을 反映시켜 報導의 多樣化를 기하며 아나운서는 自律的인 研究로 ANN·MENT의 淨화와 各自의 個性을 開發하여 適性을 살리어 맑고 부드러운 放送에 全力함을 목적으로

## 第5編 教育・文化

하며 技術現況은 隨時 施設點檢을 통해 事故의 未然防止와 自體研究의 計劃을 樹立하여 전파지식 및 그 技術향상에 努力하고 기획있는 데로 先進放送社를 探問하여 放送技術을 研鑽하며 審議室 現況은 放送倫理 規程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事前審議를 통해 言論의 自律淨化에 힘쓰고 月間放送 계획과 특집프로에 대한 企劃에 힘쓰고 있으며 原州 MBC는 政府公示事項, 時事, 敎養, 音樂, 演藝, 스포츠, 生産改善등의 文化에 屬한 라디오 방송내용에 힘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라디오 및 T.V 現況(원주시)

(1974년 末 現在)

구분	총 수	라 디 오	T V	구분	총 수	라 디 오	T V
72	16,653	14,941	1,712	학 성 동	1,757	1,359	398
73	18,208	14,781	3,427	단 계 동	589	524	65
평 원 동	901	728	177	우 산 동	518	491	27
중 앙 동	1,082	840	241	태 강 1동	899	848	51
원 인 동	1,571	1,147	424	태 강 2동	888	670	218
일 산 동	1,436	1,067	369	봉 산 1동	1,433	1,151	282
개 운 동	—	1,243	218	봉 산 2동	1,430	1,089	241
명 료 동	1,206	1,080	126	행 구 동	327	326	1
단 구 동	295	235	60				

라디오 및 T.V 現況(원성군)

(1974년 末 現在)

구분	총 수	라 디 오	T V	구분	총 수	라 디 오	T V
72	12,126	11,909	217	부 룬	1,313	1,278	35
73	11,660	11,409	251	귀 래	840	827	13
소 초	1,949	1,909	40	홍 업	886	870	16
호 저	1,376	1,350	26	관 부	735	709	26
지 정	1,309	1,279	30	신 립	1,515	1,485	30
문 막	1,737	1,702	35				

공연장 現況

(1974년 末 現在)

구분	공연장수	관 랑 석	년간관람객	공 연 건 수				시 민 1인 당년관람횟수
년도및업체				방 화	외 과	기 타	계	
72	5	4,368	576,840	—	—	—	—	
73	5	4,468	691,655	259	255	9	523	5.4
시 공 관	1	1,093	120,346	38	54	3	95	
아 카 데 미	1	999	96,820	58	10	—	68	
문 화 극 장	1	864	97,612	93	6	2	101	
원 주 극 장	1	648	166,994	120	1	1	122	
군 인 극 장	1	864	129,200	33	57	—	90	

## 第3節 文化事業機關

### (가) 原州文化院

原州文化院은 1950년에 처음으로 駐韓 美國公報院의 支援으로 原州 聖愛保育院長 元 鴻默이 駐韓 美國公報院 原州文化院이라는 看板을 걸고 初代院長으로 元 鴻默이 就任하면서 發足を 하였다.

그後 運營難으로 有名無實하게 되자 李亨鎭이 2代 院長으로 있으면서 視聽覺教育事業으로 16mm 映寫機를 가지고 巡廻映畫를 實施하였으나 美國公報院의 支援이 끊어지게 되자 運營難으로 다시 有名無實하게 되었다. 그후 第3代로 申範植이 맡아 運營하려 하였으나 6個月만에 看板조차 없이 되었다. 當時 總務로 있던 姜信達이 再組織을 해서 第4代院長으로 就任은 하였으나 認識이 없는 原州地方으로서는 文化院事業이 不可하였다. 1年間을 映寫機 1臺만을 가지고 巡廻映畫 등으로 運營을 하려했으나 支援不足으로 中斷되었고, 事務室마저 없이 되었다. 1962年 7月 10日에 黃柱益, 元鴻默, 李圭祥, 朴忠模, 文昌模, 白完基, 金潤洙, 康亨雲, 丁海東, 등 諸氏가 發起하여 社團法人 原州文化院을 再組織하고, 院長에 黃柱益이 就任하고 理事에는 朴忠模, 文昌模, 白完基, 金潤洙, 李圭祥, 元鴻默, 康亨雲, 丁海東, 鄭海崙, 등 鄭雲 等 諸氏로 文化公報部에 認可를 얻어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에 私團法人登錄을 하므로 發足을 하고, 啓導事業과 地方文化向上을 爲한 文化院 事業을 始作하였다. 처음에 臨時 事務室을 平原洞 金永培家 2層 1間을 月賃로 쓰며 各級學校와 農村을 巡廻하며 反共映畫 및 文化映畫를 上映하여 視聽覺教育에 힘쓰는 한편 國家施策을 弘報하므로써 市, 郡에서 補助를 얻게 되었다. 1964年 年次總會에서 一部理事陣이 바뀌었다. 院長은 留任하기로 하고 理事는 金潤洙(留任) 康亨雲(留任) 丁海東(留任) 文昌模(留任) 元鴻默(留任) 李寬永(新任) 金鍾洛(新任) 韓昇龍(新任) 嚴昌崙(新任) 金榮注(新任)이고, 鄭大植과 權五祥이 監事로 選任되었고, 事務室은 市公館 2層으로 옮기고 이때부터는 市公館長 鄭雲鶴의 協助로 院內活動도 하기에 이르렀다. 地方人士들의 文化院事業에 對한 認識度도 점차 높아가서 活動하기에 도움이 되었다. 이때 原州文化院의 院舍建立推進委員會를 構成하고 推進委員長으로 元鳳勲이 手苦를 하여 原城郡과 協議가 되어 金景山郡守의 承認으로 郡廳 垆地 150坪을 無償으로 無期貸與를 받고 文化公報部에서 2百萬원의 建築費支援을 받으므로써 新築을 하기에 이르렀다. 1968년에 起工을 하였으나 基金難으로 6年만인 1973년에 2百坪 建坪으로 完工을 하였다. 總工事費 1千3百萬원으로 롱크리트 스타일로 하였으며, 映寫室과 會議室, 展示室 등 文化院 事業은 勿論 多角度로 使用되게 되었다. 그후 文化院事業은 發展一路에 있어 現在는 理事會長에 金潤洙 理事에는 康亨雲, 金鍾洛, 高實女, 嚴昌崙, 嚴漢俊, 宋喆淳, 禹一命, 李寬永, 李秉兆, 丁海東, 崔鎭求, 韓昇龍이고 監事에는 吳雲永, 鄭大植이며 院長에는 黃柱益이 繼續 留任하고 있으며 會員은 253名이고 婦人會, 農民會, 文人會, 學生會 등 많은 會社를 組織 育成하고 있으며 映寫活動, 展示活動, 演壇活動, 文化活動, 其他 發刊活動과 讀書活動 文化財 保護活動을 하고 있다.

歷代 院長에는 初代 元鴻默, 2代 李亨鎭, 3代 姜信達, 4代 申範植 5.6.7.8.9.10代 黃柱益이 繼續하고 있다.

#### (나) 가톨릭 센터

原州 가톨릭센터는 天主教 原州教區에서 原州市民의 福祉 및 文化向上에 기여하고자 原州市 仁洞 242의 16번지에 734坪의 建物을 세웠다. 1968年 7月 12日 開館을 하고 각종 회의, 강연회, 예술행사,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하여 市民敎養과 趣味를 위한 會社活動 등으로 使用되고 있다. 이 센터는 原州教區長 池學淳主敎의 努力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利用이 되고있다. 이 센터를 맡아 運營하는 運營者는 館長인데 그동안 歷任한 館長은 다음과 같다. 初代 金榮注, 2代 柳浩, 3代 趙泰遠, 4代 金龍涉, 5代 梁大錫神父 6代 申東翼(현재)이다.

#### (다) 原州 基督 青年 會館

原州青年會館은 原州市 一山洞 159번지에 위치하고 1958年 3月 宣敎師 이요한 牧使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監理敎 所屬機關으로 이 고장 일대에 基督青年 指導 및 訓練과 基督敎 學生指導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선도와 사회교육을 시키기 위한 곳으로서 2,309坪의 垆地위에 95坪의 건물, 운

## 第5編 教育·文化

영 이사회에 이사 11名, 관장 1名, 종업원 3名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르고 진실하며, 믿고 협력하고, 섬기고 부지런하며 용감하고, 개척하는, 젊은이를 양성하자는 목표 아래 각종 씨름봉사활동, 선교활동, 교육활동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운동장을 마련하여 시민체육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매년 江原道 테니스대회를 주최하기도 하는 이 청년회관의 역대 관장은,

初代 이 요한牧師가 2代 3代까지 재임하였고 4代 羅 元容牧師 5代 민 병열목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다.

### (라) 原州市立圖書館

原州市立圖書館은 公立圖書館으로 原州市 園洞 253번지에 위치하며 1966年 3月 10日 市立圖書館 建立 계획을 세우고 原州市 行政諮問委員會 決議에 따라 1966年 10月 11日 工事に 착수 1969年 4月 11日 총공사비 8,847,000원을 들여 준공을 보아 圖書 1,197卷을 구입하고 1969年 6月 14日 개관을 보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의 열람실은 일반 열람실과 참고 열람실로 구분하며 198m<sup>2</sup>의 면적에 146席의 좌석과 6,535卷의 장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年間 이용자수는 남자 18,868名, 여자 13,932名으로 32,100名이다. 도서 열람현황을 보면 6,935卷의 장서中 4,372卷이 열람되어 63%의 비율을 나타내고 도서 수입현황은 年間 기증도서 570卷 구입도서 348卷이다. 도서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역대관장은 初代 김 호열, 2代 지 민환, 3代 정 관철 이다.

총류 389卷 철학 287卷 종교 102卷 사회과학 922卷 순수과학 197卷 기술과학 393卷  
예술 131卷 언어 140卷 문학 1,460卷 역사 381卷 아동도서 488卷 간행물 2,045卷

계 6,935卷

## 第4節 藝總 原州支部

藝總이란 藝術總聯盟을 말함인데 藝術部分 5,6個 團體가 모여 社團法人體로 登錄을 하고 中央에 本部和 各道, 市에 支部가 있다. 原州에는 1958년에 詩人 朴 一松에 의하여 原州 藝總이 發足하게 되었다. 朴 一松이 文人協會를, 李 鳳浩가 演劇協會를, 洪 在榮이 音樂協會를, 金 潤植이 美術協會를 組織하여 原州 藝總을 發足하게 하였는데 初代 支部長에 朴 一松이 當選되었다. 이때부터 原州에서는 많은 藝術行事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原州라는 小都市이면서 消費都市에서는 藝術의 發展이란 極히 어려웠기 때문에 때로는 隘路도 많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原州 藝總을 이끌고 나온것은 朴 一松의 힘이 컸다. 이제까지의 支部長을 歷任한 사람은 初代에 朴 一松, 2代 柳 浩, 3代 崔 炳烈, 4代 崔 弘遠, 5代 方 大勛이었으며 文人協會長은 繼續 朴 一松이었고 演劇協會長에는 처음에 李 鳳浩였으나 張 相淳이 맡은 以後 現在까지 協會長을 맡고있다. 美術協會亦是 金 潤植 다음에 崔 弘遠이 協會長을 맡고 있으며, 音樂協會는 처음에 洪 在榮이었으나 後에 尹 壽哲이 再組織을 하였다가 現在는 鄭 夏春이 맡고 있다. 原州도 앞으로 藝術同好人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發展이 있을 것이다. 寫眞作家協會가 가장 뒤늦게 組織이 되었으나 現在는 活動的이다. 初代 會長은 金 命郁이었고, 現在는 정 중진이 맡고 있다.

### (1) 文 學

#### (가) 古代文學

古代文學 즉 漢詩, 鄉歌, 歌辭, 時調 등의 韓國 古代文學의 패턴(모형 또는 전본)으로 發展해 오는 동안 原州에 관계되었거나 출생한 文人들의 活動狀況을 그 대상으로 한다. 韓國 문학에 대한 地方文學의 考察은 原州鄉土性이 어떻게 地方문학에 貢獻했으며 現時點에서 原州文學의 傳統 및 그 足蹟(발자취)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데 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古代文學에 있어서 原州文學이 뚜렷한 성격을 가진 것은 없다. 韓國 문학사의 줄거리에서 原州出身 作家들의 活動을

참가하면 原州地方 詩人들의 生涯와 서술한 詩를 參考로 다음에 기록해 보기로 한다.

孫谷 李 達은 1561年~1618年代 사람으로 雙梅堂 李 詹(이첨)의 후예로서 문벌이 높은 집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原城郡 富論面 孫谷里였으나 妾의 所生이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세상에 나설 수 없는 處地였었다. 왜냐 하면 당시에는 아무리 양반 자손이라 해도 妾의 所生에게는 사회 진출의 문이 굳게 막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李 達先生은 원체 文章이 뛰어났던 관계로 漢吏學館에서 일을 보게되기는 했으나 뜻에 맞지않아 그 직을 버리고 鄉里인 孫谷里로 돌아와 詩文으로 세월을 보냈다. 날 때부터 天才이고, 神童이라 불리는 先生은 성미가 몹시도 까다롭고 괴팍한데다가 항상 사람을 사귀는 데도 손해만 보아왔고 이 때문에 詩文에만 온 精神을 기울여 原州 出身의 大詩人으로 李朝末葉에 三唐詩人으로 또는 平民詩人으로 稱呼까지 받았으며 4百餘年 前 江陵에 태어나서 27歲에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許 蘭雪軒과 洪 吉童傳으로 有名한 許 筠 男妹는 李 達先生이 가장 아끼던 弟子였다고 한다. 先生은 庶子出身이란 點에서 항상 自虐을 하하시피 한 生活은 平生을 不幸한 생애를 마치게 하였다 한다. 先生이 읊은 詩 가운데서 一首를 추려 여기에 옮겨 본다.

화려했던 옛대궐이 풀속에 묻혔으니  
석양에 누웠구나  
이제야 뉘 알라마는  
단풍놀이 좋을시고

꽃뜰던 마소들만  
나라망친 슬픈 원한  
강산이 물드니

孫谷 元 天錫은 原州 元氏로서 고려 말의 著名한 학자였다. 은후 강직한 성품인지라 고려가 기울어지고 李 成桂 一派가 정권을 잡자 강직한 孫谷先生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인 原州에 돌아와 치악산 깊숙히 숨어 野人으로 손수 밭을 갈아 아버이를 봉양하면서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 李 成桂의 세째 아들인 太宗은 芳遠이라 부르던 少年時節에 孫谷先生에게서 글을 배웠던지라 王位에 오른 뒤 人材를 구하던 中 옛 스승인 先生을 불렀으나 拒絶하였다. 太宗은 雉岳山 강림사에 왔던길에 孫谷先生을 찾아 石經洞까지 들렀으나 대쪽같은 性品을 가진 先生은 종적을 감추고 나타나지를 안아 종내 先生을 못찾고 돌아갔다. 한편 先生은 임금의 보내고 난 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생각하기를 太宗임금을 만나게 되면 다시 政事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였으나 그렇다고 나라의 임금님이 손수 찾아 오신 것을 만나주지 않음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한양에 가서 임금을 뵈겠다고 청했다. 허나 대궐의 守門將이 볼때 대단치 않은 시골 선비로 생각하고 拒絶하였다. 孫谷先生이 말하기를 너는 들어가서 임금께 여주어라. 임금께서 나를 스승으로 맞으시겠다던 여기까지 나와서 禮로서 맞을 것이요 臣下로서 만나시겠다던 입궐을 허락하시라 전하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守門將은 시골 선비로만 생각하였든 老人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즉시 대궐에 告하니 太宗은 孫谷先生일이 틀림없다 생각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너무반가와서 그 자리에서 先生을 스승의 禮로서 모시고 들어와 其間의 회포를 풀었다. 하루는 太宗이 말하기를 스승은 나를 도와 政事를 살펴 달라는 要請에 이제 내가 나와 무엇을 하겠읍니까. 다시 고향에 돌아가 餘生을 보내겠읍니다 고 굳게 거절하고 原州 雉岳山에 돌아온 先生은 草野에 묻혀 餘生을 보내다가 平生을 마쳤는데 先生의 遺骸는 原州市 杏邱洞 石經村에 安葬되었고 그후 朝廷에서는 「고려국자 진사 원천석 지묘」라는 碑石을 내렸는데 지금도 그 碑와 墓所가 保存되어 있다. 剛直하게 餘生을 마친 孫谷先生은 生前에 經史六卷을 지어 계속에 깊이 감추었는데 돌아갈 때 그 子孫들에게 책을 열지 말라고 遺言하였다.

子孫들은 遺言에 따라 柩를 열지 않고 지켜 내려왔는데 曾孫代에 祭祀를 지내는 자리에서 先祖의 遺言이라고는 하나 오래 되었으니 열어보라고 의문하여 柩를 열어본 즉 六卷의 經史가 있었다, 經史에는 高麗末葉의 歷史가 똑바로 적혀 있었다, 즉 李氏朝鮮에 와서 그릇 傳해내려 오던 高麗末의 朝廷內幕이 바르게 적혀있는지라 이것을 본 後孫들은 自身들에게 禍가 미칠까 두려워한 나머지 아까운 史料를 불태워 버렸다는 것이다. 그때 겨우 詩集 2卷이 남아서 後世사람들이 모르던 일들을 바로잡아 주었고 그중에는 僞 辛 晫의 아들이라 傳하던 禍王이 辛 晫의 아들이 아니고 공민왕의 아들이라 밝혀놓은 대목도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부끄러운 일은 58年 여름에 어느 盜掘犯이 先生墓의 寶物을 노려 墓의 垣壁을 파들어가려 했으나 石棺이 있는데다가 事前에 發見되어 별일 없이 원상으로 복구되었다. 墓 옆에는 史蹟碑가 서있는데 허 미수先生이 碑文을 짓고 이 명은先生이 글씨를 썼다. 紇谷이 남긴 詩中에서 한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興亡이 有數하니 滿月臺도 秋草로다.

五百年 王業이 牧笛에 불쳐이니

夕陽에 지나는 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눈마저 휘여진 대를 뒤라서 굶다던고

굶을 節이면 눈속에 푸르를소나.

아마도 歲寒高節은 대뿐인가 하노라.

觀瀾 元 昊先生은至今으로 부터 5百20餘年前 首陽大君이 초카되는 端宗을 王位에서 몰아내고 上王이란 허수아비로 만들어놓자, 死六臣이 복위를 꾀하다가 주륙당한지 얼마 후의 일이었다. 조정은 處刑당한 死六臣 一家 친척까지도 찾아서 滅殺하고 다시 平時에 죽은 여섯명의 忠臣과 친분이 있던 사람까지 찾아서 죽이고 있었다. 觀瀾은 世宗 5年에 式年試에 及第해서 文宗 때 集賢殿 直提學에 이르렀고 世祖가 王位를 篡奪하자 世祖의 橫暴가 甚하여 觀瀾先生은 조정에서 물러나 고향인 原州로 와서 내남송 무항골에서 숨어 있었다. 이때 同行한 권 침, 둔 재, 先生과 무항골로 부터 所草面 屯屯里를 往來하며 지냈다. 산 좋고 물 맑은 이곳에 정착한 先生은 世上에 그 이름을 숨기고 端宗을 사모하여 觀瀾石室을 지어 起居하다가 端宗의 비참한 최후를 듣고 杜門不出하였다. 生六臣의 한사람으로 農本思想을 펴 屯屯里에 권 침, 둔 재 先生과 月計圖를 만들었으며 도망해온 곳이라 해서 둔촌이라 하다가 둔돈마을이라고 하였다 한다. 先生은 端宗을 생각하는 時調 二首를 남겼는데 다음과 같다.

×            ×            ×	
간밤에 우든 여울	슬피우려 지내거라
이제와 생각하니	이미울려 보냈도다
저물이 저슬러	호리고저 나도 우려 보내니라
×            ×	
사무친 원한에	장강도 목메누나
갈꽃파 단풍은	차가와서 우수수
분명히 알거라	이곳이 귀양온곳
달밤에 혼백은	어디서 노는가

松江 鄭 澈은 1560年 2月 강원감찰사로 원주에 부임 翌年 2월에 다시 榮轉하여 朝廷으로 돌아

갔다. 松江先生은 작은 체구에 剛直한 성격으로서 義를 위하여서는 임금에게도 서슴치 아니하고 直諫을 하는 성품이라 그래서 壬辰倭亂때 임금의 미움을 사서 고생도 많이 하였으나 王命인 지라 끝까지 順命한 분이다. 그 후 草野에 무쳐 歲月을 보내다가 江原監察府로 拜命받고 부임以來 有名한 關東 別曲과 訓民歌等을 만들고 특히 兄弟訴訟을 名判하였다는 傳說과 함께 다음과 같은 詩가 있다.

×	×	×
강원도 백성들아 형제 소송하지마라	종기받기는 얻기에 쉽거니와	
어네가또 얻을 거시라 홀깃 홀깃 하느다		
×	×	×
아버이 사라신제 섬길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엇디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나) 現代文學

이 고장에 文壇을 말 한다는 것은 徒勞에 不遇한 일이다. 우리가 日常的으로 사용하는 文壇이란 독특한 文學形態를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한 概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行政區域이나 단순한 地方的인 名稱을 使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장에서 볼때 불과 손꼽을 수 있는 몇 사람의 文人을 들수 있다. 우선 趙宗淵翁은 數年前에 原州에 와서 佛心寺에 있으면서 佛教詩人으로 많은 活躍을 하여 널리 알려진 詩人이고 李重淵은 싱글벙글회 회장으로 『千年을 보는 눈』 『배꼽에도 부라자물』이란 冊을 發刊한 분이며 朴一松은 現代詩人으로 原州文協에서 中樞的인 役割을 하고 있는 분이다. 黃柱益은 原州社會에서 많은 文化財를 發掘하며 『내고장 내거레』라는 傳說集을 著述하고 雉岳文化를 42集 發行하고 家庭儀禮準則을 啓蒙 善導하며 現在 原州, 原城, 綜合鄉土誌 編纂 執筆하여 發刊에 注力하고 있다. 이러한 狀態에서 이 고장 文壇 育成論이 심심치 않게 유포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文人들의 作品活動을 圓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촉됨이 없이 作品製作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造成한다는 적극적인 與件이 時急한 問題이다. 비록 未成年인 學校 學生들의 文藝活動이긴 하나 各學校에서 發刊되고있는 校誌는 이 地方 文學活動에 溫床의인 구실을 다 해준 셈이므로 더욱 校誌發刊이 촉망된다.

### (2) 原州演劇協會

原州에서 至極히 아마추어적인 연극이긴 하지만 몇몇 靑年들이 뜻을 모아 8.15해방 이후 메마른 市民情緒를 순화해 보고자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던 옛이야기 같은 극단이 있었다. 李鳳浩, 張相淳, 元恒默 등이 主動이 되어 1946년부터 原州극장을 빌려 『산울림』이라는 연극을 하였고 이어서 山野劇會라는 이름으로 여러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후 현재까지 수 10편의 작품을 소개하기에 이르렀으며 現在는 張相淳이 演劇協會長으로 藝總事業에 一翼을 맡고 있다.

### (3) 로아노크市の 날

毎年 10月中旬에 淸明한 가을날 풍요의 季節을 擇하여 로아노크市の 날 行事を 全 市民이 잊지 않고 實施하고 있다. 只今으로 부터 8年前인 1967년에 美國 버지니아州 로아노크市와 우리 原州市와 자매결연을 한 이래 로아노크市에서는 原州의 날 行事を 年每 5月中旬에 舉市的으로 하고 原州에서는 로아노크의 날 行事を 實施하고 있다.

### (4) 軍都祭

原州 原城은 新羅時代부터 共히 軍都였다. 原州는 그 當時 北方經略의 要衝地로서 北原京이란 名稱에서 보듯이 所重한 待接을 받은 곳이다. 現在에도 交通要地로 發達한 新興都市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第一野戰軍司令部가 駐屯하고 있다. 國土防衛의 神聖한 所任의 中樞를 이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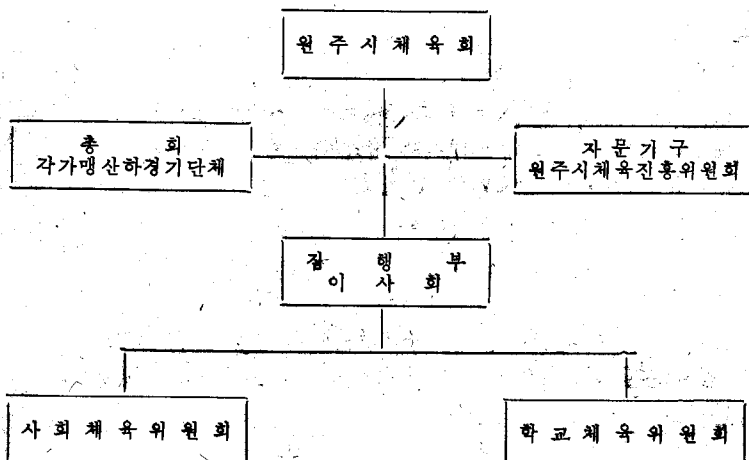
이 고장의 名譽를 되새기고 尙武精神을 昂揚하며 우리가 지녀온 才能과 叡智를 마음껏 發揮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軍官民의 結束을 敦篤히 하려는 뜻에서 原州文化院長 黃 柱益의 主動으로 軍都祭委員會를 結成하여 1973년에 처음으로 열었다. 每年 年例의인 民俗의 行事로 始作은 되었으나一回만으로 끝나고 말았다. 行事內容은 봉수 봉화로 시작하여 학생들의 촛불行進과 불꽃놀이, 祝鍾, 祝燈點火등 多彩로운 行事가 되었고, 本行事에서 飛行機 8台的 慶祝飛行을 비롯하여 歷代軍裝놀이 一軍司令部의 軍樂儀仗隊 示範・陸軍 軍樂隊 示範・고무풍선 날리기, 女學校學生들의 古典舞踊 마스게임 등의 行事와 新羅・高麗・李朝・現代에 걸쳐서 變貌해온 歷代軍服의 가장행열이 異色の이었다. 어린이들의 美術大會는 軍都祭답게 “國軍아저씨” 그리기가 主題였으며 豫備軍의 줄다리기와 全國 弓道大會 및 全國 時調競唱大會와 反共 포스터 展示會, 反共 글짓기, 反共 사진전시회와 힘의 象徵으로 복싱大會도 열여 江原道內의 唯一한 아마권투大會로 成長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延三日間을 完全히 祝祭의 도가니로 들어갔다. 더욱이 軍人劇場 앞 廣場에서 있었던 軍의 重武器 展示會는 異彩로웠다. 原州로서는 軍都祭는 民俗行事로 繼續되어야 할 것이다.

## 第5節 體育機關

### (1) 原州市體育會

市體育會는 原州市 一山洞 原州市廳 公報室內에 事務室을 두고 1955年 9月 1日 設立되었다. 體育運動을 汎 國民運動化하여 學校體育 및 社會體育의 振興으로 市民의 體力向上과 健全하고 明朗한 社會氣風을 진작 시키고 아울러 아마츄어 경기단체를 통솔 지도하고 優秀한 競技者를 養成하여 國威宣揚을 도모하되로서 民族文化 發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會는 학교 체육 위원회, 사회 단체위원회, 등 2개의 分科委員會와 산하 경기단체로 陸上聯盟, 蹴球協會, 수영 협회, 복싱聯盟, 弓道會, 태권도협회, 싸이클聯盟, 빙상연맹, 농구협회, 탁구협회, 테니스협회 등이 있다. 활동사업으로는 전반적인 체육운동의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각종체육운동 경기대회의 주최 및 주관 각종대회의 참가 및 유치, 각종체육 운동 행사의 관리지도와 육성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주요행사로는 전국 빙상대회 유치, 도민체육대회 유치, 아마복싱대회 유치, 배구대회 유치, 역전마라톤 대회등을 벌였으며 역대회장은 역대 原州市長이 自動的으로 就任하고 있다.

원주시 체육회 기구편성표





## ※ 원주시 체육회 임원명단

회장 정 기 훈(시장, 자동)

부회장 안 덕흠(교육장, 자동)

부회장 김성봉(대의원) 장 화순(진광교장)

전무이사 : 최 양종

이사 : 김승태, 김 학성, 송 철순, 양 창수, 엄 시용, 엄 창윤, 윤 종호, 우 일명, 정 준교, 한 승용.

감사 : 김 종호, 이 민희

### ※ 해외경기 출전 전적

## 복싱 부문

◎제 18회 올림피아(멕시코) 은메달 지용주(F)

◎아시아 경기대회(방콕) 금메달 박형춘(M)

◎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      지 용주(F)

◎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      박 형석(L. M)

◎제7회 아시아 복싱선수전대회(일본) 은메달 박 춘금(L.M)

## 펜싱 부문

○제7회 아시아 경기대회(태헤란) 은메달 신 동석(원고)

은메달 성기만( " )

◎일본국동경원정경기(1973년). 온메탈 (원고)

## 테니스부문

◎1972년도

전 일본 주니어 테니스대회(일본) 우승 권인자 김광

◎1973년도

전 일본 주니어 테니스대회(일본) 우승 김 남숙 차 명선

## ※ 각종 대회 전 적

## 펜싱부 문

○제4회 회장배쟁탈 전국 펜싱선수권대회(서울) 고등부—우승— 원고

◎제13회 전국 폐성 종별 선수전대회(광주) 고등부—우승— 원고

④제3회 문교부 장관기생탈 전국 펜성대회 고등부—우승— 원고

◎제6회 Y. M. C. A. 배쟁탈 고등부—우승— 원고

## 테니스 부문

◎1975년 육영수여사배 쟁탈

전국여자 테니스대회(서울) 여스부—우승— 원여고

◎1975년, 전 한국 테니스 선수권대회 여스부—우승 원여고

※ 기간 : 1975. 10. 7~10. 12

제 56 회 전 국 체 육 대 회

장소 : 대 구

테니스 ○여교부 3위 원여교

◎여자일반 3위 원주 O.B

배드민턴 ○남자일반 3위 원주시교육청

데 싱 ○남고부 · 사브르 준우승 원고

• 옛 때 우 승 원 고

區分되어 있으며 成人水泳場은 길이 50m 넓이 20m, 저수량 1,400톤이고 어린이 수영장은 길이 30m, 넓이 11m, 저수량 400톤이며 年間 利用者數는 約 25,000~30,000名이 된다. 市民 水泳講習會를 비롯하여 各種 講習會와 全國體典 江原道豫選 水泳大會 市民慰安 남양특집 公開放送等 많은 行事を 벌이고 있는 이 水泳場 經營者로는 장 중섭이다.

## 第6節 興 行 業 體

### (1) 劇 場

都市生活의 慰樂에 必要한 劇場이 이 고장에 처음 들어오기는 1955년에 鄭 雲鶴에 의해 세워진 原州劇場이 있고 그 이후 市公館, 아카데미劇場, 文化劇場, 軍人劇場 등 原州市內에 단 5個 劇場이 있어 1日平均 3回 程度 上演에 平均利用者 數는 1,895名 月間平均 57,638名이 利用한 셈이 되며 年間に 691,655名이 劇場을 利用한 것으로 推計되며 이는 原州市民 128,037名이 年間 1人當 5.4回 程度 觀覽한 셈이 된다.

### (2) 軍 人 劇 場

軍人劇場은 原州市 一山洞 212번지에 所在하고 1961年 6月 16日 軍福祉 施設로 開館하였다. 在 原地區 軍人들의 福祉向上과 情緒涵養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이 劇場은 881坪의 垜地에 建坪은 363坪이고 收容人員은 定席 764席에 立席 100席이며 總 864席이다. 1軍司令部 本部司令室 主管으로 運營되며 1日 上映回數는 平均 4回 觀覽者數는 1週에 1,680名이고 서울 경강영화 配給協會에서 필름을 配定받고 있다. 역대館長은 初代 천 대신, 2代 황 봉길, 3代 김 정현, 4代 박 천식, 5代 박 용진, 6代 권 재수, 7代 장 영식이다.

## 第7節 出 版

原州에는 10餘個所의 大小印刷業者가 있으나 出版社는 없다. 1965년에 「月刊江原」이 月刊으로 出版되었고 그後에 「現代江原」이 出版되었으나 原州의 印刷所 施設로는 鑄造 鉛版施設을 갖추지 못하여 서울 등지에서 印刷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月刊江原과 現代江原 出版도 1年을 繼續하지 못하고 中斷되었다. 原州의 印刷施設로는 氏族의 譜冊을 出刊하는 施設은 몇곳에 있으나 大部分은 各種의 單葉印刷物을 찍어내는 것이 고작이다. 原州의 文化人들이 몇차례 作品集을 발간하였지만 原州에서 出版印刷된 일은 거의 없고 學校의 校誌마저 서울 등지에서 印刷하는 形便에 있다.

出版 印刷所는 다음과 같다.

### 인 쇄 업 소

업 소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업 소 명	대표자성명	주 소
1. 문화인쇄소	박 제 창	중앙동 38	2. 문 정 사	전 기 해	중앙동 71-11
3. 동아인쇄소	이 두 연	" 35-1	4. 신진인쇄소	최 영 하	학성1동 289
5. 이 문 사	이 병 문	중앙동 38	6. 제일인쇄소	박 순 동	일산동 69
7. 강원인쇄소	지 중 건	중앙동 106	8. 대성 "	최 태 규	개운동 390-13
9. 삼화 "	김 선 국	중앙동 104-3	10. 남궁 "	남 궁 운	중앙동 140-3
11. 진광 "	노 영 복	원동 5	12. 중앙 "	임 순 경	중앙동 155
13. 대영 "	정 호 정	학성1동 210	14. 시민 "	최 홍 만	중앙동 255
15. 화성 "	유 지 완	중앙동 228	16. 필 전 사	백 길 선	" 163
17. 일 광 사	구 명 모	" 273			

## 第5編 教育・文化

### 第8節 文化賞 受賞者 名單

(1) 政府에서 文化公報部長官名으로 每年 實施하는 郷土 文化賞을 우리 高장에서 受賞한 名單은 다음과 같다. 이 賞은 各部別로 全國에서 1名씩 그해에 그 部門에서 受賞을 하게 된다.

- (가) 1961年度 第1回 郷土文化賞 文學部門에서 原州市 開雲洞 朴 一松이 受賞하였고,
  - (나) 1970年 5月 6日 第9回 郷土文化賞 功勞賞을 原城郡 所草面 平庄里 成 石煥이 受賞하였고,
  - (다) 1974年度 第13回 郷土文化賞 文化功勞賞을 原州市 一山洞 黃 柱益이 受賞하였다.
- 이 郷土賞 受賞者는 自動적으로 常務회원이 된다.

#### (2) 江原道 文化賞 受賞者 名單

江原道文化賞은 江原道에서 시상하는 道文化賞이다. 受賞者는 다음과 같다.

- (가) 1961年度 第3回 學術部門 受賞을 原州市 開雲洞 朴 一松이 받았고,
- (나) 1964年度 第6回 藝術部門賞을 原州市 明倫洞 崔 弘源이 받았으며,
- (다) 1965年度 第7回 學術과 自然科學 部門을 朴 恒均 尙志大學長이 받았다.
- (라) 1975年度 郷土文化 功勞賞을 原州文化院長 黃 柱益이 受賞하였다.

#### (3) 太白文化賞 受賞者 名單

- (가) 1971年度 第1回 郷土文化開發로 原州文化院 黃 柱益이 受賞하였다.
- 이 賞은 太白文化會에서 江原道內에서 1名에게 주는 賞이다.

### 第3章 宗教分布

#### 第節 여러 宗教의 史的考察

宗教의 개념(概念)을 簡單하게 규정(規定) 짓기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 人類은 原始時代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어떠한 모습이든 宗教를 가져 왔었고 또 그러할 것이다. 人類은 그가 가진바 精神의 힘으로서 政治 經濟 道德 學問 藝術等 各方面的의 文化를 創造하여 오게 되었으나 이러한 모든 文化의 源頭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宗教인 것이다. 그러나 온 人類가 大自然을 觀察하고 이를 生活에 利用함에 있어서 이 宇宙 사이에는 超人間的인 威力과 絶對的인 힘이 存在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에 對한 畏敬(畏敬) 또는 信賴를 느껴 犧牲을 바치고 祈願하고 禮拜하며 제사 儀式을 行하며 生活하고 있는 것이다. 人類은 元祖時代부터 오직 하나인 造物主를 公敬하여 왔었으나 그 후 人類가 늘어감에 따라 世界 各地에 흩어져서 살게 되므로서 風俗과 習慣과 피부색과 言語가 서로 다른 여러 民族을 이룩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들이 믿는 宗教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人類 宗教의 本質을 究明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取扱해야 할 限界에 規定은 있어야 하겠기에 宗教의 發生形態로 보면 汎神敎(汎神敎) 다신敎(多神敎) 일신敎(一神敎)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原州에서 生成起滅했던 넓은 意味에서 宗教的 性格을 띠고 있는 宗團이나 그와 비슷한 것 까지도 取扱하게 된다. 神觀에 따라서는 宗教로 取扱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社會倫理나 實踐哲學으로 規定지어야 할 性質의 것도 있겠고 現社會的 움직임으로 보아서는 宗教보다는 民俗이나 迷信으로 規定지어져야 할 部門의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從來의 慣習이 넓은 意味에서 宗教的 概念으로 規定을 지었거나 그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으니 一括하여 取扱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韓國의 宗教가 그 部門別로 보아서 雜多하듯이 原州의 宗教도 이의 축소판(縮小版)으로 여러가지의 性格을 띠고 있다. 멀리는 샤머니즘을 核으로 하여 오늘까지 전해내려 오고 있는 民間信仰이 있는가 하면 東洋의인 것으로 이미 三國時代에 傳來한 佛敎, 儒敎, 道敎를 비롯하여 近世에 와서 일어난 天道敎, 圓佛敎, 大倣敎等 많은 宗團이 있고 西來의 것으로는 天主教, 基督教 等の 宗教가 原州에 뿌리를 박고 있다. 이러한 宗教들은 長久한 歲月 이 고장 사람들의 精神에 파고 들어 이 고장 사람들의 精神史를 形成하였을 뿐만 아니라 現實的으로는 實生活의 規範을 規制하여 놓았다. 佛敎는 원래 사람은 누구나 올바른 길을 밟으면 부처(佛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宗教는 아니었으나 뒤에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佛敎를 세운 석가모니(釋迦牟尼)를 神처럼 崇拜하게 됨으로서 宗教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유교(儒敎)의 道義, 基督教의 博愛(博愛), 道敎의 修鍊, 東學의 人道는 우리의 精神의 바탕과 文化의 根幹을 이룩하였다. 샤머니즘이 그 時代의 生活文化 全般을 支配하였고 佛敎가 三國以來 高麗時代까지의 精神의 文化骨格이었고 儒敎는 李朝 500年間 修己治人의 理念을 具現했고 基督教은 近世 西歐文明의 渡來가 가져다준 開化와 密着하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宗教의 精神史와 文化史의 意義는 크다. 原州의 宗教를 原始宗教, 佛敎, 儒敎, 天主教, 基督教 天道敎, 其他 宗教로 區分하여 叙述하기로 한다.

## 第2節 土俗信仰

一般的으로 韓國의 原始宗教는 샤마니즘을 根幹(根幹)으로 하고 있으며 이 샤마니즘은 原始民의 信仰일뿐 아니라 外來宗教와 혼합하여 오랫동안 韓國人의 精神生活을 支配하여 왔다. 이 샤마니즘은 모든 物體에 魂(魂)이 있다고 믿어 온갖 물체를 공경하여 높이고 절하는 原始宗教로서 그 信仰의 對象은 天地 日月 星辰을 비롯한 자연물 외에 생물의 죽음 뒤에 肉體에서 떠난 靈魂이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充滿)해 있는 것으로 상상하고 이 自然物과 영혼은 超人的能力이 있다고 믿었다. 이 영혼은 人間의 吉凶禍福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福을 빌고 禍를 멀리 하려던 이 영혼들에 祈禱해야 할것으로 여겼다. 그 祈禱는 人間과 영혼의 次元이 다르므로 영계(靈界)와 人間사이에서 서로 소통(疏通)이 되는 存在로서 샤먼(무당)이 생기게 되어 原始信仰의 儀式的成立이 이룩하게 되었다. 이 무당은 大體로 세계의 職能이 있다. 그 하나는 神靈에게 제사(祭祀)를 올리고 靈의 뜻을 사람에게 傳達하는 司祭의 職能이고 둘째는 惡靈을 쫓아내어 病을 고치게 하는 醫령직(醫靈職)이고 세째는 吉凶禍福(吉凶禍福)을 점치는 豫言職(豫言職)이다. 이 샤마니즘은 宇宙의 構造를 세층(三層)으로 보고 있는데 神靈이 거처(居處)하는 天上 世界인 上界 人間과 生物이 사는 中界, 惡靈만이 사는 下界가 그것이다. 上界는 至善 至福한 곳이고 中界는 善惡이 혼거(混居)하고 있는 곳이고 下界는 至惡한 存在로 보고 있다. 샤마니즘은 韓國의 原始信仰일 뿐만 아니라 北으로는 몽고(蒙古)에서 滿洲를 거쳐 南으로는 日本에 까지 번지고 있다. 韓國에서는 흔히 무당들의 풍속으로 일컬어 왔으나 이것은 民俗的 面的 뜻만 아니라 韓國人의 意識構造나 外來 宗教와도 密接한 관계가 있다. 샤마니즘에는 여러 神이 있으나 옛글(古文典)에 나타난 이들 鬼神은 天神・山神・龍神・日月神・護國神・鬼・神物・역신(疫神)・노호정(老狐精)・조수정(鳥獸精)・靈魂 등이 있고 후세에 와서 鬼神의 觀念(觀念)이 정돈(整頓)된 뒤에는 鬼와 神을 區別하여 「귀야자 음지령(鬼也者 陰之靈) 신야자 양지령(神也者 陽之靈)」이라 하여 음기(陰氣)의 造化를 鬼라 했고 양기(陽氣)의 造化를 神으로 본 學者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상적 주관(抽象的主觀)에 의한 분류(分類)의 시도(試圖)이지 全國民의 鬼神에 대한 觀念(觀念)은, 이것보다는 오히려 分別키 어려운 모호(模糊)한 실태였다. 이 샤마니즘은 佛敎가 新羅에서 土着할 때 이와 融合(融合)하여 新羅佛敎, 즉 護國佛이라고 하는 韓國의 佛敎를 形成하였다. 그 例로 오늘날 新羅以來 古刹에 샤마니즘的 要素인 산신각(山神閣)・칠성당(七星堂) 등이 사찰경내(寺刹境內)에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能히 짐작할 수 있고 新羅 花郎들의 機能中에 가무유오(歌舞遊娛)가 있는 것은 샤마니즘 性格과 同一한 데가 있다. 新羅以來 高麗에 까지 行하여진 八關會(八關會는 고려 때 해마다 대궐안에서 동짓달이면 여러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규모가 큰 의식을 말함)도 샤마니즘의 맥통(脈統)이 이어져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시 八關會는 佛敎的 儀式이라고는 하지만 후세(後世)에서 行한 行事의 內容은 佛敎의 色彩는 거의 없고 천령(天靈), 오악(五岳), 名山, 大川, 龍神 등의 土俗神에게 지내는 儀式이었는데 이 一種의 샤마니즘 즉 土俗神祭는 고려 태조(高麗太祖)와 훈요(訓要) 10條中에 그 重要性이 지적(指摘)되어 있으리만큼 중시(重視)되었던 行事이어서 당시는 연등회(燃燈會) 즉 연등회라 하면 팔관회와 같이 고려의 二大祭典의 하나이고 등을 켜서 부처에게 복을 빌며 노는 놀이이다. 처음에는 나라에서 해마다 베풀었으나 뒤에 국속(國俗)이 되었고 날짜는 처음에 2월 보름이더니 정월 보름으로 정하였다가 또 다시 4월 8일로 고쳐져서 오늘까지 계속 되고 있음)와 함께 나라에서 2大儀式의 하나였다. 이 行事가 新羅 以來 高麗朝까지 國家의 行事로 거행(舉行)되고 있었으니 당시 社會에 샤마니즘이 지닌 비중(比重)을 짐작할 수 있다. 李朝는 儒敎를 建國의 理念으로 했던 탓으로 信仰의 귀의처(歸依處)를 잃고 있던 民衆에게 黨爭으로 인한 社會의 不安定

은 무교(巫敎)를 振作시키는 結果를 招來했다. 社會가 不安定할수록 이런 風習이 盛하게 되어 李朝末을 前後한 韓國의 무격(巫覡: 무당과 박수를 칭함)의 數는 純祖時代(1801~1834)에 官에 登錄된 것만도 2,600名에 이르렀고 그 뒤 百年이 지난 1930년에 朝鮮總督府에서 調査한 統計에 의하면 12,380名에 달하며 그 중에서 3割이 박수이고 7割이 巫堂으로 되어 있으며 1900년에 韓國에서 巫敎때문에 使用된 年間 費用은 約 250萬弗에 해당했던 것이다. 原始信仰인 샤마니즘 本來의 機能은 司祭·治病·豫言이던 것이 後世에 내려와서 그 機能이 變化하여 양재(穰災 신령이나 귀신에게 빌어 재앙을 물리침) 점복(占卜)·祈福·娛樂等を 主로 하게 되었다. 李朝時代의 巫數를 機能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穰 災

人生의 재앙(災殃)과 疾病을 가져 온다는 惡靈 惡鬼들을 除去하기 위한 祈祭나 禁忌等の 行事로 이것을 다시 類別하면,

#### 1. 治病祈禱(치병기도)

무당이 病을 고치기 위하여 하는 곳으로 옛날부터 1種의 醫療行事로 널리 行하여 졌으며 무당의 이러한 醫巫의 職能은 巫敎機能中에 重要な 部分을 차지하였다.

李朝 世宗 11年(1429)에는 官에서 이에 관하여 巫覡을 官設 醫療機關으로 定하고 各官과 各里에 百姓들이 가가히 살고있는 곳을 무격(巫覡)에게 分掌케 하여 病이 流行하면 醫生과 巫覡으로 하여금 이를 治療케 하였다. 1929年 朝鮮總督府에서 調査한데 의하면 國內의 巫覡醫의 總數는 1萬名以上이라 하였다. 그런데 原州에 散在해 있는 巫覡의 數는 알 수가 없다. 只今도 亦是 存在하고 있으나 그 수는 대단치 않다.

#### 2. 除厄祈禱(제액기도)

이것은 災害와 厄運을 祈禱로서 防止하고 除去하려는 것으로서 安宅神祀·禱厄神祀·風神神祀·地方季祀等の 定期的 除厄祈禱가 行하여 졌고 지금도 一部 地方이나 民家에서는 行하고 있는 곳이 있다. 特히 原州에서는 古木이나 바위 밑을 相對로 하여 現在까지도 實施하는 마을이 있다.

#### 3. 무 주(巫呪)

무격(巫覡)의 靈力을 利用하여 敵對되는 相對方에게 災禍를 주려는 저주를 불러 일으키는 巫俗으로 李朝時代에는 王室內에서도 있었고 黨爭이 격심(激甚)하던 時期에는 政敵사이에서 行하여 졌으나 지금은 거의 없어 졌다.

#### 4. 禁 忌(금 하고 꺼림)

재화(災禍)를 벗기 위하여 부적(符籙 불교나 도교를 믿는 집에서 기도할 때 악한 귀신을 쫓고 재화를 물리치기 위해서 쓰는 야릇한 글자를 적은 종이)이나 신부(神符)를 붙이거나 呪文을 외워 惡靈을 除去하려는 行事이다. 原州地方에는 아직도 승려(僧侶)나 무속(巫俗)들이 符籙을 만들어 使用하고 있다.

### (나) 祈 福

神靈을 祭祀하고 福을 비는 行事로 祈福神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祈 恩 祭

王家에서 國家의 安寧을 위해 지내는 祭祀와 民家에서 隨時로 집안의 安寧을 빌기 위하여 지내는 祭祀의 두 種類가 있다.

## 2. 祈雨祭

가뭄이甚했을 때에 農作을 우려하여 비가 내리도록 天神과 山神에게 지내는 祭祀이다. 이 祈雨祭는 國家的으로 지내기도 하고 地方의 乾濕(乾濕)에 따라 地方別로 지내기도 한다. 지금도 到處에 祈雨祭를 지내던 곳이 남아 있다. 原州 地方에서도 영원산성(鵠原山城)과 치악제단(雉岳祭壇) 그리고 봉살미와 소초면 둔둔리(所草面 屯屯里) 같은 데서는 큰 제사를 지내온 흔적이 있고 各地方마다 小規模로 祈雨祭를 지내기는 하였으나 最近에 와서는 별로 行하여지지 않고 있다.

## 3. 祈子祭

男尊女卑의 思想은 아들을 貴하게 여겨 아들을 얻기 위하여 三神宮 帝王맞이 등이 이에 屬하고 寺刹에서도 이런 種類의 祈祭가 많이 行하여 졌고 原州地方은 貴來面 미륵산에 미륵불(佛)이 이에 屬하고 있다. 또한 立石골에도 岩碧에 새겨진 佛像 앞에서 行하여 왔다.

## 4. 城隍祭(성황제)

城邑이나 洞里內에 土地神 或은 城隍神에게 드리는 祭祀로 災厄을 멀리 하고 和平과 福을 빌기 위한 行事로 李朝時代에는 部落의 守護神인 山神을 받드는 山神祭와 混合이 되었다. 城隍祭는 各 고을마다 官에서 지내왔으며 部落別로도 지내고 있다. 每年 春秋로 雉岳山에서 東岳祭라고 해서 各고을 원(高을首領)이 뭉인 가운데 漢陽에서는 王의 特使가 派遣되어 東岳祭를 執典하였다. 또한 神林面에 城隍堂 그리고 고둔치 성황당 등이 이에 속한다.

## 5. 安宅祭

집안의 재앙(災殃)을 없애고 한해에 幸運을 비는 祈禱祭로 고사 또는 기도라고 하지만 嶺東 地方에서는 「고신제」라고도 한다. 이 외에도 집을 짓고나서 지내는 落成祭 분묘(墳墓)를 쓰기 위하여 開山할 때에 土地神祭, 龍神祭, 大監祭等 雜多한 種類의 祈祭가 있다. 原州에도 雉岳堂과 城南祠가 代表的이고 其外 各部落마다 堂이 있어 山神祭等 祈祭가 있었는데 時代變遷에 따라 祈祭의 모습도 줄어들고 있다.

## (다) 占卜

무각(巫覡)들이 靈界와 通한다는 생각에서 그들의 豫言的 機能을 行使하여 未知의 世界를 알수 있는 것으로 믿는데서 이 習俗은 이룩되었다. 神의 뜻을 받아 未知 不可解의 運命이나 事件을 미리 알고 그에 對한 對策으로 卜筮거리라고 이르는 巫事를 行하는 것으로 오늘날 신수를 본다는 말은 다 이에 屬한다. 原始信仰中 巫俗에 결드려진 行事로 歌樂을 켤수없다. 이 行事에는 제화초복(除禍招福)은 제령(諸靈)들에 달려있고 이들을 할래는 方法이 곧 巫覡들의 歌樂이다. 그런데 이 巫覡歌樂은 本是 宗教의 意味를 지닌 神聖性에서 出發하였으나 後世에 와서는 娛樂의 性格을 多分히 加味하게 되어 農樂과 같은 鄉土娛樂 巫事의 餘興 娛樂等은 다 이러한 性格의 것에 하나로 볼 수 있다. 原州를 地理的 特性에 依하여 大別해 보면 山間地方으로서 生活의 터전에 따라 原始信仰의 形態도 各各 다르다. 이를테면 富論面地方에서는 南漢江을 끼고 있어 風神祭가 盛行하였던 反面 神林面과 所草面等地에서는 山神祭가 盛行하였다는 것들은 다 좋은 例이다. 各 고을마다 있었던 城隍祠나 厲壇은 아직도 남아 있으나 原州의 境遇는 雉岳山에 城隍祠가 그대로 있고 厲壇은 原州 鳳山 2區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조차도 찾아볼길 없다. 그 외에도 거의 名山이나 由緒있는 嶺上에는 神祠들이 많았는데 그中 代表的인 것으로는 雉岳山祠와 琿瑟押祠 그리고 神林에 城隍堂 등이 記錄에 남아 있고 雉岳山祠자리는 남아 있으나 琿瑟押祠자리는 알 길이 없다. 李朝時代에는 制度的으로 各고을마다 社稷壇과 城隍祠 厲壇을 반드시 設置하게

되었으므로 原州에도 위의 3廟가 있었는데 社稷壇은 現一山洞에 있었으나 자취조차 없고 다만 地名만이 사직당골이라고 남아 있고 厲壇으로는 雉岳堂이라고 現鳳山 2洞에 있었으나 燒失되어 없어졌고 城隍祠로는 雉岳山 中腹에 雉岳堂이라고 있어서 東岳祭를 지낸 흔적이 있으나 堂은 없어지고 祭壇만이 松林속에 남아 있어 옛말을 傳해 주고 있다. 原州에서 行하던 土俗信仰의 하나로는 別神祭가 있다. 이 別神祭는 4月 初 8日과(음력) 7月 7日 七夕에 行하였는데 別神祭는 原州의 繁榮을 祈願하기 위하여 行하여 졌고 이것도 巫굿으로 始終하나 原州의 祝祭로서 餘興과 娛樂이 걸드러져 있었다. 雉岳山 頂上에도 石塔을 쌓고 祈禱處를 만들어 祈禱를 올리고 있다. 原州에서는 山神祭를 雉岳祭라고 하는데 原城郡守가 祭主가 되어 雉岳山 시루봉에서 10월에 지내고 烽火祭는 原州市長이 祭主가 되어 原州市「봉살미」에서 12月 31日과 翌年 1月 1日 零時를 期하여 이 祭祠는 佛法으로 告祝하는 일들은 一般祭享과 恰似한 데가 있다.

以上과 같은 土俗信仰이나 巫俗은 現代에 이르러 消滅했거나 變形된 것이 있으나 烽火祭와 雉岳祭는 지금도 繼續되고 있다. 치악산 시루봉에는 봉산동의 龍 振洙가 10년에 걸쳐 石塔 3個를 쌓아 놓았다. 1962年 부터 시작하여 單身으로 3개의 塔을 쌓아 놓은 것이다.

### 第3節 韓國佛教의 歷史的考察

佛教의 教主 釋迦牟尼는 기원전 5C경 인도 가비라국 정반왕의 太子로 탄생하였다. 태자는 어려서부터 人生의 根本問題에 대한 懷疑를 느껴 깊은 思慮에 잠겨 思索하기를 좋아 했다. 드디어 29歲 시에 王位를 버리고 雪山에 들어가서 修道 精進하여 萬有의 眞理를 깨쳤다. 이때의 나이 35歲였으며 이로부터 그는 眞理를 깨친 자 즉 佛陀(Buddha 覺者)가 되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에 依하면 人間은 누구나 平等한 부처性品(佛性)을 다 갖추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여 깨치면 모두 다 부처가 된다고 한다. 즉 佛教의 최고 이상 經典인 華嚴經에 의하면 마음과 부처 중생 셋이 차별이 없다고 하였다. 다만 중생은 煩惱 妄想에 집착하여 깨치지 못하여 어리석은 無明의 業報 속에서 괴로워 할뿐이라 한다. 그러므로 無明의 煩惱를 벗어나 깨치면 부처요 迷하면 衆生이라고 한다. 따라서 人間은 生成 消滅하는 無常한 現象界속에서 깨침을 얻어 佛陀가 될 수 있으며 또 이 佛陀가 되는 것이 佛教의 目的이다.

우리나라에 佛教가 傳來되기는 高句麗 小獸林王 2年(372年) 前秦의 僧 順道가 佛像과 佛經을 가지고 오므로부터 시작되었고, 百濟에는 枕流王 元年(384年) 胡僧 摩羅難陀가 東晉으로부터 들어와 法을 傳하였으며 新羅에서는 佛教가 정식으로 믿어지기도 麗·濟보다 뒤하기 510餘年の 歲月이 흐른 法興王 때였다. 이와 같이 佛教의 傳來는 佛教經論에만 끝치지 아니하고 大陸의 典禮, 文學, 美術, 音樂, 醫術, 曆法, 天文, 地理, 卜筮, 土木, 繪畫, 彫刻, 機織, 製革, 製陶, 鑄造, 園藝 등의 技術도 隨伴하여 入來하였으니 이러한 技術은 佛教가 傳播됨에 따라 進步하여 文化의 度는 크게 높아졌다. 高句麗는 小獸林王 2年(392年)에 佛教가 傳來되자 故國壤王 6年(389年)에 佛道를 崇尚하고 幅을 깊게 하였으며 廣開土王 2年(392年)에는 이를 國敎로 삼게 되었으나 624년에 道敎가 들어오자 淵蓋蘇文은 한때 佛教를 彈壓하게 되었다. 百濟는 枕流王 元年 佛教가 傳來된 後 同王 2年에 北漢山州에 절을 세워 胡僧 難陀를 있게 하고 女子들에게 佛法을 勸하였으며 阿華王 元年 詔書를 내리어 國民에게 敎敎를 勸하고 僧 10餘人을 養成하여 佛道가 大盛하였고, 諸宗의 碩德들이 輩出되었으며 聖王 30年(552年)에는 西部 姬氏 達卒 忽利斯致等을 日本에 보내어 釋迦佛 金銅像과 彌勒石像 幡蓋 및 經論을 日本에 傳하니 이것이 欽明天皇 13年이며 日本에 佛教가 傳來한 紀元이 되었다. 新羅는 19代 訥祗麻立干時 高句麗로 부터 佛教의 法水가 흘러들어 왔으나 盛하지 못하였고 그뒤 法興王 5年(528年)에 異次頓의 殉敎以後 佛道를 믿어 國敎로 認定하게 되니 君



臣上下가 在來의 固有 天神思想과 굳게 합쳐져서 花郎道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100年 뒤에는 三國을 統一하는 굳센 國력을 기르게 되었으며 民衆의 信仰이 佛法에 集中되었다. 原州에서도 그 당시 義湘大師에 의해 창건되었던 國內 華嚴十刹 가운데 하나였던 毗摩羅寺가 있듯이 新羅의 佛僧은 크게 隆盛하여 文學 美術도 또한 佛教에 隨伴하여 날로 傳播되어갔고 仁, 義, 忠, 孝의 道도 佛僧을 通하여 唱導되었으며 儒敎와도 굳게 混化一致된 佛教의 勢力은 當時 新羅 人들 性格上에도 一大變革을 미쳐 物質的 進步 勇壯한 氣象이 오로지 佛教에 依하여 開拓 養成되었다. 이리하여 新羅의 全盛期를 장식하는 燦爛한 佛教文化의 꽃을 피우게 하였으니 新羅, 高麗의 兩朝에 걸쳐 文物이 크게 發達하여 實로 東半球의 明星으로 燦然히 빛났었다. 高麗의 佛教는 太祖의 創業이 諸佛의 護衛의 힘이라 하여 燃燈으로 佛을 섬김으로부터 歷代에 걸쳐 崇佛이 盛하였다. 4代 光宗시에는 僧科를 두어 僧職을 定하였으며 특히 이 高宗에서 태어났던 智光國師를 위시하여 圓空國師는 오늘날 그들의 浮屠塔이 있는 法泉寺址와 居頓寺址의 훌륭한 佛敎彫刻에서 당시 화려하였던 文化의 盛觀을 짐작케 한다. 더 나아가 佛教는 敎理上의 護國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國家의 鎮護와 外護에 막대한 影響을 미쳤으니 契丹 侵入時에는 60年의 세월에 걸쳐 8萬大藏經을 彫造하였고 蒙古侵寇時에는 江華島로 遷都하는 한편 16年의 세월에 걸쳐 6,000餘卷의 八萬大藏經板을 鑿刻 出版하였다. 이는 佛力에 依한 護國을 祈願했던 것으로 우리 文化를 세계 壇場에 자랑한 나라의 보배일 뿐만 아니라 世界的 至寶인 것이다. 國朝가 바뀌어 李氏 王朝가 되자 排佛崇儒를 國是로 定하고 佛教 10餘種의 宗派를 整理하여 敎宗 禪宗의 二派로 整理하였으며 또 寺刹의 官田을 沒收하기에 이르렀다. 4代 文宗은 佛教를 大斥하여 良民으로서 僧尼가 되는 것과 佛寺의 創建을 禁止하였고 9代 成宗은 嚴히 僧을 禁하고 서울의 佛寺를 廢하여 學校로 쓰고 宮中에서 一切의 佛式을 罷하였으며 中宗, 明宗時에는 僧科를 廢止하고 兩派宗도 罷하였다. 때에 程朱學이 全國에 盛行함에 따라 佛教는 一路 萎縮 衰頹하게 되었다. 佛教가 이땅에 傳來된지 아득히 2000年 民衆은 오히려 佛陀敎의 土台에 踞하여 가는듯 하였고 國運과 더불어 發展을 期하였으나 李朝의 壓禁으로 因하여 뿌리로부터 艾除되는 悲運을 당하게 되니 僧侶는 深山幽谷으로 隱身하고 寺院은 頽廢되어 마침내 그 敎勢는 극히 微塵하였다. 庚戌 國恥以後는 賤視되어오던 僧侶는 一般民衆과 同一한 取扱을 받게 되었으나 光復後에는 寺刹 財產이 土地改革令의 對象이 되기도 했다. 其後 一部는 回復되었으나 佛教의 中興을 보지 못한채 또 6.25動亂으로 많은 寺刹이 燒失되고 말았다. 이 高宗에도 깊은 歷史와 아름다운 山水를 따라 名山大刹이 즐비했으나 이제 그 遺墟에서 지난날 화려하였던 文化의 香氣를 맛보게 되었다.

다음에는 유서깊은 現存寺刹과 더불어 그 遺地를 다루고 다시 末尾에 現存 新興寺刹을 列記하여 이 高宗의 佛教 現況을 오늘의 時點에서 총 망라하고자 한다.

#### ※ 原州 佛教의 考證

新羅 小京 北原당 原州는 國都 慶州로부터 멀리 邊方에 위치한다. 그러나 일찍부터 文物을 받아 들어 화려한 文化遺産을 남겼음은 이 高宗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新羅・高麗 兩代에 걸쳐 번창하였던 佛教文化의 盛觀은 일찍부터 學界에 注目되었고 世人의 관심을 집중했다. 그러나 그가 위치하는 地理的 조건으로 인하여 끊임 없는 戰亂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다 많은 귀중한 文化遺産은 湮滅되어 갔고, 또 日帝 末期에 이르러서는 寺址에 전해지는 遺物들이 盜掘의 목표가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주지역의 수 많은 유물들은 서울을 위시한 他處로 移置되어 이제 잡초 옥어진 寺址에서 지난날의 자취를 겨우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文獻上으로나 전설을 통하여 알수 있는 중요한 佛蹟에 대해서도 세월이 長久하여

그 위치 파악에 혼란을 겪어왔다. 이러한 佛蹟에 대하여는 國內 有數한 寺刹인 海印寺·梵魚寺·華嚴寺등에 못잖은 大刹이 원주지역에 있었다는 문헌상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寺址에 대한 明確한 解明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착안한 나머지 지난 74년 7월부터 原州·原城 일대의 佛蹟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現存하는 寺刹은 물론 寺址에 있어서도 歷史的 事實에 치중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시도했다. 따라서 여기에서 조사한 現存 重要 寺刹은 龜龍寺·國享寺·上院寺·立石寺·石逕寺·黃山寺등이고, 그의 寺刹로서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法泉寺址·居頓寺址·興法寺址를 비롯하여 원주지역 최초의 가람이라 하는 毗摩羅寺址를 중심으로 市內 일원에 전해지는 遺物·遺蹟을 단편적으로 다루었다.

現地 踏査에 있어서는 遺物·遺蹟의 目錄을 미리 作成하였고, 이의 整理에 있어서 사용된 文獻資料는 三國遺事·三國史記·新增東國輿地勝覽·朝鮮金石總覽·朝鮮寺刹史料·朝鮮佛教通史 國寶圖錄 등이었다. 他處로 移置된 유물에 대하여서는 국립박물관 유물 카—드를 대조하여 가능한 한 原位置에 대한 究明에 노력하였으며 또 일일이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에 편의를 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一端으로서 얻어진 成果라고 할 수 있다면 신라 義湘法師의 傳敎 華嚴十刹 가운데 原州 毗摩羅寺에 대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現地 調査와 考證에 있어서 現 東國大學校 博物館長 黃 壽永博士의 敎示를 따랐음을 아울러 밝히둔다. 한편 直接調査에는 佛敎研究會 張忠植氏가 手苦를 했음도 여기 記錄에 남겨둔다.

#### (가) 現存 寺刹 一覽

##### (1) 龜 龍 寺

原州 시내에서 서북방 약 24km지점에 위치하는 龜龍寺는 현재 雉岳山內에서 가장 큰 大刹이며 朝鮮末期까지도 그 寺格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江原道の 名山 雉岳山에 자리잡은 龜龍寺는 道內 首寺였으며 末寺의 增尼가 모두 이곳에서 受戒得道하는 一大淨界였다. 구룡사에 전해지는 寺中記錄에 의하면 구룡사는 신라 文武王 6년(서기 666년) 義湘大師에 의하여 創建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 기록에 대한 확실한 典據는 없고 믿을만한 기록으로서는 雉岳山 龜龍寺 事蹟記(朝鮮寺刹史料 下 30頁)에 의지할 수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구룡사는 신라말의 고승 道詵國師에 의하여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기록의 相異點을 밝힐 만한 문헌자료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義湘法師의 開山後 道詵國師가 創寺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리라 생각된다.

또 구룡사의 寺名은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千年靈龜吐蓮花於諸天하고

九海神龍施雲葉於勝地로다

천년의 靈龜는 저 하늘에 연꽃을 토하고,

九海의 神龍은 이곳 勝地에 조화를 부리네.

이러한 名勝의 地德에 못잖게 원주의 鎮山 치악산은 일찍부터 東岳名山으로서 高僧大德의 수도처로 널리 알려졌다. 잠시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빌리면,

고려 때에 陳 補關이란 사람이 치악산의 서쪽을 지나는데 소나무와 전나무가 뻗뻗하게 들어

第5編 教育・文化

서고 水石이 그윽하고 기이하였다. 마음으로 기뻐하여 洞中으로 들어가니 초가집 서너채가 수풀 사이로 어렴풋이 있는데 한 늙은 중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냇가 돌에 앉아 있었다. 진 보컬이 말에서 내려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僧은 기상과 운치가 凡常하지 아니 하였다. 보니 한 紙扇을 가졌는데 다복이 소나무가 그려 있었다. 陳이 부채를 가져다가 그 뒤에 글을 쓰기를,

老僧長伴蒼鬚叟

何更移眞入扇團

노승이 날마다 푸른 수염 늙은이를 벗하는데  
어찌 다시 참모습을 옮기어 둥근 부채 속에 넣었는고.  
하니 僧이 즉시 화답하기를,

春風不到蛾眉嶺

樸地蛟龍翠作團

봄 바람이 아미령에 이르지 아니 하건만  
땅 가득히 蛟龍처럼 푸른 덩이 지었다네. 라고 하였다.

老僧이 있던 이곳이 구룡사라 할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보아 구룡사 근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현재 구룡사의 역사를 말해주는 唯一한 자료로서는 寺中 기록에 의지할 수 있다. 즉 「康熙 45年」銘의 瓦當이 出土되어 조선 肅宗 32년 (서기 1706년)에 구룡사가 증진되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구룡사의 모든 건물은 肅宗代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밖에 참고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근세의 重修에 대하여는 現 住持 太虛堂 宗泳師의 功蹟을 들수 있다. 宗泳師는 1966년 구룡사 주지에 부임하여 그 이듬해부터 치악산 主峰 昆盧峰에서 護國祈願 大祭를 베풀어 이제는 지방의 年中行事가 되게 함과 동시에 구룡사 발전에 획기적 轉機를 마련 하였다. 荒廢하였던 寺院 全貌를 重新하여 우선 1966년에는 現 普光樓(建坪 38평)을 解體 復元하여 丹青을 마쳤다. 또 1968년에는 현재의 尋劍堂 및 寮舍를 補修했고 上水道를 新設했다. 1971년에는 聖閣을 補修 丹青했으며 今年에는 大雄殿을 보수 및 단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現 大雄殿 건립의 정확한 년대는 未詳이지만 건축수법이 전형적 조선시대 건축으로서 肅宗代를 지난 英祖로 부터 正祖年間으로 추측된다. 건물은 前面 3間, 56평의 多包집으로 造營되었고 내부 닻집은 2重包作에 事實적으로 조각된 龍蚊등의 手法, 그리고 그 섬세한 結構는 他處에서 보기 어려운 秀作이다. 三尊木佛은 厚德한 얼굴에 풍부한 量感이 朝鮮朝 불상조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佛像의 중앙 主尊을 釋迦牟尼佛로서 높이 5尺5寸이며 左右 兩大菩薩은 4尺5寸으로 上部 닻집과 잘 조화되어 있다.

大雄殿 앞 좌우에는 90여평의 尋劍堂·說禪堂의 僧舍가 있고 正面에는 普光樓가 푸른 숲에 반사되고 그 위용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普光樓는 38평으로서 내부 전체를 짚으로 만든 우리 固有의 명식으로 잘았다. 이는 人夫 3인이 3개월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국내 최대의 명석이라 할 것이다.

절에 따른 山林은 총 550町步로서 松林이 대부분이고 절 주위에는 잣나무등 有實樹와 전나무가 植木되어 있다. 절 入口에는 7基의 조선시대 浮屠가 있고 또 구룡사의 전설을 말해주는 개 북바위와 龍瀑이 있으며 폭포아래는 龍沼의 溪水가 흘러 아름다운 경치가 한 폭의 그림 같다.

朝鮮寺刹史料에 전하는 龜龍寺事蹟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原州雉岳山龜龍寺事蹟

弼山道人鄭彥時撰撫名山奧窟<sup>龜龍寺</sup>文秘檢爲聖至行經大禪師記

本寺古事古蹟焉朝鮮天下之東東之東有名山雉岳是也許文正公地乘曰平原雉嶽有東岳祠祝冊自京師至是爲國望之一也新羅神僧道詵入中國謁一行法師得二始二中二終之理且學地理之妙東還之日獻東方山水圖則一行大師一覽畢筆點三千八百者曰東方山川多背本主或作三韓或作九韓內外盜賊時作戰場者山川大脉不調之病也若於點處建寺立塔鎮壓青邱則國家一統民物殷盛也以詵師東還之後建伽藍立浮圖以鎮國脉裨補地勢蓋此龜龍寺即一東岳中補鎮地脉處也其有助於國脉豈淺鮮也哉先建大伽藍則月出之道山甲<sup>靈岩</sup>白鷄之玉龍<sup>光陽</sup>智異之華嚴<sup>求禮</sup>曹溪之松廣<sup>順天</sup>天冠之天冠<sup>長興</sup>千燈之金塔<sup>興陽</sup>白羊之淨土<sup>長城</sup>伽耶之海印<sup>陝川</sup>驚栖之通度<sup>梁山</sup>太白之浮石<sup>順興</sup>小白之龍門<sup>醴泉</sup>鷄林之法光<sup>慶州</sup>佛國之祇林<sup>七賢</sup>之七長<sup>竹山</sup>彌智之龍門<sup>上院</sup>砥平三角之重興<sup>僧伽</sup>高嶺之普光<sup>天寶</sup>之檜<sup>楊州</sup>長湍之華藏<sup>九月</sup>之月精<sup>興律</sup>之具<sup>葉</sup>文<sup>雞龍</sup>之岬<sup>岬寺</sup>公州俗離之法住<sup>報恩</sup>楓岳之長安<sup>表訓</sup>淮陽<sup>又有</sup>之榆<sup>帖</sup>高城<sup>雪峯</sup>之釋<sup>王</sup>安邊<sup>北松</sup>之神<sup>光</sup>海州<sup>天燈</sup>之鳳<sup>停</sup>安東<sup>一善</sup>之桃<sup>李</sup>善山<sup>職陽</sup>之鳳岩<sup>開慶</sup>此皆移兎率於塵寰化榛莽爲佛土何其盛也且稽東史會綱云道詵爲高麗太祖勿建寺觀蓋其禁也大較天下建叢林起蘭若之處至四萬四千六百所矣惟此東岳距國東乃二百五十里以量天尺計之一度強半也山脉起於五臺之衆王智爐青溪長嶺麒麟五山絕頂有臺人跡絕遠青溪東臺望赤海日出衆王南智爐檜在山中多瀝氣無鳥獸道人曉禮無像佛於此最極云臺之西一支爲銀豆之嶺燕方清涼泰岐之山抽細腰爲檜峙南馳二百里扶輿磅礴大東清淑之氣於是焉窮矣東岳之間伽藍小刹至今見存者上院普聞立石復興石逕若干所也年久爲邱墟者麻田萬歲見性大乘若干所也惟龜龍爲此山中巨刹道內首寺而主持二十六官各寺都僧統祝釐修道之一大淨界也千歲靈龜吐蓮花於諸天九海神龍施雲葉於勝地四方開土之住錫傳鉢之場而新羅敬順王師無着祖師者大唐乾寧年間人早超塵區登埤成品華均號無着謚號文喜也唐詩曰無着自天親弟兄嵩邱蘭若一峯晴食隨鳴磬巢鳥下行踏空林落葉聲此其人也歷盡名山俊達禪河聞一知十顯悟三乘東遊五臺百八蘭若大祀萬千五十三佛入定於雉岳之九龍丹砂窟上天文殊三峯參禮文殊大菩薩降龜龍寺具床支龜鉢孟藏龍繼佛燈於長明永祖印於重續本寺之檀名於東方良以此也三藏義湘指空無學懶翁諸法師之所憩息也無學大師新羅王子而成雷卿其姓名也題雉岳山詩曰蛇沒雉岳兩鮮空大小磐音四更中雉蛇兩冤半宵鮮正知無着報酌鍾蓋諸方禪林起寢之法發於雉岳山而山之得名者赤以是也夫余亦管規三教者也本寺主持僧統手持寺中古蹟訪於龜亭林居要我誌其事故畧蒐桂坡尊師所記且拈出於山經佛書中所道者以授吾兄僧軸焉觀之玉師勉之

天開甲子後六萬九千三百八十五年午會第十三運之二百六十五年己丑二月上澣書于杞菊山齊

(2) 國享寺

國享寺는 원주에서 동남 6km 지점에 위치한다. 이 절 본래의 이름은 古文庵이라 했다. 그初創은 신라 敬順王代 無着大師에 의하였고, 無着大師는 이곳을 護法大道場으로 하여 佛道에 精進하였는데 神通한 일이 많았다 한다. 특히 朝鮮朝 定宗의 둘째 공주가 得病하여 百藥이 효과가 없더니 古文庵에서 百日祈禱하여 東岳山神靈의 加被를 입어 完治되었다 한다, 이에 감동한 국왕은 古文庵을 크게 중창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現 國享寺 자리에 법당과 道場을 크게 짓고 국향사라 고쳐부르게 했다, 또 王命으로 이곳에 東岳壇을 쌓게 하였으며 봄, 가을을 택하여 護國大祭를 奉行케 했다. 즉 五岳信仰의 하나로써 東岳의 神靈스러움에 감사하고 국가의 鎮護를 기원하는 행사로 생각된다.

현재 국향사에는 대웅전과 요사가 있을 뿐 그의 자세한 寺歷을 알만한 기록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지금의 堂宇는 6.25事變後 現 住持 全 永鎬法師에 의하여 重建 重修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대웅전 西北端 약 100m 지점 낮은 봉우리에 옛날 東岳祭를 지내던 祭壇址가 있고, 동남쪽에 浮屠 2基가 있다, 그중 1基는 「普庵堂大禪師靈塔」이라 했고, 1基는 廢塔이 되어 基壇의 舍利孔이 나타나 있다. 이중 普庵堂 浮屠는 높이가 약 160cm로서 朝鮮朝 浮屠의 양식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東岳祭壇址의 遺墟는 다른 遺構를 발견할 수 없고 다만 土壇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국향사 주위에는 4.50年生의 老松이 옥여져 있다. 이것은 全 永鎬主持의 끈질긴 保護思想에서 라고 한다.

### (3) 普門寺

普門寺는 국향사로 부터 동북쪽 약 2km 上方에 위치한다. 보문사의 「普門」이란 뜻은 본래 釋迦如來의 慈悲의 상징인 觀世音菩薩에 대한 찬탄에서 由來한다, 즉 「普門示現, 願力弘深, 大慈大悲, 觀世音菩薩」이라 했다. 일체에 두루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普門이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觀世音이라 했다. 그러니까 普門寺는 佛教의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을 봉안한 절임을 알겠다.

이 보문사를 통칭 웃보문사라 하는 것은 시내 鳳山洞 세질의 寺名이 보문사이므로 이와 구별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웃보문사는 근래에 重建되었으며 整地作業 중에 회귀한 靑石塔材가 출토되어 學界에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이 옛 寺址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靑石塔은 石材가 粘板岩으로서 국내에는 海印寺 願堂・金山寺・法住寺 汝寂庵등에 現存할 뿐 數基에 불과한 귀중한 塔이다, 대체적으로 靑石塔이 발생하기는 羅末麗初의 小工藝的 石塔이 등장하면서 부터 나타나기 시작 했다,

現存하는 塔의 높이는 총 88cm로서 下端에 2枚의 基壇이 있어 아름다운 蓮華紋을 보이고 있다, 기단 위에는 5매의 屋蓋石과 屋身石이 있으며 특히 屋身石에는 梵書가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근처의 발굴에서 결실된 부분이 더 補完되면 이 탑은 지방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新建된 法堂은 대웅전과 요사가 있으며, 또 寺中에는 옛부터 전해오던 普門庵 創記가 있다. 그러나 이 創記는 「己卯10月 日」이라 했으므로 정확한 年記는 알 수 없으나 壬亂後의 사실로 기록해 두고자 한다. 이 創記에 의하면 普門寺를 옛 날에는 普門蓮社라 했고, 또 普門寺를 건립하기 위하여 원주지역 주변 사찰에서 시주한 금액이 銘記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 기록에 의하면,

國享寺寺中	61兩
信女徐氏	61兩
九龍社寺中	62兩
比丘俊令	62兩
比丘圓惠	62兩
檀越張春福	61兩
神勒社寺中	61兩
比丘南曉	61兩
比丘圓一	61兩
霜旺寺主德眞	1兩
本庵 比丘 義寬	2兩
化主 釋 法能	
主長僧 天真	

金剛神子 弘宣 刻

己卯 10月 日

이라 되어있다. 이 기록에서 당시 化主僧과 主長僧의 이름을 알수 있었고 또 九龍寺(龜龍寺)가 가장 많은 7兩을 회사하였으므로 그 寺格을 짐작할 수 있다,

## (4) 黃山寺

黃山寺는 原城郡 貴來面 貴來里 황산골에 위치한다. 원주에서 忠州로 가는 국도변 귀래면소에서 서쪽 10km 지점이 있는 黃山寺의 山名은 통칭 彌勒山이라 불려진다. 上峰에 大形의 磨崖佛이 있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인 듯 하다.

황산사의 안내기에 의하면 初創이 신라 景哀王代라고 한다. 또 敬順王의 공주가 이 절에 와서 父王의 尊像을 山頂 石壁에 조각케 하였다 하며 그후 경순왕이 직접 이곳에 와서 尊像을 보고 還京한 후 부터 山名을 大王山이라 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귀한 분이 왔다 하여 동리 이름을 貴來라고 했다 한다.

이러한 전설에서 보다 명확한 우리 고장의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하여 이 시대의 역사적 사실에 접근해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접근은 山頂에 새겨진 磨崖石像에서 또는 羅末의 역사적 고찰에서 보다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磨崖石像은 전설과 같이 敬順王의 모습을 새긴 것이 아니고 전형적 佛像의 모습이란 점을 들수 있다.

둘째 마애불의 彫刻手法이나 그 양식으로 보아 羅代조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풍만한 얼굴의 모습이나 線刻된 衣褶으로 보아 麗代의 作이라 할 것이다.

셋째 羅末의 복잡한 國內情勢로 보아 敬順王이 직접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경순왕의 공주가 왔다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다. 따라서 귀한 손님이 왔다는 貴來란 말 자체가 보다 女性的 성격을 풍기는 것으로 보더라도 왕의 공주가 왔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

「江原道 原州邑誌」(國立圖書館 所藏筆寫本)에 의하면 황산사에는 金傳王의 影堂이 있고, 지금은 塑像이 있다고 했다. 이 기록 가운데 金傳王은 三國遺事에 의하면 金傳大王 즉 신라의 마지막 임금 敬順王을 말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황산사는 羅末 王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黃山寺는 오래동안 廢寺가 되어 있었던 바 기록에 나타난 塑像등은 발견할 수 없다. 다만 寺中에 전하던 金傳王의 塑像으로 인하여 世傳에는 上峰의 磨崖佛을 가리켜 경순왕의 모습이라와 전된 듯 하다.

上峰의 마애불은 미륵산 상봉의 거대한 바위 하나를 그냥 조각하여 약 4km 밖에서도 그 형태를 식별할 수 있다. 마애불의 頭部는 완전히 陽刻되었고 肩部以下는 線刻으로 衣褶을 나타내고 있다.

마애불로 부터 아랫쪽 약 700m지점에 위치하는 黃山寺內에는 朝鮮初期 作으로 보이는 石塔 1기가 있고 西應堂 浮屠를 위시하여 3기의 조선시대 부도가 있으며 기타 石燈部材가 散在해 있다. 황산사는 창건이래 고려, 조선조를 거쳐 燕山君代에 이르러 廢寺되었다가 1970년 3월에 시작된 重建工事中 銅鏡 1점, 그 이듬해 小形 滑石佛像 5좌가 출토되었으며, 또 73년도에는 銅佛像 1좌가 출토되었다.

대웅전은 74년 10월 현재 아직 完工되지 못했으며 나머지 事蹟에 대하여는 자세치 않아 現況만 기록해 둔다.

(5) 上院寺

上院寺는 원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오늘날 雉岳山이란 山名이 있게한 由緒 깊은 절이다. 우리들은 은혜깊은 평과 뱀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다.

前掲書「龜龍寺事蹟記」에 신라시대 無學大師가 다음과 같이 雉岳山을 노래한 詩를 볼 수 있

蛇沒雉岳兩鮮空 大小盤音四更中  
 雉蛇兩冤半宵鮮 正知無着報酌鐘  
 뱀 죽은 치악의 맑은 하늘 가에  
 크고 작은 종소리 四更中에 울려  
 평과 뱀 두 원혼 그밤으로 풀렸으니  
 비로소 無着의 은혜중 참 뜻을 알겠

위에서 引用한 詩句에서 우리들은 중대한 사실 하나를 추정할 수 있다. 俗傳에는 上院寺를 신라시대 義湘大師가 創建했다는 說과 또다른 說 無着大師가 창건했다고 하는 兩說이 있다. 그러나 이 詩句에서는 無着의 이름을 明記하여 지정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無着大師에 대하여 傳說的이고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 그의 生沒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前記한 國享寺에도 無着大師가 관계되고 있음은 想起할 만 하다. 따라서 이 詩句를 의지한다면 上院寺의 창건은 無着大師에 의하였고. 또 寺中에 있는 石塔 등 유물에 의하면 그 창건이 신라시대로 추정된다. 또 한밤중에 평이 울린 종의 바로 이 上院寺에 있었다. 은혜에 보답하는 연약한 평이 울린 이 종소리는 결국 전국 사찰에서 울리는 起寢法의 始源이 되었다 하며, 또 이로 인하여 山名을 雉岳이라 한 아름다운 전설을 간접하게 되었다.

「原州 邑誌」에 의하면 上院寺는 치악산 상봉에 있으며 世傳에는 암자 앞 바위에 龍馬의 피자욱이 있다 한다. 이러한 전설을 입증하듯 法堂앞 벼랑에는 말발자욱 형태로 패어진 자욱과 사람의 손자욱 같이 패어진 곳이 있으며 그 밑으로는 갈색의 흔적이 있다.

大雄殿을 위시한 法堂은 1968년 당시 住持 宋 文永法師와 義成보살에 의하여 重新復舊되었다. 法堂 앞에는 石塔 2基가 있어 高山寺刹의 운치를 더욱 장엄하게 해주고 있다. 석탑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나란히 雙塔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雙塔이 등장하기는 대체적으로 三國統一後 왕성한 國力에 의하여 전국 도처에 유행하게 되었다. 이 石塔은 신라 석탑의 定型을 따른 2重基壇위에 3층옥개를 형성하였으며 上部 相輪은 둥글게 연꽃 봉오리 모양을 새겨 일반탑에서 보기 어려운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동쪽탑의 바로 앞에는 火災敎을 보이는 佛像 光背와 蓮華台石이 보여 본래 이곳에 石佛이 있었음을 추정케 하나 현재 발견할 수 없다.

(6) 立石寺

원주에서 동북쪽 약 7km 지점에 옛부터 강원도 옛으로 유명한 황골(黃谷)이란 마을이 있고 이곳에서 다시 동쪽으로 약 3km 上方에 立石臺란 巨大한 바위가 깎아지른 듯 서 있다. 立石臺는 石山을 좋아하는 登山客들이 기초훈련을 위한 목표물이 되기도 한다. 이 立石 아래에는 「雉岳山立石臺」라고 篇額을 쓴 庵子가 있으나 이곳은 立石臺本래의 寺址는 아니고, 이곳에서 남쪽 50m지점 世稱 신선바위 바로 아래 옛날의 寺址가 지금도 遺存해 있다. 이 寺址는 처음에 신라 義湘大師가 이곳에 土窟을 짓고 修道했다는 口傳이 있을 뿐 다른 문헌이 없어 寺歷을 알 수 없다. 치악산의 主峰 毘盧峰에서 흘러내린 힘찬 줄기가 寺址 뒷 쪽의 신선바위에서 멈추었고, 바

른 쪽에는 급한 바위산이 총총히 내려오다가 立石台 벼랑에서 우뚝 솟았으며, 왼쪽에는 보드란만한 산봉우리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멀리 전면에 원주 시가지가 한 눈에 보이고 寺址 뒷 쪽에는 맑은 石間水가 있어 修道處로서 적합하였던 곳으로 보인다.

寺址 근방에는 잡초만 옥어졌을 뿐 다른 遺構는 발견할 수 없고 立石이 있는 전방에 粘板岩을 이용한 小形의 靑石塔 1기가 있다. 탑의 現高는 약 220cm로서 廢塔을 모아 쌓았으므로 部材가 결실되어 있다. 基壇은 塔面石으로 보이는 塔材들이 포개져 있고, 그 위에 蓮華紋을 새긴 粘板岩의 屋蓋石이 놓여 있다. 옥개석은 모두 5매로서 아랫쪽 3매에만 蓮華紋을 새겼고 上部 2매는 일반 석탑에서와 같이 素紋의 落水面을 나타내고 있다. 아름다운 蓮華紋 조각을 중간에 가진 이 옥개석의 下端部 一石은 일반 탑에서 기단 面石을 덮고 있는 甲石으로 造營된듯 하며 놓여 있는 화강석의 옥신석은 귀퉁이 기둥을 나타내는 隅柱를 模刻했는데 위의 二石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 탑도 花崗石의 塔材와 靑石塔이 混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석탑은 탑의 原形을 갖추지 못했지만 立石台 寺址에서 이러한 중요한 조각을 갖춘 청석탑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혼치 않는 청석탑이 普門寺와 이곳 立石台 두개 곳에서 나타난 것은 그 옛날 원주지방의 화려하였던 佛敎文化를 짐작케 한다.

다시 입석대로부터 서북방 약 20m지점 석벽에 마애여래좌상 1기가 있어 매우 흥미롭다.

불상의 총고는 86cm, 頭高 28cm, 어깨너비 40cm로서 뒷 쪽에는 頭光과 身光을 나타내었고, 結跏趺座했다. 下端部에는 蓮華台를 받치는 坐台를 역시 陰刻하였으며 높이는 22cm이다. 머리 부분은 완전 陽刻되었고 아래는 線刻으로 나타내었다. 머리는 螺髮이며 풍만한 얼굴은 잘 調和되어 있다. 法衣는 양쪽 어깨를 덮은 通肩이며 오른 손은 들었고 왼손은 腹部에 가볍게 놓았다. 특히 오른 손을 들어 結印한 모습은 寫實的으로 잘 처리되었다고 할 것이다. 跏趺坐한 오른 발은 法衣밖으로 들어내 線刻을 보이며 法衣의 衣褶등 처리가 단조로운 점 등은 古式을 따르고 있으나 목에는 세 줄의 주름을 나타내는 三道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마애불 正面에 콤파스를 놓았더니 佛像은 正西向하였고, 멀리 섬강이 굽이쳐 景觀 또한 絶景이었다. 이 마애불은 그 조각 수법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作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불상의 手印, 方向 등으로 보아 阿彌陀如來坐像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立石寺는 그 어느 때인가 彌陀信仰의 道場으로서 法燈을 이어왔으며 한 때에는 이곳에 훌륭한 彫刻僧이 있어 자기의 신앙을 딱딱한 화강석 암벽에 새겨 西方淨土에의 發願을 浮刻했음을 짐작케 한다.

### (7) 石 逕 寺

石逕寺는 원주에서 동북방 6km지점 雉岳山麓에 위치한다. 즉 板富面 丹邱里였으나 지금은 杏邱洞이다 石逕村 현재 이곳에는 전면 6간의 古屋에 石逕寺란 篇額이 있으며 고려말의 대학자 紆谷 元天錫先生의 齋室로 되어 있고, 그 뒷 쪽에 觀音殿, 宴府殿 등의 法堂이 자라잡고 있다.

光武 6年(서기 1897년)에 기록한 「石逕寺重修記」에 의하면 石逕寺는 원주의 동쪽 雉岳山의 서쪽에 있으며 그 창건 년대는 알지 못하지만 일찌기 古瓦가 나타났는데 그 紀年에 「永平」이란 銘文이 있어 대개 古刹이라 한다고 했다. 永平이란 年號는 西晉에서도 나오지만 그렇게 올려 볼 수는 없고 北魏, 宣武帝 年間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永平은 서기 508~511년에 해당되는데 과연 이때의 瓦當이 出現했는지의 與否에 대하여도 確言키 어렵지만 일단 元檀이 기록한 이 記文을 그대로 의지한다면 石逕寺 역시 상당한 古刹로 생각된다.

또 이 石逕寺는 원주지방의 사찰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 조선건국 초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목격한 紆谷은 이곳 치악산으로 避隱하여 농사지



으면서 여생을 마쳤다. 특히 紘谷先生은 조선 太宗의 스승으로 태종의 어린 시절에 글을 가르쳤다. 太宗은 등극 후에 어려운 정치풍토 속에서 스승 紘谷의 도움을 청하려 치악산을 찾아 紘谷을 만나려 했으나 先生은 太宗을 피하여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후 紘谷은 찾아온 國王을 대접하여 궁전으로 찾아 갔더니 太宗은 臣下로서가 아닌 스승의 禮遇로서 맞이했다는 說話는 유명하다. 紘谷은 결국 太宗의 간청을 물리치고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貞節을 끝까지 지켜 치악산을 내려오지 않고 이곳 石逕寺에서 세상을 마쳤다. 그후 나라에서는 그의 굳은 뜻을 가상히 여겨 「高麗國子進士元天錫之墓」라는 희귀한 비명을 내렸는데 현재 비와 분묘가 석경사 앞 약 100m지점에 있다.

先生은 생전에 經史 6권을 지어 함속에 깊이 넣어 개방치 말라고 유언했으나 증손대에 와서 문중회의를 열고 이를 개방하였더니 잘못 기록된 고려말의 역사적 내용이 바르게 적혀 있는 지라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불태워 버렸다 한다. 그러나 이때 詩集 두 권이 불길을 면하여 보존되어 후인들이 모르는 일들을 바로잡아 주었다. 이 중에는 고려 말 辛旽의 아들이라 전하던 禍王이 신돈의 아들이 아니라 恭愍王의 아들이라 밝혀 놓은 대목도 있다, 따라서 조선의 건국을 더욱 합리화 하기 위하여 고려말의 史實에 대한 曲筆을 바로잡아 줄 수 있었을 중요한 史料가 있었음이 확실하지만 소실되어 무척 아쉬움을 느낀다.

지금의 기록으로서도 고려말의 복잡한 상황을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石逕寺를 중심으로한 紘谷先生의 遺墨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고장의 큰 영광이다.

이제 석경사에 있는 紘谷先生의 詩句를 옮겨 보자.

#### 懷古歌

興亡이 有數하니 滿月台도 秋草로다  
오백년 왕업이 牧笛에 불었으니  
夕陽에 지나는 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눈마자 휘어진 때

눈마자 휘어진 때를 뉘라서 굽다던코  
굽을 질이면 눈속에 푸르르라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 詩句 속에서도 우리들은 紘谷先生의 서정적이면서 섬세한 일면과 더불어 굳은 절개를 엿볼 수 있다.

끝으로 先生의 碑文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原州元天錫墓碑

高麗國子進士紘谷先生墓碣(篆題)

高麗國子進士紘谷先生墓碣

先生原州人姓元氏諱天錫字子正高麗國子進士見麗氏政亂隱居獨行號曰紘谷先生及麗亡入雉岳山終身不出 太宗累召不至 上高其義嘗東遊 幸其廬先生避不見 上下谿石上 召守廬廬厚 賜之官其子洞爲基川縣監後人名其石曰 太宗臺臺在雉岳覺林寺傍今原州治東十里石鏡有紘谷先生墓又前一墓孺人之葬云初先生有藏書六卷言亡國古事戒子孫勿妄開傳之累世有子孫一人竊開之大懼曰吾家族矣舉而燒之其書不傳猶有餘遺詩什此所謂詩史者也吾聞君子隱不遺世先生雖逃世自隱非忘世者也守道不貳以潔其身者也伯夷之言曰古之士遭治世不避其任遇亂世不爲苟存天下暗矣不如避之以潔吾行故其傳曰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舉世混亂清士廼見孟子曰伯夷非」其君不事非其民不使治則進亂則退伯夷聖人之清者

也先生蓋伯夷之倫也鄉人爲之立祠以祀之祠在州北三十里七峯稽其世」牒始祖戶長克富克富生宗儒宗儒生倉正寶齡寶齡生倉正時俊時俊生精勇別將悅悅生宗簿寺令允迪允迪生天天錫天祐天常進士或曰仕顯於本朝無所攷天祐縣令孺人元氏宗簿令廣明之女非一元族氏以爲原有兩元是也長男壯直長同正次男洞基川縣監先生後世子孫甚衆基川之世最大其贊曰」

巖穴之士趣舍有時縱不列於世能不降其志不辱其身教立於後世則禹稷夷齊一也先生可謂百代之師者也。

通訓大夫前行司憲府掌令陽川許 穆撰竝篆  
外裔孫完山後人李命殷書

崇禎後二十七年庚戌三月 日立

#### (8) 鵠原寺

「原州郡邑誌」에 의하면 鵠原寺는 원주에서 동쪽 30리에 있으며 이곳에는 韓久庵集이 있었다 한다. 아마 木板의 久庵文集으로 생각되나, 이 절은 오랫동안 廢寺되었다가 1969년에 金秉俊主持에 의하여 新建되었으므로 久庵集은 발견할 수 없다. 현재의 堂宇는 6간의 法堂과 山神閣 그리고 寮舍가 있을 뿐 별다른 遺構를 발견할 수 없다.

이곳에 있는 鵠原山城은 옛부터 雉岳山麓의 激戰場으로 유명했다. 또 舊 邑誌에는 城內에 山城寺가 있어 山城 守護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山城寺는 鵠原寺의 別名으로 推定할 수 있다. 왜냐하면 城의 이름을 따서 불려진 鵠原寺가 城內에 있으므로 그 別稱으로 山城寺란 寺名이 나올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의 보다 면밀한 현지 답사와 考證에 따라 明確한 寺名을 기대할 뿐이다.

#### (9) 미륵사

미륵사는 原州市 鳳山 1洞 山5番地에 位置하고 있으며 이 절이 創建된 것은 1938년 신재남(女 78세)이 어느날 밤에 현몽하기를 神仙이 나타나 미륵불의 所在를 가르쳐 줌으로 이튿날 동이 트일 무렵 간 밤에 神仙이 가르쳐 준 場所로 달려가 보니 과연 그 곳에 높이 約 1.8m 程度의 미륵불이 있었고 또 그 場所의 뒷편은 옛날 천왕사란 절터였으므로 그곳에 미륵불이 있었다 하여 미륵사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現在 미륵佛像을 앞에 세우고 있는 여염집에는 보살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 (10) 觀音寺

原州市 台庄 1洞 山1番地에 位置한 觀音寺는 1960년 박보살이라는 사람이 6.25 때 單身으로 越南하여 北녁에 두고온 家族을 그리며 모은 財産을 佛界에 받쳐 佛道에 精進하게 되면서 創建되었다고 한다. 所有地는 없고 大雄殿이 8坪이며 代表者로는 初代 박보살 2代 朴壽福 3代 우용구이다.

#### (11) 無盡庵

無盡庵은 原州市 台庄 1洞 741番地 6班에 位置하고 1955년 홍충선이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려고 집을 지은 것이 動機가 되어 절을 세우고 大雄殿을 짓게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8坪의 자그마한 大雄殿이 있고 70家口의 信徒를 가지고 있는 이 암자의 代表者는 初代 홍충선 2代 안영진이다.

#### (12) 普賢寺

普賢寺는 原州市 台庄 1洞 78番地에 位置하며 1956년 6월 李在順에 의해서 創建되고 1969년 7월 15日 大雄殿을 新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5坪의 大雄殿이 있고 절 앞에 石佛이 하나가 있으나 下半身이 破佛된 것으로 높이 11.0m 둘레 1m의 花崗岩石으로 年代와 其他 모든 것

## 第5編 教育・文化

은 未詳이며 鶴鳳亭앞에 있던 것을 普賢寺가 創建되면서 옮겨진 것이다 代表者는 初代 李 在順 2代 邊 興根이다.

### (13) 五峰精舍

五峰精舍는 原州市 園洞 133番地 7班에 위치하며 불교를 보급 교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金 壽男에 의해서 1960年 설립 되었다. 54坪의 垡地에 25坪의 대웅전이 있으며 宗派는 元曉宗이고 住持는 金 壽男이다.

### (14) 原慶寺

原慶寺는 原州市 鳳山 1洞 山5番地에 位置하고 1965年 5月 崔 임순이 病을 얻어 治療次 祈禱를 드리고 致誠을 들이던 곳에 집을 지은 것이 動機가 되어 이룩되었다. 6坪의 자그마한 法堂이 있으나 信徒는 한명도 없고 이 절을 이룩한 崔 임순 自身만이 佛道에 精進하는 마음으로 절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 (15) 日光寺

日光寺는 原州市 台庄 1洞 5班 10號에 所在하고 있으며 1966年 9月 조 병선이 創建하였으며 1971年에는 建坪 4坪의 大雄殿을 建立했고 面積은 總 54坪 建坪 33坪 大雄殿 4坪에 達한다.

### (16) 淸涼寺

淸涼寺는 原州市 台庄洞 22班에 위치하고 李 奉澤住持에 依해서 불교 교화와 신도축수의 道場으로 1967年 3月 창건된 절이다 대웅전과 요사채가 있고 宗派는 天台宗이다. 李 奉澤住持가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17) 淸翰寺

淸翰寺는 原州市 台庄 2洞 1班에 위치하고 韓 昌浩에 依해서 1969年 창건되었다가 現 位置에 移轉하여 대웅전을 짓고 절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宗派는 天太宗이다. 住持는 淸翰寺를 창건한 韓 昌浩이다.

### (18) 靈泉寺

原州市 台庄 1洞 山15番地에 位置한 靈泉寺는 高麗末 나옹스님이 創建하였다는데 壬辰倭亂 때 燒失되었던 것을 어느 處士의 힘으로 다시 절을 이룩하였으나 6.25動亂으로 또 다시 燒失되었다. 1969年 김 대성에 依해 建物이 重修되고 大雄殿이 落成되어 月精寺의 末寺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靈泉寺 또는 가매기절이라고 하는 이 절은 總 面積 75坪에 大雄殿이 10坪이고 現在 住持로는 김 장대가 就任하고 있으며 住持로부터 일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女僧뿐이라는 점과 옛날 石塔 2基가 있었다가 절의 廢刹로 옮겨진 것이 至今은 原城郡廳과 景福宮에 保存되어 있다.

### (19) 神仙庵

神仙庵은 原州市 鳳山 2洞 개륜골에 位置하고 李 法性이 入山修道中 現夢하여 修道精進의 도장으로 創始하였고 1970年 7月 4日에는 梵鍾과 鍾閣을 竣工 1973年에는 미륵불상을 竣工하였는데 절의 總 面積 10,000坪에 建坪이 80坪으로 三聖閣, 極樂殿, 鍾閣, 요사채, 大雄殿, 노건의 建物이 있고 73年 8月 20日에 竣工을 한 미륵불은, 大理石으로 높이 6m에 둘레가 4m나 되는 大型으로 原州地方에서는 第1 큰 미륵불이며 1970年 7月 4日에 주조된 梵鍾은 直徑이 3尺 1寸 鍾高가 5尺 3寸 그리고 무게가 2,000근의 큰 동종인데 鍾에는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功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聞鍾聲煩惱斷 智慧長菩提生 離地獄出三界 願成佛度衆生」 글귀와 시주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太宗이 雉岳山의 耘谷先生을 만나러 가다가 마셨다는 甘露水는 神仙이 下降하여 이

물을 마시고 登天하였다는 由來가 되어 甘露水에 남순童子를 안고있는 미륵상은 높이가 3m 둘레가 1m이며 庵子에는 創建主인 李 法性보살과 僧侶 3명이 佛道를 닦고 있다.

#### (20) 甘露寺

甘露寺는 原州市 台庄 2洞 12班에 위치하고 金 龍振住持가 불교에 뜻을 두고 정진하다가 1970年 8月 대웅전을 준공하여 절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宗派는 太古宗이다. 金 龍振住持가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1) 法雄寺

法雄寺는 原州市 鶴城 1洞에 위치하며 1971年 4月 27日 10,000,000원의 豫算으로 一軍法堂으로 起工하여 同年 11月 13日 竣工 오늘에 이르고 있다. 宗派를 超越하여 佛教에 關한 主要行事를 많이 行하고 있는 이 절은 垆地 1,000坪에 70坪의 法堂과 500貫 規模의 梵鍾이 있으며 1軍司令部에서 管理하고 어린이회, 學生會, 婦女會, 佛教幼稚園이 있는 이 절의 역대 法師는 初代 권기중中尉 2代 장충식中尉 3代 이지행中尉 4代 하춘길大尉 5代 권오성大尉 6代 장충식大尉 7代 김덕수大尉이다.

#### (22) 龍華寺

原州市 丹邱洞 山 12番地에 所在한 韓國佛教太古宗 龍華寺는 佛教 傳道에 힘쓰던 李 玉順 鄭 順任에 依해서 1971年 9月 大雄殿을 起工 同年 12月 竣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2年 3月 20日 創立認可를 받은 이 절의 寺刹 垆地는 429坪에 建坪 30坪이고 現在 崔 俊 錫住持가 있다.

#### (23) 正覺寺

原州市 台庄 1洞 106番地에 位置한 正覺寺는 1971年 11月 26日 金 允一이 生前에 佛道の 참 뜻을 世人들에게 傳하기 위하여 創建하였으며 당시 嶺 산기슭에서 높이 1m의 石佛을 發掘하여 大雄殿 앞마당에 安置하였다. 現在 이 절의 總面積은 垆地 168坪 大雄殿이 15坪이다.

#### (24) 供德寺

供德寺는 原州市 台庄 1洞 145番地에 所在하며 1971年 金 性言이 創建하였고 同年 20坪의 大雄殿을 增築하여 오늘에 이르고 현주지는 金 鐘順이다.

#### (25) 華鳳庵

華鳳庵은 原城郡 興業面 沙堤里에 位置 하며 1913年 龔亞(병어리 귀먹어리) 僧侶에 依하여 設立되었다가 廢利된 후 金 승업에 依해 再建 되었으며 現住持인 민 광열이 1966年 12月 절에 들어옴으로서 面貌를 갖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興業으로부터 北쪽으로 3km 地點인 배부령山中턱에 있는 이 절은 꿈에 현몽하여 얻었다는 藥水가 있어 속병과 옷오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効驗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절 周邊으로 신선바위 將軍바위가 있으며 15坪의 大雄殿에 歷代 代表者는 初代 병어리僧侶 2代 金 승업 3代 민 광열(法名 靑岩)僧侶等이다.

#### (26) 神仙庵

神仙庵은 原城郡 文幕面 建登 2里에 位置하며 確實하지는 않으나 約 30年前 이곳 藥水가 有名하다는 소문과 함께 최 현남이 現位置에 庵子를 세우게 되므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4面이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으로 되어있으며 바위속에서 솟는 시원한 藥水 또한 淸涼하기 이룰데 없는 이 절은 約 150坪 程度의 建坪에 法堂은 2間이고 藥水를 찾는 사람은 年 100餘名이 넘고 있다. 住持로는 최 남현이 在任하고 있다.

(27) 七星庵

七星庵은 原城郡 文幕面 文幕里 山7番地에 所在하며 至今으로부터 約百餘年前 김 해월(法名 翠雲)에 依해서 創建되었다. 그 후 절을 찾는 사람도 없고 지키는 僧侶도 없이 비어있던 것을 6.25 때 現 住持인 朱仁鉉이 避難으로 이절을 찾게 되므로서 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文幕으로부터 東쪽으로 2km 地點인 천마산 중턱에 位置한 이 절은 8坪짜리 大雄殿과 요사채 三間이 있다. 절 앞에는 派越將兵의 武運長久를 祈願하는 四層石塔(높이 350cm 1967年 4월에 建立)과 記念碑(높이 120cm 넓이 40cm 폭 20cm)가 있고 그 옆으로 30年前 이 절에서 보살열녀가 났다는 얘기와 함께 보살 慶州 金氏 烈女碑(높이 90cm 넓이 35cm 폭 13cm)가 있으며 朱仁鉉이 住持로 있다.

(28) 極樂寺

極樂寺는 原城郡 文幕面 宮村 2里 300番地에 所在하며 至今으로부터 20年前 允氏라는 사람에 依해 創建되었다가 1970年 現 住持인 안 시보(法名·惠岩)가 들어와서 法堂과 三聖閣을 增築하고 丹青을 함으로서 절의 面貌를 갖추게 되었다. 文幕으로부터 東南쪽으로 6km地點인 명봉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이 절은 24坪의 建坪에 大雄殿은 6坪이고 太古宗寺이다. 얼마전 옛 절터로 보이는 곳에서 구덩이를 파다가 20cm 程度の 얇은 돌부처를 發見하여 保管하고 있는 이절의 역대 代表者는 初代 孔氏 2代 朱仁鉉 3代 이 문직 4代 안 시보이다.

(29) 三峰寺

三峰寺는 大宗教로 原城郡 神林面 龍岩 2里에 位置하며 1960年 어느 女人에 依해 創建되었으나 運營이 어려워 廢刹直前に 있을 때 1965年 病을 얻은 이 만희 婦人이 꿈에 現夢하기를 이절을 引受받아 佛道에 精進하라는 부처의 啓示가 있으므로 절에 들어오게 되었고 절의 面貌를 갖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神林으로부터 東南쪽으로 2km 地點인 峰山中턱에 자리잡은 절의 建坪은 45坪 大雄殿은 14坪이다. 절 뒤쪽으로 이름난 藥水가 있어 찾는 이가 많으며 절앞으로 바위 위에서 巫堂이 춤을 추다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와 함께 巫堂바위가 있으며 전 영애가 절에 보살로 있다.

(30) 德伽庵

德伽庵은 原城郡 貴來面 貴來 2區 양아치재에 位置하고 1963年 金瑩이 火田民으로 現 場所에 定着하여 佛道에 뜻을 두고 절을 이룩하게 되므로 創建되었다. 貴來로부터 西北 쪽으로 8km 地點인 미륵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이 절은 附近의 景致가 秀麗하며 特히 높은 곳이지만 噴水臺를 만들어 3m 程度の 높이로 뿜어나오는 물줄기는 한層 新鮮한 느낌을 주게 된다. 20坪의 大雄殿에 建坪은 60坪으로 現住持는 金瑩(法名 영도스님) 僧侶가 在任하고 있다.

(31) 白雲寺

白雲寺는 大宗教로 原城郡 神林面 金倉里에 位置하며 1964年 洪玉女에 依해 創建되었다가 1974年 5月 現 住持인 朴光烈이 佛道에 뜻을 두고 들어옴으로 절의 面貌를 갖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神林으로부터 南쪽으로 2km 地點인 白雲山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이 절은 20坪의 建坪에 大雄殿은 10坪이며 아직 절을 이룩하고 있는 中이라 뚜렷한 것은 없으나 절앞에 높이 60cm의 坐佛像이 있으며 절 뒤 쪽으로 藥水가 있고 現在 朴光烈(전낭스님) 住持가 在任하고 있다.

(32) 天恩寺

原城郡 貴來面 貴來 2里 248番地 양아치재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貴來로부터 東南 쪽으로

8km 地點에 1966年 9月 16日 洪性益(法名晚松) 僧侶에 依하여 創建되었고 73年 4月 8日 大雄殿 16坪과 요사채 130坪의 竣工을 하였다. 좀더 큰 規模로 現 地點에서 2km 程度의 距離에 6백坪의 地를 세워 여처스님과 함께 修道生活로 餘生을 보낼 計劃이라고 한다.

### (33) 黃山寺

黃山寺는 天台宗으로 原城郡 貴來面 周浦里에 位置하며 新羅 敬順王 때 創建된 것이다. 歲月이 흐름에 따라 廢刹되어 없어지고 옛 절터에다 1970年 3月 장 용기 化主가 地를 다시 建立하프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貴來로부터 西北 쪽으로 6km 地點인 미륵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이 절은 40坪 建坪에 純 石造建物로된 大雄殿이 24坪이며 오랜 옛날부터 있던 藥水와 우물이 있어 찾는 이가 많으며 新羅 敬順王公主가 身病治療次 이 절에 居處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傳하여지며 至今도 절 앞에는 3層石塔과 절 뒷쪽으로 13.5m나 되는 미륵佛 이있고 절入口에는 浮屠가 2基있다. 또한 至今도 절 周圍에서 여러가지가 發掘되고 있는데 其中에서도 銅鏡과 石佛 5點은 貴重한 史蹟資料가 되며 現住持로는 장 용기(法然)스님이 在任하고 있다.

### (34) 富泉寺

富泉寺는 興業面으로부터 4km 떨어진 原城郡 興業面 沙堤里 무봉산 중턱에 位置한 寺刹로 新羅 景順왕 時節에 白雲스님이 景致의 아름다움과 秀麗함을 보고 創建한 절로서 特히 子女를 얻기 위하여 佛供을 드리면 子孫을 얻는 靈驗한 事實이 많았다고도 傳하여오고 있으며 壬辰倭亂으로 因하여 이 寺刹이 燒失되고 形跡도 없이 내려오든 것을 白雲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再建할 것을 決心한 정 태순僧侶가 여러가지 難關을 克服하여 가며 1970年 4坪의 大雄殿을 새로 세우고 韓國佛教 太古宗派로서 代表者로는 정 태순 僧侶가 있다.

### (35) 念佛庵

念佛庵은 原城郡 文幕面 宮村 1里에 所在하고 新羅時代부터 現位置에 念佛庵이란 절이 있었다고하나 燒失되어 없어지고 至今있는 念佛庵은 佛道에 마음을 두고 佛教의 傳播를 目的으로 한 現住持 김 동운(法名法孚)이 1974년에 들어와 地를 增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文幕으로부터 東南 쪽으로 6km 地點인 명봉산 중턱에 있는 이 절에 1,000坪의 地와 大雄殿은 12坪이다. 절앞에는 樹高 30m 둘레 4m 樹令 600年程度되는 느티나무가 서있고 大雄殿옆에는 藥水가 있는데 이 藥水는 水質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으며 傳하여지는 얘기로도 이 조그만 藥水에서 一定하게 흘러내리는 샘물은 한명이 떠먹으나 百名이 떠먹으나 줄지도 않고 더 나오지 않고 繼續하여 흘러 나온다고 한다. 또한 30cm 程度의 옛날 주불이 保管되어 있는 이 절의 現住持로는 김 동운이 住在하고 있다.

## (나) 廢寺址 一覽

### (1) 法泉寺址

원주지역에는 고려초기 훌륭한 불교문화를 대표할 만한 3寺가 있다. 즉 法泉・居頓・興法寺가 그것이다. 이들 3寺는 모두 고려 일대를 통하여 王師・國師 등 高僧 碩德을 배출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다 廢墟가 되어 잠초옥어진 寺址에 흩어진 귀중한 遺構들이 지난날의 榮華를 말해 줄 뿐이다.

그들 중에 法泉寺址는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에 위치한다. 절의 年記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수 없으니 「新增東國輿地勝覽」 제 46권 原州牧 條에 의하면 조선조 초기 名儒 徐居正은 客館 重新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居正이 젊었을 때 雉岳・法泉 등 여러 山寺에서 글 읽느라고 원주를 왕래한 것이 한 두번

이 아니었다…」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法泉寺는 徐居正이 살다 간 조선조 초기까지만 하여도 法燈이 相承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寺址에는 고려초기 일세를 風靡하였던 智光國師 玄妙塔 유허가 남아 있어 지난 날 화려하였던 佛教文化의 盛觀을 짐작케 한다.

일찌기 이 遺址는 뒷산에서 흘러 내린 흙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나 1965년의 發掘에 의하여 완전히 整濟되었고 당시 出土된 石材들은 현재 本殿 쪽 寮舍址에 보존되어 있다. 이때 出土된 壇장에 보존되어 있는 유물을 열거하면 佛像光背・破佛・石塔材・佛頭・拜禮石・蓮華紋台石・龍頭・기타 用處를 잘 알 수 없는 石彫物등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出土된 유물들은 法泉寺의 寺格을 과히 짐작케 한다.

아늑한 野山에 자리잡은 이 塔碑殿址는 약 4m의 축대를 쌓아 올리고 그 위 약 百여평의 대지에 台石과 柱礎가 完存해 있어 중앙에 本殿 좌우에 寮舍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本殿은 주 초석으로 보아 前面 3칸이었음을 알겠고, 또 그 앞마당에서 화강석재의 板石이 놓여있어 바닥을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本殿에서 비켜 왼쪽에는 智光國師玄妙塔碑가 그 섬세한 조각을 지닌 龜趺의 등에 直立해 있다.

이 碑는 현재 國寶 第59號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려 宣宗 2년(遼道宗 11年) 즉 서기 1085년에 建立되었다. 그 크기는 총고 약 455cm 碑身 길이 297cm 비신폭 142cm이며 字徑은 전면이 2.1cm 후면의 銘은 2.7cm이다. 碑文은 鄭惟產이 지었고 安民厚가 글씨를 썼다. 事實적으로 조각된 귀부는 정면으로 향하였고 등에는 重廓甲文이 正六角에 가까우며 內空에 王字를 陽刻했다. 龜趺와 碑頭가 화강석임에 비하여 碑身은 粘板岩으로 되었고 碑面에는 井間을 넣어 銘文은 더욱 整齊되었다. 또 碑面 주위에는 아름다운 花紋을 돌렸고, 좌우 측면에는 각각 두 마리의 飛龍이 如意珠를 회룡하는 모습을 陽刻했다. 이 비석과 同形의 양식을 보이는 것으로는 경기도 開豐郡 嶺南面 玄化寺碑와 경기도 安養 七長寺 慧昭國師碑가 있다. 이들은 시대적으로 4~50년 앞서 있으나 그 조각으로서는 단연 智光國師碑가 이들을 훨씬 능가하여 11세기를 대표하는 頂點에 도달한 秀作이라 할 것이다.

이 碑石에는 智光國師의 행적이 기록 되어있다. 碑銘에 의하면 國師는 고려 成宗 2년(서기 984년)에 出生했으며 諱는 海麟이요, 字는 臣龍이며 俗姓은 元氏이다. 幼名은 水夢이요 原州人이다. 어려서 儒學을 배웠으나 뜻이 더욱 고매하여 16才에는 法阜寺의 寬雄大師에게 佛經을 배우다가 大師를 따라 서울 海安寺에서 得道하였으며 穆宗 2년(서기 999년)에는 龍興寺에서 具足戒를 받고 21세되는 해에 王輪寺의 大選에서 大德의 稟受를 받았으며 고려 顯宗 때 重大師가 되어 10여년을 水多寺에 있다가 海安寺로 옮겼다. 德宗 때는 師를 더욱 중히여겨 三重大師로 삼는 동시 磨衲田衣(袈裟, 法衣)를 내렸고 靖宗 때에 僧統이 되었다. 또 文宗 때에는 唯心の 妙한 뜻을 講하여 磨衲僧伽梨(法衣) 領을 받았으며 同王 8년에는 玄化寺로 옮겨 다음 해 王師가 되었다가 그 다음 해에 融炤의 法號를 받고, 文宗 12년(서기 1058년)에는 國師가 되었다. 드디어 21년에는 王의 聖대한 전송을 받으며 法泉寺에 돌아와 3년을 지낸 文宗 24년(서기 1070년) 10月 23日 聖한 몸을 右脇으로 누었다. 밖에는 쓸쓸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師는 조용히 일어나 跏趺坐하고 弟子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부분 4字 탈락되었음) 하자, 제자 답하기를 「비가 내립니다」하니 이 말을 들으면서 示寂했다. 옛날에 舍利弗(석가여래 十大弟子中 1人)이 入滅하자 無色界의 諸天이 슬피 눈물을 흘려 가는 봄비가 내렸다고 하더니 이제 오늘 밤의 비가 諸天

의 눈물이 아니겠는가. 世壽는 87이요 僧臘은 72니 謚號는 智光이다. 法阜寺의 동쪽 산에서 荼毗(火葬)하고 浮屠를 法泉寺에 奉安했다. 그러나 이 부도는 1915년 서울 景福宮으로 옮겨 현재 정원에 安置되어 있다. 그러나 부도의 조각 양식등이 우수하여 한일합방 후 일본 大阪까지 搬出되었다가 국내 여론에 의하여 返還되었으며 6.25사변 당시에도 포탄에 피해를 입어 1957년에 보수되는 등 原位置를 떠난 이후 많은 수난을 겪었다.

현재 국보 제10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고 610cm이다. 그 건립은 國師가 入寂한지 15년이 지난 宣宗 2년 (서기 1085年)으로 보인다. (大安元年歲在乙丑仲秋月 日樹)

이 부도의 독특한 점은 재래의 부도양식인 八角圓堂의 기본형태에서 벗어나 平面方形을 기본으로 하는 새 양식을 이룩하여 한국 墓塔中 최대 傑作을 이룩했다는 점에 있다. 塔의 각부에는 彫飾이 滿鑲되어 있고 특히 地台石 네 귀퉁이에 龍의 발톱모양을 조각하여 地面에 밀착된 점은 塔의 견고성과 안정을 더해주고 있다. 塔의 상층 甲石에는 화려한 帳幕形이 4面に 드리워져 장엄되었고 또 各面에 眼象·雲紋·蓮華紋·草花紋·寶塔등이 빈틈 없이 조각 되었다. 屋裏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佛·菩薩·鳳凰 등이 복잡하게 조각되었고 相輪部도 仰花·覆鉢·寶蓋寶珠가 층층이 조각되어 고려시대 부도로서 他의 추종을 不許하는 최대 최고의 걸작이다. 비록 原 위치 原州를 떠나 景福宮의 중심에서 못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음은 또한 우리 고장의 영원한 자랑이 아닐 수 없다.

法泉寺址에서 남쪽으로 약 800m 지점에 完形의 幢竿支柱가 서 있다. 이 幢竿은 佛刹의 표시요, 또 그 寺格을 천양하는 일종의 旗幟로서 대체적으로 규모있는 사찰입구에 세워 上端에 깃발을 달아 大刹의 宗風을 선양하든 表幟였으며 현재 法泉寺址당간은 1/3정도 土石과 풀썩에 묻혀 田土중에 서 있다. 이 刹柱의 양식은 대체적으로 둔중하고 우람한 모습이 고려시대 作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당간지주는 國師의 塔碑 浮屠와 함께 建立된 것으로 보인다. 寺址內에 흩어져 있는 수 많은 石物과 田土 한 가운데 쓸쓸히 서 있는 당간지주에서 그 옛날 화려하였던 法泉寺의 寺格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현재 法泉寺址內에는 國寶1점이 있고 또 이곳으로 부터 移安된 중요한 국보 浮屠 1점이 있었던 셈이 된다.

智光國師의 碑銘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現 地名은 原城郡 富論面 法泉 2里 院村이다.

贈諡智光國師玄妙之塔碑銘(題額)

高麗國原州法泉寺講眞弘道明了頓悟戒正高妙應覺探玄道源通濟淵奧法棟具行了性導首融炤朗徹贈諡智光國師玄妙之塔碑銘并叙

中大夫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尙書禮刑部事監脩 罔

史兼 太子大傳上柱 國臣鄭產奉 宣撰

承奉郎尙書都官郎中緋賜魚袋臣安民厚奉 宣書并篆額

臣聞 瞿曇彌敷演妙音瓦三摩地蘇槃度製成高論窮八識源開相應之眞宗藩廣顯揚之正教斯所以誠我人於筏喻旌□宰與軌持雖至理本乎虛玄等無差別而諸根由乎利鈍悟有淺深然汲引於愚迷則指陳其權實暨乎去佛滋遠遺文漸穢有如玄奘之傳念念相續探彼修羅之窟拳拳服膺崇信寶乘競騰鋒辯襲晉翻而觀奧奧並振類經沿隋譯以鉤深俱維絕紐東流之法法非異內向者心心自通茲故間出魁雄鍾爲晉胤播威名於賢劫研戒定於梵題慈氏之分身降毗梁帝軼 文殊之現跡來應穆王普化仁□不弘象正願祈 聖祚助致鴻均者唯我國師而已哉師諱海麟字巨龍俗姓元氏幼名水夢原州人也惟高惟曾積善積德數載易安貞之繇用晦而明達彥升儉約之風不副其朴祖諱吉肩卜筮首事陰陽著象何虞觀變而仰膺軋顯鑄龜得兆決疑而無俾世迷父諱休鐵蓮衙官譽先椽吏思得床 之嗣愛聞椒衍之詩母李氏利契提壺恭踰舉按無邊善願宛然光



目婦人寂勝殊容知是妙顏聖□□夢河海澄澈井泉涌沐因以有娠甚於吞氣履梅之跡那羨於姜嫄託胎之期冥符於王邵既彌厥月爰發其祥以雍熙元年歲在開逢沼灘徐月晦日誕 師於私第歟故童年號爲水夢也昔明王即位二十四年江河泉池忽然汎漲是 佛生之瑞比於 吾師資始之徵一無異焉 師「日蔗分精沁蓮粟性銳意於斷除貪愛非心乎資益色身甫及韶季動慙幼學謁李守謙請業謙見異之曰余則不知碩量爾宜務擇明師矣或有一老嫗善相者見文在手謂 師曰你若爲僧必貴於世 師泊聞達算祗事道籌不觀孔孟之方尙鄙老莊之槩錙銖軒冕糠粃膏粱遽就法阜寺大師寬雄處數學之次雄公適指京華俄辭水石彼則浮杯以渡纔出五雲 我則負笈而追匪遙千里同歸輩下即占山」西旋接于海安寺俊光方丈剃髮毀容出家修道漸展綽義於函杖款窮縹帙於貫花魏蒼舒秤象之年解傳眞諦迎衛國駟烏之類舍讓金公其於檢括機緣廼□激揚宗要一聞千悟功倍於嚴師兩智三明」道存於紹 佛雄公悅而名之海濤以統和十七年首夏之月稟具於龍興寺之官壇洗心離染如手畫空矣時年二九例被崇教寺開瓶之恩初職爲得名也仍赴慈雲寺唱薩之場焚修向畢雄公於法泉寺」安寢之頃間夢見一鷹飛到則伸左拳以捧之又兩山君來入於後園互相踊躍徹明而去雄公異而誌之翌日 師竭來本寺此其應也 師夢到海濱手捉小魚吞之覺而解之曰魚則鱗也因以鱗爲名巨」龍爲字矣春秋二十一赴王輪寺大選談經而言近意深命侶而問同答異舛彼望者如盲之執燭或醜爭者止語於御枕心息諸緣敢歎波濤之依水法離羣動應塵棄簫之假風解議圍而憐梵壘降義忍鎗兮軋轍亂捉塵而一趨試可折床之衆許明揚仍署大德于時 師以謂曰紛吾慙後於義龍瑞聖冀先於仁獸故畧以麟改鑄爲名也統和年中受法號曰講眞弘道二十八□ 師將還法阜寺路值都」講眞肇偕行次聞肇公會曆算之法師請傳之取則而易於反掌移謀而明若發矇賈餘勇於恒流究多能於鄙事者矣屬統和末 我聖考顯宗御宇第五年也特蒙 睿獎加□□□太中祥符符十□□□號爲明了頓悟天禧五年於鎮京重興寺爲夏講說師談傾法澤停火宅以晨涼炤徹慈燈底昏衢之夜曉竺□西意 師每一稱箕子古都衆皆三讀其後見耆宿先公社會詞疏文理不便改而製之□□□道翦截浮辭出語成章惠璩以之魄褫分文足韻疊憑于以顏其逸妍敏捷之能侯誰的對乎太平年中加重大師戒正高妙應覺爲號住持水多寺十季有 勅移住海安寺迄于 憲宗臨朝轉甚重之特授三重大師并錫磨衲法服一領加法稱曰探玄道源未幾加 授首座兼 賜磨衲田衣一箇者□□□滋深寧許井蛙之測縈流翹翼却輕夏燕之投疑出世之 覺王幸同時於 仁主蓋海之聲無央數懸河之辯不盡言重熙季中加號曰通濟淵奧法棟忽一旦 宜許入內俾演蓮經 師螭陸躡雲貌床講雨標眞顯正牛車之奧旨贊張剪惑裁疑龜木之妙詮玉振璧諧 鈺聽奚謄 珎頒別 賜細繡幢相服二領十四年擢 授僧統迨于 今聖上育夏臨民 聖股布政洪業已臻於幢鏤淪誠屢切於那摩洒 召師於琳宮講唯心妙義仍 賜磨衲僧伽黎一領 漢闕九重 負屨者親迎象步慧徒十百升堂者謂透龍門遼公慙在北之精通僧徹讓流中之寵錫其年中荐加具行了性藥首爲號且或祇園釋。胤寔惟教所由興威里神童疇不禮耆來學是以故守大師門下侍中追贈中書令章和公李諱子淵遂許第五男過令落髮竚望樞衣爲神足以服勤謁 法身而讚仰何者今金山寺住持三重大師紹顯是也大師辭親甲第節食卯齋想板掖之后妃悉云同氣矧萼樓之兄弟皆謂此甥乃如之人以歿其道併通儒釋頓絕等倫德行文章夔掩魯堂十哲慈悲智慧全超魏寺千僧資峻玄班力扶恭世其壯麗 師門之盛莫之與京乎重熙二十三年南呂月有 聖勅移住玄化寺師固辭不得迺捨驅馬一疋先納于寺俄有一比丘來申賀謝須臾不知所去此則聖僧之靈驗也入院後夜分魂榻之際與一僧同遊則傍有神人告曰而 國師也彼 王師也豈則言猶在耳嘉兆首稱於瑞錄吉音漏溢於環區矣況國師也何偏局乎內宗亦兼羣乎外典生知衆妙夙齡欺朱勃才童強識羣書時譽冠惠超學士至若詞峯倚日筆塚擎天若警句之愈工被鉅儒之寡和湯開土碧雲雅作豈是壤奇李謫仙白雪清吟誠爲瑣劣較於縑素之侶亦不可同年而語矣其或期憑梵福益盛 宸圖傾檀施之財藏工依之價奚徵愷筆繪出 辟容或鑄鑊鍾兼成法具新營 寶剎移觀史之天宮敬造 金言悉拘那之海藏斯所謂始壇乎發引誓願終圓乎締大因緣其諸善奉行之采豈可殫籌乎清寧二年十月日 上謂之曰鵬者則非法無以救迷 聖則非師無以請益苟能悟法者可以爲師乎特降國書諮請遂差遣工部侍郎張仲英尙書左丞柳紳禮部侍郎金良贄等備行三反之禮續遣知中樞院事異惟忠押 賜錦

詭法服銀黃器用香苻等 師膠讓不獲 命即以十一月四日 大駕行幸于內帝釋院備禮 拜爲王師彼其周之同載吳之同輦者共在下風矣三季 進法稱曰融炤四年五月初一日 上欲望爲 聖師致書三請以是月十九日備 金駕親幸奉恩寺封 我師爲 國師封靈通寺主僧統爛圓爲 王阜者涓辰並 授於不稱兩相合矣同日抵於承於擊龍二美顯焉觀其所由歎未曾有衛所夢神人之吉語必識此矣同遊之僧靈通寺主是也五季陽月八日 師赴內殿爲百座會第一說主才宜半偈荐集不休累 進法稱曰朗徹咸雍三年二月日 師欲歸安于法泉寺幾與暮齒之嗟縷陳身退三上需頭之奏確執懇辭 上優詔從之以九月二十二日 駕幸玄化寺特設闔院僧齋兼置賞錢之筵訖 率□□班拜辭後則遣左承宣中書舍人鄭惟產押上茶藥瑤貨等名數夥多刪煩不載 早取是月二十七日發行指本山 上命太子率諸王百僚於南郊錢別特差道俗員寮等慰送于本寺也 師下山後□□仲夏之月 聖上以延德宮第六王子許令剃髮捷息于玄化寺舊住奉天院特授首座者斯緣類肖 國師之邊幅也是歲十月二十三日晏陰右臥而寢此夜零雨其濂 師寤而跏坐謂弟子曰□□□□答曰雨也聞言則示化矣昔鷲子人滅無色諸天所泣之淚如春細雨今之夜雨豈非諸天之淚乎嗚呼哀哉報年八十七僧臘七十二即世前夜有二星見其大如燈又有大虹二條如赤□之雙臥此□□□示滅之兆也門□首座法靈三重大師韶顯等擗踊訃訖於 彤陛 上則震悼尋遣左街僧錄崇演保章正全參蘭等監護葬事續差遣專介往彼殯堂致其卓祭 贈謚 曰智光併 賜茶香油燭及原州倉穀以充拔薦之資十一月九日選勝于法阜寺之山東茶毗禮也是時人祇僭憫天地晦冥鳥獸悲鳴峯巒慘列有情無情皆感 德之終乎 上追嘉軌範敬弗標題欲使刊黃絹之辭樹貞珉而不朽煥 赤髭之髭流歷代□長存奚 命厥儒俾甄鴻烈臣牛泔校量兕海寡能謬奉 綸宣罔由恭讓挹其 風而紀其 德雖堅匪石之心膚於學而拙於才自愧無錢之手輒將狂斐但罄□培謹爲銘曰

妙法奚自 能仁所宣西軋首出東震驢傳諦分眞俗理應機緣導迷歸正憑實假權<sup>其</sup>二大教既周群生胥悅惠日流光岸谷皆徹慈雲灑潤萬蘭不別去 聖逾遙遺風欲絕<sup>其</sup>二其誰紹者唯 我尸之誕鍾恭氣端遼 明時辭親割愛捨素從繹釋林萼鳳簪固著龜<sup>其</sup>三慈發著提口修般若內究空宗外工儒雅品匪地前譽菩天下福智相嚴比倫譽寡<sup>其</sup>四戒賢再出無着重生德瓶恒滿心鑑轉明蓋門鍊行 藥闥馳聲 瑤皇請益寶世□榮<sup>其</sup>五爲 萬乘師合諸天道普祐邦家永堅懷抱崢嶸歲陸危園封告老盧阜于歸 高年是禱<sup>其</sup>六身雖不漏命也云亡醍醐輟味葛藟歌香 筌宰茹茹暗斷肺腸黎夷軀動如喪爺孃<sup>其</sup>七吓哲弟之蜂屯感遺言而孺慕甄北沒之先芬勒南刊而後論儼海塞以河湮或人新而代故人庶 淑德與雄名亘將來而有裕<sup>其</sup>八

秘書省陪戎校尉臣李英輔大匠口張子春等奉宣刻字

(裏面)

故法泉寺主智光 因師碑銘陰記如左

玄化寺主僧統韶顯俗離寺主 王子僧統釋窺首座慶玄三重大師釋□□大師灌雲弘諦占顯融保嵩幹繼相僧鑑眞召向賢承覺同壽祐翔雙秀額釋稱定神覺明冠僧元瓘右賢諫如釋翊覺玄尚之釋雲邦蘭甫賢釋琳證祥釋因稟宗祐承眞領眞鑑世梁等一百三人□師賢蓋忠瓘等一十七人大德定支眞保等二十二人受教繼業者也□□僧錄先亮重大師玄占慧宗梁濟廣碩慶忠念忠心月應躋敏成慶調元崇元釋等二十八人大師義雲釋升爲顯等二十三人大愚崇器暹月弘學均善等二十五人隨職加階者也重職惠燈弘範等一千一百餘人慕德歸化者也首座釋虬法靈三重大師占先爲現宋光重大師昇瓘成現繼言安□道生講雲利眞大師暹現周現神暢貫成」大德周蘭秀岳單職眞瓘等五十二人先後 師而沒世者也

右件門徒開座職名彫錄施行」

承奉郎尚書都官郎中 賜緋魚袋臣安民厚

大安元年歲在乙丑仲秋月 日樹 臣李英輔臣張子

(碑身高九尺八寸幅四尺七寸表面字經七分裏面九分竝二楷書題額字經三寸篆書)

## (2) 居 頓 寺 址

居頓寺址는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에 위치한다. 현재 넓은 寺域에는 3層石塔 1기와 圓空國師 勝妙塔을 위시하여 金堂址에는 佛坐台와 礎石이 보존되어 있다. 寺址는 현재 家屋과 田畝 그리고 파수원이 들어서 있으나 비교적 교란되지 않은채 잘 遺存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제46권 原州牧條에 「居頓寺. 在玄溪山. 有高麗崔冲所撰. 僧勝妙碑」라고 있다. 즉 居頓寺가 위치하는 山名이 玄溪山임을 알 수 있고 伽藍의 건립이 신라시대 옛음은 寺址에 전하는 유물・유적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廢寺된 年記는 不明하고 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중엽까지는 存立해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寺址는 총7,498坪으로서 史蹟 제168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는 金堂址에는 前面 6, 측면 5줄의 주조석이 잘 遺存되어 있어 본래는 20여칸의 大法堂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중앙에는 높이 약 2m의 화강석 佛坐台가 있다. 좌대의 높이로 보아 金堂에 奉安되었던 佛像은 坐佛이었다고 생각된다. 金堂址 앞에는 현재 民家가 있고, 주택 바로 옆에 훌륭한 석탑 1기가 있어 당시 寺格을 갖춘 名刹이었던 實祿을 보인다. 이 石塔은 총고 약 530cm로서 2重基壇에 隅柱와 撐柱를 보이며 탑의 총고는 약 5m이다. 屋蓋石의 層級반침은 5단이며 上部 相輪部는 露盤과 그리고 仰蓮으로 조각된 1석이 보인다. 이 탑은 현재 文化財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당국에서 지정의뢰하면 곧 지정될 수 있는 훌륭한 보물급 문화재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寺址에 있는 家屋의 우물가에는 塔 옆에서 옮겨 왔다는 拜禮石이 놓여있다. 이 拜禮石의 크기는 135×58cm의 板石으로 前面 3, 측면에 하나씩 眼象을 조각했고 상부 중앙에는 蓮華紋을 조각했다.

三層石塔으로 부터 북쪽 약 50m지점에 圓空國師勝妙塔碑가 있다. 이 碑는 寶物 제78호로서 碑身 高 245, 폭 126cm이며 龜趺 高 120cm 花崗石이다. 碑文은 고려 文宗 때 大學者로서 海東孔子라고 불리웠던 崔 冲이 지었고, 글씨는 金 巨雄이 썼다. 字徑은 1.8cm로서 楷書이다. 龜趺의 重廓甲文은 正六角에 近似하며 內空에 卍字와 花紋을 交互하여 陽刻했고, 碑坐 4면에 眼象을 浮彫했다.

圓空國師는 고려 太朝 13년(서기 930년)에 出生하여 顯宗 9년(서기 1016년) 居頓寺에서 入寂한 고려 초기 高僧이다. 國師의 諱는 智宗이요, 字는 神則이며 俗姓은 李氏로서 全州人이다. 8세 때 舍那寺의 弘梵三藏에 落髮得度하더니, 弘梵三藏이 돌아가자 廣化寺의 景哲和尚에게 修業했다. 定宗 元年(서기 946년) 靈通寺의 官壇에서 具足戒를 받고 光宗 4년(서기 953년) 曦陽山 超禪師에게 禪을 參究하더니 955년에는 中國 吳越에 가서 永明寺의 延壽禪師를 參學하여 心印을 받고 961년에는 國淸寺 淨光大師에서 大定慧論 天台教를 배웠다. 962년 本國에 돌아오니 光宗이 大師를 삼아 金光禪院에 있게 하고 뒤에 重大師로 삼아 磨衲架裳를 내렸으며 景宗 때에는 三重大師가 되어 水精念珠를 내리더니, 成宗 때에는 積石寺에 住錫하면서 號를 慧月이라 했다. 또 992년에는 宮中에서 佛法의 妙한 理致를 說하기도 했으며 또 顯宗 때에는 大禪師로 삼아 光明寺에 머물게 했으며 顯宗 4년에는 王師가 되었다. 드디어 顯宗 9년(서기 1018년)에 이르러 賢溪山 居頓寺에서 入寂하니 世壽는 69歲요 法臘은 72歲였다. 諡號를 圓空, 塔號를 勝妙라 했다. 이 碑石은 國師가 示寂한지 7년 후인 太平年間 즉 顯宗 16년(서기 1025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同時에 건립된 國師의 碑가 開城 光明寺에도 있다고 하나 현황을 알 수 없다.

國師의 浮屠는 塔碑 西麓 60m 지점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日政期 서울로 移置되어 한 때 日人 和田 稔의 집에 있었다. 해방후 1948년 현 위치인 景福宮 庭園으로 移安되었다. 이

부도는 총고 268cm 화강석으로써 寶物 제190호로 지정되어 있다. 八角圓堂의 기단에는 16葉의 伏蓮을 새겼고, 竿石에는 8面에 각각 眼象을 조각했으며 內空에는 8部神象을 浮彫했다. 塔身 역시 8面이나 4面에 각각 四天王을 조각했고, 사이에는 門戶形을 역시 浮彫했다. 上部 屋蓋는 木造建物を 충실히 모방하여 椽木이나 婦椽은 물론 기왓골과 더불어 막새 기와까지 彫出하여 고려시대 부도의 定形을 보이고 있다. 이 부도의 건립 역시 塔碑가 건립되었던 顯宗代의 作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寺址에서 약 30m 아랫쪽 국민학교에는 총 길이 960cm 폭 80cm 두께 57cm의 巨大한 未完成 幢竿支柱가 놓여 있다. 이 支柱는 前記한 法泉寺址에서와 같이 居傾寺의 宗風을 闡揚하는 幢竿支柱를 세우려 하였으나 이를 이동하던 장사의 두 남매 가운데 남동생이 죽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未完인채 지금까지 放置되어 있는 遺蹟을 지닌 幢竿이다. 남동생이 옮겨 오다 둔 하나의 支柱는 지금도 賢溪山 東南麓에 있다 한다.

（끝으로 圓空國師의 碑文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現 地名은 原城郡 富論面 鼎山리로 된다.

贈諡圓空國師勝妙之塔碑銘(題額)

高麗國原州賢溪山居傾寺故 王師慧月光天遍照至覺智滿圓默寂然普化大禪師贈諡圓空國師勝妙之塔碑銘并序

中樞直學士宣議郎尙書吏部郎中知 制誥兼史館修撰官賜紫

金魚袋臣崔冲奉 宣撰

朝請郎禮賓丞賜緋臣金巨雄奉 宣書并篆額

恭聞佛道玄微了一心而即是禪源澹寂與諸法以超然得之者權實都忘觀之者色空俱泯而緣群生見執萬種差殊非階漸無以發其蒙非筌筌無以到彼岸縱靈羊挂角難可追尋猶師子嚙申必須方便故乃無謂有謂不聞而聞迦葉臆對於西乾達摩臘傳於東震付衣分座或示信於衆觀曲尺剪刀或強名於諸諍師師密授符契允諧祖祖相承綴旒弗絕泊夫去聖逾遠光靈漸衰前覺者瞻之在前後隨者瞠若乎後鑿丘求井都迷阿耨之宗摘壇索途盡味純陀之理自非空門拂士季世畸人將何存意遺言能得其妙應機適變不恒厥居紐大音之解微張脩網之類紀其誰尸者唯我有之師諱智宗字神則俗姓李氏全州人也父行順抱義戴仁履謙居寡悌惕君子常求福以不回痾僕丈人自凝神而有道母金氏鴻妻並譽萊婦齊名和鳴美著於鳳占蕃衍慶標於椒詠管夢金利一竿上揆雲端有厯眉僧舉手指之曰此大威德你可護持因即有娠欲臨彌月手動香火口絕羣脛修胎教以惟精契產經而載誕師呈姿岐嶷稟性英奇奚從襁褓之中便是風塵之外松生徑寸先知構厦之材江出濫觴預識涵空之量年甫八歲強拋跨竹擬駕眞乘忽罷弄璋思探法寶會弘梵三藏來寓舍那寺遂踵門而託乞主善爲師便合投針容令落髮方依隅座未換簪灰及梵尋泛大洋却歸中印既弗同舟而濟固當送往事居轉奉廣化寺景哲和尚更展攝齊常勤受業則能師逸功倍人十已千青出於藍其色逾過石投於水厥深易臻衆謂者成誰幼學開寶三年稟具於靈通寺之官壇瑠璃戒行三業已清齒齒慧心六塵難染嘗過社省之有青衣誤取肉櫃中所貯米而炊俄自顛厥疾悸而曰我是山神護此上人汝豈容易弗潔其味乎聽者驚恐爭加禮重其靈驗多此類也廣順三年造曦陽山超禪師時有侍者僧灑掃法堂少許地不受水超問曰有箇處水不著你作麼生僧無對師代曰更不要灑一任掃地超公聆善應深識道存謂若○篋一言阮瞻三語因成偈頌用播褒稱美價繇是頓高賓筵以之咸服屬顯德初 光宗大王立皇極崇法門徵雪嶺之禪俾伸角妙選丹霞之拂明示懸科師雄入議園首探理窟街疊隻之絕藝彰累百之高名于時用夏變夷正契車書之混陟遐自邇競追汗漫之蹤凡是同年盡遊西國而獨知足之足念茲在茲靡過虎溪却爲牛後未幾魂交故證眞大師曰弗登山何以小魯弗觀海何以狹河事既如斯汝宣往矣師覺曰昔者常啼東請由聽於神人善財南求蓋親於知識今則時非可失理與冥符雖云道阻且長爭敢人涉印否六年夏徑臻轅下仰告征期 光宗聞入洛之言曰愈懇請詠于郿之什親置錢筵既叙陰離

爰遵跋涉擊扶搖於九萬鵬翼橫天經浩渺於三千馬銜息浪得達吳越國先謁永明寺壽禪師壽問曰爲法來耶爲事來耶師云爲法來曰法無有二而遍沙界何勞過海來到這裏師曰既遍沙界何妨過來壽公豁開青眼優待黃頭便解髻珠即傳心印故得入親近地修對治門時止飽於醍醐更無他味日日唯聞於薔薇不雜餘香默識玄同神情朝徹峻豐二年漸次抵國清寺膜拜淨光大師光亦開連榻扉開升堂思欲伯喈書附於王生重耳經傳於尹令尋以大定慧論天台教授師是彝是訓如切如磋那同八月之春似待九年之妙雖曾宿覺尚籍時勤開寶元年歲杪僧統知內道場功德事贊寧天台縣宰任埴等聞師精研慧刃足可屠龍敏發玄機宜堪中鵠高山仰異口同音請於傳教院講大定慧論并法華經師率意而從當仁不讓以爲行商告倦闡示化城蕩子疑須開寶止藏矢在絃而旋發刀引鏡以且成徐陟貌臺乍塵塵柄對三根而賈勇論六慧以抗稊足使如堵而觀折狀而聽荊渚九旬之講厥風晟然南徐百日之談其塗轂矣既而睡見本國有寶塔檣天自繫繩挽之塔隨力俯仰又申感故證真大師曰汝能得意胡莫詠歸耶乃謂動在隨緣濟無臭載若悟式微之戒過迴不係之程三年壞袂而與泛盃而渡已叶易東之志人稱居右之才 光宗視以羅什如秦摩騰入漢益 厚優賢之意彌 敦獎善之仁初署大師延請居於金光禪院末年加重大師施磨衲袈裟自後衆所具瞻滋多兼濟雖玄玄之趣桃李無言而排排之流稻麻成列名高嶺巒譽邁崆峒歷代寶之他皆倣此故至 景宗 踐祚除三重大師賜水精念珠 成宗朝遷住積石寺號爲慧月淳化中以特飛 芝詔迎入藥宮請啓高談冀聞妙義寧効少林之觀壁且同宣室之話璽載寤宸襟優承 寵貺仍受磨衲藍脊 穆宗繼承先志亦締勝緣顯鶴儀而暫不曠時垂 鴻霽以略無虛歲累加光天遍召至覺智滿圓默禪師贈繡方袍兼以佛恩寺護國外帝釋院等爲住持之所焉暨 今上應一千年昌運奄撫神圖轉十二行法輪恢弘像教召義龍而雲躍呼律虎以風騰崇授大禪師請住廣明寺進法稱曰寂然開泰二年秋有 詔曰朕聞上從軒皇下逮周發皆資師保用福邦家斯所以崇德象賢亦不敢倚一慢二者也今觀大禪師識趣勞心出環中灑甘露於敬田融葆光於實際摠持至理開悟來迷朕何不師之乎群臣固有異辭食言可矣乃遣亞相庚方密使張延祐執憲李防等續奉 九重之命往扣玄關累伸三返之儀漸開絳帳師以月讓雖固天心不移安能道隱無名止合趣時近遂因循而應之然後 上親詣拜爲王師仍獻金銀線織成闌錦法衣器具茗荅等數繁不載故能禮優勝具 情極尸尊方推諸益之誠勉盡質疑之問日改月化聞斯行諸師警欬一音言提萬行簞洪鍾而待扣響應有緣臺藻鏡以忘罷招通無礙定水而資 帝澤廓眞空而導 皇風其利博哉爲弘濟也則彼靈裕顯升於國統誠瑣瑣焉慧宗稱首於頭陀是區區者擬于此際不可同波越三年又加號曰普化皆所謂有大德者必得其名矣後以欽邁風病綿留氣序十全參請尙傳遺類之言 萬乘欣懷頻致藥嘉之施有親申謂師云夫唯病病縱曰聖賢爲是栖栖何親都邑況垂暮齒宜軫歸心師聞之听然而笑曰庸詎知安道先生與命期而始去淨名居士因來疾以且憂苟未當途那忙裹足汝謂予自利耶蓋欲利他之故也天禧二年首夏道之將廢時然後行振金錫以告辭拂衲衣而長驚沙洲獨鳥迢迢而飛入烟波碧落孤雲杳杳而旋尋洞壑止于原州賢溪山居頓寺方閑宴座未及浹辰奈因生也有賦遽欲復於無物是月十七日病而彌亮頤以眞冷謂衆曰昔如來以大法眼付諸弟子如是展轉乃至於今今將此法付囑於汝汝當護持無令斷絕吾滅後亦不得以喪計奏聞有亂規矩言訖示化壽八十九臘七十二是晨也日慘燭燭雲愁黯黯鬚髻之隊亂叫乎山椒羣軋之群悲鳴乎巖窾並顯風然之變成興逝矣之傷門徒慶充等擗踊三號分崩五內莫問涅槃之樂空誣聚蠅之香觀白鶴之林彫安依芳蔭卜青鳥之地勝即樹闔宮以其月二十二日旋葬於寺之巽隅禮也 上比及殯時方聞遺占 念泥洹之何早 懷震悼以偏深特降蓋臣代行禮吊兼舉易名之典用光傳之門贈 國師諡曰圓空遂立勝妙之塔因命豎儒俾揚徽烈臣也詞慙刻驚學謝洩鷄性類族庖本乏發矚之利工非大匠素憂傷之手之譏既奉 頒宣無由遜讓披文相質爭符賦客之言變谷爲陵庶續高僧之傳甘同西笑用効南刊謹爲銘曰

悟性爲佛 忘情曰禪 澹乎境界 離彼言詮 測不可測 玄之又玄 執繩易惑 摸象多偏<sup>其</sup> 迎葉矢謬 達摩肯構 默而識之 於是乎就 祖祖奉揚 師師傳授 去聖彌遙 承基漸謬<sup>其</sup> 誰興復者 自有其人 天鍾正氣 岳降惟神 孤標拔俗 偉度超倫 纔從卅歲 即慕弘眞<sup>三</sup> 朽宅罷遊 縉流染學

戒律嚴持 辯才卓犖 道在日新 心由宿覺 諫業精勤 存誠貞確<sup>其四</sup> 遐跡淮海 直詣越邦 騰名講肆  
寓目經窓 攻堅不輟 靚奧無雙 三乘載率 四衆皆降<sup>其五</sup> 箭重迴舟 珠靈返浦 猶奚入秦 似孔居魯  
宏敞法門 獨爲慈父 化洽彌天 仁霑率土<sup>其六</sup> 曇花再艷 慧鑑重輝 五朝前席 萬乘樞衣 功周救溺  
理極知微 汎若而退 倏然以歸<sup>其七</sup> 疊嶂臥雲 幽溪漱石 猿鶴相隨 塵埃轉隔 志籍閑安 時當變易  
命也非常 觀之自適<sup>其八</sup> 無滅而滅 不終而終 釋網如雲 宗林復空 龜碑乃斷 鴈塔斯崇 累更浩劫  
長播高風<sup>其九</sup>

太平紀曆歲在旃蒙赤奮若秋七月二十七日樹 臣僧貞元契想惠明惠保得來等刻字  
(碑身高八尺四寸幅四尺一寸五分字徑六分楷書題額字徑二寸三分篆書)

### (3) 興法寺址

「新增東國輿地勝覽」 第 46 卷 原州牧 佛宇條에 보면 다음과 같은 興法寺에 관한 기록이 있다.

「興法寺：靈鳳山에 있다. 절에 碑가 있는데 高麗太祖가 친히 글을 짓고, 崔 光胤에게 명령하여 唐太宗의 글씨를 모아서 模寫하여 새겼다. 李 齊賢이 일찍이 말하기를 말 뜻이 웅장하고 깊고 위대하고 고와서 마치 검은 瑞玉과 붉은 빛으로써 廊廟에 揖讓하는 것 같고, 글자는 큰 글자와 작은 글자 楷書와 行書가 서로 섞여 있다. 마치 鸞鳳이 일렁이듯 가운데 우주를 삼켰으니 진실로 天下의 보물이다. 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 말하는 寺址는 현재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에 위치한다. 약 萬餘坪에 달하는 寺址에는 三層石塔 1基와 眞空大師 塔碑의 龜趺와 螭首가 있고 金堂址로 보이는 臺上에는 民家가 있어 축대석 및 많은 遺構들이 흩어져 있다. 寺址 바로 앞에는 漢江 上流인 섬강이 흐르고 강 건너에는 王建과 甄萱의 激戰場으로 유명했던 建登山이 마주 보이고 있다.

寶物 제 463호로 지정되어 있는 眞空大師 塔碑의 龜趺와 螭首는 寺址 서북쪽에 인접해 있다. 碑身이 없는 이 龜趺는 螭首에 「眞空大師」라는 篆額 4字가 보여 眞空大師 塔碑임을 금방 알게 한다. 碑首는 前記한 居順寺 勝空國師碑에서와 같이 重廓甲文은 正六角에 근사하고 內空에 卍字와 花紋을 交互로 陽刻했고, 이수는 사방 雲紋속 上下 좌우에 총 9首의 飛龍에 얹혀 있다. 이는 居順寺 勝妙塔碑의 조각에 비해 시대적으로 앞서는 고려 초기 석조공예술의 最頂點을 장식하는 秀作이라 할 것이다.

興法寺는 신라말의 古刹이었으나 廢寺된 年記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고 朝鮮朝의 大文章 徐 巨正의 詩에 「法泉庭下詩題塔, 興法臺前墨打碑」라고 하였으므로 조선 초기 까지도 잔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碑에 대하여 「江原道 原州邑誌」에는 前記한 李 齊賢의 말을 引用하고 나서 비석의 파손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후에 원주의 官衙로 移置하였는데 고을의 官리가 俗忌를 느껴 溪川 언덕으로 投擲했다.

이로 인해 비석이 파괴되었으며 지금은 2片이 저 客舍에 있다…」

고 했다.

현재 眞空大師 塔碑는 碑首와 이수만 寺址에 遺存해 있고 碑身은 3枚로 斷切된 채 景福宮 勸政殿 廻廊에 보관되어 있다. 이 비석은 前記한 輿地勝覽에서 고려말의 詩人이며 性理學者인 李 齊賢이 칭찬한 바와 같이 그 비석의 字樣은 매우 탁월하다. 楷書體만을 위

## 第5編 教育・文化

주하는 일반 비석앞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金石文이지만 3쪽으로 파손되어 銘文을 다 判讀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銘文 가운데 「高麗國原州…」와 「臣崔光胤奉 敎集太宗文皇」 등이 보이며 또 「□□ 五年 七月 十八日」에 示寂한 바 「□□ 七十有二僧□□」이라 있으므로 眞空大師의 入寂이 天福 5년 즉 고려 太祖 23년(서기 940년)임을 알 수 있다. 또 高麗史 世家 23년條에도 「秋 七月王師忠湛死, 樹塔于原州靈鳳山興法寺」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碑는 輿地勝覽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려태조가 친히 글을 짓고 唐나라 太宗 文皇帝가 쓴 글씨를 모아 새긴 것으로 유명하다.

眞空大師는 신라 말 고려 초기의 고승으로 신라 景文王 9년(서기 869년)에 태어나서 신라와 고려에의 王師가 되었다. 眞空大師의 俗姓은 金氏이며 鷄林의 귀족이었으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長純禪師를 따라 出家하여 21歲 때 茂州 靈禪寺에서 具足戒를 받았고, 당나라에 유학하였으며 天祐年間(서기 904~907년)에 귀국했다. 法號는 忠湛이라 했으며 太祖 23년에 示寂하니 世壽는 72歲요 謚號는 眞空大師였다. 浮屠塔을 靈鳳山 興法寺에 세웠으나 1931년 현재의 景福宮으로 移建되었다.

이 탑은 보물 제36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도와 더불어 石棺을 지니고 있는 것이 다른 탑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라 하겠다. 탑의 총고 291cm 地台石 폭 179cm 石棺은 45×94cm이며 높이는 48cm로서 고려 초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下台 伏蓮石에는 16葉의 蓮華를 조각했으며 전체 조각수법은 신라 下代의 退化된 作風에 비하여 新興의 霸氣를 엿보게 하는 秀作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眞空大師와 同代에 살다 간 同名異人이 있다. 즉 그는 신라의 王孫으로 太祖 20년 慶北 豐基의 毗盧寺에서 入寂하니 태조 22년 「普法塔碑」를 세웠는데 이 碑는 毗盧寺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興法寺에서 示寂한 王師 眞空大師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또 이 興法寺址에서 移安되었다고 하는 廉居和尚塔이 있어 흥미롭다.

이 탑에 대하여는 일찍이 「朝鮮佛教通史」 下卷 192頁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又浮屠即墓塔之例, 新羅時代則頗少, 前在原州興法寺之廉巨塔, 爲八角而似石燈籠 其中收藏舍利, 是則唐之會昌四年即 千七十一年前所建者也.

이상의 기록에서 이 부도는 會昌 4년 즉 신라 文聖王 6년(서기 844년)의 건립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보 제 10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現高 170cm로서 우아한 기품, 소박한 彫法은 후기 고려시대 부도 조성에 架橋的 역할을 했다 할 것이다. 부도의 下台 各面에는 사자를 조각했고, 竿石의 眼象에는 향로를 조각했으며 또 塔身 괴임석의 眼象에는 天部像을 각각 1구씩 조각했다. 탑신 4面에는 門戶形을, 또 다른 4面에는 四天王을 조각했으며 屋蓋는 木造建物을 충실히 모방하여 椽木이나 기왓골은 물론 막새 기와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 부도는 年記를 가진 金銅塔誌가 발견되어 정확한 건립년대를 알 수 있는 우수한 작품으로서 신라시대 불교 조각 研究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할 것이다.

廉居(또는 廉巨) 和尚은 신라 九山禪門 가운데 迦智山門의 第2祖로서 道義國師의 法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현재 興法寺廉居和尚塔은 그 原 所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현재 遺址內에 廉居和尚塔址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추측컨대 이 탑은 日政期 移置할 때 目錄作成에서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廉居和尚塔에 대하여는 「傳興法寺廉居和尚塔」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이 탑은 처음에 탑골공원으로 옮겨다가 다시 現 景福宮으로 移置했다. 移安할 때 발견된 金銅塔誌는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

며 塔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會昌四年歲次甲子季

秋之月兩旬九日遷化

廉居和尚塔去釋迦牟

尼佛入涅槃一千八百

四年矣

當此國慶膺大王之時

이 기록에서 慶膺大王은 文聖王의 諱임을 알겠다.

또 이곳 심 개목씨 소유 田土로 되어 있는 興法寺址 中央에는 3層石塔이 1基 있어 보물 제46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石塔은 총고 369cm 地台石 폭 220cm로서 2重基壇에 方形 3層을 유지하고 있다. 屋蓋石의 層級반침은 4단이며 落水面은 두껍게 造營되었다. 북쪽에는 基壇面石 하나가 缺失되어 내부가 露出되었고 上部 相輪 역시 손상이 많아 露盤 1石만을 보이고 있다. 下層 基壇面石에는 각각 3매씩 眼象을 보이고 있는데 眼象內에는 地線에서 花形이 솟아 있어 역시 이 탑이 고려시대 전반기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石塔에서 약 10m 정면에 4기의 주초석이 長方形을 유지하고 있어 이곳은 본래 中門址로 추측된다. 현재 이곳에서는 정교한 龍紋·蓮華紋·唐草紋 瓦當 등이 出土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년 전에는 三尊佛 瓦當이 出土되었다고 한다. 또 상당수에 달하는 小形의 말, 코끼리, 사자 등의 土偶가 出土되었으나 지금은 殘存하지 않는다고 한다.

石塔으로 부터 서쪽 약 100m 지점에 속칭 중샘(僧泉) 3개가 있고 이곳에는 길이 약 150m가량 되는 下水溝가 있다. 이 하수구는 寺址를 가로질러 뚫려 있어 당시 巨大하였던 興法寺의 寺格을 짐작케 하고 있다.

#### (4) 令傳寺址

원주에서 移置된 중요한 유물들은 모두 다 그 본래의 寺名과 함께 寺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오직 令傳寺만은 아직까지 그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 口傳으로는 시내 변전소 넘어 새로 건립된 靈泉寺가 본래 令傳寺址라고 하지만 과연 이곳에서 다음에 소개하는 바와 같은 중요 유물들이 발견 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현재 景福宮으로 移安된 2기의 巨大한 3層石塔이 협소한 현재의 山谷에 있었는지도 문제이지만 국립박물관 유물카드에는 令傳寺塔에 관하여 그 出所를 단순히 강원도 원주군이라고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초창기에 韓國塔婆를 연구한 又玄 高裕燮 先生께서는 그의 저서 「한국탑과의 연구」各論 草稿(考古美術 資料 제 14집 고고미술 동인회간)에서 이 탑의 原所在地를 江原道 原州郡 本部面 令傳寺址라고 기록하고 있다. 本部面이란 현재 원주시내 봉산동 일대, 그러니까 변전소 넘어 지금의 영천사가 위치하는 곳까지 本部面에 속했다고 하지만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參考해 볼 만한 基本史料인 東國여지승람·朝鮮佛教通史·朝鮮金石總覽·朝鮮寺刹史料·原州邑誌등에서 令傳寺에 관한 기록은 볼 수 없다. 여하튼 令傳寺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는 지금으로서는 口傳대로 현재의 靈泉寺를 令傳寺址로 기록해 둘 수 밖에 없다.

현재의 靈泉寺는 원주에서 서북간 약 2km지점 변전소를 지나 낮은 산麓에 위치한다. 法堂과 寮舍는 1963년도에 새로 건립되었고, 寺址內에는 특별한 유물, 유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塔面石으로 보이는 板石과 碑身을 세운 확으로 보이는 1石이 있을 뿐이다.

현재 景福宮에는 令傳寺址에서 移安되었다고 하는 2기의 石塔 이 있다. 이 탑은 1915년 서울로 搬出되어 현재 경복궁에 안치되어 있다. 탑의 크기는 남쪽의 것이 총고 392cm 地台



## 第5編 教育・文化

石 폭 192cm이며 다시 약 30m 남쪽에 同形同大의 탑이 있다. 이 탑의 양식에서 特記할만한 것은 보통 祖師의 墓塔은 8角圓堂의 浮屠塔이 通式이지만 이러한 類形을 떠나 層級을 가진 佛塔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탑은 재래의 墓塔 형식을 떠난 일종의 舍利塔이라 이름해야 할 것이다. 2重基壇에 3層의 屋蓋石을 지니고 있으며 옥개석은 다소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1915년 移建時 이 탑에서는 다수의 副藏品이 나왔다. 즉 寶瓶型相輪이 있는 남쪽 탑에서는 뚜껑이 있는 銅壺 2, 銅鉢 1점, 蠟石製壺 1점이 나왔는데, 銅壺의 1점에는 針線刻으로 施主 元龍의 이름이 있었고, 寶瓶이 없는 북쪽의 탑에서는 뚜껑있는 銅壺 2점, 靑磁鉢 1점, 銀製舍利龕 및 筒 각 1점, 袈裟斷片 등이 나왔는데 銅壺 뚜껑에는 施主 元老, 施主 元氏 등을 針線刻으로 하였고 다시 蠟石製의 誌石에 다음과 같은 銘文이 있어 普濟尊者의 舍利塔임을 알게 한다.

道人覺修 (前面 20cm×19.5cm)

王師普濟尊者舍利 一枚塔

東塔安邀

法名覺喜

名妙然

(後面)

石手道人覺清

勸化比丘覺如

牧使 姜隱

安邀比丘尼妙寬同舍利 一枚

大功德主奉翺大夫徐允賢

妻氏丹山郡夫人張氏法

爐冶道人覺清

洪武 二十一年 戊辰 四月日誌

이 기록에서 본래 令傳寺에는 南向한 法堂 앞에 東西로 쌍탑이 건립되었고, 그중 東塔이 普濟尊者의 舍利塔임을 알겠다. 보계존자는 고려시대의 고승으로서 恭愍王의 王師 懶翁을 말한다. 俗姓은 牙氏이며 뒤에 楊州의 檜巖寺를 크게 중창하고 驪州 神勒寺에서 入寂(서기 1376년)했다. 世壽는 57歲요 法臘은 38歲, 諡號는 禪覺이다. 檜巖寺에는 李 穡이 지은 禪覺王師碑와 부도가 있고, 또 여주 신록사에도 墓碑와 墓塔이 있다. 다만 令傳寺의 이 石塔은 그의 入寂後 12年 만인 禡王 14년(洪武 21년 서기 1388년) 王師의 門徒들에 의하여 세워졌음을 알겠다.

### (다) 其 他 寺 址

#### (1) 山 城 寺 址

山城寺址는 雉岳山 南端 鵠原山城에 위치한다. 「原州邑誌」에 따르면 壬辰倭亂 때에 牧使 金梯甲의 家率 百餘명이 같은 날에 이곳에서 沒死했다 한다. 그후 부터 僧將을 두어 山城을 守護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험악한 山地에서 修道와 國防을 겸하여 활약하였던 朝鮮時代 僧軍 興起에 관한 하나의 단편적인 자료를 이 山城寺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이 지방의 유서 깊은 영원산성과 接해 있으므로 사실상 이 山城寺는 鵠原山城內에 있던 鵠原寺와 同一寺院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依據할 만한 文獻이 없어 옛 기록, 邑誌에 準할 뿐이다.

이 외에도 「동국여지승람」과 「원주군읍지」에 나타난 寺址에 대하여 간단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 覺 林 寺 址 : 치악산 동쪽 30리에 있으며 이제는 폐사가 되었다. 云云(東國輿地勝覽, 邑誌)

(3) 桐 華 寺 址 : 都也尼峴에 있다. 云云(동국여지승람) 桐華山麓에 있었던 모양이나 흔적도 없다.

- (4) 文殊庵址: 치악산의 서쪽 골에 있다. 云云(동국여지승람·읍지)
- (5) 隱寂庵址: 州 남쪽 50리 미륵산 중에 있다. 云云(읍지)
- (6) 興寧寺址: 獅子山 제2봉 아래 있으나 폐사된 년대는 알기 어렵다. (읍지)=橫城땅임.
- (7) 聖住寺址: 州의 북쪽 35리 昭君山에 있다. (읍지)=사지조차 없다.
- (8) 城南寺址: 州의 동쪽 55리 雉岳峰중에 있다. (읍지) 原城郡 神林面 城南 2리에 寺址만 남아 있다.
- (9) 果山寺址: 州의 동쪽 80리 치악산록에 있다. (읍지)=영월땅이다.
- (10) 法興寺址: 州의 동쪽 130리 사자산 餘麓에 있다. (읍지)=現橫城땅이다.
- (11) 隱秀寺址: 州의 서쪽 20리에 있다. (읍지)=寺址만 牛山洞에 있다.
- (12) 龍興寺址: 州의 남쪽 30리 白雲山中에 있다. (읍지)=寺址뿐이다용수골
- (13) 靈山寺址: 州의 북쪽 15리에 있다. (읍지)
- (14) 麟巖寺址: 州의 북쪽 30리에 있다. 云云(읍지)
- (15) 後利寺址: 원주에서 12km 지점 板富面 서곡리에 後利寺가 있었다고 傳稱된다. 傳言에는 이곳에 9層塔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그 遺墟를 짐작키 어렵고, 신라 眞興王 때 서곡대사라는 高僧이 있어 이 절을 창건했다 한다. 따라서 그 高僧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지금도 서곡리라 부른다.
- (16) 龜龍寺入口의 佛頭: 원주에서 서북쪽 10km 지점 龜龍寺로 가는 도로변에 佛頭 1坐가 있다 주위가 넓은 田土에는 뽕나무밭이 있고 한쪽 옆 바위 위에 巨大한 佛頭가 있다. 이곳의 寺名에 대하여는 알길이 없으나 이 巨大한 佛頭를 他處에서 옮겨왔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佛頭 高는 103cm, 폭 92cm로서 둥근 얼굴에 명확한 線을 나타내고 있다. 두귀는 길게 쳐졌고, 다소 투박한 입 등은 조각 수법의 졸속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전체적 감정은 그런대로 佛像의 모습을 잘 나타내었다 하겠다. 건너편 암벽에 仙女像이 조각되어 있으나 알아보기 어렵다.
- 주위 田土에서도 寺址의 주초석등 遺墟는 발견할 수 없으나, 이곳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寺刹이 그 옛날 언젠가 存立해 있었다고 추정된다.
- (17) 거북섬의 石彌勒: 원주군 홍업면 매지리에는 俗稱 거북섬이 있고 이 섬에는 石彌勒 1구가 있어 매우 흥미롭다. 약 75,000坪의 홍업저수지 한 복판에 작은 동산이 있어 거북섬이라 불려진다. 저수지의 호수는 약 20여년 전에 이룩되었는데 이곳에는 石彌勒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호수가 완성되기 전 이곳에는 넓은 평지였고 이름 모를 寺址가 있었으며 또 巨大한 石彌勒이 있었다. 저수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 거의 完工을 보게 되었으나 雨魃이 심해 호수에 통 물이 차지를 앓았다. 하루는 저수지 조합장의 꿈에 寺址에 있는 石彌勒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제 이곳에 물이 들게 되었으니 나를 저 동산 위로 옮겨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예사롭게 듣고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비는 계속 내리지 않아 농사는 낭패를 볼 지경이었다. 어쩔지 다른 곳에는 비가 알맞게 잘 내렸지만 이 저수지 근방에만 비가 오지 않아 동리 사람들은 祈雨祭를 지내고 별별짓을 다 했다. 그러나 구름은 오락 가락 하며 통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 조합장의 꿈에 석미륵이 나타나서 자기를 동산 위로 옮겨 주기를 請願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役事가 힘에 겨워 쉽게 착수하지를 못했다. 그러자 석미륵이 다시 나타나서 청원하기를 자기가 물속에 잠기게 되었으니 곧 동산위 지금의 거북섬으로 옮겨달라고 했다. 이렇게 3번이나 현몽하자 조합장은 굳은 결심을 하고 일꾼들을 모아 役事를 시작하여 石彌勒을 동산위로 옮겨 잘 奉安했다. 佛像을 奉安하고 나서 이상하게도 그날 밤으로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져 호수에 물이 가득 차 거북섬은 삼시간에 완전히 섬이 되었다. 이를 신통

하게 생각한 동리사람들은 지금도 正月이면 배를 타고 거북섬에 건너가 미륵불께 供養을 올린다.

이러한 내력을 가진 석불은 현재 거북섬에 안치되어 있으며 그 조각 수법이 훌륭하다. 불상의 총고는 약 250cm로서 얼굴은 풍만한 편이고, 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法衣는 양 어깨를 타고 내린 通肩이다. 그 년대는 고려시대의 作으로 보인다.

#### (라) 毗摩羅寺址와 市內佛蹟

(1) 毗摩羅寺址 : 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新羅 高僧 義湘大師가 華嚴宗을 전파한 10刹 가운데 毗摩羅寺가 原州에 있다고 전한다. 이 기록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湘乃令十刹傳教, 太白山浮石寺, 原州毗摩羅, 伽倻之海印, 毗瑟之玉泉, 金井之梵魚, 南嶽華嚴寺等是也」(三國遺事 卷第4 義解第5 義湘傳教條)

이 기록에 의하면 같이 梵魚・海印・華嚴等 寺에 앞서 두번째에 言及할 정도로 중요한 大刹이 원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寺刹들은 현재 국내 굴지의 華嚴宗刹로서 전해올 뿐만 아니라 玉泉寺까지도 그 所在가 확인되어 있다. 그러나 오직 原州 毗摩羅寺址만이 所在가 알려지지 않았다. 言及된 10刹이 모두 그 山名을 밝힌 山地寺刹이므로 원주 비마라사도 원주의 主山인 치악산 속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종래까지 學界의 正論이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唯獨 비마라사만은 山名을 달하지 않고 原州라는 地名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에 착안할 수 있다. 따라서 비마라사는 꼭 巨大한 山地에 있지 않고 原州市內의 1角에 있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상은 적중되어 다행히 원주시내에서 그 遺構를 발견할 수 있었다. 寺址의 발견은 비마라사가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사찰이라는 점에서 자못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현재 이 寺址가 위치하는 지점은 原州市 鳳山洞 일대이다. 寺址 正南에는 원주시내를 가로지르는 原州川(봉산내)이 흐르고 있으며 이 원주천가 가까이 羅代建立으로 보이는 幢竿支柱 1柱가 서 있다. 다른 支柱 하나는 三斷된채 주위에 있을 뿐 그의 遺構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 幢竿이 寺址 추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곳 일대는 약 50년 전만해도 松林이 우거진 평탄한 동산이었고, 평이나 산비둘기들의 서식처였다고 한다. 현재는 원주 국민학교를 위시하여 경찰서, 교육청 그리고 수 많은 民家가 寺址內에 밀집해 있어 체계적 조사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다만 寺址에서는 지금도 많은 古瓦가 出土되고 있어 이곳에는 상당수의 건물들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이 봉산동 일대는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가람이 있었다고 口傳된다. 또 6~7년 전에는 이곳에서 「比盧摩寺」란 銘文을 가진 瓦當이 나타났는가 하면 이곳에서 金銅佛像이 出土되었다는 傳聞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72年度에는 寺址 앞 냇가에서 「比盧摩寺」라고 새긴 器銘이 出土되었으나 이 역시 流失되었다고 한다.

당간지주가 서 있는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원주시 봉산 2동 함재기의 집 바로 앞이 된다. 直立해 있는 당간지주의 높이는 약 5m이며 다른 당간 하나는 3토막으로 뿌러져 放置되어 있다. 地面에는 巨大한 일종의 地台石이 있어 이곳에 당간지주는 고정되어 있다. 당간의 上部는 다소 狹窄해졌고, 뒤편에는 당간과 당간 사이에 끼우는 木柱등을 고정할 수 있도록 石柱의 面을 깎은 곳이 보인다.

본래 毗摩羅는 梵語의 Vimalakirti(毗摩羅詰・維摩羅詰)의 音寫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번역하면 「淨名」 즉 석가여래의 在俗 上首弟子로서 저 유명한 維摩居士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義湘傳敎 華嚴十刹과 釋迦의 上首弟子 維摩를 指稱하는 毗摩羅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華嚴經의 敎理內容은 佛敎經典 중에서도 窮極의 敎說로서 眞俗二不의 大乘思想을 闡揚하고 있다. 따라서 維摩는 釋迦의 出家弟子들도 그와 談論하기를 어려웠던 大乘菩薩이었다. 그러므로 華嚴宗을 根本宗旨로 하는 大乘思想에 있어서는 出家와 在家를 막론하고 大乘行을 推崇하는 維摩 즉 毗摩羅의 名稱을 華嚴宗刹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瓦當이나 器銘에서 나타난 「毗盧摩」라는 寺名은 「毗摩羅」의 音寫와 同一視하여도 차질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梵語의 表記에 있어서는 비슷한 同音의 글자를 代用하는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寺址의 당간지주로부터 서북쪽 약 200m 지점 교육청내에 파괴된 石佛 1좌가 있다. 坐佛로서 頭部와 왼쪽 어깨부분이 파괴되었으나 그의 조각은 완전하여 불상의 양식 파악에는 지장이 없다. 두 어깨를 덮은 通肩의 法衣의 손은 岩窟庵 佛像의 類形을 따르는 降魔印을 취하고 있으며 두 발은 結跏趺座했다. 頭部와 肩部가 缺失되어 잘 알 수 없으나 전체 모양은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衣褶등의 모습은 末期의 양식을 보이고 있어 신라말의 조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銘文瓦當이 出土된 지점에는 아직도 古瓦들이 퇴적되어 있을 뿐 密集된 住宅으로 寺址의 細部調査는 거의 不可能한 실정이다. 그러나 원주 국민학교를 비롯하여 公私垡地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도하면 비마라사지에 대한 보다 확실한 物的考證을 기할 수 있으리라 본다. 큰 우물도 당간지주에서 약 20m 西쪽에 있었으나 年前에 메웠다.

신라의 사상과 예술에 있어서 1世를 風靡하였던 華嚴宗刹의 寺址가 우리 고장 원주에 있었고 또 이 寺址를 究明해 낸다는 것은 퍼 흥미로운 일이라 아낄 수 없다. 다만 여기서는 寺域의 現況과 寺址에 얽힌 역사성의 一端을 밝혀 지난날 원주지역의 화려하였던 佛敎文化의 始源을 더듬어 보았을 뿐이다.

(2) 鳳山 逸名寺址 : 毗摩羅寺址 뒷 쪽 낮은 野山을 鳳山이라 이름한다. 이 산에는 寺名을 알 수 없는 寺址가 여러 곳에 전해지고 있으며 또 중요한 遺物들이 出土되어 주목되고 있다. 비마라사지 당간지주로부터 서북쪽 약 1.5km 지점 7부 능선에 활터(鶴鳳亭)가 있다. 약 15년전 이 활터를 整地할 때 小形의 金銅佛과 기타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다. 또 이곳 활터 좌편이 있는곳에 石佛立像 一坐가 出土되어 이곳으로부터 약 0.7km 떨어진 산넘어 普賢寺 庭前に 安置되어 있다. 이 佛像은 下端部가 단절되어 現高 115cm 頭高 45cm에 어깨넓이 55cm로서 머리 부분의 頭髮은 높이 솟아 특이 하게 보인다. 오른쪽 팔을 휘감아 내린 부드러운 法衣등의 양식은 國都 慶州를 중심으로 발달한 新羅風의 作品임을 직감할 수 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가장 古式을 나타내는 신라통일기의 作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石佛이 出土된 활터의 寺名은 알지 못한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곳을 天王寺址라고 比定할 수 있으나 天王寺址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詳說하기도 하겠다.

(3) 傳 天王寺址 : 「新增東國輿地勝覽 原州牧條」에 보면 天王寺址에 관한 기록이 있다.

「天王寺는 州의 동쪽 2里 쯤에 있다. 지금은 廢하여 射廳이 되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조선 成宗代에는 벌써 廢寺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前記한 학봉정 활터를 두고 天王寺址라고 할 수도 있으나 現狀만으로는 주장할 論據가 약하고 옛 부터 전해오는 口傳을 의지하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口傳에 의하면 이 학봉정으로 부터 약 0.5km 동쪽에 위치하는 鳳山 8부능선 골짜기에 天王寺가 있었다 한다. 물론 학봉정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혼동되어 불려졌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일단 여기서는 이 골짜기 지점의 寺址를 傳稱대로 天王寺址라고 기록한다.

편편한 寺址 중앙에는 주위 民家에서 사용하는 우물이 있고 이 우물 바로 곁에서 石塔의 屋

身 1기와 옥개석 2매가 출토되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屋身은 四方佛등의 조각이 있어 주목된다. 이 탑은 도굴꾼에 의하여 반출도중 경찰에 신고되어 현재 1군사령부 法堂 法雄寺에 移安되어 있다. 옥신석의 크기는 55×58cm로서 四方佛의 조각은 우수하여 주목 된다. 불상은 4面 모두 手印을 달리하고 있으며 頭部에는 圓光을 나타내었고 結跏趺坐한 모습이 如來像임을 알게 한다.

또 국립박물관 유물 카—드에는 원주 天王寺址에서 出土되었다고 하는 舍利容器 1좌가 있다. 그러나 그 출토 경위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寺址의 石塔에서 발견된 것으로 생각된다.

天王寺址 유물로부터 下方 약 30m지점에 菩薩立像 1구가 있다. 이곳은 속칭 彌勒堂이라 불려지고 있으며 입상은 총고 180cm이다. 이 보살像은 전체적으로 주는 量感이 풍만하면서 衣紋 등의 처리는 다소 딱딱한 감을 주고 있으며 字形을 그리는 衣紋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다. 이 보살像 역시 天王寺址와 同一寺址에 存立해 있었다고 생각된다.

(4) 原州郡廳의 塔像: 원주시 1山洞 所在 원주군청 정원에는 五重石塔 1기와 如來坐像 2개가 있다. 이 塔像의 원위치에 대하여는 安昌里 興法寺址에서 移置되었다고 전할 뿐 확실한 기록은 없다. 口傳에는 日政時 南山 日人 神宮에 移安되었다가 6.25 事變 後 현 위치로 옮겨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흥법사지에는 이와 類를 달리하는 3층석탑이 1기 있으므로 과연 이 五重石塔이 흥법사지에서 移安된 것인지에 대하여 단정할 근거는 없다.

五重石塔의 총고는 약 5m로서 單層基壇이다. 신라석탑의 定型이 二成基壇에 옥개의 층급 받침이 5단이라 한다면 이 탑은 시대의 下降을 완전히 나타내고 있다. 上部의 露盤과 相輪部는 缺失되었지만 高峻한 감을 나타내고 있다.

2坐의 石佛은 石塔을 중심으로 東西에 安置되어 있으며 모두 頭部가 缺失되었으나 近者에 新造하였다. 그러나 너무 조잡하여 原狀을 도로 망치고 있다. 불상은 光背가 없으나 衣褶과 더불어 坐臺등의 양식은 훌륭하다 할 것이다. 坐像의 現高는 어깨까지 70cm로서 단정하게 정좌한 모습과 手印 등이 如來像임을 알게 한다. 佛坐臺에는 蓮紋, 사자등 동물의 모습을 새겼다.

이 외에도 군청에서 약 300m 남쪽 제일감리교회 앞 路邊에는 우수한 조각을 가진 탑신석이 있다. 이곳 역시 본래 寺址는 아니었고 다른 곳에서 石塔을 옮겨 왔으나 그 出處는 알지 못한다. 교회 측말에 의하면 약 7~8년 전만해도 현 위치에서 약 10m 떨어진 민가 담 옆에서 3층의 옥개석을 유지한 채 서 있었다 한다. 그중 塔材의 일부가 현재, 前國會議員 朴 忠模宅에 있다. 仁旺像 조각을 갖춘 石塔 基壇 面石이지만 이 탑과는 無關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옥신석의 四方에는 四天王像을 陽刻하여 그 크기가 小形(52×53cm)인데 비하여 매우 규모 있는 탑이었다고 생각된다. 조각 수법은 단조로우면서도 힘찬 天王의 寫實의 표현이 신라 석탑에서 나타나는 양식을 보이고 있다. 상부 중앙에는 직경 11cm 길이 7cm의 舍利孔이 있어 본래는 舍利를 奉安하였던 규모있는 塔이었다고 생각된다.

(5) 神仙庵入口 菩薩立像: 원주 군청으로부터 동북방 약 2km 지점에 神仙庵이란 새 절이 있고 이 암자 입구에 보살입상 1軀가 있다. 下半身은 땅에 매몰된 채 路邊에서 있다. 이 보살입상은 본래 이곳에서 약 700m 남쪽 철로변 천주교 묘지가 있는 곳에서 移安되었다. 당시 役事에 참여한 人夫의 말에 의하면 神仙庵측의 요청에 의하여 이곳까지 운반되었다 한다. 立像의 現高는 약 2m로서 頭髮은 頂上에서 감아 올렸고, 눈 부분은 파손되었으며 적은 코에 굳게 다문 입 주위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흐르고 있다. 얼굴은 풍만한 편이고, 목에는 3가닥의 주름을 나타내는 三道가 완전하다. 右手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 法衣를 쥐고 있다. 法衣는 두어깨를

넓은 通肩이고 가슴 아래에서 卍字를 그리다가 잘속해진 허리부분에서 다시 양편으로 갈라진다. 이 立像은 다소 파손되었지만 그 크기나 조각에 있어서 우수한 수법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양팔을 타고 내린 法衣는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며 厚德한 얼굴, 그리고 풍부한 量感에서 이 불상의 년대는 고려 초 약 10세기의 作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6) 鳳山洞의 石佛坐像: 원주 군청에서 동북방 약 2km지점 도로변에 東岳祭를 지내던 祭壇址가 있다. 이 곳은 멀리 雉岳山の 靈峰이 보이는 곳으로서 현재는 아무런 유적도 없이 포도밭으로 되어 있다. 이 遺墟址에서 약 1km지점 향구동 入口 봉산 2동에는 頭部가 없는 훌륭한 佛像이 光背와 坐台를 지니고 있다. 頭部는 자연석을 올려 놓았으나 그런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불상의 現高는 약 2m이며 목에는 역시 三道를 나타내고 있다. 法衣는 通肩이지만 오른쪽 어깨를 들어낸 右肩偏祖한 袈裟의 衣紋이 잘 나타나고 있다. 가사의 끈이 右肩에서 매듭지워졌고, 몸은 복잡한 衣紋에 쌓여있다. 대체적으로 衣褶은 잘 들어나 있어 고려초기 佛像의 衣紋 研究에 좋은 자료가 되리라 본다.

坐台는 下台가 매몰되어 들어나지 않았고 上台는 八葉의 蓮華에 사이에는 間葉을 조각했다. 中台石에는 8면에 각각 보살 供養像을 陽刻하여 매우 흥미롭게 보인다. 合掌한 四方佛 사이 사이에 있는 4구의 보살 공양상은 供養具를 손으로 떠 받드는 모습, 광주리 같은 器物에 供養具를 이고서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 등등의 조각에서 宗教의 信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光背는 舟形으로 중앙에는 蓮華紋과 주위에 火炎紋을 돌렸다. 蓮華紋의 중앙에는 둥글게 子房을 새겼고, 또 火炎紋의 사이에 雲紋을 나타내고 있을 뿐 化佛은 보이지 않는다.

불상 주위 田土에서는 無紋古瓦들이 出土되고 있으나 寺名을 알만한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 佛像은 1965年度에 黃柱盆에 依해 땅 속에서 發掘된 것이고 頭部의 自然石도 이때 올려 놓은 것임을 밝혀 둔다.

지금까지 원주 원성 일대에 散在해 있는 佛蹟에 대하여 考察해 왔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된 佛教文化는 주로 新羅末期에서 부터 高麗期에 그 全盛期를 이룩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중요한 遺物, 遺蹟들은 대부분 原 位置를 떠났거나 교란되어 原狀 파악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다행히 原州 지역에는 옛 부터 전해오든 邑誌가 있어 많은 참고가 되었고, 그 외 金石文이나 輿地勝覽, 佛教通史 등 기록이 있어 부족하나마 오늘의 時点에서 그 현황을 밝힐 수 있다. 또 중요한 유물들이 원 위치를 떠났다 하더라도 이를 추적하여 그 實相을 해명할 수 있었음은 꼭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을 시도하는 本意는 단순히 지난날 우리 고장의 영광을 자랑만 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 화려한 영광 못잖게 우리의 정신문화를 보다 創意的으로 오늘에 꽃피워 보자는데 그 참다운 뜻이 있다 할 것이다.

보다 면밀한 美術史的 考察은 특수한 用語의 제한과 또 전문 학술지가 아니므로 현황설명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 고장의 佛蹟을 총 망라했다는 것은 鄉土文化史的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할 것이다.

#### 第4節 儒敎와 道德

儒敎는 儒敎經典에 바탕을 두고 仁義禮智의 道를 現實化하려는 孔子의 가르침이다. 帝王의 訓戒와 民衆의 소리에 의거하여 人間의 道理를 가르쳤으며 修己 治人을 力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中國에서는 漢代以後에 易, 書, 詩, 禮, 春秋, 이른바 五經이라고 부르는 經書의 文字에 얽매

인 訓話學의 傾向의 學問이 盛하다가 宋代에 이르러 이의 哲學的 解明을 주로 한 性理學이 크게 일어났다. 이들 五經 外에 論語, 孟子, 大學, 中庸의 이론바 四書까지를 합하여 哲學的 解明을 한 性理學의 學派에는 朱子學을 形成한 朱子와 그와 傾向을 달리한 王陽明의 陽明學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 至大한 影響을 끼친 學派는 朱子學派이다. 儒敎가 언제 우리나라에 傳來하였는지 記錄이 없어 詳細히 알수는 없으나 高句麗에서는 小獸林王代에 太學을 세웠고 百濟는 285년에 王仁을 日本에 보내어 千字文과 論語를 傳하였으며 新羅는 神文王代에 國學을 세웠다는 記錄으로 보아 이미 三國時代에 儒敎가 傳來했던 것을 알수 있다. 三國以後 高句麗 安 珣이 中國에서 性理學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나라의 儒敎는 그대로 漢文學 내지 訓話學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탓으로 信仰이나 信奉과는 無關하여 佛教信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儒學에 對한 公부가 있었고 儒者로써 佛教에 關與도 하여 高麗 光宗 以後에는 科擧制度가 僧科와 併行하기도 하였다. 儒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오래 되었지만 社會의 根幹思想이나 生活規範으로 信行하기는 李朝 500年間의 일이었다. 本來 儒學에는 政治, 經濟, 法律, 哲學, 倫理, 道德, 文學, 禮樂 등의 여러 方面이 있는데 研究하는 사람에 따라 或은 時代에 따라 特色을 發揮하여 왔었다. 이를테면 漢・唐은 現實的 方面 即 政治, 經濟, 法律部門을 研究 發展시켰고 宋・明은 哲學的 方面 即 性理學의 部門을 發展시켜 왔다. 李朝의 儒學은 이 여러 方面中에서도 性理學을 主流로 하였으므로 여기에 李朝 社會의 性格은 必然的으로 이 方面으로 固定되게 되었다. 李朝 儒敎가 性理學方面으로 기울어 있으며 儒敎의 現實的 基本倫理는 三綱五倫이다. 儒敎를 治國의 理念으로 삼았던 탓으로 李朝時代는 모든 社會規範과 價值觀의 基準을 儒敎에 두었다. 크게는 治國의 目標나 方略에서 부터 작게는 個人의 日常生活의 起居動作까지를 다 이에 바탕을 두게 하였다. 따라서 李朝의 政治的 理想은 君主의 權力에 重點을 둔 霸道에 있지 아니하고 民心속에서 天命을 發見하고 德으로 百姓을 敎化하는 民本思想과 德治主義에 根據한 王道政治에 있었다. 이러한 理想의 實現을 爲하여 政府機構로서는 諫官이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였고 弘文館, 成均館 등이 思想의 具現을 위한 學術 教育部門이 重要한 位置를 占했으며 君主도 經筵에 나가 親히 經書를 受講하는 制度까지 있었다. 儒敎立國을 한 李朝는 歷代 君王이 그 理想의 實現에 積極策을 써서 世宗 때에는 文運이 크게 일어 集賢殿의 建立 書籍의 刊行等 民族文化 暢達에 寄與한 바 컸으나 流派를 달리하는 士林의 派爭은 黨爭과도 關係되게 되었다. 李朝가 儒敎理念을 國策的으로 強力히 推進 敎化시킨 것은 忠孝의 思想이다. 孝를 百行의 根源으로 삼아 人間評價의 基準을 삼았음은 勿論 社會的 基本秩序의 根底로 삼았다. 이 思想과 政策은 祖上崇拜의 習俗을 남겨하여 祖上과의 關係는 宗教的 意義에 達하게 하여 神聖視되었고 上下의 關係는 嚴格한 統緒 밑에 順從이 絕對美德으로 간주되는 社會倫理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理念과 政策은 강한 儀形社會를 만들어 祭祀儀式을 發達시켰다. 儒敎의 祭祀를 對象에 따라 分類하면 天地에 對한 祭祀와 祖上에 對한 祭祀와 聖賢에 對한 祭祀로 나눌수 있으며 이것이 곧 郊社, 祖廟, 文廟인 것이다. 이러한 儀式은 階級意識을 助長하여 嚴格한 階級社會를 形成하게 하여 個人能力에 의한 社會가 아니라 身分制度에 隸屬된 個人을 만들었다. 이 嚴格한 階級制는 家族의으로는 長子優位の 家父長制를 남겨 하여 家族社會의 秩序와 求心點을 形成하였고 社會의으로는 調和와 秩序를 維持하는 機能的 意味가 있게 하였다. 儒敎立國을 한 李朝 社會에서는 社會的 紀綱이 儒學에 있었다. 이 社會의 中心階層이던 士大夫 社會에서는 그들의 教育과 生活이 곧 그대로 儒學이요 儒敎倫理였다. 學問이나 思想이나 行爲가 이에서 어긋났을 때에는 斯文亂賊으로 몰려 異端 取扱을 받아 그 社會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氣風은 地方에 따라서 多少의 差異는 있었지만 나라 全體의 氣風이었으므로 地方性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 (1) 鄕校・書院・祠堂

儒敎의 敎育機關으로서는 私設書堂을 비롯하여 書院 鄕校等이 있었는데 幼年에 書堂에서 基礎敎育을 받은 다음 鄕校나 書院에서 高等教育을 받게 된다. 이곳 원주에도 文廟가 있었는데 이 文廟에는 東洋의 聖賢들의 神位를 奉安하고 있었으며 每月 朔望에는 焚香을 하고 春秋로 釋典의 大祭를 올렸다. 또한 書院은 中宗 37년에 周世鵬이 豊基郡守로 있을 때에 安珣을 奉祀하기 위하여 白雲洞書院을 지은 것이 그 始初이고 이것이 宣祖때에 紹修書院이라 改稱한 우리나라 書院의 嚆矢이다. 書院에서는 先代의 儒賢들을 모시고 儒生들이 모여 講學을 하며 地方의 儒風을 振作시키던 修學의 道場이었으나 李朝中期를 넘어서면서 부터는 本來의 設立 目的과는 달리 色目의 助長 이를 根據로 한 一般民에 對한 誅求等 苛待가 많이 있어 高宗때에 大院君에 의하여 많은 數의 書院이 撤廢되었다. 書院에는 賜額書院과 非賜額書院의 두가지 種類가 있는데 賜額書院은 王이 懸額을 下賜한 書院이고 賜額書院이 아닌 것은 王의 懸額을 받지 못한 書院이다. 書院에 特惠가 있게 되니 肅宗때에는 寺院보다 많아 各道에 8~90個의 書院이 亂立될 때 원주에도 七峰書院, 陶川書院이 있었으나 中·高宗때 書院撤廢時에 폐지되었다. 書院外에 儒敎儀形에 屬하는 것으로 祠堂이 있었는데 이 祠堂은 先賢의 學德을 追慕하기 위하여 모신 것으로 位牌를 모신 곳도 있고 影幀를 모신 影堂도 있다. 원주에도 祠堂으로는 廣巖祠宇, 忠孝祠 등이 있다.

## (2) 忠義・孝行・烈女

儒敎社會에서는 忠孝를 모든 행실의 바탕으로 여겨 忠義, 孝行, 烈行은 強要라기보다 道理로서 當然히 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러한 行動을 높이 評價하여 國家的으로 褒賞하였다. 忠義나 孝行, 烈行으로 國家에서 褒賞되는 것을 家門의 榮譽로 여겼고 行勢하는 바탕이기도 했다. 反面 不忠, 不孝는 綱常에 關係된다 하여 本人의 膺徵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한 고을에서 不忠 不孝한 사람이 나면 그 고을을 降等시켰다. 社會的 背景이 이러하였으므로 忠義, 孝子, 烈女가 고을마다 無數하다. 특히 원주의 忠義로는 元天錫, 金悌甲, 元昊等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忠義는 歷史의 事件과 隨件하므로 두드러진 인물을 찾을 수 있으나 집안을 基準으로 하고 있는 孝行이나 烈女의 行蹟은 史書의 記錄도 없을 뿐더러 너무 많은 數의 孝行 烈女가 있어 실릴 수가 없을 뿐이다. 孝行과 烈女의 行蹟을 높이 評價하는 儒敎社會의 遺習은 현재에도 이고장 儒林이 이어받아 儒林에서 이들을 포창하고 있다.

## (3) 原州鄕校의 創建과 現況

新羅時代의 찬란한 佛敎文化의 餘勢는 高麗에까지 미쳐 繼續되었으나 李朝에서는 儒學을 國是로 하였으므로 宰相과 牧民官들은 政敎一致의 思想으로 中央에는 물론 地方各郡에 敎育機關인 鄕校의 創設을 爲해 官衙建物보다 더 큰 關心을 갖고 다투어 設立하였다. 原州에서도 原州牧官衙보다 더 일찍 設立하였음을 다음 記錄으로 알 수 있다. 國邑 東國輿地勝覽VI 14面に「原州鄕校는 建文4年 州牧 申浩가 淸風樓가 있던 자리에 創建하고 柳思訥이 記(創建辭)를 썼다」고 하였다. 建文元年是 明나라 惠帝때이며 西紀 1399년이니 建文4年은 西紀 1402年 李朝太宗 1年이므로 지금으로부터 무릇 537年前의 일이고, 서울 成均館의 大成殿보다는 4년뒤에 지은 것이니 시골 鄕校치고는 어지간히 빠른 施設이라 하겠다. 이렇게 빠른 速度로 번저나간 鄕校 創建熱은 그 당시의 儒敎興旺勢를 立證한 것이라 하겠다. 새로 지은 鄕校의 創建記를 쓴 柳思訥은 그후 太宗朝에 江原監司(江原道誌上卷 57面)로 榮進 赴任하였더니 州鄕校와 因緣이 자못 깊었던 柳監司 本人도「感懷가 새로웠겠지만 原州儒林과 住民들의 歡心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리라 추측된다. 建造年代로 보면 監營의 東軒이 西紀 1483年 新建하였으니 그보다 實로 82년이나 먼저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190년뒤인 1592年 壬辰倭亂이 일어 疾風같이 倭敵이 侵入하여 7個月동안 原州



## 第5編 教育・文化

에 머물다가 後退時에 放火하여 全燒되었다. 一朝에 儒敎의 本殿을 잃은 儒林들의 悲憤도 커서 儒生 李澤等이 主動이 되어 戰後生活에 困難도 莫甚하면서 11年後인 癸卯年에 불탄 자리에 大成殿을 臨時建物로 지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쏠리고 퇴락하여 仁祖九年 壬申年(1631年) 李 培元 牧使가 重修 3年後 乙亥年에 觀察使 李 敏求가 重修記를 썼다. 그러나 아무리 重修를 잘 할지라도 原建物이 不實한데다 좁고 초라함은 儒道의 衰退라 해서 一邑의 體面上 수치이므로 進士 尹億이 儒林中 事理를 아는 젊은이 10餘名을 動員하여 甲戌年(1668年)에 明倫堂과 東西齋를 着工 5個月만에 竣工하였다. 그후 甲寅年(西紀 1675年肅宗初) 牧使 李 雨臣이 臨時建物이던 大成殿을 重修하여 他邑의 鄉校規模보다 못지않게 하니 빛나더라 고 重修記에 記錄되었다. 一般의 通例로 鄉校에는 大成殿과 東廡, 西廡, 明倫堂, 東齋, 西齋, 庫房, 司馬齋, 會儒齋등으로 되어있다.

### ※ 司馬齋

司馬齋가 생기게 된 것은 會儒齋에 모여 공부하는 地方 儒林들의 識見과 地位의 差異로 이 地方 出身의 生員 進士(高試合格者)들이 자리를 같이 하기 어려워 따로 司馬齋目(高等考試合格者名簿)에 이름이 실린 儒林만이 모이게 한 것이다. 由緒깊은 原州 鄉校建物中 大成殿과 西齋 明倫堂을 除外한 建物과 담장은 6.25事變으로 燒失된 것을 1965年 東廡 東西齋와 담장등을 復舊 新築하였다.

### ※ 大成殿

大成殿에는 孔子를 主壁으로 하여 顔子, 曾子, 子思, 孟子 4聖을 配享하고 宋代 2賢(程頤 朱熹)과 新羅때 薛聰, 崔致遠, 高麗때 安珣, 鄭夢周, 李朝때 金廣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李珣, 成渾, 金長生, 趙憲, 金集, 宋時烈, 宋浚吉, 朴世采, 金麟厚等 우리나라 18賢을 從亨하였다.

옛날에는 孔門 10哲과 宋代 6賢外에도 東西齋에 孔門 諸子 69人, 漢代 13人, 唐代 1人, 宋代 11人, 元代 1人, 東方儒賢 新羅 2人, 高麗 2人, 李朝 14人, 合計 112位를 東西齋에 兩分 56位式 奉安하였으나 西紀 1949年 全國 儒林大會의 決定으로 東方 18賢만 奉安하게 되었다. 以上の 儒敎의 스승과 선배를 숭배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鄉校를 維持하기 위하여 國家에서 많은 土地(田畠 釜山林等)를 配分받아 鄉校財團이 設立되어 그 財産을 管理하여 그 收入으로 年 2回(春季 上丁日과 秋季 上丁日)에 釋奠祭를 舉行함에 初獻官에는 그 고을 守令이 亞獻官은 直員이 終獻官은 元老儒林이 하는 것이 전래의 常例로 되어 있다. 原州에서는 市長과 郡守가 윤번으로 初獻官이 된다

## 第5節 天主教 思想과 史的考察

天主教는 하느님이 우주 만물(宇宙萬物)을 창조(創造)하고 하느님의 독생성자(獨生聖子) 예수(救世主란 뜻)를 인류(人類)에게 보내 원죄(原罪는 元祖아담이 끼쳐준 죄를 말함)중에 있는 人類를 구원(救援)하기 위해서 가장 高貴한 사랑과 희생(犧牲)으로 十字架에 못박혀 죽음으로 人類를 구속(救贖 罪중에서 인류를 구원함을 뜻한다)하였고 죽은지 3日만에 부활(復活)하고 40日만에 승천(昇天)하였다. 그러므로 승천한지 11日만에 사도(使徒)들에게 성령(聖靈)을 보내고 그 믿음을 굳게 하여 전교(傳敎)하게 하였다. 人類에게는 必要한 도움의 사랑을 주어 계명(戒命)을 지키고 신덕(信德) 당덕(望德) 애덕(愛德)의 3德(註 하느님의 진리를 믿고 천당 영복을 바라고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함)으로 박애(博愛)와 희생(犧牲)의 精神으로 예수그리스도가 세운 天主敎會 곧 하느님을 믿고 예수의 뜻대로 生活하면 永遠한 구원(救援)을 얻을수 있다는 것을 敎理로 삼고있는 宗教이다. 특기(特記)할것은 다른 敎派와 다른집이 至一・至聖・至公・使徒傳來性 등으로 베가지를 들수 있다고 한다. 이는 古代 로마帝國以來 유럽各國에서 國家的 宗教로 신봉(信奉)되어 서구(西歐) 文化를 創造한 精神의 기반(基盤)이 되는 宗教로서 天主教가 東洋에 傳해 들어 오기는 西紀 1253年 몽고(蒙古)의 서아정벌(西亞征伐)때로부터 비롯한다. 敎皇 인노첸시오

오(Innocentius)와 불란서(佛蘭西)王 루이 9세의 使節로 프란치스코회 修士 루브루끄가 蒙古의 서울 카라코룸(和林)에 들어가 天主教를 전파(傳播)하였다. 그 후에 있어서도 敎皇使節로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의 修士들이 자주 오고 가더니 1271년에 蒙古王 世祖가 燕京(지금의 북경)으로 서울을 옮기고 나라이름을 元이라고 고치자 敎皇 그레고리오 7世는 다시 마르코 폴로 父子를 이 나라에 보내어 이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많은 天主教의 神父 및 信者들이 元나라에 들어가 元경(燕京) 천주(泉州) 등 여러 곳에 敎會를 세우고 福音(반가운 하느님 말씀을 전함)을 傳하기 시작하였다. 1541년에는 방지거·사베리오 神父가 印度로 나와서 8年동안을 傳敎하다가 1549년에는 日本으로 들어와 2年餘의 傳敎活動 결과 3,000餘名の 信者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天主教가 우리나라에 傳來됨에 關하여서는 유다른 事實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東洋의 여러 나라 즉 日本이나 中國, 印度와 같이 宣敎師들의 직접적(直接的)인 傳敎를 받은 일이 없이 다만 하느님의 사랑(恩寵)이 진리(眞理)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비쳐서 스스로 받아 들임으로 天主教의 믿음(信仰)을 전파(傳播)하였다. 天主敎會가 이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북경(北京)을 왕래(往來)한 使臣들에 의하여 天主教 서적(書籍)들이 1603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 때마침 政治界로 부터 은퇴(隱退)한 南人學者 이 수광(李睟光)은 마테오·릿치 神父와 같은 時代사람으로 머리가 좋고 記憶力이 强하여 宣朝때 부터 仁祖에 이르기까지 3代에 걸쳐서 벼슬을 지냈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 전후(前後)에는 3번이나 明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갔었다. 그는 北京에 세차레나 드나들던 중에 마침 그곳에서 큰 발전(發展)을 보이고 있던 西洋科學과 天主教에 관한 서적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이것을 연구(研究)하고 책을 지어서 남기었다. 그 지은冊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는 우리나라 歷史에 있어서 第一 처음으로 유유럽 여러 나라의 事情을 소개(紹介)하고 天主教에 관한 지식(知識)을 傳하여 주었다. (歐羅巴國 또는 大西國 이라고도 한다. 마테오·릿치 神父는 바다를 건너 8年만에 8萬里나 되는데서 10餘年동안이나 살았다) 그가 지은 책 천주실의(天主實義) 두卷에는 첫머리에 天主께서 처음으로 天地를 만들어 안양(安養)의 道를 주재(主宰)함을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사람의 혼(魂)은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짐승과는 크게 다르다 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윤회육도(輪廻六道=불교를 가리킴)의 그릇됨과 그리고 天堂과 地獄 및 착한 일과 악한 일에는 갚음(應報)이 있음을 밝혔다. 끝으로 사람의 성품(性品)이란 본시 착한 것이니 天主의 뜻대로 공경하여 받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봉유설(芝峯類說) 「芝峯은 李睟光의 호이다」은 1614년에 박아낸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천주실의(天主實義) 등과 아울러 새로움을 공부하려는 젊은 學徒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마침내는 이 思想에 공명(共鳴)하는 사람을 나오게 하였다. 이 수광(李睟光)이 뿌린 씨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180餘年 후에 나온 그의 8代 孫子되는 이 윤하(李潤夏) 가롤로(領洗名)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天主教를 믿고 이를 위하여 피를 흘리게 되었다. 佛敎는 新羅와 高麗時代를 거쳐 1,000餘年동안 佛敎 전성(全盛)期를 지나 李氏朝鮮의 승유배불정책(崇儒排佛政策=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정치적인 방책)으로 佛敎가 쇠퇴(衰退)하여 갔다. 이러한 중유정책(重儒政策)은 新羅와 高麗以來에 유교(儒敎)의 최고발달(最高發達)을 이룩하였으나 宣朝末년에 이르기까지 100餘年 동안에 유교적(儒敎的) 思想도 新舊 2派로 갈려서 파쟁(派爭)을 이르게 되었고 연산조(燕山朝)의 무오(戊午) 甲子士禍와 중종조(中宗朝)의 을묘사화(乙卯士禍) 및 명종조(明宗朝)의 을사사화(乙巳士禍) 등 50年間に 걸친 학유대살해사건(學儒大殺害事件=유교를 배우고 있는 선비를 죽인 사건)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黨爭은 자연히 나라안에 정사(政事)가 해이(解弛=느리짐)함과 변방(邊防)의 태타(怠惰=게으름)로 民心의 나약(懦弱)을 가져와 壬辰과 丙子の 兩難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때에 學者들이 實利學에 눈을 뜨게 되었고 西學은 一部 學者들에 依하여 천천히(徐徐히) 놀라움과 驚異(驚異)함께 섭취(攝取)

되어 가고 있었다. 때마침 정치계(政治界)로 부터 은퇴(隱退)한 南人學者들 사이에 있어서 이와 같은 冊들이 愛讀되어 마침내 民族의 자각운동(自覺運動)과 새 宗教運動을 展開하게 되었다. 이 運動을 일으키는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준 것은 바로 마테오·릿치라는 神父가 北京에서 出版한 天主實義라는 책이었고 南人系學者들이 天主教를 學問의으로 연구(研究)하여 가다가 自發的으로 信奉하여 西學運動(西洋文化)을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 南人學者中에서 天主教를 研究한 學者들로는 이 익(李翼) 안 정복(安鼎福) 권 철신(權哲身) 정 약전(丁若銓) 이 총억(李寵億) 이 벽(李襲) 등이 있었다. 李襲은 武人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父親이 부만(李藩萬)의 指導를 받아 말타고 활쏘는 技術을 닦고 있었으나 고집이 어찌나 세었던지 이름을 李襲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八尺長身으로 힘이 장사인지라 양손에 쌀 한섬씩을 거뜰히 들어 올리고 하든 재주가 뛰어난 武人이었다고 한다. 1777년에 權哲身이라는 有名한 學者가 丁若銓 丁若鏞等 여러 學者들과 더불어 廣州 鰲子山(鶯子山) 주어사(走魚寺)에서 哲理의 깊은 뜻을 서로 討論한다는 말을 듣고 몹시 추운날 밤 어두움을 利用하여 가다가 호랑이배들과 싸우면서 그밤으로 그 모임에 參加하고 敎理研究會를 열고 天主教가 眞理임을 깨닫고 믿기 始作하였다. 天主教를 믿기 始作한 후로는 매월 7日, 14日, 21日, 28日에는 李襲이 믿는 이들에게 講論도 하고 祈禱와 默想 大小齊(더운 피를 가진 고기를 안먹고 밥을 굶는 것을 말함)를 지키고 28日에는 일을 쉬고 깊이 反省하며 默想에 잠기고 아침 저녁으로 祈禱드리기도 하였다. 이를 일러 百工이라고 하였다. 당시의 어느 누구의 指導도 없이 스스로 이러한 生活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도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李襲은 이러한 信仰運動이 數年 계속되는 동안에 1783年 冬至使 謝恩使 黃인점의 서장관으로 李承薰의 父親이 동우(李東郁)이 가게됨을 좋은 機會라 생각한 李襲은 李承薰을 說得하여 北京으로 보내게 되었다. 李承薰은 1784年 양력 2월에 예수회 드·그라몽神父로부터 우리나라 선비로서는 最初로 領洗를 받고 歸國하여 李襲에게 領洗를 주었다. 李襲의 領洗名은 요한 세자라 하였는데 이는 敎會를 드려오는데 선구자(先驅者)의 役割을 하였다고 해서 요한세자라고 하였다. 李承薰은 계속하여 하느님을 믿는 다른 사람에게도 領洗를 주었다. 당시 朝鮮聖敎會는 聖職者가 없어서 가정직(假聖職) 時節이 있었다. 李承薰(베드로)을 主敎로 권 일신(權日身 프란치스코), 이 단원(루이 공사가), 유 함경(아오스당), 최 창현(요한), 그밖에 몇 사람을 神父로 정하여 각 성무(聖務)를 맡아보게 하였던 때도 있었다. 信者가 많이 생기게 되니 1785년에는 서울 南部 明禮坊(現明洞)에 있는 中人階級에 譯官(譯官) 김 범우(金範禹)의 집에서 主日行事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天主堂의 역할(役割)을 하게 되었으며 이 民族의 救援運動을 일으키게 되었으나 이 敎堂은 즉시 官吏들에게 발각(發覺)이 되어 解散이 되었고 그후 1785년 3월부터 1887년까지 公的인 迫害가 계속되어 100餘年間に 걸친 큰 迫害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迫害中에서 中國人 周文模神父가 서울에 와서 傳敎하였다. 우리나라에 神父가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周文模神父는 1800년 辛酉敎難으로 300餘名の 信徒와 함께 殉敎하였다. 그후 1831년에 로마敎皇에 依해서 朝鮮敎區가 設定되어 프랑스 파리의 외방전교회(外邦傳敎會)가 韓國傳敎를 맡았다. 1801년 辛酉敎難뒤 1839年 己亥에도 큰 敎難이 있었으며 大院君이 집권(執權)한 期間中에는 丙寅迫害를 비롯하여 1871년까지 近 萬名の 信徒들이 殉敎했다. 外國人이 正式으로 우리나라에서 傳敎活動을 할수 있게 된 것은 1886年 5월에 締結된 한불수호통상조약문(韓佛修好通商條約文) 속에 兩國人이 서로 相對國에서 敎회(敎誨=갈못을 깨우치게 한다는 뜻)할수 있다는 條文으로 因하여 처음으로 傳敎의 自由가 허락(許諾)되었다. 이 時期에 天主教迫害의 理由를 「척사편음」(斥邪編音=사교를 물리침)에 天主學이 西洋사람을 이 땅에 불려오게 하고 父母를 無視하며 祖上의 祭祀를 치내지 않는 한편 男女貴賤의 區別을 없게 하여 삼강오륜(三綱五倫)의 근본질서(根本秩序)를 파

괴하며 天堂과 地獄을 말해서 百姓의 마음을 현혹(眩惑)하는 사교(邪敎)라고 규정(規定)되었다. 天主教는 外來宗教인 탓으로 公式傳敎에 앞서 國內에서 暗暗裡에 이미 傳敎가 되고 있었다. 柳洪烈의 韓國天主教會史에 依하면 1801年의 辛酉敎難때 敎勢가 旺盛하던 기호(畿湖) 地方의 敎人들이 迫害를 避하여 江原道地方까지 흘러왔다는 記錄으로 보아서도 1700年代는 몰라도 1800年代의 初期에는 이미 天主教가 江原道에도 傳敎되었었다. 물론 敎堂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系統的인 信仰生活이 아니기는 했지만 이 時代에 個人的인 信奉자들이 江原道에 들어왔고 이곳에 移住한 初期 天主教徒들의 많은 數는 그들의 信仰을 지키면서 生計를 維持하기 위해서 都市나 既成村落을 避하여 山間에 定着하고 土器의 製造業(옹기)에 從事하는 사람이 많았다. 都市나 既成村落에서 生活하다 보면 信仰이 暴露되어 迫害받기가 쉬운데다 生活의 土臺를 잡기가 어려운데 比하면 山間에서 새로운 村落을 이루고 信仰同志끼리 살면 信仰이 탄로될 念慮가 없고 山間에서 손쉽게 生活土臺를 잡는다는 資料가 無盡藏인 土器製造가 가장 알맞는 職業이었다. 깊은 雉岳山기슭 등지의 土器製造 集團村落은 大部分이 天主教를 信仰으로 하고 있는 까닭은 이때 天主教迫害를 避하여 江原道 山間벽지에 들어온 것이 江原道에 天主教가 들어온 始初이다. 天主教가 公許되기 까지 이곳에 숨어 사는 敎徒들을 위하여 찾아왔던 金스몬神父는 蔚珍에서 잡혀 原州에서 殉敎하였고 崔 요한 神父가 春川 달고개에서 잡혀 역시 原州에서 殉敎하였다. 그뒤로는 傳敎를 目的으로 찾아온 神父가 없었다. 韓佛修好通商條約이 發動한 다음 1888년에 神父 2명이 江原道에 傳敎를 目的으로 왔었다 한다. 이 이야기는 文獻에는 없고 現在 春川敎區의 高齡으로 隱退후 三陟에서 작고한 朱在用神父의 傳言이다. 天主教는 그 初創期부터 彈壓과 迫害를 當하여 오는데 中 正祖 15年 辛亥 1791년에 湖南 珍山郡에 居住하던 敎徒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이 있어 尹持忠이 母親喪을 當하매 神位를 불태우고 天主教式으로 祭祀를 行하니 社會의 倫理道德을 물란(紊亂)케 하고 忠孝의 道에 어긋났다 하여 드디어 그 兩人을 死刑에 處하였다. 이것이 辛亥邪獄(珍山事件)으로 天主教가 傳來된 以來 最初의 殉敎者였다. 그후 純祖가 11歲로 即位하자 英祖妣 金大王大妃가 政權을 잡게 되자 迫害의 突風이 일어 天主教彈壓으로 一萬餘名의 無名 有名의 殉敎者를 냈고 辛酉迫害에는 (1801年) 南人中에서 쟁쟁(鏗鏘)한 學者 李家煥, 丁若鍾, 權哲身, 李承薰, 黃嗣永 등을 反逆罪로 死刑을 시키고 周文模神父는 國境까지 脫出하였다가 朝鮮敎友들이 받는 무섭고 잔혹(殘酷)한 刑罰을 함께하며 運命을 같이 하고자 自進 自首하고 1801年 3月 12日 (음력) 1801年 4月 20日(19日?)에 軍門兼首(軍門兼首)하였고 당시 45~6歲였는데 外國人으로는 最初의 殉敎者가 되었다. 또한 王族으로는 王의 서백모(庶伯母)인 宋氏夫人(마리아 領洗名)과 그의 며느리 申氏夫人(마리아)을 1801年 3月 16日 毒藥을 먹여 죽이고 은언군(恩彦君)은 敎人이 아닌 데도 1801年 5月 29日 毒藥을 내려 죽였다. 이것이 辛酉大敎難인데 당시 300餘名이 殉敎하였다. 이러한 天主教에 대한 迫害는 政治紛爭에 緣由된 것으로 金祖淳이 政權을 잡게 되자 天主教의 禁壓은 多少 緩和되었다. 이러한 迫害속에서도 天主教人의 活動은 끊이지 않았다. 純祖 33年(1833年) 中國人 神父 劉方濟가 入國하였고 뒤이어 1836年 모반神父 앙베르主敎와 샤스탄 神父가 서울에 들어오니 敎徒의 數는 急速度로 늘었고 劉神父는 韓國神父를 養成하기 위하여 金大建, 崔養業, 崔方濟 등을 香港 天主教神學校로 留學을 보냈다. 憲宗 5年 趙萬永이 政權을 잡고 金氏一派를 肅濟하게 되자 官憲은 다시금 天主教人을 迫害하기 始作하여 佛人神父 모반 앙베르主敎 샤스탄이 殉敎하고 그밖에 殉敎한 敎人이 200名을 넘었으니 이것이 己亥迫害였다. 1845年 朝鮮人最初의 神父로서 入國한 金大建神父도 그 이듬해 丙午敎難때 서울새남담(沙南基)에서 殉敎하였고 그후 哲宗이 즉위(即位)하면서 敎會에 對한 迫害가 뜸해졌다. 1849年 4月 19日 부활절(復活) 다음 主日 그곳에서 神品聖事를 받고 첫번째 미사를 執典하고 海外風霜生活 13年만에 그

린은 故國에 돌아오게 되었다. 大敎難을 몇번씩 치루웠던 敎徒들은 邦人神父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 때 崔養業(도마) 神父가 歸國하여 서울서 하루를 머물고 主教를 만나보려 할때 “다불위” 神父의 病이 危重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종부성사(終傳聖事=임종이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는 일곱가지 성사중 하나이다)를 주고 “페레올” 主教를 만나기 위하여 忠淸道로 가니 主教도 病中이라 看護를 하고 있다가 傳敎하기 위해서 全羅道로 떠났는데 6개월 동안에 다섯道(五個道)를 다녔다. 이때 두곳에서만 위험(危險)을 당하였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西洋사람으로 오해(誤解)를 받아 잡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東西南北 가리지않고 東奔西走하여 義德에 주리고 목마른 양떼를 찾는 牧者의 안타까운 傳敎活動은 始作이 되었다. 밤이 되어도 온돌방에서 하루 밤을 편히 쉴 사이도 없이 낮에는 말잔등에서 잠을 자고 밤으로는 敎徒를 찾아서 敎理를 가르치고 聖事를 行하고 고된 司牧活動을 계속하는 동안 崔 神父가 公所를 찾으면 敎徒들이 男女老少 가리지않고 모두 새옷으로 갈아 입고 神父 만나기를 바빠 여기고 神父가 公所를 떠날 행장을 차리면 信徒들은 대성통곡(大聲痛哭)을 하며 神父의 옷자락을 잡고 만류하기도 한다. 神父가 보이지 않을때까지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며 뒤를 따라오는 敎友도 있어 떼어놓고 돌아서는 神父는 이나라에 많은 聖召(하느님의 부르심)가 있도록 고달픈 가운데서도 舟論(배론) 神學堂에서 敎鞭을 잡으면서 傳敎活動뿐만이 아니라 殉敎者의 資料蒐集을 細密하게 記錄하여 敎皇廳에 報告하였으므로 韓國사람으로서 福者位에 오르게 된것은 大部分 崔 養業(도마) 神父의 貢獻에 依한 것이라 하겠다. 단 하루의 쉴사이도 없이 各公所를 巡廻하는데(公所未詳) 한 部落에서 崔 養業 神父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神父가 오기 15日前부터 迎接을 위해 準備한 돼지고기가 상(傷)하였으나 그것을 모르고 神父待接에 誠意를 베풀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崔 神父는 이 飮食이 傷한줄 알면서도 敎友의 따뜻한 정성을 생각하여 이것을 먹었다. 崔 神父는 舟論으로 돌아오는 途中 말잔등에서 發病하여 舟論으로 돌아 갔으나 飮食의 잘못으로 곧 善終하였다. 崔 神父는 13년동안 敎理問答冊의 번역 등 한몸에 무거운 重責을 지고 司牧生活을 한 崔 養業 神父의 뒤를 따를만한 司祭는 없다고 後世人은 말하고 있다. 특히 韓國天主教會史에 가장 앞장 섰어야 할 崔 神父는 아무런 記錄하나 남아 있지 못한채 百年이 지나도록 舟論에 무덤만이 남아 있다. 勿論 自身の 그와 같은 活動을 알리지 못한 연유도 있겠지만 後世人이 事實을 調查發掘하지 못한데도 그 原因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고 하겠지만 百餘年이 지난 오늘날 神學校 發祥地인 舟論을 黃야고버(柱益)가 踏査끝에 前述한 事實을 알게되어 原州敎區長 池學淳主教에게 알리는 한편 聖地로서 그 面貌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原州敎區長은 崔 神父의 碑石을 손질하는 한편 塔을 세우고 堤川聖堂의 李學根神父로 하여금 舟論聖地를 管理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崔 養業(도마) 神父 生前의 功을 追慕하게 되었고 잊혀져 가던 舟論의 聖地도 世人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1849년에 崔 養業(도마) 神父가 歸國한 2年後에 “리멜” 神父와 “베르느” 神父, 張 主教가 2名の 佛人神父와 같이 入國하여 忠淸北道 堤川땅 舟論(現在는 原州敎區管轄)에 韓國最初の 神學校를 設立하고 2萬餘名の 敎人을 얻게 되었다. 敎勢가 확장되어 이처럼 前後 14년에 걸친 哲宗時代에 聖敎會는 많은 發展을 보았다. 1864年 12월에 哲宗이 昇遐하고 高宗이 即位하여 大院君이 섭정(攝政)을 하였다. 大院君이 野人으로 自處하고 불우(不遇)한 날을 보낼때 南人들과 親交하여 西學에 對한 理解가 깊었다. 또한 閔夫人은 王의 乳母인 朴말파와 天主教를 믿는 宮女들의 感化를 입어 위양閔神父에게서 敎理를 배워 1896年 10月 11日(음 9월 5일) 마리아라는 敎名으로 領洗를 받았다. 高宗 2年(1865年) 러시아와의 國際問題로 大院君의 태도(態度)는 突變하여 西敎禁制로 丙寅年의 大敎難이 일어나 베르느 張 主教以下 9名の 佛人神父 南鍾三, 洪鳳周를 비롯하여 2,000餘名の 敎人이 刑場에 이슬로 殉敎하였고 그뒤 6年동안 全國적으로 不法殺害된 敎人까지

합하면 무려 30,000餘名을 해야했다. 實로 가혹(苛酷)한 迫害였고 처참(慘慘)한 教難이었다. 이로써 政府는 척화정책(斥和政策)을 썼으나 大院君이 물러난 高宗 13年(1876年)에 3個港을 개항(開港)하고 同 59年(1882年) 壬午에 淸國의 알선(斡旋)으로 美國과 수교조약(修交條約)을 체결(締結)하게 되자 10年만의 척화비(斥和碑)를 묻어 버리고 쇄국정책(鎖國政策)의 終止符를 찍게 되면서부터 天主教는 百年만에 信仰活動의 自由를 얻게 되었다. 政府에서는 全國에 토사교문(討邪敎文)을 配布하고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다섯집을 한통으로 만들어 天主教人을 색출하려고 만든 법)을 써서 敎人을 박해하므로 堤川郡 鳳陽面 舟論(九鶴 現原州敎區)과 橫城郡 書院面을 中心으로 原城郡 好楮面 高山 光格里(고니골 영산)을 위시 板富面 瑞谷里, 原州市 盤谷洞(서리실) 雉岳山 기슭等地에 教難을 避해서 온 사람들에 依하여 敎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모든 敎人들은 거의 가재(家財)를 몰수 당하고 유리걸식(流離乞食)하면서 山間벽지인 이곳을 찾아와서 솥 굽기와 응기를 만들어 生計를 이어가야만 했다. 당시 商工人을 천시(賤視)하던 世態를 따라 응기쟁이로 敎인들이 은신(隱身)하며 苦行과 斷食 祈禱 默想으로 8年동안 토굴속에서 信仰을 지켜나가며 연명하였다. 당시 舟論神學堂에는 다블뤼 安 主敎를 院長으로 뿌르머신 神父와 佛人 神父로 하여금 20名内外의 神學生들에게 神品工夫를 가르치며 信仰活動을 自由로 할수 있기를 祈願하였다. 特히 記錄할것은 황 사영대서(黃嗣永帛書)는 周 文模 神父가 殉敎한 뒤 天主教의 運命이 風前燈火(風前燈火)의 상태에 빠지게 됨을 본 황 사영(黃嗣永)은 舟論 응기 土掘속에서 그를 찾아온 황필(黃泌)과 相議하여 天主教 재건의 計劃을 세웠으니 이것이 今 有名한 黃 嗣永帛書이다. 帛書를 만들어 품속에 다 감추고 舟論을 나서려 할때 官憲에게 체포되었다. 그후 黃 嗣永은 殉敎하였고 얼마후에 帛書는 로마 敎皇廳까지 가게 되었고 至今도 保存되어 있다. 서울敎區가 생긴 뒤 1888年(現在 原州敎區임) 橫城郡 書院面에 豐水院 天主教가 設立되었다. 이 豐水院은 百年間의 迫害로 天主教徒들이 滅亡危機에 處하였을때 敎徒들은 이곳 山峽으로 숨어 들었다. 豐水院敎堂은 嶺東一部와 嶺西 全域을 管轄하였다. 迫害가 사라지고 信仰의 自由가 왔을 때 神父가 各公所로 傳敎를 나가게 되면 豐水院을 出發하여 好楮面 고니골公所로 부터 原州公所, 神林公所, 堤川公所, 江陵公所, 春川公所, 洪川양덕원公所, 이러한 順位로 5日 내지는 1週日씩 걸리게 된다. 主日미사는 公所에서 지내게 되는데 1年에 한번밖에 神父를 만나지 못하는 敎人들은 大祝祭日로 盛況을 이루었고 다음 公所로 출발 할때면 敎人들의 歡送과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 公所까지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정경은 相互公所間의 우의(友誼)를 더욱 뜨겁게 하였다. 이 때에는 움직이는 天主敎會라고 할 수 있게끔 馬夫로부터 복사, 食糧, 이불집, 미사집 해서 大部隊가 移動하듯 장엄한 행차(行次)였다. (이때 神父는 外國人이라 風俗이 다른 關係도 있다) 豐水院과 堤川 舟論 原州산골짜기에 숨어 있던 信徒들이 믿음의 高貴한 씨앗이 되었다 하겠다. 1896年 現在 東光國民學校의 前身인 聖心書院도 이곳에 設立되어 일찍 西歐文明에 接할수 있었다. 오랜 敎堂의 歷史가 있는 곳이기때 1970年까지는 豐水院 出身으로 神父가 된 사람이 18名이나 된다.

이곳 原州 園洞天主敎會는 設立된지 79年 주민들의 유교사상과 日帝때 가진 壓力과 難關을 극복하며 자라왔고 6.25의 쓰라린 苦痛을 겪으면서도 이고장 住民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地域社會 發展에 이바지 해왔다. 지금은 이 지역 住民들의 精神的 支柱로 군림(君臨)하여 이 社會에 소금과 누룩으로 메마른 사회의 등불이 되기까지는 이 地域에서도 先祖들의 高貴한 피를 흘렸으며 그 피의 밑 거름으로 오늘까지 성장해 왔다. 이곳 原州에서의 殉敎者를 든다면 김 강이(金綱伊), 1名여성은 1765年 忠淸道 서산(瑞山)에서 富者이고 양반집에서 태어나 1794年 周 文模(中國人) 神父로 부터 세례를 받고(세례명 시몬) 1801年 辛酉敎難때 敎會의 主謀者로 포졸에 쫓겨서 財産을 버리고 慶尙道 蔚珍에 숨어 살다가 1815年(純祖 14年)에 머슴의 밑고로 同年 4月 安

## 第5編 教育・文化

東捕校에게逮捕되어財産을沒收당하고安東監獄에移監되었다가그해5월에아우金다두와함께原州監營에押送되었다.그때原州監營에는61~7名の敎友가이미수감되었고金綱伊(시론)은그들과같이苦痛과刑罰을나눴으나아우金다두와61~7名の敎友는고문과형벌에못이겨背敎하고金綱伊(시론)만死刑宣告를받고執行될날만을기다리던중몸에받은형상(刑傷)과이질병으로獄에감힌지8개월만에1815년11월5일50歳の연령으로죄목아닌邪學罪人으로獄死殉敎하였다.

두번째는최해성(崔海成)1명양복,최해성은忠淸道홍주에서1810년에태어났으며父親崔봉환(방지거)은大邱監營에서옥사(獄死)殉敎하였고崔海成은어려서세례를받고(세례명·요한)父親을따라모범된신앙생활을하는중에迫害를避하여春川으로숨어와살다가어떤外敎人의밀고로포교에게잡혀1839年(憲宗五年)1月原州監營에押送되었다.原州監營에서무서운고문과형벌에도背敎하지않고굳은믿음과信仰心を간직하다가옥에감힌지10個月만에29歳の젊은나이로동년10月6日邪學罪人으로갈로목을잘리어殉敎하였다.

세번째로는비리시다이다.이고장에서殉敎한崔海成(요한)의고모로서조카가잡혀원주감영에서고통을당하고있다는소식을듣고原州監營에찾아와1839年9월에스스로天主教信者임을자백하여옥에감혀모든고문과刑罰을당하면서도끝까지背敎치않고도리어官吏들에게하느님을믿으라고설교하였다.이에官吏가화가나서며칠동안굶겼지만배교하지않아할수없이교수형(絞首刑)에處하여동년11月4日殉敎하였다.이밖에이고장에서도많은殉敎者가있지만확실한기록이없어알수없음을안타깝게생각하는바이다.일성록(日省錄)에보던純宗乙亥年11月12日條에김강이(金綱伊)의處刑事實을당시의江原道觀察使였던南履翼이王에게報告한다음과같은記錄이있다.사학죄인(邪學罪人)金綱伊는前例에쫓아서死刑을執行하고金昌貴는보성군으로귀양보내고金允執 등은各各罪의가볍고무거움에따라處罰하였나이다하였다.여기서注目되는事實은「前例에따라」라는句節로미루어보아이곳原州에서天主教人의處罰이1815년이最初가아니고이미그以前에도있었던것을알수있으니이로서이곳天主教는辛酉敎難과같은時代에傳來되었고이와같이先祖들의홀린피로1895년처음으로결실을보아이地域에天主敎會가設立되게된것이다.1895年6月9日佛蘭西人Lemere神父가原州地方에福音을傳播하기위하여上洞里(現仁洞 카톨릭센터)에대지350坪과建物16間을구입하여聖堂으로使用하고京畿敎區(現서울大敎區)소속본당으로設立하였다.1900年불란서神父Devred Eemile가上洞里(現園洞聖堂)에대지2,000坪을구입하여現在使用하는聖堂地地를확보하였다.1913年佛蘭西神父Jaugey Josep가現聖堂地地에붉은벽돌를고딕식聖堂建物70坪을新築하여Mutel Augustine 민대주교집전(執典)으로祝聖하고천주성종의모친성당으로命名하였다.(6.25사변으로파괴됨)

1940年12月8日春川敎區設立으로春川敎區所屬本堂으로編入되었고1951年에탄신신부Deery Dattrick 이神父가파괴된聖堂벽돌로80坪의臨時聖堂을新築하여使用하였다(現小花幼稚園建物)1954年Deery Dattrick 李神父가現聖堂120坪을新築하고Quinlan Thomas 具主敎의집전으로축성(祝聖)하여現在까지使用하고있다.1965年6月29日原州敎區設立으로原州敎區所屬本堂으로편입되는동시에主敎座大聖堂으로昇格되었다.1967년부터本聖堂運營을自治的으로運營하고있으며現在神父2名,修女3名,職員1名이3,000餘名の信者들을司牧하고있다.

1895年設立當時原州地方을管轄1900年原州,原城,楊平,驪州,利川,堤川,丹陽,寧越郡,全體를관할하였다.1903年神林面용소막聖堂設立으로原州,原城,驪州,利川,楊平,場川을管轄

1920年 楊平聖堂 設立으로 原州 原城郡 全體를 管轄하였고 1958年 鶴城洞 聖堂 設立이 되었다. 鶴城洞天主教會 公所로 95年の 教歷을 가지고 있는 好楮面 高山里 고니곶公所를 들수가 있다. 고니곶公所는 大敎難때 京畿道 龍仁에서 避해온 崔氏一家(以下未詳)가 洪川 南面 양덕원을 거쳐 一部는 豐水院으로 가고 一部는 고니곶로 들어와서 生計를 火田과 鶯기굽기에 依存하여 傳敎에 專念하였다. 영산公所는 崔氏집 딸이 영산으로 出家하게 됨으로 天主教가 傳播되어 지금으로부터 65年の 教歷을 가지고 있고 영산公所에서 李學根 李興根 兄弟의 神父가 輩出되어 現在 原州敎區에서 司牧活動을 하고 있다. 鶴城洞聖堂 設立으로 原州 明倫洞, 園洞, 中央洞, 平原洞, 一山洞, 原州 園洞, 中平洞, 一山洞, 鳳山洞, 明倫洞, 開運洞一部와 原城郡 興業面을 管轄하였다. 1970年 管轄區域 조정으로 興業面을 丹邱聖堂으로 이양하고 明倫洞全部를 管轄하고 있다. 1972年 鳳山洞 聖堂의 設立으로 明倫洞, 園洞, 中平洞, 一山洞, 茂實洞, 開運洞一部를 管轄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 事業

1. 야학원 : 1910~1930년까지 佛蘭西人 양神父가 문맹퇴치運動으로 聖堂에 야학원(明倫洞)을 設置하여 한글 모르는 주민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지역주민에게 봉사하였고,

1931~1937年 正 규량神父가 夜學院을 폐쇄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문맹퇴치운동과 2世 敎育을 위하여 4年制 私立普通學校를 設立하였으나 일제(日帝)의 탄압(彈壓)으로 學校가 強制로 폐쇄(廢鎖) 당하였다.

小花유치원은 1937~1950年 日帝의 強壓으로 普通學校가 強制 폐쇄 당하자 正 규량神父가 다시 小花幼稚園을 設立하였으나 6.25사변으로 中斷하였다. (당시에는 원주에 소화유치원 하나밖에 없었다) 수복후 1956年에 中斷되었던 小花幼稚園을 梁 大錫神父가 再設立하여 극빈자 어린이 5, 6歲를 대상으로 탁아소 형태로 어린이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1967年 崔 昌圭神父가 文教當局에서 정식 인가(認可)를 받아 小花幼稚園으로 오늘날까지 運營하고 있다.

### 歷代神父

제 1대 李 神父(佛蘭西人) 1895年~1898年	제 2대 목 神父(佛蘭西人) 1898年~1899年
제 3대 유 神父(佛蘭西)	제 4대 지 神父(佛蘭西) 1906年~1908年
제 5대 양 神父(佛蘭西) 1908年~1923年	제 6대 심 神父(佛蘭西) 1923年~1927年
제 7대 金 베드로神父(韓) 1927年~1928年	제 8대 正 규량神父 1928年~1938年
제 9대 유 영근神父(韓) 1938年~1939年 ( 6.25때 납치당하였음)	
제10대 안 神父(美) 1939年~1941 ( 6.25때 납치당하였음)	
제11대 김 고명神父 1941年~1942年	제12대 박일규神父 1941年~1945年
제13대 이 神父(애 탄) 1945年~1948年	
제14대 라 神父(애 탄) 1948年~1949年 ( 6.25때 被殺되었음)	
제15대 Thomas Comerford (애 탄) 1949年~1955年	
제16대 이 神父(애 탄) 1940年~1955年	제17대 梁 大錫神父 1956年~1966年
제18대 崔 창규神父 1966年~1969年	제19대 李 學根神父 1969年~1971年
제20대 李 英燮神父 1971年~現在에 이름	

### (1) 天主教 園洞教會

天主教 園洞教會는 原州市 園洞 85番地에 位置하며 1895年 6月 9日 佛蘭西人 Lemere神父가 現 仁洞 가톨릭센타 자리에 草家 16間을 買入하고 京城敎區 所屬本堂으로 設立하였으며 1900年 佛蘭西人 Devred Eemile神父가 現 敎會 垜地 2,000坪을 買入하고 1913年 佛蘭西人 Jaaegy Josep.



## 第5編 教育・文化

神父가 現 聖堂垵地에 붉은 벽돌로 고딕식 聖堂建物を 新築하여 天主聖龍의 母親聖堂으로 命名하여 使用했으나 6.25事變으로 破壤되었다. 1940年 12月 8日 春川敎區가 設立됨에 따라서 春川敎區 所屬本堂으로 編入되었으며 1954年 愛蘭人 Deery Datriick神父가 現 聖堂을 新築하였다. 1965年 6月 29日 原州敎區가 設立됨으로서 原州敎區 所屬으로 編入되었다. 主敎座大聖堂으로 昇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創立된지 79年이나 되지만 初創期에 儒敎思想과 日帝의 彈壓으로 많은 苦痛을 겪어왔던 이 敎會는 原州, 原城, 楊平, 驪州, 利川, 堤川, 丹陽, 寧越郡 全體를 管轄區域으로 하였다가 神林, 楊平, 鶴城洞, 丹邱洞, 鳳山洞, 本堂이 차례로 設立됨으로서 園洞, 明倫洞, 中平原洞, 1山洞, 茂實洞, 開運洞一部를 管轄하고 있다. 現在 信徒數는 男子 1,398名 女子 1,452名等 總 2,850名이고 敎會 建坪은 120坪으로 歷代 神父는 祖代 Lemerre 初父(佛蘭西人) 2代 曷神父(佛蘭西人) 3代 Derrad Eemile(佛蘭西人) 4代 지神父(佛蘭西人) 5代 양神父(佛蘭西人) 6代 김神父(佛蘭西人) 7代 김 베드로神父(韓國人) 8代 정 규량神父(韓國人) 9代 유 영근神父(韓國人) 10代 안 神父(美國人) 11代 김 교영神父(韓國人) 12代 박 일규神父(韓國人) 13代 이 神父(愛蘭人) 14代 라 神父(愛蘭人) 15代 공 神父(愛蘭人) 16代 이 神父(愛蘭人) 17代 梁 大錫神父(韓國人) 18代 최 창규神父(韓國人) 19代 李 學根神父 20代 李 英變神父等이며 부속建物로는 小花幼稚園이 있다.

### ※ 天主教 原州敎區廳

천주교원주교구는 1965年 6月 29일에 設立되었으며 原州市鶴城洞에 位置한다. 初代敎區長으로 池 學淳主敎가 就任하여 敎區廳을 現位置에 짓고 原州, 原城, 橫城, 寧越, 平昌, 旌善, 三陟, 忠北 堤川, 丹陽 等 市郡의 天主教를 統轄하고 있다.

### (2) 天主教 鶴城洞敎會

天主教 鶴城洞 敎會는 原州市 鶴城 1洞 972番地에 所在하고 1958年 12月 3日 竣工式과 同時에 天主教 園洞敎會에서 分擘되었다. 天主教 鶴城洞敎會의 垵地는 780坪에 建物 110坪이며 信徒數는 2,362名이고 本敎會 管轄區域은 台庄 2洞, 加峴洞, 牛山洞, 丹溪洞, 鶴城 1,2洞, 1山洞 1部 所草面, 好楮面, 地正面이다. 歷代主任神父는 初代 박토마스 2代 신안토니오 3代 공토마스 4代 도리카로도 5代 정 레오 6代 崔 基植 7代 盧 世賢神父로 現在에 이르고 있다.

### (3) 天主教 丹邱洞敎會 大安公所

原城郡 興業面 大安 1里에 所在한 天主教丹邱洞敎會 大安公所는 建坪 48坪에 200名의 信徒들이 約 80年이라는 깊은 歷史속에서 김 원식을 中心으로 設立되었다. 本堂 丹邱洞敎會 히神父가 管掌하고 있다.

### (4) 天主教 文幕敎會 富論公所

天主教 文幕敎會 富論公所는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에 位置하며 至今으로부터 約 80年前인 1895년에 이 흥준에 依하여 設立되었다고 한다. 富論公所의 講堂은 1962년에 新築된 것으로서 富論面一圓의 住民들이 大部分 信徒인 이 敎會는 30坪 建坪에 信徒數는 壯年 50名 幼年 50名等 總 1백名이며 이 公所는 本堂神父인 文幕天主教會 南미카엘神父가 管掌하고 있다.

### (5) 天主教 神林敎會

天主教 神林敎會는 原城郡 神林面 龍岩 2里에 位置하며 1908年 佛蘭西人인 表神父에 依해서 草家聖堂에서 傳敎를 하다가 1916年 지神父에 依해 現在 聖堂이 新築되었다. 이 고장에서 가장 오랜 歷史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곳 信者로 司祭敎品을 받은 사람이 5名이나 된다고 한다. 敎會 建坪은 130坪이고 信徒數는 男子 392名 女子 452名 等 總 844名이다. 天主教의 歷史가 깊은 이곳 住民들은 大多數가 信者로 信仰村을 이루고 있으며 司牧會 青年會 婦女會가 있다. 歷代 神

父는 初代 表神父(佛人) 2代 金神父 3代 지神父 4代 옥神父 5代 이방지거神父 6代 원바드시오神父 7代 조다두神父 8代 이종홍神父 9代 최동오神父 10代 이바드리시오神父 11代 도리차르드神父 12代 권神父 13代 경神父 14代 이神父 15代 신근섭神父 16代 이흥근神父 17代 천神父 18代 기神父 19代 정神父 20代 오神父 21代 장神父等이다.

(2) 天主教 丹邱洞教會 梅芝里公所

天主教 丹邱洞教會 梅芝里公所는 原城郡 興業面 梅芝 2리에 位置하며 約 25年前인 1973年 흥기북에 依해 設立되었으며 1973年 8월에 教會를 新築하였다. 青年會 活動과 天主教 原州敎區의 協助로 韓牛飼育業이 活潑히 展開되고 있는 이 教會는 25坪의 教會堂에 現在 擔當神父는 丹邱洞教會 美國人 허神父가 管掌하고 있다.

(7) 天主教 丹邱洞教會 후리사公所

原城郡 板富面 端谷 4里 白雲山을 背景으로 자리잡은 天主教 丹邱洞教會 후리사公所는 約 1백餘年前부터 모여든 信徒들로 깊은 歷史를 가지고 있다. 1952年 建坪 25坪에 講堂 新築을 보았고 歷史에 比하여 많은 數는 아니지만 20餘名の 信者들이 모여 每日 첫日曜日에는 本堂인 天主教 丹邱洞教會 허神父가 公所에 나와 미사를 집전한다. 1974年 12月 17日에는 韓牛班을 組織하여 天主教 原州敎區에서 一家口當 一頭씩 韓牛 20頭를 零細農家에 購入하여 주었고 75年 4月 26日에는 信用協同組合을 設置 運營하며 公所管理는 趙 漢洙가 맡고 있다.

(8) 天主教 鶴城洞教會 所草公所

原城郡 所草面 平庄리에 있는 天主教 鶴城洞教會 所草公所는 1957年 박도마神父에 依하여 37坪의 石造建物로 設立을 보았으나 高速道路工사로 1971年 現 場所에 24坪의 公所를 新築하고 移轉하였다. 60名の 信徒들이 團結하여 不遇 이웃돕기에 主力하고 있는 이 公所會長은 辛 天默이고 本堂인 鶴城洞教會 盧 世賢神父가 管掌하고 있다.

(9) 新築된 鳳山洞 教會는 原稿 수집불능으로 記錄치 못함.

第6節 基督教思想和 史的考察

基督教는 韓國에 傳來한 重要 外來 宗教中에서는 가장 늦게 들어온 宗教이다. 天主教의 傳來는 順坦치 못하였으나 基督教는 우리나라가 歐美의 諸國과 修交條約을 맺은 뒤에 들어왔으므로 宣敎師들의 來往이 自由로워 布敎도 比較的 順調로웠다. 開國以前에는 宣敎師들이 基督教을 이 땅에 심으려고 中國이나 滿洲等 韓國의 周邊에서 努力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國交가 트인 뒤에 入國하여 傳敎하여 그 勢가 크게 번졌다. 우리나라에 온 最初의 新敎 宣敎師는 和蘭宣敎部에서 派送되어 滿洲에 와서 韓國人을 相對로 宣敎하던 獨逸人 구출라프이다. 그는 1832年 忠清道の 洪州 古代島等の 島嶼地方에서 傳道하면서 入國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그뒤를 이어 온것은 主로 스코틀랜드의 宣敎師들이며 1865年 토마스목사는 商船 서만號를 타고 平壤에 왔다가 大同江에서 殉敎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最初의 基督教人은 國內에서 信敎가 公許되어 있지 아니한 탓으로 國外에서 洗禮를 받았다. 義州의 青年 李 應贊, 白 俊, 金 眞基, 李 成夏等이 韓國 最初의 洗禮敎人인데 이들은 滿洲에서 宣敎하던 스코틀랜드의 宣敎師 존 로스를 牛莊에서 만나 韓國語를 가르치며 도와주다가 1876년에 洗禮를 받았다. 한편 1882年 壬午軍亂뒤에 修信使 朴 泳孝 一行을 따라 日本에 갔던 李 樹廷은 거기서 基督教 信者가 되어 日本에 4年間 머물면서 聖書를 韓國어로 翻譯하였고 1886년에 歸國했을때 逮捕되어 處刑되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入國할때에 가지고 온 聖經이 바로 이 李 樹廷이 翻譯한 마가복음이였다. 우리나라 最初의 新敎敎會는 聖書의 賣書人으로 滿洲와 서울을 往來하던 徐 相崙이 黃海道 長湍

에 있는 소래에 定着하고 1884年 그곳에 소래教會를 세운것이 韓國 基督教會의 嚆矢이다. 宣教師로서 처음 公式 入國한 사람은 美國 北長老教會의 宣教師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美國 監理教會 宣教師 아펜젤라(J. H. Appenzella)가 1885년에 仁川에 上陸한 것이 最初이고 그뒤 濠洲長老教와 浸禮教가 1890년에 聖公會가, 1892년에 美國 南長老教가, 1893년에 캐나다長老教가, 1904년에 安息教가, 1908년에 救世軍이 들어와 宣教와 教育과 醫療事業을 展開하였다. 이렇게 連이어 많은 教派가 들어오니 傳道에 混線이 생기게 되어 傳道の 協議體를 構成하는 한편 教派別로 傳道の 區域을 나누게 되었다. 이 傳道區域을 나눌 때에 原州, 原城 地方은 南監理教에서 맡게 되어 지금까지도 監理教가 勝勢한 것은 이러한데 緣由한다 하겠다. 한때 朴 滄의 實錄 韓國基督教百年에 의하면 監理教 原州地方 創立會는 1930年으로 되어있고 1914년에 鐵原 聖潔教會가 創立된 것이 가장 빠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原州 第一監理教會의 沿革에는 이 教會의 創設이 1905年으로 되어 있어 鐵原 聖潔教會보다 10年을 앞서고 있다. 1905年 美國 南監理教會 무 야곱(M. Jacob)선교사와 장 의원전도사의 傳道로 시작하였더니 原州에 地方會가 創設된 것은 1930年이지만은 教會는 이미 그 以前에 있었다. 初期의 開拓教會들은 처음 教堂을 짓고 教役者가 就任하여 形式을 完備한 뒤에 創設된 것이 아니고 數名の 敎人들이 사랑방에 모여 禮拜를 보는데서 시작된 것이 一般的 傾向이었으므로 公認된 教會가 創立되기는 이보다 後의 일이므로 非公認 傳敎는 그 年代가 公認 傳敎年代보다 앞서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原州, 原城의 基督教 傳來는 20世紀劈頭의 일이었다 하겠다. 이 基督教가 들어오므로 해서 既存 儒敎社會에 變化가 일기 시작하였고 이 새로운 世界는 生活의 變異뿐만 아니라 이 고장 사람의 意識構造에도 커다란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현재 基督教 系統에서 運營하고 있는 이 고장의 教育 醫療團體로는 中東 三育中高等學校와 原州 聯合基督病院 등이 있다.

#### (1) 原州 第一監理教會

原州 第一監理教會는 原州市 一山洞 114番地에 位置하고 있으며 1905年 美國人 M. Jacob 宣教師와 張 醫院 勸士의 傳道로 4月 15日 一山洞 초장에서 첫 禮拜를 드리므로서 設立되었으며 1916年 김 용덕의 周旋으로 現 位置에 1,200坪을 김 신애로 부터 寄贈받고 안 도선醫師의 斡旋으로 스웨덴教會의 援助를 얻어 70坪의 붉은벽돌 煉瓦집으로 教會를 新築하였다. 1920年 김 미리사의 巡迴 啓蒙講演後 初代教會의 特徵은 男女班사이의 帷障을 除去하였고 1923年 칼선 宣教師의 寄贈으로 파이프울건을 禮拜堂에 備置하여 韓國에서 3번째의 파이프울건이 소개되었으며 1941年 第2次 世界大戰때 נות그릇 供出制度가 생겨서 徵發되므로 없어지게 되었다. 1952年 4月 29日 6.25事變으로 破壞된 教會를 다시 新築하였으며 1954年 3월에 現 場所에 石造全面 2層 建物로 120坪의 教會를 新築하였다. 1968年 1月 22日 美國 버지니아洲 로아노크시 南部 監理教會와 姊妹結緣을 맺었으며 1972年 7月 22日 創立 70周年 記念事業으로 聖殿 建築委員會를 構成하고 實行委員 23名이 建築獻金 650만원을 査定하므로 聖殿建築工事を 完工하고 聖殿이 크게 생겨났다. 基督教로서는 이 고장에서 가장 오랜 歷史를 간직하고 있는 이 教會는 200坪의 教會堂 建坪에 1,100席의 座席이 마련되어 있으며 信徒數는 1,850名이고 附屬機關으로는 原州幼稚園과 웨슬레 再建學校, 第一信用協同組合이 運營되고 있다. 歷代 教役者는 初代 권 신일牧師 2代 윤 성열牧師 3代 강 신화牧師 4代 방 기순牧師 5代 조 순여傳道師 6代 방 기순牧師 7代 김 재찬牧師 8代 이 진형牧師 9代 송 득후牧師 10代 신 홍식牧師 11代 김 홍광牧師 12代 조 상문牧師 13代 차 경창牧師 14代 임 진국牧師 15代 이 명구牧師 16代 김 태완牧師 17代 김 홍광牧師 18代 나 원용牧師等이다.

#### (2) 基督教 大韓聖潔教會 原州第一教會

基督教 大韓聖潔教會 原州第一教會는 原州市 園洞 45番地에 위치하며 1930年 5月 23日 原州郡 原州邑 上洞리에 초가집 마루 2칸을 빌어 이 문현牧師가 30餘名の 敎人과 함께 始作하였으며 1943年 神社參拜 反對로 解散되었다가 1946年에 조 병두, 박 정 조長老와 元 鴻默, 金 仁基, 허 성덕 김 영애, 安 在姬等이 金 仁基家에서 박 현명牧師의 引導로 再建禮拜를 드렸고 1947年 3月 현 위치에 당시 日本寺院 法住寺를 拂下받고 수축하여 禮拜堂으로 使用하다가 1951年 3月 6.25 動亂으로 教會堂이 全破되어 鳳山洞 聖愛園 1層에서 收復禮拜를 드렸다. 1952年 4月 다시 현 위치에 臨時로 25坪의 판자教會를 짓고 1957年 5月 23日 現在 使用하고 있는 教會를 新築하여 至今에 이르고 있다. 교회당 面積 77坪에 信徒數는 753名이고 歷代 敎役者는 初代 이 문현 2代 김 성화 3代 차 창선 4代 전 세국 5代 이 천영 6代 이 창전 7代 전 덕성 8代 신 대균 9代 한 인엽 10代 오 만식 11代 김 원천 12代 이 현용 13代 박 명원 14代 서 정식 15代 정 회덕 牧師等이다.

### (3) 大韓예수교 長老會 原州第一教會

原州市 仁洞 183番地에 位置한 大韓예수교 長老會 原州 第1教會는 1946年 9月 28日 김 명호집에서 이 신학의 8名이 모여 創立禮拜로 始作하여 1972年 10月 31日 現 教會堂을 新築 오늘에 이르고 있다. 380坪의 垵地에 370坪의 教會堂 建物이 서있고 信徒數는 男子 375名 女子 507名으로 역대 敎役者는 初代 김 회섭牧師 2代 홍 성은牧師 3代 이 석근牧師 4代 지 상순牧師 5代 이낙현牧師 6代 김 덕조牧師이다.

### (4) 原州 浸禮教會

原州 浸禮教會는 原州市 明倫洞 264番地에 位置하고 있으며 6.25의 戰火가 휩쓸고 아직 砲聲이 그치지 않은 때 不安과 가난에 시달리는 避難民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救援의 말씀을 傳하기 위하여 조 복술집사等 몇명의 信者들이 丹邱 浸禮教會의 이 우영牧師와 김 승학 傳道師의 도움을 청하여 1952年 4月 4日 創立禮拜를 보아 오늘에 이르며 歷代 敎役者는 初代 김 승학 2代 이 창송 3代 김 승학 4代 최 완식 5代 김 기석 6代 신 태승 7代 최 천국牧師等이다.

### (5) 基督教 大韓監理會 鶴城教會

基督教 大韓監理會 鶴城教會는 原州市 鶴城 1洞 223番地에 위치하며 1952年 4月 29日 原州 第1監理教會에서 분리하여 23名の 敎人이 創立禮拜를 드리므로 始作되어 1952年 2月 鶴城洞 山 2番地에 14坪의 한식 第1聖殿을 建築 1954年 3月 鶴城洞 山1番地에 52坪의 붉은 벽돌로 第2聖殿을 新築하고 1968年 12月 現在의 教會堂을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68坪의 垵地에 85坪의 建坪이고 信徒數는 700名이고 歷代 敎役者는 初代 金 亮煥牧師 2代 崔 明根牧師 3代 朴 台善牧師 4代 文 熙重牧師 5代 崔 鍾喆牧師 6代 郭 哲榮牧師 7代 林 淳穆牧師 8代 李 起春牧師 9代 全 義男牧師이다.

### (6) 基督教 大韓聖潔教會 原州中央教會

原州市 鳳山洞 1130番地에 所在하고 있는 基督教 大韓聖潔教會 原州中央教會는 1952年 8月 10日 字軍 傳道隊의 傳道로 始作하여 1960年 11月 現 位置로 移轉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1年 11月 7日 教會堂을 竣工하였으며 教會堂 面積은 65坪에 信徒數는 壯年 180名 幼年 150名이고 國民學校 未就學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어린이집을 運營하고 있다. 歷代 敎役者는 初代 이 태열 傳道師 2代 김 상하 傳道師 3代 이 두용牧師 4代 전 복섭牧師 5代 이 현용牧師이다.

### (7) 基督教 大韓聖潔教 牛山教會

原州市 牛山洞 238番地의 3에 所在한 基督教 大韓聖潔教 牛山教會는 1952年에 牛山洞 洞事務所 옆에서 創立 1963年 牛山洞 244番地로 移轉 1974年에 垵地 150坪을 買入 1974年 5月에 教會堂 起工式을 갖고 1974年 8月 17日 教會堂 竣工式과 同時 現 位置에 移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 第5編 教育・文化

教會堂 面積은 垡地 150坪 建物 75坪이고 信徒數는 330名이다. 歷代 敎役者는 初代 崔 用成 2代 李 萬好, 3代 安 應模 4代 玉 致瓊師牧이다.

### (8) 대한예수교 長老會 原州中央教會

대한예수교 長老會 原州中央教會는 原州市 鶴城 2洞 304番地에 위치하고 1953年 5月 31日 임 춘성牧師의 7名の 敎人이 윤 성보집사 자택에서 창설예배를 드리므로써 시작되었고 1953年 12月 1日 이 세진長老가 院長이 되어 中央學院을 開院하였으며 1956年 6月 10日 現 禮拜堂을 竣工 1956年 7月 30日 聖經俱樂部및 中央學院을 廢止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建坪 250坪에 信徒數는 장년 350名 유년 150名이 있으며 역대 교역자는 初代 임 춘성牧師 2代 이 동선牧師 3代 방 관덕牧師 4代 우 춘이牧師 5代 김 두록牧師 6代 차 길원牧師이다.

### (9) 原州 中央長老教會

中央長老教會는 6. 25動亂으로 말미암아 北韓 共產黨治下에서呻吟하던 信者들이 國軍의 平壤入城으로 解放되어 1.4後退 때 釜山으로 避難 南下하여 釜山에 平壤教會를 設立하였으며 임 춘성 牧師가 傳道牧師로 派送되었고 그후 1953年 6月 14日 原州市 鶴城洞에서 創立하였으며 1956年 6月 19日 禮拜堂이 完工되었다. 350名の 敎人이 있고 幼稚園도 經營하며 유아의 健康 및 情緒 함양과 자모들의 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역대 교역자는 初代 임 춘성牧師 2代 이 동선牧師 3代 방 관덕牧師 4代 우 춘이牧師 5代 金 斗祿牧師이다.

### (10) 大韓基督教浸禮會 丹邱浸禮教會

大韓基督教浸禮會 丹邱浸禮教會는 原州市 丹邱洞 山1番地 21班에 위치하며 1953年 美軍部隊 從軍牧師인 웨넬에 依해서 設立되어 1954年 4月 現 教會를 美軍部隊에서 資材를 支援받아 新築 오늘에 이르고 있다. 教會가 設立될 때 孤兒院과 幼稚園이 함께 設立되었다가 運營難으로 廢止된 이 教會의 信徒數는 壯年이 130名 幼年이 130名이고 600坪의 垡地에 建坪은 65坪이고 歷代 敎役者는 初代 이 응용牧師 2代 윤 덕훈牧師 3代 박 성태牧師이다.

### (11) 基督教大韓監理會 原州삼천教會

基督教大韓監理會 原州삼천교회는 原州市 中央洞 144番地에 위치하며 1955年 5月 10日 原州市 1山洞에 있는 原州 第1監理教會로부터 이 은수 장로와 고 연월축장이 분교의 뜻을 가지고 인근 空地에 30人用天幕을 치고 信徒 20餘名이 모여 集會를 가지므로 始作되었으며 1956年 8月頃 原州市 平原洞 310番地에 垡地 50坪에 建坪 14坪의 住宅을 購入 移轉하고 現在의 名稱으로 設立 1962年 4月 12日 現 所在地에 垡地 310坪을 Miss Paul로부터 구득하여 본지방주재 미국선교사인 주디牧使의 적극적인 협조로 美國 OH 10주의 WERNER 감독이 5,000弗의 建築基金을 보내와 스피켄 宣敎師의 設計로 현재의 教會堂을 新築 至今에 이르고 있다. 301坪의 垡地에 75坪의 建物이 있고 信徒數는 男子 181名에 女子 231名이 있으며 역대 교역자는 初代 고 연월傳道師 2代 박 민수牧師 3代 박 봉의牧師 4代 임 승만牧師이다.

### (12) 大成教會

大韓 예수교 長老會 大成教會는 原州市 中央洞 4番地에 위치하고 1957年 3月 16日 設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역사회 福音化에 힘쓰고 있는 이 教會의 信徒數는 壯年 168名 幼年 98名이고 教會堂 面積은 50坪이며 역대 敎役者는 初代 허 일태牧師 2代 호 신균牧使 3代 이 기성牧師 4代 이 준만傳道師 5代 박 성배牧師 6代 최 용구牧師 7代 박 영화牧師이다.

### (13) 基督教大韓監理會 原州鳳山教會

原州市 鳳山 2洞 1129番地에 위치한 基督教大韓監理會 原州鳳山教會는 1957年 4月 母子院에서 祈禱院으로 始作된 것이 1959年 8月 9日 現 教會로 移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2年 3月

30日 新築 竣工을 본 教會堂의 面積은 46.5坪이고 信徒數는 壯年이 216名 幼年이 81名이며 教會에서 運營하고 있는 敎育館이 있어 社會敎育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歷代 敎役者는 初代 조 여상牧師 2代 오 병필牧師 3代 오 세창牧師 4代 박 용구牧師이다.

(14) 第7日 安息日 예수再臨敎會

原州市 平原洞 250~5番地에 위치한 第7日 安息日 예수再臨敎會는 1957年 飢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 創立禮拜를 드린것이 시작이 되어 國家와 民族을 위해 奉仕하는 것을 目的으로 1957年 12月 8日 現 位置에 教會堂을 新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原州의 유일한 私立國民學校인 三育國民學校와 三育中高等學校를 세워 運營하고 있는 이敎會는 40坪의 敎會建物에 男子 60名 女子 90名의 信徒를 가지고 있으며 奉仕와 救濟를 위한 도로가(DORCAS)회 市民의 道德的 墮落을 未然에 防止하는 절제협회(TEMPERANCE)등이 활발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歷代 敎役者는 初代 金 昌周牧師 2代 崔 承牧師 3代 조 영목牧師 4代 金 成來牧師 5代 全 秉允牧師 6代 崔 亨福牧師 7代 李 進源牧師이다.

(15) 基督教大韓監理敎 原州 台庄監理敎會

原州台庄監理敎會는 原州市 台庄 2洞에 所在하며 1958年 5月 16日에 敎會가 創設되면서 現在 使用하고 있는 教會堂 64坪을 竣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信徒數는 400名이고 歷代 敎役者는 한 순희 傳道師 2代 서 형선牧師 3代 임 순목牧師 4代 우 영필牧師이다.

(16) 原州 영강교회

原州 영강교회는 이름 그대로 13萬市民의 靈魂의 江이 되어 市民의 靈的 飢渴과 人間의 慾求를 充足시키고 基督教의인 救援과 博愛精神을 思慕하고 具現함을 目的으로 하여 1959年 6月 28日 平原洞 344番地에서 創立 1959年 7月 5日 敎會名을 영강교회라 命名하고 1962年 6月 19日 原州市 平原洞 33番地에 禮拜堂을 新築 移轉하여 現在에 이르며 教會堂 面積은 60坪이고 信徒數는 100名이다. 歷代 敎役者는 初代 沈 鷹變牧師 2代 金 大植牧師 3代 池 孝根牧師이다.

(17) 南山長老敎會

南山長老敎會는 日帝時代에 神社參拜를 拒否하여 投獄되었던 敎職者를 中心으로 1959年 8月 3日 原州市 台庄洞에서 創設하여 1959年 9月 11日 原州市 園洞에 南山敎會를 設立하였고 萬民을 위한 기도하는 집으로 면모를 갖추었으며 200명의 성도들이 있고 1973年 6月 2日 최 복규牧師의 지도하에 심령부흥회를 열었으며 年 2次 以上の 심령부흥회를 갖기로 하였다. 역대 敎役者와 設立者는 다음과 같다. 初代 이 동선牧師 2代 정 운학牧師 3代 하 종택牧師이다.

設立者는 이 동선牧師 홍 중섭집사 고 환영집사 이 기순 집사등이다.

(18) 觀雪聖潔敎會

基督教 大韓聖潔敎 觀雪敎會는 原州市 觀雪洞 623번지 15班에 위치하고 1960年 原州第一聖潔敎會 分敎會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5年 10月 31日 준공한 이 교회의 信徒數는 남자 50名 여자 150名이며 教會堂 건물면적은 22坪이고 역대 敎役者는 初代 한 관호목사 2代 이 종덕목사 3代 한 진혁목사가 유임하고 있다.

(19)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 반석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 반석교회는 原州市 盤谷洞 656番地에 위치하며 1965년에 設立하여 運營하여 오던中에 信徒가 없어 여러번의 空白기간이 있었고 現在에는 장 상수傳道師가 20坪의 建物에서 35名의 信徒와 함께 運營하고 있다.

(20) 原州 第一浸禮敎會

原州市 鶴城 2洞 311番地에 所在한 原州第一浸禮敎會는 1966年 11月 21日 原州書林 2층에서

## 第5編 教育・文化

創立을 보았으며 1967年 4월에 敷地 200坪을 買入 1967年 8月 1日 教會堂 新築 起工을 하고 1967年 12月 24日에 竣工을 하여 教會堂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建坪은 30坪으로 아담하게 이룩되었다. 1969年 5月 23日 다시 教會堂을 擴張하게 되어 建坪 61坪으로 竣工을 하기에 이르렀다. 1975年 3月 30日 教育館 15坪을 建立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信徒數는 350名이고 教會堂 面積으로 垆地 200坪에 建物 延 106坪이다. 歷代 敎役者는 柳 光錫牧師로 現在에 이르고 있다.

### (21) 原州 순福音敎會

순복음교회는 오순절적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던 몇몇성도들과 初代 敎役者인 박 승우傳道師가 1967年 舊文化館자리를 임대하여 발족하게 되었고 조 용기牧師 始務와 宣敎師 존-허스턴牧師의 財政的後援으로 垆地를 買入하여 1969年 4月 둘째주에 教會를 現 位置로 移轉하였다. 김 루터牧師가 赴任하여 發展시켰으며 基督教 한 하느님의 聖會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신유의 병고침을 믿는 것이 특색이며 앞으로의 목표는 국제 오순절대회 第2次世界大會를 韓國에 誘致 原州에서 開催할 豫定으로 일하고 있다.

### (22) 基督教監理會 開運敎會

基督教 大韓監理會 開運敎會는 原州市 開運洞 139番地에 位置하며 1968年 4月 14日 復活節을 기하여 이 복단의 所有建物에서 敎人 20餘名이 모여 創立하였으며 同年 11月 總理院에 設立登錄을 하고 1970年 12月 現 教會를 新築 오늘에 이르고 있다. 信徒數는 壯年 379名 幼年 110名이며 長老 3名 권사 11名 집사 28名으로 構成되어 있고 垆地 430坪에 建坪은 30坪이며 現在 심 군식 牧師가 在任하고 있다.

### (23) 基督教 大韓監理會 동성敎會

原州市 台庄 1洞 753番地の 1에 所在한 基督教 大韓監理會 동성敎會는 1968年 4月 14日 原州 第1監理敎會에서 傳道로 始作, 發足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信徒數는 壯年 130名 幼年 150名이고 教會堂 建坪 51坪이고 歷代 敎役者는 初代 민 병덕 2代 정 효용 3代 홍 진화牧師이다.

### (24) 西部浸禮敎會

原州市 丹溪洞 872番地에 所在한 西部浸禮敎會는 金 仁河執事の 눈부신 活躍과 끊임없는 努力으로 1969年 11月 3日 鶴城 1洞 98番地の 7 民家에서 創立 1970年 5월에 敷地 200坪을 買入 1970年 5월에 美觀團圓 맥나리牧師로부터 天幕을 기증받아 天幕을 치고 傳道를 始作하였으며 1970年 12月 3日 教會堂 起工式 1971年 1月 18日 教會堂 竣工을 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垆地 200坪 建物 20坪이며 信徒數는 170名이다. 歷代 敎役者는 初代 李 炳郁牧師로 現在에 이르고 있다.

### (25) 南部浸禮敎會

基督教 大韓浸禮會 南部浸禮敎會는 原州市 丹邱洞 92번지에 위치하고 1968年 5月 金 賢植長老가 창설하였다. 年內에 幼稚園도 經營할 계획인 이 敎會의 信徒數는 壯年이 150名 幼年이 200名이고 200坪의 垆地에 건평은 25坪이며 歷代 敎役者는 初代 李 炳郁牧使 2代 金 己石牧使이다.

### (26) 대한예수교長老會 原州第2敎會

原州市 鳳山 2洞 917-1番地에 所在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노회 原州 第2敎會는 1970年 2月 1日 現 位置에서 創立 1972年 4月 8日 教會堂을 新築하여 오늘에 이르며 教會堂 面積은 80坪 信徒數는 壯年 280名 幼年 178名 歷代 敎役者는 初代 안 창복牧師 2代 이 형우牧師이다.

### (27) 丹溪敎會

原州市 鶴城 1洞 108番地の 5에 所在한 丹溪敎會는 1972年 5月 17日 創立 1974年 5月 12日 敷地 40坪을 마련하고 今年內에 教會堂 竣工을 위하여 設計를 서두르고 있으며 信徒數는 120名이

다. 垡地 40坪에 建坪은 25坪에 建立할 豫定이며 歷代 敎役者는 初代 金正洙 2代 李鍾萬傳道師이다.

(28) 原州 南山祈禱院

原州 南山祈禱院은 原州市 園洞 山 1番地에 所在하며 하 중택牧師에 依해 1972年 9月 16日 開院禮拜를 드리고 1973年 6月 2日 최 목규牧師의 心靈大復興會로 發足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김민동女史를 祈禱院長으로 하는 이 祈禱院은 建坪 60坪에 150名의 信徒가 있다.

(29) 救世軍 原州營門

구세군 원주영문은 原州市 1山洞 291-4번지에 위치하고 1974年 7月 1日 구세군 원주영문으로 설립되었다. 原州 유일한 구세군敎會로서 유치인전도, 군인전도, 노인집대 등 사회사업에 봉사하고 있는 이 영문의 信徒數는 幼年이 100名 壯年이 50名이며 垡地는 837坪 전평 110坪이다. 해마다 자체행사로 경노잔치 무의탁사병 위안잔치 등의 행사를 벌이며 朴振龍사관이 재임하고 있다.

(30) 韓國그리스도敎 原州敎會

韓國그리스도敎 原州敎會는 原州市 一山洞 175番地에 所在하고 1969年 7월에 創立되어 1974年 7月 4日 現在 使用하고 있는 敎會堂 19坪을 着工 1974年 9月 28日에 竣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 敎會의 信徒數는 53名이고 歷代 敎役者는 初代 하 영애傳道婦人 2代 김 정만牧師 3代 김 용웅牧師이다.

(31) 大韓長老會 一山長老敎會

大韓長老會 一山長老敎會는 原州市 一山洞 358의 2番地에 位置하며 信徒數는 20名이고 敎會堂 建坪은 30坪으로 歷代 敎役者는 初代 조 동혁傳道師 2代 이 종래傳道師 3代 이 정호傳道師等이다.

(32) 基督教 大韓監理會 文幕敎會

基督教大韓監理會 文幕敎會는 原城郡 文幕面 文幕里 546番地에 位置하고 1918年 2月 24日 노불 宣敎師(美國人)에 依해서 設立되었으며 1946年 現 義星高等公民學校의 前身인 文幕 家庭女學校와 文幕幼稚園을 設立하였고 1951年 3月 25日 송 신준牧師가 敎會堂 建物을 新築하였다가 1974年 10月 26日 現 敎會를 新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信徒數는 壯年이 200名 幼年이 120名이며 850坪의 垡地에 建坪은 100坪이고 文幕面에서 하나뿐인 幼稚園을 敎會에서 運營하고 있다. 21名의 園兒를 舊 建物에서 教育시키고 있는 幼稚園의 施設物로는 그네 2台 回轉틀 1台가 있으며 院長으로는 정 갑채牧師가 在任하고 역대 교역자는 初代 노불宣敎師 2代 박 재훈傳道師 3代 송 신준牧師 4代 김 노항牧師 5代 안 재경牧師 6代 임 순목牧師 7代 우 병필牧師 8代 강 주백牧師 9代 조 창인牧師 10代 鄭 甲采牧師이다.

(33) 基督教 大韓監理會 神林敎會

基督教大韓監理會 神林敎會는 原城郡 神林面 神林 1里 714番地에 位置하며 1946年 8月 15日 김 신주傳道師의 傳道로 始作하여 創立되었다. 18名의 敎會堂 建坪에 信徒數는 壯年 70名 幼年 56名이며 歷代敎役者는 初代 김 신주傳道敎 2代 송 주범傳道師 3代 최 은덕傳道師 4代 이 양운傳道師 5代 양 금녀傳道師 6代 조 승환傳道師 7代 장 양현牧師 8代 정 지환傳道師 9代 박 용구牧師 10代 최 종진牧師 11代 김 정수傳道師 12代 현 상의牧師 13代 이 복규傳道師等이다.

(34) 第7日安息日 예수再臨敎會

第7日安息日 예수再臨敎會는 原城郡 文幕面 文幕里 298-2番地에 所在하며 1946年 유 수복, 김복성 등이 김 창수의 傳道를 받아 家庭禮拜를 드리므로서 設立되었으며 1963年 現 敎會堂을 新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信徒數는 壯年 91名 幼年 35名等 總 126名이 있으며 建坪은 35坪이



## 第5編 教育・文化

고 歷代 敎役者는 初代 정성철牧師 2代 최 형복傳道師 3代 신 현옥傳道師 4代 이 기영傳道師가 歷任하고 있다.

### (35) 基督教 大韓監理會 良峴教會

基督教大韓監理會 良峴教會는 原城郡 地正面 良峴 1里 790番地에 位置하며 1949年 4月 최 중진 傳道師가 그 當時 學生의 身分으로 公會堂에서 主日學校를 運營하면서 傳道를 始作한 것이 始初로 1951年 2月 주디宣敎師의 援助를 얻어 教會堂을 竣工하므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遊園地에 接해 있는 教會로서 여름이면 各處에서 여러敎友들이 修練會를 하기爲해 거쳐가고 있는 이 教會의 信徒數는 壯年 70名 幼年 60名이며 歷代 敎役者는 初代 최 중진傳道師 2代 조성룡傳道師 3代 김 승호傳道師 4代 양 경애傳道師 5代 심 재성傳道師 6代 이 창훈牧師 7代 장 철웅傳道師 8代 황 규록傳道師 9代 백 구영傳道師 10代 조 진상傳道師 11代 이 상호傳道師等이다.

### (36) 基督教 大韓監理會 沙堤教會

原城郡 興業面 沙堤里에 있는 基督教大韓監理會 沙堤教會는 1950年 原州第一監理敎 長老였던 유 병필에 依하여 建坪 19坪으로 設立을 보았다. 約 65名의 信徒들이 朴泰源傳道師를 中心으로 女宣敎會와 青年會 또는 主日學校等으로 敎會活動을 하고 있다.

### (37) 基督教 大韓監理會 富論教會

基督教大韓監理會 富論教會는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에 位置하며 1951年 6月 1日 우 병필牧師에 依해서 設立되었다. 1974年 7月 20日 現 教會堂이 新築되었고 信徒數는 幼年 80名 壯年 159名等 總 239名이며 建坪은 41坪이고 歷代 敎役者는 初代 우 병필牧師 2代 고 연월傳道師 3代 정 효용牧師 4代 허 도성牧師 5代 유 원우牧師 6代 최 충수牧師等이다.

### (38) 基督教 大韓監理會 所草教會

基督教 大韓監理會 所草教會는 原城郡 所草面 平庄里 75番地에 位置하고 1952年 3月 2日 現 台庄監理敎會 牧師로 있는 우 병필牧師에 依하여 設立되었으며 1967年 4月 18日 教會堂을 新築하였다. 青年會, 女傳道會, 主日學校等이 運營되고 있다. 教會建坪은 35坪이며 信徒數는 壯年 110名 幼年 60名이다. 歷代 敎役者는 初代 우 병필牧師 2代 하 윤수牧師 3代 강 주백牧師 4代 박 광준傳道師 5代 조 문행牧師等이다.

### (39) 基督教 大韓聖潔敎會 貴來教會

原城郡 貴來面 雲南里에 있는 基督教 大韓聖潔敎會 貴來教會는 1952年 5月 18日 李 貴燮執事에 依해 設立되었다. 30坪 面積에 信徒數는 壯年 60名 幼年 40名으로 1960년에는 貴雲聖潔敎會와 61年 野村聖潔敎會 63년에는 龍岩聖潔敎會를 建立했다. 歷代敎役者로는 初代 崔 萬善傳道師 2代 鄭 晉榮傳道師 3代 崔 四哲長老 4代 李 吉用傳道師 5代 金 鍾基傳道師 6代 韓 官海牧師 7代 金 昌吉牧師 8代 張 煥傳道師 9代 金 昌吉牧師 10代 張 時天傳道師 11代 李 秉乙傳道師等이다.

### (40) 基督教 大韓監理會 瑞谷教會

原城郡 板富面 瑞谷 2里 1089番地에 位置한 基督教 大韓監理會 瑞谷教會는 建坪 29坪에 1952年 6月 7日에 設立되었다. 壯年 60名 幼年 70名의 信徒들이 있으며 現在 安熙善傳道師가 傳道事業活動에 專念하고 있다.

### (41) 韓國浸禮會聯盟 興業教會

韓國浸禮會聯盟 興業教會는 原城郡 興業面 興業里 1區 724-3番地에 位置하며 1953年 5月 한영상에 依해 難民收容所로 쓰이면서 傳道事業을 始作한 것이 動機가 되어 1957年 12月 現 敎會를 新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主日學校 女傳道會 學生會等의 卍클活動이 活潑히 展開되고 있는 이 敎會는 22坪의 教會堂으로 信徒數는 壯年 50名 幼年 100名이고 歷代敎役者는 初代한

영상傳道師 2代 이 상춘 傳道師 3代 최 상락牧師等이다.

(42) 大韓예수교長老會 好楮教會

大韓예수교長老會 好楮教會는 原城郡 好楮面 珠山里에 位置하며 1954年 7월에 設立되었고 1971年 現 教會堂이 新築되었다. 28坪의 教會堂 建物を 갖고 있는 이 教會의 信徒數는 壯年 60名 幼年 50名이며 歷代 敎役者는 初代 원 흥기傳道師 2代 현 만응傳道師 3代 황 대성傳道師 4代 최 영철傳道師 5代 정 경인傳道師 6代 한 남수傳道師等이다.

(43) 第7日安息日 예수再臨教會

原城郡 文幕面 浦津里 취락部落에 位置한 第7日安息日 예수再臨教會는 1957년에 建坪 15坪에 教會堂을 짓고 設立하였다. 30名の 信徒들이 있으며 宮村과 蓀谷 興湖里等地에 分教會를 갖고 있으며 歷代 敎役者로는 최 은혜, 이 중길, 신 찬구, 정 도숙, 신 찬구, 김 기축, 유 수복, 현 장노, 원 성남等이다.

(45) 宮村浸禮教會

宮村浸禮教會는 原城郡 文幕面 宮村 1리에 位置하고 1957年 5月 1日 최 종락傳道師에 依하여 設立되었으며 1959年 4月 20日 現 教會를 新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信徒數는 幼年이 30名 壯年이 30名等 總 60名이며 25坪의 垆地에 教會堂 建坪은 18坪으로 歷代 敎役者는 初代 최 종락傳道師 2代 이 창송牧師 3代 김 경수傳道師 4代 황 영호牧師 5代 허 길牧師 6代 김 혁배傳道師 7代 이 성문牧師 8代 문 병영傳道師 9代 김 영찬牧師 10代 김 학성牧師 等이다.

(44) 第7日安息日 예수再臨敎宮村教會

第7日 安息日 예수再臨敎宮村教會는 原城郡 文幕面 宮村 1리에 位置하고 1962年 안 봉룡牧師와 信徒 몇몇이 家庭禮拜를 들이므로서 設立되었으며 1963年 1月 1日 現 教會를 竣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土曜日을 安息日이라 하여 土曜일에 禮拜를 드리고 있는 이 教會의 信徒數는 壯年 20名 幼年 10名等 總 30名이며 190坪의 垆地에 教會堂 建坪은 20坪으로 歷代 敎役者는 初代 안 봉룡牧師 2代 박 용환牧師 3代 안 봉룡牧師이다.

(46) 大韓예수교長老會 雉岳教會

大韓예수교長老會 雉岳教會는 原城郡 板富面 金垆里에 位置하며 1963年 9月 2日 作故한 이 병구에 依하여 設立되었으며 教會堂도 設立과 同時에 新築되었다. 主日學校, 少年會, 女傳道會等이 運營되는 이 教會는 24坪의 教會堂에 信徒數는 壯年 35名 幼年 40名이며 歷代 敎役者로는 初代 윤 병관牧師 2代 여 한구牧師 3代 원 흥기傳道師 4代 김 석주傳道師 等이다.

(47) 韓國浸禮會聯盟 梅芝教會

梅芝教會는 原城郡 興業面 梅芝 2리에 位置하며 至今으로부터 10年前인 1965年 김 우열에 依해 設立되었다. 1968年 現 教會堂이 新築되었다. 主日學校가 運營되고 있는 이 教會는 15坪의 教會堂으로 信徒數는 狀年 20名 幼年 20名이며 現在 李 成文牧師가 在任하고 있다.

(48) 基督教 大韓監理會 壽岩教會

原城郡 所草面 壽岩里 834番地에 자리잡고 있는 基督教 大韓監理教會 壽岩教會는 이 地方에 居住하고 있는 이 석인長老에 依하여 1965年 8月 2일에 設立되었고 1969年 9月 15坪의 教會를 新築하였고, 幼年 97名 壯年 80名으로 앞으로 信徒가 더 增加될것에 對備하여 1975年 3월에 24坪의 教會堂 增築을 보았다. 歷代 敎役者는 初代 황 중옥傳道師 2代 방 순자牧師 3代 김 정수傳道師 4代 박 광준傳道師 5代 郭 信傳道師等이다.

(49) 韓國浸禮會聯盟 南松浸禮教會

原城郡 板富面 外南松瑞谷 1리에 位置하고 韓國浸禮會聯盟 南松浸禮教會는 1966年 6月 板富面

## 第5編 教育・文化

瑞谷里出張所長이던 신 영순에 依하여 設立되었고 1969年 12月의 建坪 14坪에 教會 新築을 보았다. 壯年 30名 幼年 50名의 信徒들로 女傳道會 活動을 하고 있다. 歷代 敎役者로는 初代 김 철재 傳道師 2代 서 승모 傳道師 3代 박 성옥 傳道師 4代 이 한준 傳道師 5代 최 한서 牧師 6代 최 정석 牧使 7代 崔 鍾根 傳道師等이다.

### (50) 基督教 地正순福音教會

基督教 地正순福音教會는 原城郡 地正面 普通里 卜今洞에 位置하며 1969年 創立되었다. 設立 된지 얼마 되지 않아 活潑한 움직임을 못하고 있는 이 教會의 信徒數는 壯年 20名 幼年 40名 總 60名이며 教會堂 建坪은 12坪이고 歷代 敎役者는 初代 양 응모 2代 육 병엽 3代 동 창배 4代 김 칠성 5代 장 완옥等이다.

### (51) 韓國浸禮會聯盟 신광교회

韓國浸禮會聯盟 신광교회는 原城郡 地正面 普通里에 位置하며 1970年 3月 주 요한에 依해서 設立되었으며 教會堂도 同時에 新築되었다. 好楮面一部와 興業面 1部 普通里等에 信徒들이 널리 分布되어 있는 이 教會는 15坪의 教會堂으로 信徒數는 壯年 55名 幼年 60名이며 주일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敎役者는 初代 주 요한 2代 이 영해等이다.

### (52) 玉山그리스도敎 教會

原城郡 好楮面 玉山里에 所在하고 있는 玉山그리스도敎 教會는 1970年 3月 백 성철 牧師에 依하여 設立되었다. 建坪 25坪에 壯年 10名 幼年 20名의 信徒들이 송 복순 집사와 이 진연 집사가 設立者 백 성철 牧師를 도와 傳道活動을 하고 있다.

### (53) 순복음 良峴教會

순복음 良峴教會는 原城郡 地正面 良峴 2里에 位置하며 1974年 4月 22日 서울 순복음中央敎會 집사로 있던 홍 순주에 依해서 設立되었으며 1974年 12月 31日 現 教會를 新築하였다. 聖靈을 강조해 禮拜드리는 것이 特色인 이 教會는 20坪의 教會堂으로 信徒數는 壯年 60名 幼年 50名이며 歷代 敎役者는 初代 최 무권 2代 남 정훈 傳道師等이다.

## 第7節 天道敎 思想과 史的考察

天道敎는 1860年에 東學이라는 명칭으로 崔 濟愚에 의해 세워졌다. 崔 濟愚는 本來 儒家에서 태어나 號를 水雲이라 하여 어려서 儒學을 공부했으나 일찍 科擧를 斷念하고 있을 때 마침 밖에서는 西洋勢力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안으로는 國政이 어지러워 國民이 方向感覺을 잃고 絶望의 狀況속에 있을 때 이를 구출해 보려는 心慮끝에 宗教的 直觀을 얻어 그것을 東學이라고 이름짓게 되었다. 그뒤 그는 宗教的으로 整理하여 布敎에 힘쓴 結果 慶州地方을 中心으로 東學의 形勢가 크게 일어났다. 事勢가 이렇게 되자 政府에서는 東學이 西洋의 術을 받아 愚衆을 眩惑하고 儒道 佛道の 衰運에 뒤따르는 後天開을 豫告하고 黃巾賊이나 白蓮徒같은 王朝의 崩壞와 社會改革을 煽動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異端의 무리라 하여 國法에 의하여 彈壓을 받게 되었다. 敎主인 崔 濟愚는 1864年에 잡혀 死刑되었고 餘他的 信徒들은 地下로 숨어 들었다. 그가 잡히기 전에는 布敎을 위하여 接主를 養成하고 組織의인 布敎를 展開한 結果 傳道를 시작한지 3年 뒤에는 이미 信徒가 3,000名에 이르렀고 南韓 一帶에 그의 敎가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짧은 期間에 넓은 地域에 많은 信徒를 갖게 된 것은 人乃天을 主張하여 人間回復을 부르짖은 탓으로 當時 官僚나 土豪에 의하여 人權을 짓밟히고 있던 一般民衆에게 共感이 컸던 데다가 또 한가지 西學에 對立하는 東學 即 韓國의 眞理라고 主張한 點이 民族的 感情에 迎合되었기 때문이었다. 天道敎의 本質은 그의 祈禱文 侍天主造化定에 있듯이 侍天主하는 것 다시 말하면 私慾을 버리고

天人合 即 人乃天의 人間本性을 되찾으므로서 파멸해 가는 現實世界를 바로잡고 地上에 天國을 建設하자는데 있다. 그 方法으로서는 儒敎의 三綱五倫을 高調하고 佛敎의 修性覺心과 道敎의 無爲自然을 표방하고 있다. 東學을 天道敎라고 부르게 된것은 1905年 第3代 敎主 孫秉熙에 의해서 비롯하였다. 敎祖 崔水雲은 1863年에 斬刑되었는데 이어 崔時亨이 2代 敎主가 되어 敎勢擴張에 注力하는 한편 布敎活動의 公認을 받기 위하여 水雲의 伸冤運動을 展開하였고 이 運動은 對政府 示威運動으로 번져 마침내 東學亂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崔時亨도 處刑되고 孫秉熙가 3代 敎主로 就任한 뒤에 한때 日本에 亡命하여 再起의 機會를 노리다가 1905年 12月 1日을 期해 天道敎를 宗教로서 宣布하고 다음해인 1906年에 天道敎 大憲을 布告했으며 全國을 72敎區로 나누어 敎領으로 그를 統轄하게 했다. 그뒤 敎勢가 크게 번져 1910年代에는 信徒의 數가 百萬에 이르렀고 1919年의 3.1運動 때에는 큰 役割을 하였다. 3.1運動 以後로는 그 勢가 分派하여 天道敎新派, 天道敎舊派, 天道敎聯合派, 天道敎沙里院派, 侍天敎等 많은 敎派로 나뉘었다. 이 고장에 天道敎가 들어온 것은 1863年 政府의 彈壓이 해해질 때 彈壓을 避하여 崔時亨이 이고장에 들어오므로서 부터이며 崔時亨은 原城郡 所草面 高山里 松洞으로 避하여 布敎活動을 하다가 붙잡혀 처형되었다. 1930년에는 이 고장에도 敎구와 布敎所가 여러곳 있었으나 현재는 敎區數 1個 布敎所 2個所로 타 종교보다는 미약한 活動을 하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第8節 其他 信仰團體

우리나라에는 現在 여러가지 宗教가 並存하고 있다. 여기서 其他 宗教라 함은 原始宗教, 佛敎, 天主教, 基督教, 儒敎, 天道敎를 제외한 新興宗教를 指稱한다. 現在 全國 各地에 散在하고 있는 新興宗教의 數字를 正確히 把握할 수는 없으나 集計에 의하면 約 240餘派라고 한다. 이들 新興宗教團體의 形成 樣式은 大體로 既成 宗教에서 派生 獨立하는 경우도 있고 民間信仰을 組織化한 경우도 있고 一般 修養團體가 宗教化한 경우도 있고 治病行事가 점차 宗教化한 경우도 있다. 이들 宗教中에는 國內에 60萬의 信徒를 自稱하는 大集團이 있는가 하면 敎主와 10名 未滿의 信徒를 가지고 있는 小集團도 있다. 이 新興宗教를 系譜別로 가려보면 東學系, 龜山系, 檀君系, 儒敎系, 佛敎系, 巫敎系, 草木系, 覺世系, 基督教系, 系統不明, 外來系 등으로 區別할 수 있다. 이들 新興宗教의 主張과 敎理는 多岐多様하여 갈피를 종잡을수 없으나 이들을 比較 分析하여 最大 公約數의인 基本的 敎理를 찾는다면 宗教綜合, 後天開, 地上天國, 敎主崇拜, 選民思想, 鄭鑑錄, 사머니즘등으로 集約된다. 이렇게 잡다한 新興宗教가 이 고장에도 들어와 있으나 활동은 지극히 미약한 정도인데 그 종교를 보면 圓佛敎, 大倥敎, 大韓天理敎, 太極道, 一心敎 등이 있다.

## 第4章 民俗과 歌謠

### 第1節 俗 談

俗談은 비단 原州地方뿐만 아니라 全國 處處에서 流行되고 있는 바이지마는 그래도 原州地方에 흔히 알려져 있는 것만 特히 뽑아서 다음과 같이 紹介하기로 한다.

- 가난 救濟는 나라도 어렵다.
- 가는 날이 장날
- 가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지기
- 肝에 가 불고 옆통에 가 불는다
- 鋼鐵이 간테는 가솔도 봄
- 개꼬리 삼년에 黃毛 못 된다
- 개 머루 먹듯 한다
- 개 발에 편자.
- 개 보름 쇠듯 한다
- 개천에서 용 난다
- 거지가 都承旨를 불쌍타 한다.
- 건너 산 보고 꾸짖기
- 길 불 안이라니
- 제 새끼는 점고 고양이 새끼는 할킨다
- 결자해지(結者解之)
- 제란에도 有骨이다
- 契타고 집판다
-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고슴도치도 제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 孤掌難鳴(고장난명)
- 곤닭의 알을 지고 城 밑으로 못가겠다
- 功든 塔이 무너지랴
- 寡婦설음은 寡婦가 안다
-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국에 데인놈 물보고 운다
- 꿀먹은 벼어리
- 구븐 나무가 先山을 지킨다
- 굿들은 巫堂 齊들은 중
- 굿이나 보고 먹이나 먹지
- 穴(구멍)에 든 뱀 길이를 모른다
- 가난한 집 祭祀날 돌아 오듯 한다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저칠 어 진다.
- 甘呑苦吐(감탄고토)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개도 사나운 개를 돌아본다
- 개미 金塔 오르듯 한다
- 개밥에 도토리
- 개살구 지레 터진다
- 擧石이 紅顔
- 건너다 보니 절터
- 절불병행(乞不併行)
- 제논 감추듯 한다
- 見蚊拔劍(전문발검)
- 慶州 돌 이면 다 玉石인가
- 제주생면(契酒生面)
- 고기도 놀던 물이 좋다
- 고삐가 길면 밟힌다
- 고양이 앞에 쥐걸음
- 꼭지에 부은 물이 발 뒤꿈치에 나린다
- 꿀보고 이름 짓는다
- 꽃은 木花가 제일이다
- 판에 들어가는 소의 걸음
-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한다
- 구우일모(九牛一毛)
- 굳은 땅에 물 고인다
- 黽어 죽기는 政丞하기 보다 어렵다
- 구븐 나무가 길마가지가 된다
- 굿을 할려고 말며누리 춤추는꼴 보기싫다
- 굿하여 먹은 집 같다
- 窮마막추(窮魔莫追)

- 窮人謀事(궁인모사)는 계란에도 有骨
- 꿩구어 먹은 자리
- 꿩 먹고 알 먹는다
- 귀막고 방울 도적질 한다
- 귀신 듣는데 떡소리 한다
- 그림의 떡
- 끈 떨어진 뒤웅박
- 끓는 물은 맛을 모른다
- 금강산도 식후경(食後景)
- 금상첨화(錦上添花)
- 금의 환향(錦衣還鄉)
- 굶하면 바늘허리에 실매어 쏜다
- 끝 부러진 송곳
- 기도 못하며 뛰려고 한다
- 기와 한장 아껴서 대들보 썩힌다
- 나간 놈의 뭇은 있어도 자는 놈의 뭇은 없다
- 나룻이 석자라도 먹어야 쟈님
-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보아도 사람은 큰사람의 덕을 본다
- 나무에도 못 대이고 돌에도 못매인다
-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
- 남을 물에 넣으려면 저먼저 물에 들어간다
- 남의 돈 千兩이 내 돈 한푼만 못하다
- 남의 발에 버선 신긴다
- 남의 잔치에 감노라 배노라 한다
- 남의 팔매에 밤 주어 먹기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내 딸이 고와야 사위를 고른다
- 내 발등의 불을 꺼야 남의 발등의 불을 끈다
- 내배 부르면 종의 밥 짓지 말라 한다
- 내 코가 석자
- 네 딸이 좋으니 내 딸이 좋으니 해도 달려 보아야 안다
- 네 병은 낫든지 안 낫든지 내 약값 달라 한다
- 怒甲移乙(노갑이을)
- 노닥노닥 기여도 마누라 장웃
- 누워서 침뱉기
- 누울곳을 보고 발을 뻗어라
- 눈감으면 코 베이겠다
- 눈먼 고양이 닭의 알 어루듯 한다
- 눈 집어먹은 토끼 다르고 얼름 집어먹은 토끼 다르다
- 눈치가 있으면 절에가서 새우젓 얻어먹는다
- 勸애 딸어 方笠산다
- 꿩대신에 닭 쓴다
- 꿩 잡는 것이 매다
- 귀신도 빌면 듣는다
- 꾸어온 보리자루
- 그물이 삼천코라도 버리가 으뜸
- 근묵자흑(近墨者)
- 굶어 부스럼
- 금도 모르고 싸다 한다
- 錦衣夜行(금의야행)
- 금일 忠清道 명일 慶尙道
- 굶하 먹는 밤에 목이 쎈다
-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旗들고 북쳤다
- 긴 病에 효자 없다
- 나는 새도 움직여야 한다
- 나를 칭찬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 나무에 오르라 하고 혼드는 격(格)
- 남대문 입납(南大門 入納)
- 남의 다리를 굶는다
- 남의 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
- 남의 염병이 내 고삐만 못하다
- 남의 親患에 斷指
-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낮에 난 도깨비
- 내돈 서푼만 알고 남의 돈 칠푼은 모른다
- 내밥 먹은 개가 내발 뒤축을 문다
- 내절 부치는 내가 위하여야 한다
- 네떡 내 먹었더니
- 寧위계구(寧爲鷄口)언정 무아<sup>31</sup>인(無我負人)
- 노는 김에 염불(念佛)한다
- 노루가 제 방귀에 놀란다
- 누이 좋고 妹夫 좋다
- 눈가리고 아웅
- 눈뜨고 도적 맞는다
- 늙은이 아이 된다

第5編 教育・文化

- 늦게 시작한 도적이 새벽 다 가는줄 모른다
- 다 팔아도 내땅
- 딸이 셋이면 문 열어 놓고 잔다
- 달걀로 백운대 치기
-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 놓는다
- 담배씨로 뒤웅박 판다
- 댕콤에도 참여 서흠에도 참여
- 蠟螂逗轍(당랑거칠)
- 매구멍으로 하늘을 본다
- 대신택 송아지 백정 무서운줄 모른다
- 대객초인사(對客初人事)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밋다
- 더위든 소는 달만 보아도 헐떡거린다
-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치고 돌로 치면 돌로 친다
- 떡줄 높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 먼저 마신다
- 메평에 매놓기
- 도랑에 든 소
- 도끼가진 놈이 바늘가진 놈 못 당한다
- 도마에 오른 고기
- 도적놈 개에게 물린 셈
- 도적을 맞으려면 개도 아니 짓는다
- 도적의 때는 벗어도 환양의 때는 못 벗는다
- 都會消息 들으려거든 시골로 가거라
- 독안에 든 쥐
- 돌을 차면 발뿌리만 아프다
- 동냥도 아니주고 자루 찢는다
- 同病相憐(동병상련)
- 두꺼비 파리 잡아 먹듯
-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
- 드는 줄은 알아도 나는 줄을 모른다
- 들으면 病이고 안들으면 藥
- 등루거계(登樓去梯)
- 마구 뚫은 창구멍
- 만리의 길도 한걸음으로 시작된다
- 말많은 집에 장맛이 쓰다
- 말타면 경마 돌리고 싶다
- 맛 좋고 값싼 칼치자반
- 망세간지 갑자(亡世間之 甲子)
-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 맹자정문(盲者正門)
- 다된 죽에 코풀기
- 딸의 굿도 纏帶(전대)가 셋
- 달팽이 눈
- 닭이 천이면 鳳이 하나
- 닭 쫓든 개 지붕쳐다 본다
- 닭싸리 밑에 개팔자
- 堂拘 三年에 吠風月(패풍월)
- 대가리에 쉬 쓴놈
- 大門이 學門
- 대장간에 식칼이 논다
- 덜어놓고 열댓냥 금
- 떼어둔 당상은 좀이나 먹지
- 도루마리로 녀가래 만들기
- 도련님 풍월에 簾이 왜 있으랴
- 도망꾼의 보절
- 도적에게 열쇠를 준다
- 도적을 앞으로 잡지 뒤로 잡을가
- 도적놈 제발이 저리다
- 독불장군(獨不將軍)
- 돈이 제갈량(諸葛亮)
- 동네색씨 밋고 장가 못간다
- 동무 따라 강남 간다
-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두루 春風
- 뜨거운 죽의 맛을 모른다
- 드문 드문 걸어도 황소걸음
- 듣기 좋은 이야기도 늘 들으면 싫다
- 등잔 밑이 어둡다
- 만나자 이별
- 만수산에 구름 파듯
- 말은 하여야 맞이고 고기는 씹어야 맞이다
- 맛 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 망건쓰다 파장(罷場)된다
- 매 끝에 情든다
- 每事는 幹主人
- 머리는 끝부터 가르고 말은 밑부터 한다

-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났다
- 명주옷은 4寸까지 덥다
- 謀事는 在人이요 成事는 在天이라
-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 모처럼 陵參奉을 하니가 한달에 舉動이 스물 아홉번
- 목구멍이 捕盜廳
- 목불인견(目不忍見)
- 모르는 것이 부처
- 못된 송아지 응매이에 뿔난다
- 못된 일가가 행열만 높다
- 猫頭懸鈴
- 巫堂이 제긋 못하는 격
- 門前 나그네 欣然待接
- 문틈에 손을 끼었다
- 물 밖에 난 고기
-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 물에 빠진놈 전져 내니가 망진 값 달란다
- 물 위에 기름
- 물은 건너 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 보아야 안다
-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 물장수 3년에 궁둥이 짓만 남았다
- 미운 애기 품에 품어라
- 밋는 나무에 곰이 핀다
- 바늘 도적이 소도적 된다
- 바다는 매꿔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 바지랑대로 하늘재기
- 발등에 불이 떨어 진다
- 발팔아 논 살때는 이밥 먹자는 뜻
- 배먹고 뱃 속으로 이를 닦는다
- 배주고 뱃속 얻어 먹는다
- 백족지충(百足之虫)
- 뱀새가 황새를 따라 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 뺨 맞는데 구릿나무가 한 扶助
- 버릇 배우라 하니가 좌부집 문꼬리 빼어 들고 옛장사 부른다
- 번개불에 담배 부친다
- 뽕어가는 뽕도 한이 있다
- 빗을 짓은 없어도 도적줄 짓은 있다
- 벼락치는 하늘도 속인다
- 변죽을 치면 복판이 운다
- 병신자식 효자 노릇 한다
- 머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달걀 같다
- 모래로 防川한다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목불식정(目不識丁)
- 木靴신고 발등 긁기
- 못된 바람은 水口門으로 들어온다
- 못된 음식이 뜨겁기만 하다
- 뿔뿔 잡으려 갔다가 집뿔 잃어버린다
- 무는 개를 돌아 본다
- 無虎洞中에 狸作虎
- 門前沃漚
- 문틈으로 보나 문 열고 보나 일반
- 물 부어 셀 틈없다
- 물에 빠지드라도 정신잃지 마라
- 물에 빠진 새앙쥐
- 물이 와야 배가 가지
- 미운 아이 떡 한개 더 준다
- 미친개하고 떡 가게에 업드린다
- 밀 빠진 가마에 물퍼다 붓기
- 바늘 간테 실간다
-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단다
- 박쥐구실
- 발없는 말이 천리 간다
- 배꼽이 배보다 더 크다
- 배불은 흥정
- 백정이 버들잎 물고 죽는다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벌거 벗고 환도 차기
- 범에게 날개
- 병어리 냉가슴 앓듯
- 벼룩이 잔등에 집신기
- 병신 고은데 없다
- 병주고 약준다



第5編 教育・文化

- 보리술이 제맛이다
- 붉은 콩에 싹이 날까
- 봉채(封綵)에 포도군사(浦監軍士)
- 부모가 착하여야 효자가 난다
- 부전자전(父傳子傳)
- 부처 밭을 기우리면 삼거위가 들어난다
- 부처의 살찌고 아나 살찌기는 석수에게 달렸다
- 북은 칠수록 소리 난다
- 불 없는 화로 딸 없는 사위
- 빨래 쇠상(相)
- 빈자 소인(貧者小人)
- 빗보인(保人)하는 자식은 남지도 마라
- 빙빙과거(氷氷過去)
- 사돈(查頓)도 이러할 사돈 저러할 사돈이 다르다
-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두고 벌은 죽으면 가죽을 둔다
-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딸 소 새끼는 시골로 보내어라
- 사흘 굶어 도적질 아니할 놈 없다
- 싸전(米店)에 가서 밥 달라 한다
- 쌀것이 비지떡
- 산입에 거미줄 치라
- 쌀 독에서 인심 난다
- 살전 놈 따라 붙는다
- 상궁지조(傷弓之鳥)
- 상시(常時)에 먹은 마음이 취중(醉中)에 난다
- 상좌(上佐)가 많으면 가마솥을 깨트린다
-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 새벽달 보려고 초저녁에 나 앉는다
- 생초목(生草木)에 불 붙는다
- 서울이 무섭다 하니까 남태령서 부터 기는걸
- 썩어도 생치
- 선 무당이 사람 죽인다
- 선가(船價)없는 놈이 배에 먼저 오른다
- 선병자의(先病者醫)
- 정은 피가(皮歌) 라도 옥관자(玉貫子)맛에 산다
- 성인(聖人)도 시속(時俗)을 따른다
- 소가 크면 왕노릇 하나
- 소경 단청구경(丹青求景)하듯
- 소경 잡자나 마나
- 소금 먹은 놈이 물킨다
- 소 닭 보듯 한다
- 버선 복이라 안을 뒤집어 보이나
- 봄 꽃도 한때
- 부귀 빈천이 물래바퀴 돌듯 한다
- 부엌에서 숟가락을 얻었다
- 부처님 가운데 토막
-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
- 붓두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 바위가 노래가 회(舊) 먹겠다
- 빌어먹는 놈이 롱밥 이밥 할까
- 빗 좋은 개살구
- 사나운 개 콧등 아물 틈 없다
- 싸움은 팔리고 흥정은 불인다
- 싸고 싼 사항도 냄새 난다
- 산에 가야 벌을 잡는다
- 산 호랑이 눈섭
- 쌀은 씻고 굶어도 팔은 하고 못 줍는다
- 삼 발에 쭈대
- 상전(上典)의 팔래를 해도 발뒤꿈치가 회다
- 상하사불급(上下寺不及)
- 새끼 많이 둔 소가 길마 벗을 날 없다
- 서발 막대 거칠 것 없다
- 서투른숙수(熟手)가 피나무 안반만 나무탄다
- 석자 베를 짜도 버리기는 일반
- 선달이 둘이라도 시원치 못하다
- 선공무덕(善功無德)
- 성복후 약방문(成服後 藥方文)
-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 소경 개천 나무래기
- 소경에 초하룻날
- 소경 제 닭잡아 먹기
- 소금이 원다
- 소도 언덕이 있어야 바반다

- 소문 있는 잔치에 먹을 것 없다
- 속히 더운 방이 쉬 식는다
- 손톱 밑에 가시 든줄은 알아도 옆통 밑에 쉬쓰는 줄은 모른다.
- 술에 넣은 팔이라도 익어야 먹는다
- 쇠귀에 경읽기
- 쇠귀에 한 말은 안나도 여편네 귀에 한말은 난다
- 쇠뿔도 각각 염주도 목록
- 소탐대실(小貪大失)
- 송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된다
- 수지오지자웅(誰知鳥之雌雄)
- 숙불환생(熟不還生)
- 숙호충비(宿虎衝鼻)
- 쓸어져 가는 나무를 아주 쓸어 뜨린다
- 시모(媳母)에게 역정(逆情)나서 개의 옆구리 찬다
- 시집도 아니가서 기저귀 작탄하다
- 시골놈이 서울놈을 못 속이면 보름씩 배를 앓는다
- 시루에 물 퍼붓기
- 시작이 반
- 식소사변(食少事煩)
- 식칼이 제자루를 깎지 못한다
-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섞는다
- 삶은 배는 맛어도 삶은 음식은 못 먹는다
- 십시일반(十匙一飯)
- 아끼는 것이 똥 된다
- 아는 것이 병
- 아는 도끼에 발 찍힌다
- 아니 되면 조상(祖上)의 탓
- 아비 만한 자식 없다
-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지
- 아이보는 데는 물도 못먹는다
- 안고수비(眼高手卑)
- 안벽 치고 발벽 친다
- 안하무인(眼下無人)
- 앓던 이 빠진 것 같다
- 약바른 고양이아 앞을 못본다
- 얇은 내도 깊게 건너라
- 양주(兩州)밥 먹고 고양(高陽)구실
- 양호유환(養虎遺患)
- 어둔 밤에 눈 꿈적거린다
- 어린 중 짓국 먹이 듯
-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 쇠부탈 떨어지면 구워먹기
- 수박 걸 핏기
- 수양(收養)딸로 며느리 삼는다
- 숙맥불변(菽麥不辨)
- 숙습(熟習)이 난당(難當)
- 순망즉치환(唇亡則齒寒)
- 시거든 뿔지나 말지
- 시앗죽은 눈물 만큼
- 시장한 사람더러 요기시키라 한다
- 식자우환(識子憂患)
- 신 배도 맞들기에 있다
- 신입구출(新人舊出)
-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
- 아가사창(我歌查唱)
- 아는 길도 물어가라
- 아는 놈 부들어 매듯
- 아니 뎌 굴뚝에 연기나라
-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 아저씨 아저씨하고 길짐만 지운다
- 아이 가진 떡
- 아이 자라 어른 된다
- 안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 앓아 주고 서서 받는다
- 앓느니 죽지
- 압타이 운다
- 약재(藥材)에 감초(甘草)
- 양수집병(兩手執餅)
- 양주(兩主)싸움은 칼로 물베기
-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른지 모른다
- 어둔 밤에 흥두께 내어밀듯
- 어물전 떠 입고 끝죽이 장사한다

第5編 教育・文化

- 어변성룡(魚變成龍)
- 어지간 하여 생원님 하고 벳하기
- 언발에 오줌누기
- 언즉시야(言則是也)
- 언은 떡이 둘레 반
- 얄드러지면 코 당을 베
- 없으면 제아비 제사도 못 지낸다
- 얄드려 절받기
- 여름에 하루 늘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 여인(女人)은 돌면 버리고 기구(器具)는 빌리면 깨진다
- 연목구어(緣木求魚)
- 열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열 손가락에 어느 손가락 물어 아프지 않을까
- 열형리친(十刑吏親)치 말고 죄짓지 말라
- 열흘 붉은 꽃이 없다(花無十日紅)
- 오는 情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 梧桐나무 보고 춤춘다
- 오뉴월 불도 짝이다 물러서면 섭섭하다
- 오일경조(五日京兆)
- 옥에도 티가 있다
- 온양온천(溫陽溫泉)에 건달이 모여들듯
- 울챙이적 생각은 못하고 개구리 된 생각만 한다
- 웃은 새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 왕후장상은 씨가 있다(王候將相)
- 외손자를 귀여워 하느니 절구 공이를 귀여워 하지
- 원바다 물을 다 켜야 맞이나
- 욕속반줄(欲速反拙)
- 욕투서 이기기(欲投鼠而忌器)
- 우물안 고기
- 우물 옆에서 목 말라 죽는다
- 우수마발(牛渡馬勃)
- 울지 않는 아이 젖 줄까
- 웃는 낮에 침 뱉으랴
- 웃음 속에 칼이 있다
- 원님과 급창(吸唱)이가 흥정을 해도 에누리가 있다
- 원님도 보고 환자도 탄다
-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 유전이면 사귀신(有錢使鬼神)
- 음지(陰地)도 양지(陽地)될 때 있다
- 義州를 가려면 신날도 아니꼬웠다
- 어불성설(語不成說)
- 언문 풍월에 염(笑)이 있으랴
- 언중유골(言中有骨)
- 언칭이가 아니면 일색(一色)
- 얼르고 뺨친다
- 없어서 비단치마
- 업은 아기 삼년 찾는다
- 여(汝)담(談)절각(折角)
-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 열 소경의 한 막대
- 열시앗이 밋지않고 한 시누이가 밋다
- 열흘 나그네 하룻 길 바빠한다
-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 오는 떡이 두터워야 가는 떡이 두텁다
- 오뉴월 병아리 하루벌이 새롭다
- 오십보(五十步)로 소백보(笑百步)
- 옥석구분(玉石俱焚)
- 옥하사담(屋下私談)
-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 응이에 마디
- 외를 꺼꾸로 먹어도 제자미
- 윗 덩굴에 가지 열릴까
- 욕속부달(欲速不達)
- 용천검(龍泉劍)도 쓸줄 알아야 한다
- 우물에 가서 숯농 찾는다
-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 울며 겨자먹기
- 웃고 사람 친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움 안에서 떡 받는다
- 원숭이 흉내 내듯
- 월진승선(越津乘船)
- 윤달(潤月)만난 황양목(黃楊木)
- 의복(衣服)이 날개
- 이공보공(以功報功)

- 이德 저덕이 다 하늘 덕
- 이렇게 대접할 손님있고 저렇게 대접할 손님있다
- 이불속에서 활개친다
- 이웃 무당이 靈하지 않다
- 익은 밥 먹고 선 소리 한다
-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있다
- 이제보니 수원나그네
- 인지위덕(忍之爲德)
- 일거양득(一舉兩得)
- 일사(一死)면 도무사(都無事)
- 일신양역(一身兩役)
- 잃은 도끼나 얻은 도끼나 매일반
- 입은 거지는 얻어 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얻어 먹는다
- 입은 비플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 입찬 말은 墓앞에 가서 해라
- 자다가 얻은 병
-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똥보고 놀란다
- 자수사발(自手削髮)은 못한다
- 작심삼일(作心三日)
- 잔디밭에 바늘찾기
- 장마다 망둥이 날줄 알고
- 재하자(在下者)는 유구무언(有口無言)
- 장비군령(張飛軍令)
- 장수선무(長袖善舞)
- 저먹자니 싫고 남주자니 아깝다
-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
- 적성권축(積成卷軸)
- 전생업원(前生業冤)
- 절장보단(絶長補短)
- 점 짧은 개 부뜨막에 오른다.
- 점시밭도 담을 타이다
- 제가 길론 개에게 발꿈치 물린다
- 제것 주고 뺨 맞는다
- 제똥 들어 남 보이기
- 제비는 적어도 江南간다
- 제칼도 남의 칼집에 들면 어렵다
- 제홍 열가지 가진놈이 남의 홍 한가지 본다
- 조고여생(早故餘生)
- 조석변개(朝夕變改)
- 종기도 커야, 고름이 많다.
- 20안 자식 30안 천량
- 이웃사촌
- 인경꼭지가 말랑말랑 하거든
- 인인성사(因人成事)
- 인중승천(人衆勝天)
- 일각(一刻)이 여삼주(如三秋)
- 일부함원(一婦含怨)에 오월비상(五月飛霜)
- 일승일패(一勝一敗)는 병가상사(兵家常事)
- 일어탁수(一魚濁水)
- 이름 좋은 하늘타리
- 입은 광주리만 해도 말 못한다
- 입향순속(入鄉循俗)
- 자라는 호박에 말뚝 박는다
- 자과(自過)를 부지(不知)
- 작사도방(作舍道傍)에 삼년불성(三年不成)이라
- 작은 고추가 더 맵다
- 잠을 자야 꿈을 꾸지
- 장사보러 가는 놈이 시체 두고 간다.
- 장부일언(丈夫一言) 중천금(重千金)
- 장비는 만나면 싸움
- 장중보옥(掌中寶玉)
- 적반하장(賊反荷杖)
- 적악지가(積惡之家) 필유여殃(必有餘殃)
- 전무후무(前無後無)
- 전지자손(傳之子孫)
- 절에 간 색씨
- 점쟁이 저 죽을날을 모른다
- 정저와(井底蛙)
- 제가 춤추고 싶어서 동서를 권한다.
- 제 껍에 넘어간다
- 제버릇 개줄까
- 제발을 꼬집어 보아야 남 아픈줄 안다
- 제털 빼어 제구멍에 박기
- 제수(祭需)홍정에 삼색실과(三色實果)
- 조문도(朝聞道)면 석사라도 가라
- 존본취리(存本取利)

第5編 教育 文化

- 종의 자식을 귀여워 하면 생원님 상투에 꼭고마 단다
- 종편위지(從便爲之)
- 죄는 지은대로 가고 물은 골로 흐른다
- 죄지은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 좌수어인지공(坐收魚人之功)
- 조강지처(糟糠之妻)는 불하당(不下堂)
-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
- 종야통곡(終夜痛哭)에 부지하마누하상사(不知何抹下喪事)
- 주마가편(走馬加鞭)
- 주금(酒禁)에 누룩 흥정
- 주인 많은 나그네 저녁 굶는다
- 주주객반(主酒客飯)
- 주며 맞인 갑부
- 죽기가 설은 것이 아니라 앓는 것이 설다
- 죽 먹먹은 자리
- 쭈구렁 밤송이가 삼년 간다
-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 중구(衆口)는 삭금(鑠金)이요
- 중상지하필유용부(重賞之下必有勇夫)
- 중용지도(中庸之道)
- 중인초시(衆人所視)
- 지자막여부(知子莫如父)
- 지척(咫尺)이 천리(千里)
- 지키는 사람 열이 흠치는 놈 하나 못 두한다
- 지피지기(知彼知己)
- 진지구무기(奏之求無己)
- 진퇴유곡(進退維谷)
- 질병에도 감홍로(甘紅露)
- 집에서 새는 박아지 들에 가도 샌다
- 차청입실(借廳入室)
- 참새가 방아간을 그저 지나지 못한다
- 참을 인자(忍字)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 책력(冊曆)보아가며 밥먹는다
- 천태만상(千態萬象)
- 천도복선화음(千道福善禍淫)
- 천둥에 벌거숭이
-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
-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理)
- 천여불취반수기양(天與不取反受其殃)
- 종풍이미(從風而靡)
- 조약돌을 피하니까 수마석을 만났다
- 좌수우봉(左授右捧)
- 좌정관천(坐井觀天)
- 조자룡(趙子龍)이 헛 창(槍)쓰듯 한다
- 주객(酒客)이 청탁(淸濁)을 가리
- 주불쌍배(酒不雙杯)
- 주인 장(主人醬)없자 손 국싫다 한다
- 주마간산(走馬看山)
- 주야평균(晝夜平均)
- 죽는 년이 밀 감추라
- 죽쑤어 개종은일 한다
- 죽은 자식 나(年齡)세기다
- 죽음은 급살(急殺)이 제일이다
- 중 도망은 질에나 가 찾지
- 중언부언(重言復言)
- 중의 나라에 가서 상투 찾아라
- 중기파의(衆已破矣)
- 지언무문(知言無文)
- 지장(智將)이 불여복장(不如福將)
- 진날개 사귀기
- 진퇴양난(進退兩難)
- 진합태산(塵合泰山)
- 질족자선득(疾足者先得)
- 집 태우고 못 즐기
- 찬밥두고 잠 아니 온다
- 참새가 죽어도 썩한다
- 채반이 용수가 되도록 움직인다
- 천고불역지전(千古不易之典)
- 천동(天動)에 개뿔이 들듯
- 천동인지 지동인지 모르겠다
- 천불 생 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
- 천망아비전지죄(天亡我非戰之罪)
- 지리불여인화(地理不如人和)
- 천재지변(天災地變)

- 천유불측풍우(天有不測風雨)
- 철중정정(鐵中錚錚)
- 첫술에 배부름까
- 청기와 장사
- 청산에 매놓기
- 초년고생(初年苦生)은 은(銀)을 주고 산다
- 초당삼간(草堂三間)이 다 타도 빈대 죽은 것만 시원하다
- 초록(草綠)은 동색(同色)
- 축견폐월(蜀犬吠月)
- 총명 불여 둔필(聰明不如鈍筆)
- 추팔월망간(秋八月望間)
- 춘한노건(春寒老健)
-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
- 충언역이이여행(忠言逆耳利於行)
- 치도(治道)해 놓으니까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
- 치자다소(痴者多笑)
- 칠월(七月) 더부사리가 주인(主人)마누라 속옷 걱정
- 침소봉대(針小棒大)
- 칼물고 뿔뿔기
- 콩에서 콩나고 팔에서 팔난다
- 방축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 대강죽절(大剛則折)
- 털도 아니뜯고 먹으려 한다
- 팔이 들어 굵지 내굽나
-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 평원광야(平原廣野)
- 평택(平澤)이 깨어지나 아산(牙山)이 문어지나 해보자
- 풍년(豐年)거지
- 풀빵고리에 쥐 드나들듯 한다
- 무성귀는 먹일부터 알고 사람은 어려서 부터 안다
- 피장부 아장부(彼丈夫 我丈夫)
- 필지어서(筆之於書)
- 하늘 바람에 곡식이 모지려간다
- 하늘 올때마다 벼락칠가
- 하늘을 쓰고 도리질 한다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하등사회(下等社會)
-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하룻 비둘기 재를 못 넘는다.
- 인유조석화복(人有朝夕禍福)
- 칠나자 망녕(妄靈)난다
- 첫아기에 단산(斷產)
- 청보(靑襟)에 개똥
- 빙생어수 냉어빙(氷生於水涼於氷)
- 초상난집 개
- 촌계관청(村鷄官廳)
- 추월춘풍(秋月春風)
- 춘삼월호시절(春三月好時節)
- 출기불의(出其不意)
-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
- 취중(醉中)에 무천자(無天子)
- 치러 갔다가 맞기도 예사
- 칼로 물베기
-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
- 콩으로 메주를 쏴내도 콩이듣지 않는다
- 타인유심자촌도지(他人有心子村度之)
- 털도 아니난 것이 날기부터 하려 한다
- 토진간담(吐盡肝膽)
- 팔이 풀어져도 술안에 있다
- 편지에 문안(問安)
- 풍화일난(風和日暖)
- 풀베기 싫어하는 늑이 달수만 세인다
- 필야사무송(必也使無訟)
- 핑계없는 무덤없지
- 하늘의 별따기
- 하늘을 보아야 별을 탄다
- 하늘이 돈짜만 하다
- 하든 지랄도 명석을 띄 놓으면 안한다
- 하라는 파정에 감투 걱정하나
- 하룻밤을 자도 만티성을 쌓는다
- 하루 망아지 서울 다녀오듯
- 하불식육미(何不食肉靡)

- 하석상대(下石上臺)
- 하십십하니 길군악이나 하지
- 하지(夏至)를 지내면 쌀을 물전에 담그고 산다
- 하후상박(下厚上薄)
- 한강을 다 먹어야 쟁나
- 한 갯물이 열 갯물을 호리운다
- 한냥 장설에 고추장이 아홉돈 어치다
- 한놈의 계집은 한 덩에굴에 열린다
- 한시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
- 한 외양간에 암소가 들이다
- 한집안에 살아도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
- 한편 말만 듣고 송사 못한다
- 한품에 자는 내외간도 서로 속 모른다
- 한푼장사에 두푼마저도 팔아야 장사
- 할아비 감투 손자쓰기
- 항우도 낙상(落傷)할적이 있다
- 한말등에 두 길마를 질까
- 한번 실수는 병가(兵家)의 상사(常事)
- 한성부예 대가리 터진놈 달려들듯 한다
- 해동청(海東靑) 보라매라
- 해산구멍에 바람돌라
- 햇비들기 재넘을까
- 행사하는 것은 엿보아도 편지쓰는 것은 엿보지 않는다
- 행사한 후에 비너 빼갈놈
- 행세가 개차반
- 행불없는 짓방
- 허기진 개가 물찌푹에 덤빈다
- 허무적멸지도(虛無寂滅之道)
- 허울좋은 하늘수박
- 허적(許積)이 산적이다
- 혈기방강(血氣方強)
- 해엄질하는 놈은 물에 빠져 죽고 나무에 잘 오르는놈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 헤 고부지춘추(孀姑不知春秋)
- 호랑이 보고 창(窓)구멍 막기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려라
- 호리건곤(壺裏乾坤)
- 하상견지만야(粗相見之晩也)
- 학다리(鶴橋)구멍을 들여다 보듯한다
- 한강에 그물 놓기
-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찌르다
- 한냥 추념에 닳든 냐다
- 한달이 크면 한달이 작다
- 한술밥에 배부르랴
- 한어깨에 두 지개를 지랴
- 한자식도 아랭이 다랭이 있다고
- 한뼉줄에 난 형제도 속 모른다
- 한푼 돈에 살인난다
- 한치도 없는 놈이 두치 닳푼 바란다
- 한형제간도 마음이 각각
- 함흥차사(咸興差使)
- 항우(項羽)도 덩랭이 덩굴에 걸려 넘어 진다
- 항청에서 개폐문한다
- 한말(匹)고기 다 먹고 하문(下門)내 난넨다
- 한불당 안에서 내사당 네사당 하느냐
- 한술에 밥먹고 송사한다
- 해가 집을 지어 넘으면 비가 온다
- 해변 가마귀 골수박 파듯
- 해오리 나이 팔십이라 하더라
- 행랑(行廊)이 몸채 된다
- 행실을 배우라 하니까 포도청 문고리를 뺀다
- 행차(行次)뒤편 나팔
- 허구많은 생전에 복생선 맛이냐
- 허리에 돈차고 학타고 양주에를 올라갈까
- 허울 좋은 파부
- 허욕이 패가랴
- 현 집신도 짝이 있다
- 협태산이초북해(狹秦山而超北海)
-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
-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잡는다.
- 호랑이 잡고 불기 맞는다

-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
- 호부견자(虎父犬子)
- 호생악사(好生惡死)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 호생지덕(好生之德)
- 혼인 집에서 신랑 잊어 버린다
- 홀아비는 이가 서말 파부는 은이 서말
- 흥두께에 꽃이 핀다
- 홍안박명(紅顔薄命)
- 화전충화(花田衝火)
- 화약을 지고 불로 들어간다
- 회빈작주(回賓作主)
- 횡설수설(橫說豎說)
- 후래삼배(後來三盃)
- 훗 덮기는 백로 궁덩이나
- 흥정은 부치고 싸움은 말리랬다.

- 호박씨 까서 한입에 넣는다
- 홀애비 눈에 미운 색씨 없다
- 호사다마(好事多魔)
- 흑메리 갔다가 흑 붙인다
- 혼정신성(婚定晨省)
- 흥두께로 소를 몬다
- 홍로점설(紅爐點雪)
- 홍안백발(紅顔白髮)
- 화사첨족(畫蛇添足)
- 화초밭에 괴석(怪石)
- 회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無所禱)
- 효자가 불여악처(不如惡妻)
- 흥년에 윤달(潤月)
- 흥지비래 고진감래(苦盡甘來)

## 第2節 鄉 謠

사람이 모여사는 곳에 노래가 있듯이 이고장에도 이고장 사람들이 어루만진 가락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他地方에 비하면 極히 貧弱한 便이다. 원래 우리의 文學은 鄉歌에서 出發한다 하지만 이 地方에도 이렇다할 鄉歌는 찾아볼 수 없고 民謠로 原州아리랑과 歌謠로 李朝 宣祖 庚辰에 이름을 널리 알리던 松江 鄭澈이 江原道 觀察使로 이 고장에 在任中에 지은 關東別曲이 있어 世人的 膾炙에 오른지 오랜 名曲이다. 또한 이 地方으로 은신하여 살던 元天錫 元昊 등의 시조가 傳해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1) 原州民謠

슬슬 東風 재념의 바람에  
내가야 언제 널 오라 했더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

뒷문밖에 함박꽃송이  
떴다 감은 눈치는  
감았다 뜨는 눈치는

× ×

雉岳山 나무가  
北原땅 기생은

× ×

울통에 불통에  
우리도 죽으면

× ×

머루야 다래야

홍갑사 땡기가 팔팔 날린다  
내 길이 바빠서 활개질 했지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

소구동 하고도 님만 살핀다  
날 가라는 눈치요  
놀다 가란 말일세

× ×

돈만 같다면  
모두 내것이로다

× ×

저 南山봐요  
저꼴이 되네

× ×

열지를 팔아



산골의 큰애기

× ×

신작로 굳은건

시어머니 굳은건

× ×

西山에 지는 해

당신 두고 가는 내가

× ×

아침에 만나면

저녁에 만나면

× ×

앞집에 처녀는

뒷집의 총각은

× ×

주재소가 떨어져서

님의 품이 넓어서

× ×

동산에 진달래가

× ×

문전옥답은

쉴쉴한 타향길

× ×

술집의 아주머님

냉수만 달래도

× ×

넌자가 날오라

사대문 꼭꼭걸고

× ×

바람아 불라면

풍년아 들러면

× ×

못사귄 친구는

아닌 밤중 칼소리에

× ×

산골색씨를 친하면

주막색씨 친하면

× ×

도라지를 캐려면

일 못한다

길가거나 좋지

난 못살아

× ×

지고 싶어 지며

가기 좋아 가나

× ×

오라버니요

정든 입일세

× ×

시집을 가는데

목메러 가네

× ×

화투치기 좋고요

잠자리가 좋아라

× ×

필듯 말듯

× ×

왜 다 팔고

떠나려 한다

× ×

친하고 보니

청주만 주네

× ×

먼저 청해놓고

벌써 잠자나

× ×

돈바람 불고

색씨 풍년 들어라

× ×

순사나리

몸서리 나네

× ×

머투 다래가 선사요

소주에 안주가 선물이다

× ×

도라지나 캐지

남의 도령 이끌고

덤불속이 웬말인가

(5) 情 謠

조눔아 총각 행실보게

조눔아 제집에 행실바라

× ×

요눔의 총각 뵈하러 왔니

요눔아 제집에 뵈하러 왔니

낮갈다 달고 잣굼네

밥꾸다 달고 붓굼네

× ×

숫돌이 좋아 닳갈러 왔니

질구가 좋아 방아찢러 왔니

(6) 童 謠 — 파랑새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늑두꽃을 땔구고서

맛이 좋다 어서 가라

잠죽 잠죽 잘 논다만

청포장사 부지깅이

(7) 童 謠 — 유희 謠

딱지 딱지 코딱지

두통 두통 말부랄

어름에 빠진 쇠누갈

담아 먹은 김치득

(8) 童 謠 — 잠자리 노래

범범 잠자리

알이 뜨면 산다

높이 뜨면 죽고

(9) 童 謠 — 유희 謠

할멈 할멈 문열개

개 쫓게 요개

덜—겨

수박 하나 따가게

(10) 童 謠 — 피꼴이 노래

피꼴넝 피꼴넝

전라감사 딸이여

경상도 박개여

피꼴넝 피꼴넝

(11) 雜 歌

(1) 만고강산

만고강산 유람할제 삼진산이 어드맨고

일봉내 이방장 삼염주 이아니나

죽장짚고 풍을실어 봉내산을 구경할제

경포대 동정호는 명월을 구경하고

천고정 낙산사와 축성정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열른 넘어 봉태산을 올라가니

천봉만 학부용들은 하늘위에 솟았고

백천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우린듯

(12) 신고산타령

신고산이 우루루루 기차나가는 소래

신고산 큰애기 밤에만 보점 썬다

후렴 { 에야 에야 에야 에야라 좋다 되야라 난다  
내사랑아 동그재 나무를 갈까

동그재 나무를 갈까 산나무를 갈까

총각낭군 다리고 덩풀노리나 갈까

슬슬 동풍에 굶은비 내가 잘났나

시화년풍에 나지미 상봉한다

자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둘이서 정들면 우리들이 잘났나

(13) 강원도 아리랑

열라는 콩밭은 아니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열리느냐

후렴 { 아리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열지구 노다노다 가게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 마라

시골의 큰아기 산봉 난다

산중의 귀물은 머루 다래

인간에 귀한것 사랑이라

사랑에 든정이 무엇이나

잠들기 전에는 못잊겠네

(14) 금강산 유람가

천하명산 어데메노 천하명산 구경갈제, 해끼고 솟은산에 일탄이천 봉오리가  
구름같이 버렸으니 금강산이 분명코나, 장안사를 구경하고 면경대에 다리쉬어  
망준대를 올라가니 마이태자 어디갔나, 바위위에 얹힌꿈은 추모하는 혼뿐이다  
종소리와 염불소리 바람결에 들려오고, 옥두금주 열두담의 구비구비 흘렀으니  
선경인듯 극락인듯 만물상이 더욱좋다

註] 이상 雜歌의 출처는 江原道이지만 이 地方뿐만이 아니라 全國 坊坊曲曲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만큼 널리 愛唱하고 있는 이름높은 노래이다.

(15) 郡 名 歌

江原道나려가니 道之太原「原州」로다 「伊川」先生 찾아가서 聖學을 講論하고,  
雲淡風輕近午天에 訪花隨柳 날아가니 맑은「春川」 흐르는 곳 花爛「春城」景概 좋다.  
孝烈特行「旌善」이요 不履生草「麟蹄」로다. 端宗大王 卿陵地는 南平昌越하였든가  
寧越이름 近似하다 積德百年興家하여, 家用平康하였으니 「平昌」고을 이름 좋다  
9年之水 아니어든 「洪川」이 웬말이며, 楊子江口아니로되 楊口는 分明하다  
道路縱橫橫城이며 人物繁華華川이다 大關嶺 넘어서서 千里「江陵」1日還하니  
鏡浦臺 종을시키고 退潮碑 세운곳이 三考黜陟「三陟」인데 竹西樓 불만하고 「金化」  
鐵原 金鐵땅아 蔚珍이 되었든가, 一碧天光 上下浮에 望洋亭은 여기련만  
月松亭은 어디메뇨 百川이 朝宗하여, 東海上에 通川인데 叢石亭이 세워있고  
永郎 述郎 놀든곳 三日浦를 찾아가니, 「高城」이 그곳이오 洛山寺 있는곳은 日出扶桑  
襄陽인데 淸澗亭은 어디메뇨, 汲黯은 없거니와 吏民相得政淸하니 「淮陽」이라  
하리 로다.

「註」郡名歌는 국문학 잡지에서 全國郡名歌中 江原道것만을 뽑아실었다.

(16) 短 歌

- ①강원도 빅성들아 형메송스 하디마라
- ②종췌 밧췌는 엇기에 쉽거니와 어더가
- 또 어들거시라 ③홀깃할깃 하노다

(詳解) ① 江原道

② 奴婢와 田畓

③ 눈을 홀깃홀깃하여 不睦하는가

(通釋) 江原道 百姓들아 兄弟間에 訟事를 하지마라 奴婢와 田畓같은 것은 없어졌다가 또  
얻기는 쉬운 일이지만 兄弟間의 情義은 어디가서 또 얻을것이기에 서로 만나면 홀깃  
홀깃하여 싸울듯이 不睦하는가

- ①봉리산 넘겨신타 五更틴 ②나쁜소리 성넘어 구름디나 순풍의 들리느다 ③江南의
- ④느려못가면 그림거든 엇디리

(註解) ① 蓬萊山

② 餘韻

② 이곳에는 作者의 舊居인 金南 昌平을 가리킴

④ 내려서 곧 가면 웃은 곧

(通釋) 蓬萊山 임계신 곳에서 5更을 알린 북소리의 餘韻이 城을 넘고 구름을 지나 순풍을  
타고 들리는 구나 江南에 내려 곧 가면 그리운들 어떠리

- ①에서 ②놀애록드려 ③두세번만 붓츠면은
- 봉내산 테일봉의 고온님 보련마노
- 하다가 못하노일을 닐러 무슴하리

(註解) ① 여기서

第5編 教育・文化

② 날개(翼)

③ 활활 부치면

(通釋) 여기서 날개를 번쩍들어 두세번만 활활부치며는 蓬萊山 第1峰에 계신 고운임을 보련마는 하다가 못하는 일을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17) 時 調

興亡이 流水하니

5百年 王業이

夕陽에 지나는 손이

× ×

눈마져 휘여진 대를

굴을 節이던

아마도 歲寒高節은

× · ×

화려했던 옛대월이

펼뜬던 마소들만

나라망친 슬픈원한

강산이 물드니

× ×

간밤에 우든 여울

이제와 생각하니

저물이 저슬러

나도 우러러 보내니라

× ×

사무친 원한에

갈꽃과 단풍은

분명히 알거라

달밤에 혼백은

× × ×

강원도 백성들아 형제 소송하지마라

증기발기는 얻기에 쉽거니와

어때가 또 얻을거시라 흘깃흘깃하느다

× × ×

아버이 사라신제 섬길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엇디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滿月臺도 秋草로다

牧笛에 부쳐시니

눈물겨워 하노라

× ×

뉘라서 굶다던고

눈속에 푸르를 소나

대뿐인가 하노라

<耘谷 元 天 錫>

× ×

풀속에 묻혔으니

석양에 누웠구나

이제야 뉘알라마는

단풍놀이 종을시키고

<孫谷 李 達>

× ×

슬피우려 지내거라

이미 울터 보냈도다

흐리고저

× ×

장강도 목메누나

차가와서 우수수

이곳이 귀양은곳

어디서 노는가

<觀瀾 元 昊>

<松江 鄭 澈>

(18) 關東別曲

江湖에 病이 갑퍼  
關東八百리에  
어②와 聖恩이야  
延秋門 드러 드러  
下直고 물너나니  
平邱驛 물을 마④라  
蟾江은 어찌메오  
昭陽江 낙린 물이  
孤臣 去國에  
東州밤 계⑦오 새와  
三角山 第一峯이  
弓王大闕터회  
千古 興亡을  
淮陽 네 일홈이  
汲長孺 風彩를  
營中이 無事하고  
花川 시내길히  
行裝을 다 썰치고  
白川洞 거터두고  
銀마튼 무지개  
섯⑫돌며 쏜논 소리  
들을제는 우레러니  
金剛臺 민 우層的  
春風 玉笛聲의  
縞衣 玄裳이  
西湖 냇 主人을  
小香爐 大香爐  
正陽寺 眞歌臺  
廬山 眞面目이  
어와 造化翁이  
놀거든 쉼디마라  
芙蓉을 ㅅㅅ짓논듯  
東溟을 ㅅㅅ박츠논듯  
눅힐시고 望高臺  
하늘의 추⑬미러  
千萬劫 디나도룩  
어와 녀여이교  
開心臺 고터 올라  
萬二千峯를

竹林에 누엇드니  
方面을 맞디①시니  
가디③룩 罔極하다  
慶會南門 ㅅㅅ라보며  
玉節이 앞피셨다  
黑水로 도라드니  
雉岳은 여기로다  
어⑤드러로 든단말고  
白髮도 하도⑥ 할사  
北寬亭의 올라오니  
ㅎ⑧마면뵈리로다  
鳥雀이 지지피니  
아⑨논다 물ㄴ논다  
마초아 마툴시고  
고려 아니 불⑩거이고  
時節이 三月인제  
楓岳으로 버머있다  
石逕의 막매 디퍼  
萬瀑洞 드러가니  
玉마튼 龍의 초⑪러  
十里에 즈자시니  
보니논 눈이로다  
仙鶴이 샷기치니  
선즈을 ㅅㅅ뵈던디  
半空이 소⑬소 쓰니  
반겨서 녀노논듯  
눈아래 구머보며  
고터 올라 안즌말이  
여기야 다 뵈느다  
현⑭소토 현스홀샤  
섯거든 ㅅㅅ디마나  
白玉을 ㅅㅅㅅ⑮것논듯  
北極을 ㅅㅅ왓논듯  
외로울샤 穴望峯  
ㅅㅅ⑰스 일을 스로리라  
구필줄 모르논다  
너마니니 ㅅㅅ 잇논가  
衆香城 ㅅㅅ라보며  
歷歷히 헤⑱여오니

第5編 教育・文化

峯마다 지쳐있고  
 뭉거든 조②치마나  
 저 귀운 호터내야  
 形容도 그지업고  
 天地 삼②기실제  
 이제 와 보게되니  
 毘盧峯 上上頭의  
 東山 泰山이  
 魯國 조분줄도  
 넓④거나 넓은 天下  
 오르디 못하거니  
 圓通골 마⑥논길로  
 그 열⑦워 너러바회  
 千年老龍이  
 晝夜의 홀내내여  
 風雲을 언제어더  
 陰崖에 이⑩은 풀을  
 麻詞衍 妙吉祥  
 외나모 배근 드리  
 千尋絶壁을  
 銀河水 한③ 구비를  
 실 마티 플터이서  
 圖經 열두 구비  
 李謫仙이 이제이서  
 廬山이 여귀도⑧곤

- (풀이) 1. 말기시니  
 3. 갈사록  
 5. 어디로  
 7. 겨우  
 9. 아느냐  
 11. 꼬리 끝  
 13. 聳(副詞)  
 15. 뭉였는듯  
 17. 무슨  
 19. 세여보니  
 21. 깨끗이  
 23. 어느것이야  
 25. 怪異  
 27. 앞에  
 29. 沼  
 31. 지(落)려 하느냐

곳②마다 서린 귀운  
 조커든 뭉지마나  
 人傑을 문돌고자  
 體勢도 하도 할사  
 自然이 되연 마는  
 有情도 有情홀사  
 올라보니 귀 뉘신고  
 어③느냐 놉듯던고  
 우리논 모를거든  
 엇씨하야 격닷말고  
 느러가미 고⑤이하랴  
 獅子峯을 츠자가니  
 火龍쇠⑨ 되여세라  
 구⑩비 구비 서력이서  
 滄海에 니어시니  
 三日雨를 디⑪련논다  
 다 살⑬와 내여스타  
 안⑭문재 너머디여  
 佛頂臺에 올라하니  
 半空에 세여두고  
 촌⑯촌이 버혀내여  
 뵈마티 거러시니  
 내보매논 여러히라  
 고터 의노하게 되면  
 낮단 말 못하러니

2. 感嘆詞  
 4. 갈아타고  
 6. 많지도  
 8. 거의  
 10. 볼것인가  
 12. 섞어들며  
 14. 繁추하기도, 부산하기도  
 16. 추어밀어(上推)  
 18. 네 로구나  
 20. 끝  
 22. 생기  
 24. 넓거니  
 26. 가는(細)  
 28. 넓다란 바위  
 30. 구비구비  
 32. 시들온(萎)

33. 살라(生活)

35. 색은

37. 寸寸이

山中을 티양 보라  
 盤與 緩步하야  
 玲瓏碧溪와 數聲啼鳥는  
 旌旗를 썰티니  
 鼓角 첫①브니  
 鳴沙길 니③근 돌이  
 바라홀 겹티 두고  
 白鷗야 늑디 마라  
 金爛窟 도라드러  
 白玉樓 남은 기둥  
 그倅의 성⑥녕인가  
 구득야 六面은  
 高城올란 며⑦만 두고  
 丹書는 宛然하되  
 예⑨사흘 머튼後의  
 仙遊潭 永郎湖  
 清澗亭 萬景臺  
 梨花는 볼서디고  
 洛山 東畔으로  
 日出을 보리라  
 祥雲이 집⑪피노등  
 바다히 썬날제는  
 天中の 텃⑭뜨니  
 아마도 녀⑮구름이  
 詩仙은 어디가고  
 天地間 壯호 귀별  
 斜陽 峴山の  
 羽盖 芝輪이  
 十里 永紬을  
 長松 울⑲호 소개  
 물결도 자도잘샤  
 孤舟 解纜하야  
 江門橋 너⑳몬거티  
 從容 호㉑다이氣像  
 이 도㉒곤 마준디  
 紅㉓粧 古事를

34. 內霧嶺

36. 큰

38. 보다 「두곤」의 轉

東海로 가자스라  
 山映樓의 올라하니  
 離別을 怨호노도  
 五色이 넘노노도  
 海雲이 다 첫②노도  
 醉仙을 빗기 시러  
 海棠花로 드러가니  
 네 벗인줄 었디 아④노  
 叢石亭의 올라하니  
 다만 네⑤히 서 잇고야  
 鬼斧로 다드문가  
 므어슬 象똥던고  
 三日浦를 츠나가니  
 四仙은 어더 가⑧니  
 어더가 또 머문고  
 거리가 가잇노가  
 녀고더 안똥던고  
 집동새 슬피 울제  
 義湘臺에 올라안아  
 밤등만 니러하니  
 六龍이 바⑫되노등  
 萬國이 일⑬위더니  
 毫髮을 헤리로다  
 근처의 머물세라  
 咳嗽만 나⑯맞노니  
 즈서히도 훌써이고  
 躑躅을 므⑰니 볼의  
 鏡浦로 내려가니  
 다⑱리고 고타 다려  
 슬⑳크장 퍼머시니  
 모래를 헤리로다  
 亭子우히 올라가니  
 大羊이 거기로다  
 濶達호다 며 境界  
 또 어되 잇단말고  
 현스타 호리로다



江陵 大都護  
 節孝 旋門이  
 比屋 可封이  
 眞珠館 竹西樓  
 太白山 그림재 물  
 출하리 漢江의  
 王程이 有限하고  
 幽懷도 하도 할사  
 仙槎를 띄워내여  
 仙人을 츠즈려  
 天根을 못③내 보와  
 바다 밧근 하늘이니  
 又④득 怒호 고래  
 불거니 썰거니  
 銀山을 깃거내여  
 五月 長天의  
 저⑤근덧 밤이 뜨려  
 扶桑咫尺의  
 瑞光 千丈이  
 球簾을 고타 짓고  
 啓明星 듯도록  
 白蓮花 호가지물  
 일⑥도 혼 世界  
 流霞酒 7득 부어  
 英雄은 어더가며  
 아모나 만나보아  
 仙山東海에  
 松根을 베어누어  
 솜에 호 사롬이  
 그덕을 내 모르랴  
 黃庭經 一字를  
 人間의 노력와서  
 저근덧 가디마오  
 北斗星 기우려  
 저먹고 날 먹어돌  
 和風이習習하야  
 九萬里 長空에  
 이술 가져다가  
 億萬 蒼生을  
 그제야 고타 만나

風俗이 도홀시고  
 골⑦골이 버⑧러시니  
 이제도 있다 홀⑨다  
 五十川 모든 물이  
 東海로 다마가니  
 木覺의 다⑩히고저  
 風景이 못술⑪픽니  
 容愁도 돌더업다  
 斗牛로 向하살가  
 丹穴의 머므살가  
 望洋亭의 읍은 팔이  
 하늘 밧근 뜨어신고  
 누라서 놀내판더  
 어즈러이 그논디고  
 六合의 누리논듯  
 白雪은 므스 일고  
 風浪이 定하거늘  
 明月을 기다리어  
 희논듯 숨논고야  
 玉階를 다시 쓸여  
 곳⑫초안자 빙라보니  
 누다쳐 보내신고  
 늬⑬매되 다 희고저  
 돌드려 무른 팔이  
 四仙거 누⑭러니  
 빗 괴별 못자 하니  
 갈길도 머도 멀샤  
 못줄을 얼끗 드니  
 날드려 날은 물이  
 上界에 眞仙이라  
 엇디 그릇 날거두고  
 우리를 쏘오노다  
 이술 혼잔 먹어보오  
 滄海水 부어내려  
 서너잔 거⑮후르니  
 兩腋을 추⑯려드려  
 저⑰기면 놀리로다.  
 四海에 고로 논화  
 다醉케 덩근後의  
 쏘 혼잔 혼잔 고야

달 디 ④자 鶴을티고  
 空中 玉笛 소리  
 나도 줌을 세여  
 가피톨 모르거니  
 明月이 千山萬落의

九空의 올라 가니  
 어제런가 그제런가  
 바다를 구버보니  
 ㅁ인들 었디 알니  
 아니 비췌던 엇다

- (풀이) 1. 섞어부니  
 3. 익은 熟達한  
 5. 넷(四)의  
 7. 저만치  
 9. 여기  
 11. 몽끼는 둥  
 13. 밍더니  
 15. 行裝  
 17. 무니여(깃밍아)  
 19. 율타리로 한  
 21. 넘온  
 23. 보다  
 25. 洞里마다  
 27. 할것이나  
 29. 싫증나니  
 31. 가득이나  
 33. 拱(副詞)  
 35. 남에게 다  
 37. 기웁이니  
 39. 거진

2. 접는 듯  
 4. 아느냐  
 6. 工, 工作  
 8. 갔느냐  
 10. 社전  
 12. 버티는 둥  
 14. 높이 뜨니  
 16. 남왔느냐  
 18. 대리고  
 20. 싫도록  
 22. 한지  
 24. 麗末 江陵名岐  
 26. 羅列하여 있으니  
 28. 向하게 하고저  
 30. 못다  
 32. 暫間  
 34. 이리 이렇게  
 36. 누구 어디나  
 38. 추켜올려  
 40. 떨어지다

## 民 謠

### 원주 아리랑

솔솔 동풍 저넘어  
 가시네 흥갑사멍기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내가나 언제 널 오렸더냐  
 뒷문밖에 함박꽃송이

바람에 불어오면  
 팔팔 날린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내길이 바빠서 팔개짓 했지  
 소구동 하고도 님만 살핀다

### 범벅타령

밀쌀 찹쌀 다 제쳐놓고  
 똥집의 김도령 생각난다  
 누굴 닮은 범벅인가

메돌범벅 하여 놓면  
 둥글둥글 범벅아  
 김도령 닮은 범벅이로다

### 부모은공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고

第5編 敎育・文化

칠성님전 명을 빌고  
인생환도 출생하니  
부모은공 못다갸고  
살같이 약한몸에  
무당블러 굿을한들  
불경을 읽다한들

하느님전 복을 빌어  
한두살에 철을 몰라  
이삼십세 지나가니  
태산같은 병이들어  
굿덕인들 입을소나  
경덕인들 입을소나

散 調

치악산 나무잎이 돈만 같다면      복원의 기생은 모두 내것이로다.  
울퉁불퉁 저 남산봐요      우리도 죽으면 저풀이 되네  
신작로 굳은전 길가거나 좋지      시어머니 굳은전 난 못살아  
서산에 지는해가 지고 싶어 지나      남두고 가는내가 가기좋아 가나

情 謠

심심산친 참매미는      말거미줄이 원수요  
요즘 시국에 우리는      먹고사는게 원술세  
사발그릇이 깨지면      산산 조각이 나지만  
三八선이 깨지면      한덩어리가 된다네  
  
숲속에 사는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파는데  
우리집 저멍텅구리는      땅밖에 팔줄 모르네  
  
산골 색씨를 친하면      머루 다래가 선물이요  
읍내 색씨를 친하면      소주에 안주가 나온다  
도라지나 캐려면      도라지나 캐지  
남의 도령 이팔고      덩불놀이가 웬일인가

第3節 수 수 깨 끼

※수수깨끼로 原州地方에서 널리 쓰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가깝고도 먼것이 무엇이냐? (눈)
- 가도 붙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월)
- 가만히 있어도 못잡는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
- 가면서 빈대떡 붙이는 것은 무엇이냐? (소가 가면서 똥누는 것)
- 가면서 샘 파는 것은? (지팡이 짚고 가는것)
- 가뻘고도 백오십근 되는 것은? (채반)
- 가시밀에 뾰근 뾰근 안에 털털 털털 안에 맞나는 것은? (밤)
- 가위하나를 사람마다 쓰는 것은? (팔월 한가위)

- 가죽 벗기고 수염깎고 빼는 버리는 것은? (옥수수)
- 가죽속에 털난 것은? (옥수수)
- 가죽을 먼저 벗기고, 털뽑는 것은? (옥수수)
- 짝을 수록 커지는 것은? (구멍)
- 각이 각을 지고 각으로 가는 것은? (총각이 靑角을 지고 旅團으로 가는것)
- 짝지란 무엇인가? (뒷간에 불기 짝)
- 갈대밭에 말이 서서 풀을 다먹는 것은 무슨 글자냐? (나귀 驢자)
- 갈때는 속이 비고 돌아올때는 속이 찬것은? (두레박)
- 감은 감이라도 못 먹는 감은? (대감과 영감)
- 값을 묻지 않고 사는 나라가 어느나라일까? (아라사 「俄羅斯」)
- 갓쓰고 떠 안편 것은? (짚가리)
- 갓쓰고 떠 안편 것은? (소나무)
- 갓쓰고 층층대를 올라가는데 밑에 여덟명이 흠이 있다는 것은 무슨글자냐?  
(막을색(塞)자)
- 갓을 쓰기도 못썼다 하는 것은? (갓모 쓴것)
- 강 가운데 둥근 은이 무엇이나? (달 그림자)
- 강은 강이라도 못 건너가는 강은? (요강)
- 강산초목이 흰옷 입은 것은? (흰눈)
- 강은 강이나 고기 없는 강은? (요강)
- 강은 강이라도 물없는 강이 무엇이나? (대강이)
- 강중에 둥근 눈이 무엇이나? (달 그림자)
- 강한 것이 먼저 없어지고 유한것이 홀로 남는 것은? (허)
- 검은 입으로 곧잘 먹는 것은? (아궁이)
- 고목에 꽃이 스물피고 열매가 백열린 것은? (꽃감 한 집)
- 골은 골인데 원없는 골은? (구들골)
- 공중에 그물쳐 놓고 먹을것 구하는 것은? (거미)
- 귀는 넷인데 못 듣는 것은? (자귀)
- 귀 여덟 가진 것은? (췌)
- 귀와 눈과 입이 있으나 머리가 없는 것은? (게)
- 그리면 둥글고 쓰면 모진 것은? (해)
- 꿇어도 꿇어지지 않는 것은? (물)
- 기는 제비는? (족제비)
- 기둥 하나에 집하나 있는 것은? (우산)
- 길걸다 눈 빠지는 것은? (담뱃대 통)
- 길로 우물파며 가는 것은? (지팡이)
- 길로 집을 가지고 가는 것은? (가마)
- 나갈때는 무겁고 들어올때는 가벼운 것은? (요강)
- 나갈때는 잠자고 들어올때는 소리하는 것은? (물동이)
- 나갈때는 훌쩍하고 들어올때는 배부른 것은? (쌀넣은 자루)
- 나는 개미가 무엇이나? (솔개미)

- 나무 독에 장담근 것은? (관의 송장)
- 나무문으로 들어와서 쇠문으로 나와서 더운물에 목욕하는 것은? (국수)
- 나무와 나무가 서로 씨름하는 것은 무슨 글자인가? (수풀林자)
- 나무위에 서서 보는 글자는 무슨 글자나? (어버이 親자)
- 날개없이 날아가는 것은? (연기)
- 남산보고 절하는 것은? (물방아)
- 낮에는 숨고 밤에 나오는 것은? (별)
- 낮에는 올라가고 밤에 내려오는 것은? (이불)
- 낮에는 짐을 부리고 밤에는 짐을 싣는 것은? (햇대)
- 노서방이 왕서방을 결박하는 것은? (자리매는 것)
- 노인외 붉은 치마는 (고추)
- 눈에 막대기를 세운 글자는? (납申자)
- 눈물없이 우는 것은? (생)
- 눈은 눈이라도 보지 못하는 눈은? (티눈)
-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장승)
- 늙어 고와지는 것은? (고추)
- 늙을수록 이가 나는 것은? (광우리)
- 늙을수록 살찌는 것은? (벼)
- 다리는 다리나 건지 못하는 다리는? (다리橋)
- 다리없이 하늘에 오른 것은? (달)
- 단지 위에 팍을 올려 놓은 것은? (장단지에 무릎팍)
- 달으면 네모 열면 여덟모가 되는 것은? (문)
- 닭의 나이가 몇살이나? (여든 한살)
- 담아래 아이엎고 있는 것은? (옥수수)
- 대 끝에 털난 것은? (붓)
- 대대로 곱사등인 것은? (새우)
- 때때로 보얇게 분바르는 것은? (뒷박)
- 대는 붉고 쇠 열매 있는 것은? (메밀)
- 때릴수록 사는 것은? (팽이)
- 더워도 차다하는 것은? (차茶)
- 떡은 떡이라도 못먹는 떡은? (목넘어 꿀떡)
- 돈지게 들고 방에 차는 것은? (촛불)
- 돌많은 언덕에 한 날개가 무엇이나? (혀)
- 돌속에 백옥이 있고 백옥속에 황금이 있는 것은? (달걀)
- 동문(東門)위에 풀난 자가 무엇이나? (난초 난蘭자)
- 동생은 형의 집에 들어가도 형은 동생의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은? (사발과 종지)
- 똥구멍으로 먹어 입으로 토하는 것은? (대패)
- 두놈은 구멍뚫고 여덟놈은 등 두드리는 것은? (송편 만드느것)
- 두더지 아닌 두더지는? (농부)
- 두루병풍에 여단이 생선은? (달팽이)

- 독에 치가 무엇이나? (말독에 까치)
- 둥근 하늘에서 눈 오는 것은? (체질 하는것)
- 동글어도 반달이라 하는 것은? (보름달)
- 뛰는 고리는? (개고리)
- 드나들곳 없이 조그마한 단간방에 백서방과 황서방이 같이 사는 것은? (달갈)
- 들때는 집이 무겁고 나갈때는 가벼운 것은? (숫가락)
- 들어갈때는 집이 무겁고 나갈때는 가벼운 것은? (밥상)
- 들어갈적에는 집을 안신고 나올적에는 집을 잔뜩 싣고 나오는 것은? (부삽)
- 들어올때는 같이 오나 갈때에는 셋으로 나누어 나가는 것은? (담배연기)
- 등에 풀난 것은? (지개)
- 등위에 배꼽 달린 것은? (솔뚜껍)
- 떠 떠고 갓 안쓴 것은? (올타리)
- 떠 안떠고 갓쓴 것은? (지붕)
- 마디없이 자라나는 것은? (모발(毛髮))
- 마디없이 자라서 까치집 되는 것은? (왕굴대)
- 마른 나무 한 가지에 두꽃이 되고 중간에 열매 열개 달린 것은? (곰감)
- 마를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것은? (늪은이의 다리)
- 만리(萬里)를 가되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흐르는 물)
- 말은 말이라도 타지 못하는 말은? (거짓말)
- 맛보고 떨어지는 것은? (밑씻개)
- 맛추면 두 개 빠지면 여섯구멍이 되는 것은? (담뱃대)
- 매안에 독이 무엇인가? (소매안에 팔뚝)
- 머리는 따뜻하고 가슴은 덥고 배는 서늘하고 꼬리는 어는 것은? (사시(四時))
- 머리는 대발에 있고 몸은 삼발에 있고 발은 눈에 있는 것은 (상제)
- 머리로 먹고 옆으로 게우는 것은? (맷돌)
- 머리와 꼬리는 쇠요 몸은 대가 무엇이나? (담배대)
- 머리와 배는 회고 목은 붉고 등은 검은 것은? (이불)
- 머리위에 눈 있는 것은? (등잔불)
- 먹어도 똥 없는 것은? (잔진두)
-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은? (담배)
- 먹으나 안먹으나 배부른 것은? (배부른 독)
- 먹으면 누는 것은? (체)
- 먹으면 서고 못먹으면 앉는 것은? (쌀자루)
- 먹을때면 소리하고 춤추는 것은? (씨아)
- 먹지 않으면 볼수가 없는 것은? (음식맛)
- 먼산보고 방귀뀌는 것은? (총(銃))
- 먼산보고 손짓하는 것은? (도리깨)
- 먼산보고 절하는 것은? (방아공이)
- 먼산을 향하여 부채질하는 것은? (키)
- 먼저 타고 나중 내리는 것은? (배타는 사람)

第5編 教育・文化

- 목베인후 창자 내밀고 소리하는 것은? (파리)
- 목을 베일때는 소리가 없고 배를 가를때에 소리나는 것은? (침)
- 목이 다섯 눈이 스물둘 등이 여섯인 것은? (사람)
- 몸은 하난데 머리 둘있는 것은? (마소의 죽통)
- 무르고 굳은 것은? (물)
- 목은 목이라도 먹지 못하는 목은? (아랫목)
- 문밖에서 찾는 글씨가 무슨 자냐? (나오(吾)자)
- 물 건너면서 갈퀴질하는 것은? (계)
- 밀구멍을 찌시면 주둥이로 창자나오는 것은? (자물쇠)
- 바다에 뜬 사발은? (달)
- 발이 넷 귀가 여덟 입이 반 있는 것은? (뒤지)
- 발이 없으나 천하를 통행하는 것은? (바람)
- 밤낮없이 새끼를 낳는 것은? (문)
- 밤손님이 무엇인가? (도둑)
- 밤에는 배를 타고 낮에는 등을 타는 것은? (요)
- 밤에는 배타고 낮에는 요타는 것은? (이불)
- 밤에는 불을 키면 도망질 하는 것은? (어두운 곳)
- 밤은 밤인데 못먹는 밤은? (어두운 밤)
- 밥을 퍼주고 못얻어 먹는 것은? (주걱)
- 밥은 하루 세끼 먹지않고 날마다 웃는 것은? (시계)
- 배꼽에 털난 것은? (도토리)
- 배꼽을 떼어 정수리에 붙인 것은? (연)
- 배에만 털난 것은? (비)
- 뼈는 썩어도 살은 안썩는 것은? (벽)
- 뼈안에 살이 무엇이나? (알)
- 벽에 젖통이 달려있는 것은? (기름병)
- 보고도 먹지 못하는 것은? (그림에 떡)
- 북은 북이나 소리나지 않는 북은? (북(北))
- 붉은 갓을 쓰고 얼룩웃 입은 것은? (닭)
- 비가 와도 젖지 않는 것은? (연기)
- 사는 것을 판다는 것은? (쌀)
- 사람이 남쪽을 향하여 앉으면 북쪽을 향하여 앉고 성을 내면 따라서 성을 내고 웃으면 따라서 웃는 것은? (거울)
- 사람 죽은 고을은 어디냐? (谷城)
- 산 밑에서 벗부르는 글자가 무슨 자냐? (산 무너질(崩)자)
- 새중에 무서운 새는? (먹새)
- 세고개 넘어 조개 얹어놓은 것은? (손톱)
- 세모진 그릇에 분든 것은? (메밀)
- 세상에서 뼈없이 기력센 것은? (男根)
- 세상에서 제일 긴 것은? (길)

-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것은? (사람 못생긴 것)
- 소가 외나무 다리에 선 자는? (날생(生)자)
- 소는 손에 땀 없는 소는? (송아지)
- 손님이 오면 한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화로)
- 손이 집입자 몰아내는 것은? (열쇠)
- 술발 가운데 길있는 것은? (머리금)
- 쇠뿔이 무어나? (기차)
- 쇠뿔고 똥누는 것은? (도가니)
- 수정반(水晶盤)에 금을 뿌린 것은? (하늘의 별)
- 스무 아흐렛날 도망가는 글자는? (나라(趙)자)
- 쓰고도 단 것은? (갓집)
- 쓰면 쓸수록 많아지는 것은? (지식)
- 쓸데는 소용이 없고 안쓸데는 소용있는 것은? (갓집)
- 실뱀이 붉은 알을 품고 원강물을 다먹는 것은? (심지)
- 십일일에 곤장을 메고가는 것이 무슨 글자인가? (놈(者))
- 아가리 없는 장군에 몰두가지든 것은? (달걀)
- 아궁이에서 불때고 굴뚝에서 먹는 것은? (담배)
- 아들은 건너가도 아버지는 안 건너 가는 것은? (활과 살)
- 아래로 먹어 위로 토하는 것은? (총)
- 아래로 향한 집에 위로 향한 집은? (제비집)
- 아버지는 사람인데 아들은 짐승인 것은? (훈인에 쓰는 기러기)
- 아버지는 청춘이요 아들은 노인인 것은? (목화)
- 아버지는 뿔을 꿰어오고 아들은 고기잡는 것은? (참빛)
- 아버지의 갓은 아들이 써도 아들의 갓은 아버지가 못쓰는 것은? (술뚜껑)
- 아버지의 목을 베일때 아들이 춤추는 것은? (나무베이는것)
- 아우는 형에게 가도 형은 아우에게 가지않는 것은? (게)
- 아이적에는 회고 커서는 푸르고 늙어서는 붉은 것은? (고추, 감)
-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사람)
- 아침에는 옛날 저녁에는 닳날인 것은? (문)
- 아침저녁 두 발로 동동 굴르고 밥 못얻어 먹는 것은? (젓가락)
- 아침저녁으로 네 발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밥상)
- 아침저녁으로 미역감는 것은? (음식그릇)
- 아흔 아홉이란 글자는? (흰白자)
- 안고 나가서 지고 들어가는 것은? (문)
- 앉으면 높고 서면 낮은 것은? (천장)
- 알낱고 방귀뀌는 것은? (총)
- 문장과 명필이 한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碧字, 文章으로 이름이 높은 사람이 白樂天이요 名筆로 이름이 높은 사람은 王羲之이니라 王白이 한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요)
- 알에 꼬리가 달린 것은? (서캐)
- 알은 알이라도 덜된 알은? (거위알)



- 알중에 무슨일이 제일 클까? (산비알)
- 앞도 절벽 뒤도 절벽인데 뽕뽕돌아 문난 집은? (우정, 소라)
- 앞에는 붉은 소가 뒤에는 검은 소가 가는 것은? (아궁이에 불때는것)
- 앞에서도 별이 떨어지고 뒤에는 구름 올라오는 것은? (씨앗)
- 어렸을때 옷을 입고 커지면 옷을 벗는 것은? (대)
- 어미는 아래에 있고 자식은 머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소나무)
- 어미는 하난테 자식은 천이나 땅이나 되는 것은? (대들보에 석가례)
- 얻어맞고 또 비틀리는 것은? (빨래)
-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 것은? (유성기)
- 여러 사람이 한 망진쑈 것은? (바자(簾))
- 연기없는 불은? (반딧불)
- 열놈은 잡아당기고 다섯놈은 들어가는 것은? (버선 신는것)
- 열놈이 올라가서 결박하고 내려오는 것은? (상투 짜는것)
- 열놈이 바자를 두르는 것은? (망건쓰는것)
- 열면 반달이요 닫으면 둥근 달인 것은? (깃집)
- 열면 사각이요 닫으면 삼각이 되는 것이 무엇이나? (가위)
- 열사람이 넣고 다섯사람이 목을 베는 것은? (작도)
- 옆으로 찌르면 뼈빠지는 것은? (자물쇠)
- 옛이나 이제나 믿음을 변하지 않는 것은? (사시(四時))
- 오늘도 가고 내일도 다 간 것이 무슨자냐? (많을(多)자)
- 오르면 거꾸러지고 내리면 제대로 서는 것은? (밥상)
- 오팍살이에 백발노인이 들락날락하는 것은? (콧물)
- 오색옷을 입어도 다 검은 것은? (그림자)
- 오지말라 해도 오고 가지마라해도 가는 것은? (광음(光陰), 세월)
- 온몸에 털 하나 있는 것은? (버)
- 올라갈때는 질실고 내려 올때는 빈몸이 무엇이나? (숫가락)
- 옷입고 나갔다가 옷벗고 들어오는 것은? (버)
- 외기둥에 기와집 진것은? (버섯)
- 왕이 혹달린 글자가 무슨자냐? (구슬(玉)자)
- 외나무 다리에 솟길린 것은? (담뱃대)
- 바람벽에 송이두개 달린 것은? (젓)
- 원몸이 뼈속에 있는 것은? (달걀)
- 울면서 먹는 것은? (씨아)
- 움직이는 집은? (가마)
- 위는 아래같고 아래는 위같고 왼편은 오른편같고 앞이 뒤같고 뒤가 앞같은 것은? (참빗)
- 위로 먹고 아래로 토하는 것은? (전대)
- 온쟁반에 낫 대갈 박은 것은? (별)
- 이산 저산 다 잡아놓고 입만 떡 벌리고 있는 것은? (아궁이)
- 이산 저산 활아가는 것은? (불)
- 입아래 발달린 것은 무슨 자냐? (다만 지(只)자)

- 입으로 초목을 먹고 궁둥이로는 운무를 내는 것은? (은돌)
- 혀로 먹고 입으로 뚱누는 것은? (병)
- 앞사귀에 꽃피는 것은? (파)
- 자식 잡아서 아버지 제사에 쓰는 것은? (밤(栗))
- 자그마한 하늘에서 눈 퍼붓는 것은? (떡가루)
- 작은 물고기가 바닷물 말리는 것은? (심지)
- 창은 장이라도 못먹는 장은? (송장)
- 창마가 저도 젖지 않는 것은? (연기)
- 재주넘고 배채우는 것은? (두레박)
- 저녁에 접하러 가는 자는? (바깥外자)
- 젊어도 늙었다는 것은? (할미꽃)
- 젊었을 때는 이가 없다가 늙어서 이나는 것은? (광주리)
- 제비는 기고 개는 나는 것은? (죽제비와 술개)
- 젊었을때는 자주웃입고 늙어서는 누른 웃을 입는 것은? (가지)
- 조석으로 세수하는 것은? (소반)
- 좁아도 넓은 것은? (눈(目))
- 종이 밥먹고 종이 뚱만 누는 것은? (우체통)
- 종일 걸어도 오리 삼십분 걸어도 오리 앉아도 오리는? (오리)
- 주주하면 오는 것은? (닭)
- 죽어도 생(生)이라 하는 것은? (생치)
- 죽은 소가 우는 것은? (복)
- 짐을 지면 가고 지지 않으면 안가는 것은? (신)
- 차지 못하는 주머니는? (아주머니)
- 처음에 가죽 벗기고 다음에 털뽑고 살은 다 발라먹고 뼈는 버리는 것은? (옥수수)
- 천지만물을 다 덮는 것은? (눈꺼풀)
- 천하에 귀하나 가진 것은? (바늘)
- 철교를 건너서 나무다리를 건너서 또 철교에 술진 것은? (담뱃대)
- 청천백일(靑天白日)에 너성이 이웃에 울리는 것은? (맷돌)
- 추우면 찢르고 더우면 긴것은? (낮)
- 춤잘추고 노래 잘하고 흰밥 먹고 뒤통 누는 것은? (씨아)
- 칠수록 사는 것은? (팽이)
- 침은 침이나 놓지 않는 것은? (목침)
- 칼로 베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은? (칼로 물베기)
- 커도 자라 작아도 자라라 하는 것은? (자라)
- 커질수록 값이 싸지는 것은? (물건의 힘)
- 코는 코나 냄새 못 맡는 코는? (그물코)
- 큰발은 둘 작은 발은 여덟이요 뼈안에 살진 것은? (게)
- 큰술발 아래 신작로 아래 작은 술발 작은 술발아래 갑죽이 아래 흘죽이 흘죽이 아래 낭떨어지기는? (얼굴)
- 털있는 것이 맨 몸뚱아리만 있는 것을 낳고 맨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털있는 것을 낳는 것

- 은? (새와 알)
- 토끼가 난 알을 닭이 먹는 것은? (해)
  - 토끼가 대탄을 쓰고 천하의 말을 능히 통하여 천하의 업을 능히 성취하는 것은? (봇)
  - 토끼 입에서 나와서 닭등을 넘어 닭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
  - 토집(土沾)위에 검은달 검은 달위에 흰달은? (숫)
  - 투안에 투는? (감투안에 상투)
  - 팔다리 없이 모자쓰고 꼬리에 털난 것은? (도토리)
  - 팽냥이 쓰고 마마하는 것은? (외)
  - 땡땡하고 흐르는 것은? (흐르는 물)
  - 푸른 끈 붉은 주머니에 흰알 두른 것은? (고추)
  - 푸른기와 위에 까치집 있는 것은? (파)
  - 푸른 소나무밑에 여우 왕래하는 것은? (북(棲))
  - 푸른 주머니에 새 삼백예순개 들은 것은? (수박)
  - 푸른 줄기에 붉은 열매는? (메밀)
  - 풀어져도 술속에 있는 것은? (팔)
  - 품속에 옆전든 것은? (고추)
  - 하루에 천리를 갔다 와도 곤하지 않은 것은? (꿈속의 여행)
  - 하늘로 주떡질하는 것은? (절구공이)
  - 하늘보고 도리질하는 것은? (매)
  - 하늘보고 아가리 벌린 것은? (절구)
  - 하늘아래 제일 무서운 집은? (뒷간)
  - 하늘에는 총이 돌이요 땅에는 침이 돌인 것은? (별총총 어둡침침)
  - 하늘에서 편지가지고 가는 것은? (마른 잎사귀)
  - 하늘위에서 소모는 것은 무슨 자냐? (웃음(笑)자)
  - 한기중에 여덟간 집은? (박쥐, 우산)
  - 한나무 열두가지 삼백예순 다섯잎 두개열매는? (일년)
  - 한날개로 사람잡아 먹는 것은? (문)
  - 한달에 두번 병신되는 것은? (달)
  - 한독에 두가지 반찬든 것은? (달걀)
  - 한물건인데 사람마다 보이는 것은? (거울)
  - 한百사람(白人種)이 갓쓴 것은? (잘숙(宿)자)
  - 한번먹고 입붙이는 것은? (봉투)
  - 한소에 꼬리 들있는 차는? (잃을(失)자)
  - 한냥 남짓한 것은? (양푼)
  - 한입은 실하고 여덟입은 허한 것은 무슨 자냐? (우물(井)자)
  - 한자반되는 콩이 무슨 콩이냐? (콩자반)
  - 한자 한치되는 집은 무슨 자냐? (절(寺)자)
  - 한쪽에서 상모를 내어 두루고 한쪽에서 팽파리치는 것은? (개)
  - 한집에서 나서 천하가 쓰는 것은? (책력)
  - 한자쫓 되는 것으로 방안을 차게 하는 것은? (춧불)

한 큰나무가 네 층이고 그 층마다 가지 아흔개가 나고 아래 한층은 꽃이 피고 그위 한동안  
 잎사귀가 푸르고 또 그위 한층은 잎사귀가 누르고 제일위 한층은 꽃도 없고 잎사귀도 없  
 는 것은? (일년 四時)

· 한통에 물 담근 것은? (알)

· 한해 동안에 몇길씩 자라는 것은? (대(竹)자)

· 한해 동안에 한길이나 자라되 마디없이 자라는 것은? (왕굴대)

· 한해에 꽃두번 피는 것은? (목화)

· 함은 함이나 넣지 못하는 함은? (명함)

· 함문에 모자쓴 것은? (도토리)

· 함문으로 벌어먹는 것은? (거미)

· 해와 달이 씨름을 하는 글자는? (밝을(明)자)

· 해의 동생은? (해바라기)

· 혀로 발가는 것은? (교사(教師))

· 형용없는 동물은? (바람)

· 홍공단 두루 주머니에 금돈 천량든 것은? (바지)

· 흰돈위에 끝난 것은? (무)

· 흰밥먹고 흰똥누며 소리나는 것은? (씨앗)

## 第 6 編 文化財と 名勝古蹟

第 1 章 文化財

第 2 章 碑碣 及 碑銘

第 3 章 郷土遺蹟

# 第1章 文化財

## 第1節 概 説

우리 民族은 세계 어느나라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역사속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화재는 특정 사회계층 속에서 극소수의 한정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왔거나 여가생활의 취미로 가꾸어 왔다고 본다. 그러므로 민족전체의 이해를 저버린채 대중에게서 소외되어 왔다. 마치 상류사회의 전유물과도 같이 밀폐된 채 빈번하였던 전란속에서 없어지고 파괴된 것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외래의 침략을 당할때 마다 우리의 문화재는 만부득이하게 약탈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때로는 외세의 지배밑에서 그네들의 통치책의 방편으로 잘못 전해지는 것도 하나둘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고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우리의 문화유산의 고귀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오늘의 세태가 물질문명에 압도당하고 정신문화는 위축된 감이 있고 국민 스스로가 공리(功利) 현실주의에 흡수된 실정이므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여졌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최근 몇해 동안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족 주체의식의 확립이라는 명제속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원형의 손상없이 보존함은 물론 새로이 조사 발굴되는 문화유산을 잘 정리하여야 하겠다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 감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민에게 만족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흠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한데 모으고 숨겨져 있는 유물을 찾아 내어 이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데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하고 국민들은 각자가 적어도 우리 주변에 어떠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으며, 그 가치는 어떠하며, 보존상태와 보존방법등을 알고 더욱 빛내고 가꾸기 위하여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과제해결이 시급한 것이다. 문화재란 인간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결정으로서 문화상으로 가치있는 것, 즉 종교나 철학, 예술, 기타 고도의 정신작용에 의하여 가치가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여기서는 그 한계를 더욱 좁혀서 우리의 전통과 얼이 담겨져 있는 것만으로 그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유형 문화재(有形文化財)

建造物, 彫刻, 工藝品, 繪畫, 書跡, 筆跡, 典籍, 古文書, 古蹟, 民俗資料, 其他 有形的 文化的 所産으로 역사를 알아보는데 필요하거나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아서 특별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과 고고자료(考古資料) 등을 말한다. 이것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자연에 대하여 인류의 정신적 작용에 의하여 창조하였거나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역사상 중요문제 예술적 가치문제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여 평가되고 시대의 변천과 문화의 발전에 따라 개개체에 대한 평가 척도도 달라질 것이며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는 자연물은 제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문화재는 우리고장 원주에도 많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많은 손실이 있었고, 그후 한일합병후에 일본사람들에 의해 없어진 것이 더욱 많기때문에 국보급 문화재가 해외로 도피되고 서울등지로 이전되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국보 1점과 보물급이 몇점 있을 뿐이다.

(2) 무형 문화재(無形文化財)

演劇, 音樂, 工藝, 舞蹈 등의 뛰어난 기술 자체로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며 유물 감정술, 민속적 행사 같은 것도 이에 포함된다. 우리 고장에는 무형 문화재로 제정되어 온 것이 없고, 인간문화재로 김 봉용옹이 라전칠가 부문에서 인간문화재 제 10호로 등록되어 있다.

(3) 천연 기념물(天然記念物)

史蹟, 名勝地, 具塚, 古蹟, 城址, 宮址, 窯址, 先史時代의 遺物包含, 其他 史蹟地와 景勝地, 動物, 植物, 礦物로서 그 생태나 현상이 특이하며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광면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을 필요로 하는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고장에는 거목(巨木)과 송림(松林) 그리고 초식물(草植物)의 번식지대가 천연 기념물로 등록되어 있을뿐 뚜렷한 것이 없다.

(4) 기타(其他)

우리 민족의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습과 여기에 대한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전통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 이것은 유형, 무형 문화재와 연관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모든 문화유산은 문화재가 아닌것이 없지만, 그중에 특히 가치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것을 조사, 연구, 보존하기 위하여 1962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원주는 지방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1969년에 원주 문화재 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의 등급은 우리 민족문화재중 세계 일류문화에 비하여 그 가치가 크고 그 유래가 드문것을 제 1급으로서 국보로 지정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하고, 비지정 문화재중 원주로서 그 가치가 높은 것을 따로 뽑아 원주지방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원주에는 선사시대부터 이조말엽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등급별로 나누어 기록에 남긴다.

第2節 國 寶

(1)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碑(國寶 第59號)

所有者: 國 有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74番地

크 기: 總 高(전체높이) 4.55m

碑 身 高(비석높이) 2.97m

碑 幅(비석폭) 1.42m

材 料: 花崗石(비석은 靑石)

時 代: 高麗 宣宗 3年(AD 1085年)

指定年月日: 1939年 10月 18日

原州市에서 西쪽으로 26km 떨어진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鳴鳳山아래 자리잡고 있는 麗末 石 碑로 特徵的인 樣式을 보이는 傑作이며, 彫刻 또한 정묘하다. 왜정초 이전까지만 하여도 石碑와 탑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었는데, 왜정초에 경복궁으로 이전되어 지금은 國寶 第 101號로 지정되어 있다. 전하여지는 말로는 국보 第 59號도 탑이 이전될때 함께 옮기려 했으나 워낙 정묘한 조각인데다 치밀함이 대단하고 걸작품인고로 파손될까 염려하여 건드리지 못하고, 탑만 이전하여 졌다니 얼마나 귀중하게 아끼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高麗 宣宗 3년에 세워진 이 碑는 전체 높이가 455cm, 전체 폭이 260cm, 전체 두께가 260cm이고 碑身의 높이는 297cm, 幅이 142cm, 두께가 30cm이며, 螭首와 龜趺가 있는 보기드문 큰 비석으로 옛조상들의 슬기와 재능은 파히 자랑할만하다 하겠다. 材料는 화강석인데 碑身만은 검은 靑石으로 되어 있고 귀부는 거북이 형상으

로 되어 넓은 地台石위에 놓여있고 그 밑에는 雲紋(구름무늬)으로 장식되었으며, 거북의 목은 길게 直立하여 전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되어 있고 목에는 고기비늘이 표현되어 있으며, 머리는 입을 벌린 괴상한 짐승의 형태를 하고 있다. 등에는 龜甲文을 노출시켰고, 그 안에 임금王字가 陽刻되었으며, 등 한복판에 비석을 세우게 좌를 파고 그 확인저리에는 伏蓮汶으로 표시했다. 이와 같이 형태라든가 조각 술법 모두가 아름답고, 화려하며 우아하고, 운택하게 만들어져 있는 石碑의 碑身 양쪽 옆 언저리에는 당초문을 둘러놓았고 그안에 여의주를 들고 상천하는 형상의 용트림을 조각했는데, 그 조각의 특별한 양식이며 섬세함이란 말로써는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조밀하게 수놓아져 있다. 개석(蓋石; 비석위에 얹어놓은 각석)은 위가 활짝 벌어진 형태로써 다른 비두와는 전혀 다른 양식이며, 네귀통이의 전각은 우뚝하게 솟아있고 귀꽃을 달았는데, 全面에 무늬가 세밀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또한 그 中心에는 蓮花가 조각된 3층의 寶珠를 얹어 놓았다. 이와 같이 정밀하고 莊重 美麗함이란 보는 이를 탄복 시킨다. 또한 이 碑石의 비문은 2,050字나 되며, 碑陰의 글까지 있다. 이 碑의 글은 麗初에 文章이 뛰어나고 詩 잘짓기로 유명한 吏部尙書와 門下侍郎平章使를 역임한 鄭 惟彦이 王名을 받들어 글을 짓고 글씨 잘쓰던 尙書都官郊中을 지낸 安民厚가 썼으며, 조각은 李 英輔, 張 子春이란 사람이 한것으로 되어있다. 碑文內容은 智光國師의 修道한 內歷과 불교도덕의 진리를 통달하였다는 國師의 行狀이 記人되었고 碑 뒷면에는 法泉寺의 內歷과 塔碑建立 당시 종사한 승려 인원수 및 전립내역을 기입하고 있다. 碑 前面 글씨의 크기는 7分이고, 碑陰의 字經은 9分이며, 書體는 그 당시 유행되었던 歐陽詢體의 九成宮法에 가까운 것으로 筆劃이 균정하고 그 運筆의 起止가 正明하면서도 관후한 자존미가 있으므로 우수한 솜씨를 증명한다 하겠다. 그럼으로 그 당시 서예가의 우수한 솜씨를 증명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碑石의 쓰여진 글씨 중 1,2品을 다룰만한 일품이라고 평을 받고 있으나 한가지 전문가들의 말을 빌면 碑 뒷면의 楷書는 前面의 楷書의 品位만 못하다는 것이다. 書體도 歐陽詢의 것보다는 柳公權의 것에 가까운데 가끔 行書의 體도 混合되어서 통일성이 아쉽다는 평을 듣게 된다. 同一人의 글씨라고 생각하기엔 의심스럽기 까지 하면서도 碑 뒷면의 署名한 내용으로 보아 同一人의 필적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필시 글씨를 쓰는 시기와 장소, 기분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거대한 碑石의 主人公은 智光國師인데 智光國師는 海麟이라는 속세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高麗 成宗 3年(AD 984年)에 原州에서 출생하여 穆宗 3年 즉 AD 999年에 受戒하여 18세에 이미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이다. 歷代 王의 우대를 받아 오다가 德宗朝에는 三重大師(法階)라는 號를 받았다가 文宗 21年(AD 1067年) 法泉寺인 고향으로 돌아와 있다가 3년후 86세를 一期로 入寂하니 夏受戒 71이었다. 그후 18년만인 AD 1085년에 國師의 내력비와 함께 현묘탑을 세운 것이다. 이와 같이 규모나 정교함이 국보로 지정된 6개의 石碑중에서도 최상품으로 평가되는 國寶 第 59號로 지정된 碑는 1,000여년 동안의 風磨雨洗와 雷電등으로 破壞處가 많고 文字와 조각에 금이 많이 가있어 보수가 시급하나 그래도 이 고장의 국보로써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경복궁으로 이전된 塔이 그대로 현 위치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진 1.2.3.4.5호 참조)

## (2)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國寶第101號)

所有者: 國有

所在地: 서울 景福宮 後庭

크 기: 總高 610cm

이 塔은 本來 法泉寺址에 國寶 第 59號와 같이 있었던 것인데 現位置로 倭政初에 移轉되었다.



##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 (3) 傳興法寺 廉居和尚塔 (國寶第104號)

所有者: 國有

所在地: 서울 경복궁 후정

크 기: 現 高 170cm

이塔은 傳興法寺 廉居和尚塔이라고 傳하여 진다. 原州 興法寺에서 移轉된 것이나 위에다 傳字를 덧붙쳐 놓았음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못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은 原州에서 移轉된 것만은 사실이다. (사진 6호)

## 第3節 寶 物

### (1) 寶物 第78號 居頓寺 圓空國師 勝妙塔碑(一基)

所有者: 國有

所在地: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

크 기: 碑身高 2.45m, 幅 1.26m, 龜趺高 1.20m

材 料: 花崗石, 大理石

時 代: 高麗時代

題額은 「贈諡圓空國師勝妙之塔」, 碑題는 「高麗國原州賢溪山居頓寺 故 王師慧月光天遍照至覺智滿圓默寂然普化大禪師贈·圓空國師勝妙之塔碑銘并序」로 시작되며 崔冲이 撰하고 金巨雄이 書并篆했음을 記刻하고 있다. 圓空은 高麗 初期의 名僧이며, 俗姓-李氏 諱 智宗, 字 神則, 父 行順 母 金氏, 麗太祖 13年(AD 930年) 庚寅生, 廣化師의 景哲和尚에게 師事하였고 開寶 3年 光宗 21年 庚午 靈通寺에서 具足戒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때 國師는 40歲가 되므로 이보다 23年前인 開運 3年을 碑文에 誤記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光宗初에 宋에 건너가 永明寺의 壽禪師에 師事 峻豐 2年에는 國淸寺를 歷訪 淨光大師에 師事하였다. 大定慧論과 法華經을 傳道院에서 講하였다. 光宗 21年 歸國후에는 金光禪院의 重大師가 되었고, 磨納袈裟가 下賜되었다. 景宗朝 三重大師가 되었고 水精念珠를 下賜받았다. 成宗朝 積石寺의 住持가 되어 慧月이라 號하였다. 穆宗은 大師에게 光天遍照至覺智滿圓默이라 號를 내리고 繡方袍를 賜하였으며 아울러 佛恩寺護國外帝釋院에 住持토록 하였음이 碑文에 보인다. 顯宗은 親히 王師로 詣拜하고 金銀綿織 成鬪綿法衣器具茗字등을 獻供하였음도 碑文에 나타난다. 王은 다시 普化의 號를 加하였으며 大師는 同 9年 首夏에 原州 賢溪山에 들어가 同月 17日 入滅하니 享齡 89 法臘 72였다. 王은 聞訃震悼하여 特히 盡臣을 보내어 禮弔를 代行케하고 諡號를 圓空國師 塔名을 勝妙라 내렸다. 碑文은 字徑 1,8cm 東國金石評은 「居頓寺碑魯公體, 枯」라 하였고 書齋는 「勝妙塔, 頓有典型」이라 評하였다. 字體는 歐體에 가까운 楷書이다. 「鳳林寺眞鏡大師碑」의 書字-一部가 魯公體로 批評되기도 한 경우를 벗어날 수 없을 듯하다. 碑의 造形은 身瘦頭大한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特히 螭首의 彫刻은 寫實性을 強하게 풍기나 下邊둘레를 垂直集線帶로 彫飾하여 異例의인 壯嚴을 加한 獸과 그 規格이 宏大한 點등은 이 碑의 特色이라 할 것이다. 重廓甲文은 正六角에 近似하며 內室에 卍字와 寶花文을 交瓦로 陽刻하였고 碑坐 四面에는 眼象을 陰刻하였다. 龜頭는 賊口한 龍頭形이나 獸頭化하는 傾向을 띄고 있다. 全般的인 傾向은 造形手法이 硬化 形式화된 麗碑로서의 特色을 보이고 있다. (사진 7,8호)

(2) 寶物 第190號 居頓寺 圓空國師 勝妙塔

所有者: 國有

所在地: 서울 景福宮 後庭

크 기: 總高 268cm

이 塔은 原來 寶物 第78號와 같이 居頓寺址에 있었던 塔으로 日政期에 서울로 移轉하여 한때 日人 和田稔의 집에 있었다가 8.15解放 後인 1948年度에 現 位置인 景福宮으로 移安되었다. (사진8호)

(3) 寶物 第365號 眞空大師 墓塔附 石棺

所有者: 國有

所在地: 景福宮 所藏

이 浮屠塔은 靈鳳山 興法寺에 세웠던 것을 1931년에 現 位置로 移轉하여 잘 保存되고 있다. 그런데 이 浮屠는 石棺을 지니고 있는 것이, 다른 탑에서 볼수 없는 독특한 점이다. 塔의 總高는 291cm며 地台石 幅은 179cm고 石棺은 45×94cm이며 높이는 48cm로서 高麗 初期의 것이다. (사진 12호)

(4) 寶物 第463號 眞空大師 塔碑 龜趺 및 螭首(一基)

所有者: 國有

所在地: 一部 江原道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一部 서울市 景福宮(勤政殿 廻廊)

크 기: 身石 上部 0.78m×1.01m

下部 0.81m×0.92m

龜趺 2.52m×1.95m×0.75m

螭首 1.8m×0.99m

材 料: 花崗石

時 代: 高麗時代

귀부(龜趺)와 이수(碑首)는 원 소재지인 원성군 흥법사(興法寺) 자리에 남아 있으며 비신석(碑身石)은 경복궁 근정전 회랑(影福宮 勤政殿 廻廊)에 옮겨 놓았다. 이 절터에 있던 흥법사 진공대사탑(眞空大師塔)(보물 제365호)과 같은 돌로 만든 판도 1930년대 초에 경복궁에 옮겨 졌는데 원 절터에는 아직도 석등재(石燈材)와 이성기단(二成基壇)의 신라식 3층석탑이 유존(遺存)하고 있어 조형물(造形物)이 풍부한 나말(羅末) 고려초에 유적지(遺蹟趾)임을 알수 있다. 흥법사지로부터 여주고달원(驪州高達院址) 안성 칠장사(安成 七長寺)에 이르는 광주산맥(廣州山脈)을 점철하는 유적(遺蹟)중에 특히 고달원종 대사해진탑비(高達院宗大師慧眞塔碑)나 칠장사혜소국사비(七長寺慧炤國師碑) 보다는 이 진공대사비(眞空大師碑)가 가장 시대적으로 앞서는 유적에 속 하는것이며 대체로 타처의 그것 보다는 규모(規模)가 큰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다. 고달원비(高達院碑) 碑身은 현 경복궁에 있음)는 이보다도 매우 광대(廣大)한 각석(刻石)이어서 그 크기가 서로 지연(地緣)에 크게 연유(緣由)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원 소재지의 함주귀두수(含珠龜頭首)의 직립용두형식(直立龍頭形式)이나 면모(面貌)의 조기(彫技)는 약 35년 뒤에 된 고달사(高達寺)의 그것과 상사(相似)한 것이며 조형의욕(造形意慾)도 매우 크게 나타나 보인다. 원소재 리수 전액(原所在 螭首 篆額)은 고진공대사비(古眞空大師碑) 여섯자 2행 3자 석 중서(篆書)한 것이고 경복궁 소재 비신석(碑身石)은 현재 아래 윗돌로 절단된 위에 아래돌은 다시 세쪽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중간부분의 결실(缺失)로 인하여 판독불능(判讀不能)인 부분이 많다. 비제(碑題)는 고려국 원주(高麗國原州) 그 이하가 불명하다. 신 최광윤 봉 교집 태종문황(臣崔光胤 奉 教集 太宗文皇)한부분 만을 알수 있다.

##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대사(大師)의 법휘(法諱)는 충담(忠湛) 속성 김씨 선조(俗姓金氏先祖)는 계림관족(鷄林冠族)이었고 함통10년(咸通) 신라경문왕 9년(新羅景文王)AD. 869년 정월 1일에 탄생하였으며 장순선사(長純禪師)에게서 중이 되어 용기 원년(龍紀) 신라진성여왕(新羅眞聖女王) 3년 (AD889년) 21세에 무주 영신사(靈神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그후 당나라에 들어가 정원(淨圓)에게서 수도하고 효공왕(孝恭王)때에 귀국하여 왕사(王師)가 되었으며 고려건국(高麗建國)후 태조의 왕사(王師)가 되기도 하였다. 「○○5년7월18일」에 시멸(示滅)했고「○○7유 2승 ○○」(七十有二僧)이라 있으므로, 「천북 5년」(고려태조 23년 AD940년) 이었음을 알수 있다. 이 비문은 그의 사후 태조가 친찬(親撰)한 것으로 전하며 최광운(崔光胤) (平章事·崔彦弼의子)이 당태종서(唐太宗書)를 집자(集字)한 것임을 비문(碑文)으로 알수 있다. (사진 15, 16호)

### (5) 賣物 第 464號

興法寺址 三層石塔(一基)

所有者：國有

所在地：江原道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規模：高 3.69m 地臺石 幅 2.15m

材 料：花崗石

時 代：高麗時代

이중기단(二重基壇)위에 방형 삼층석탑(方形三層石塔)으로 일반전형양식(一般典型樣式)에 속하는 예이다. 이 곳에는 일찌기 라말(羅末)의 염거화상탑(廉居和尚塔) 국보 104호 고려초의 진공대사탑 보물 365호가 있었고(현재 모두 경복궁 내에 옮겨 세웠음) 진공대사비(眞空大師碑)가 있으며, 그 밖에도 높이 약 3m, 길이 약 60m의 석축(石築)을 비롯하여 문지(門趾) 초석(礎石)들이 산재하여 주목되어 오던 곳이다. 탑은 받 가운데 서 있는데 경작(耕作)으로 인해서 지대석(地臺石)이 일부 드러나게 됐다. 지대석 위에는 하대석(下臺石)과 중대석(中臺石)을 둘 하나로 만들어 네개의 돌을 짜서 맞춘 하기단(下基壇)이 있으며 사면에는 기둥과 보가 모양없이 각면 삼구(區)씩의 안상(眼象)이 있고 안상내(眼象內)에는 지선(地線)에서 꽃 모양으로 솟아 있어 고려때의 눈에 특별히 띄는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 두장으로서 된 갑석(甲石)은 넓이가 좁은 편이고 밑에 부연(副緣)이 없으며 윗 면에는 심한 경사가 있음이 특히 눈에 뜨인다. 가운데는 상층기단(上層基壇)을 받치기 위한 얇은 한 단에 피임이 있어 약화(略化)의 과정을 밟고 있다. 삼층기단 중석(三層基壇中石)은 여러장의 넓직한 돌로 불규칙하게 짜여졌으며 구조는 길면서 매우 크고 넓이는 좁은 기둥과 보 하나가 있다. 두장으로서 덮은 갑석(甲石)은 얇은 편으로 하층기단(下層基壇) 갑석에서와 같이 부연(副緣)이 없고 위에는 경사가 있으며 중앙에 네모가 진 삼단의 받침이 있음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탑신부(塔身部)는 기단에 비하여 갑작이 작아져서 좋은 비교라고 할수 없다. 넓이는 절반이 되었고, 높이는 약 3분의 2 정도로 줄었다. 1층 옥신에 비해서 2층 이상의 옥신은 높이가 3분의 2로 줄어졌다. 각층마다 옥신에는 가느다란 우주형(隅柱形)이 모각(模刻) 되었을뿐 다른 새겨서 꾸민것은 없다. 지붕 덮개(屋蓋)는 추녀에 상한 곳이 많으나 집음 윗면(屋裏)의 받침이 각층 4단임을 알겠다. 얇은 받침에 비하면 낙수면(落水面)은 두꺼워서 경사는 심하고 추녀밑은 전각(轉角)이 이르러 약간의 반전(反轉)을 보이고 있으니 모두 고려시대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옥정(屋頂)에 옥신(屋身)을 받치기 위한 1단의 각이 진 모양의 받침이 있음은 다른 것과 같다. 상륜부(相輪部)에는 노반(露盤) 둘 하나가 있을 뿐이나 손상(損傷)이 많다. 규모도 작을뿐 기단부(基壇部)와 탑신부의 비례의 불균형(不均衡)은 특히 눈에 띄고 석재구성(石材構成)이나 표면 조각에서도 기백을 잃고 약체화(弱體化)되었음을 보겠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그 제작(製作)은 고

려시대 전반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사진 14호)

## 第4節 無形文化財

### (1) 人間文化財 第10號

姓 名 : 金 奉 龍

種 類 : 락전칠기(螺鈿漆器)

金奉龍翁은 락전칠기 部門으로 人間文化財 第10號로 登錄되어 있으며 原州市 台庄洞에서 後繼養成에 全力하고 있다. 原來 故郷은 通營인데 原州의 特産인 漆을 찾아와 後繼養成을 하고 있다. (사진 90, 91호)

## 第5節 天然記念物

### (1) 天然記念物 第92號「樹林池」

所在地 : 原城郡 神林面 城南里

地 積 : 157坪, 902坪, 816坪

管 理 : 神林面

이 樹林池는 神林面 所在地에서 東北方 4km 地點에 있다. 여기에는 數百年 묵은 老松이 群林하고 있어 一名 神林이라고 呼稱하고 있다. 老松으로 이루어진 松林인데 나무와 나무사이가 가지로 엮갈려 있어, 눈 비가 와도 나무 밑이 좀처럼 젖지 않는다. 여기에는 옛부터 이 숲을 守護하는 守護神을 모신 城隍堂이 있다. 그러나 6.25動亂以後 盜伐로 因하여 많은 老松이 없어지고 只今은 城隍堂 周圍에 數十그루 老松이 있을 뿐이다. 日帝때에 天然記念物로 指定되었으나 管理가 소홀하여 價値가 없이 되었다.

### (2) 天然記念物 第93號「城隍林」

所在地 : 原城郡 神林面 城南里

地 積 : 3町 968畝. 5町 1段 8畝

管 理 : 神林面

이 城隍林은 神林面 所在地에서 6km 東北方 城南 溪谷에 있다. 여기에는 高山 植物에서 부터 野山 植物에 이르기까지 各種의 草植物이 있어 學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倭政때에 天然記念物로 指定 保存 되고 있으나 現在는 많은 草植物이 滅種되어 가고 있어 큰 關心꺼리로 되어 있다. 서울등 각 대학에서 자주 초 식물 표본 채집을 해 간다. 여기에는 草植物뿐만 아니라 각종 鳥類들이 서식하고 있어 鳥類 研究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더욱 관리가 어렵다. (사진 46호)

### (3) 天然記念物 第167號「銀杏나무」

所在地 : 原城郡 文幕面 礪溪里

크 기 : 高 23m 둘레 14.4m 樹令 約 1,000年

地 積 : 1,035坪中 100坪

577坪中 50坪

管 理 : 文幕面

이 銀杏나무는 文幕面 所在地에서 4km 北쪽 京江 國道邊에 있다. 約 千年의 樹令으로 推算하고 있다. 倭政初에 巨木으로 登錄되었다. (사진 39호)

(4) 保護樹

이 保護樹는 百年以上 자란 各種의 樹木을 1973年度 政府施策으로 道, 市, 郡에 指示하여 調査 指定 保護토록 된 것으로 國家에서 天然記念物로 指定 保護하는 外에 道, 市, 郡 및 面과 마을까지 指定하고 5百年 以上은 道나무로, 3百年 以上은 市, 郡나무로 하고 2百年 以上은 面나무, 1百年 以上은 마을 나무로 指定保護한 것이다. 指定된 나무는 나무 이름과 所在地, 樹齡과 높이, 둘레 등을 記錄하여 그 나무에 附着하는 한편 台帳을 作成하여 保管토록 한 것인데, 原州 原城管内에는 道指定나무가 느티나무와 銀杏나무로서 2種에 6本으로 되어 있고, 市 나무로는 槐木(느티나무) 銀杏나무, 참나무 등 3種으로서 14本이며, 郡 나무로는 槐木, 銀杏木, 松木, 느릅나무, 산사나무, 계수나무, 호양나무, 향나무 등 8種으로 23本이다. 또한 原州市에는 洞나무가 느티나무, 호양나무, 향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 5種에 6本으로 되어 있고, 面나무는 소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갈참나무, 느릅나무, 매참나무 등 6種에 28本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市, 郡의 마을나무는 참나무, 임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은행나무, 전나무, 오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시나무등 10種에 57本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原州市와 原城郡內에 百年 以上 1千年까지 자란 나무가 모두 136그루가 保護되고 있다. 保護樹의 所在地 및 높이 둘레別로 기록해 둔다.

保 護 樹 一 覽

나 무 명	소 재 지	지정처	수 명	높 이(m)	둘 레(m)
느 티 나 무	원주시 봉산동 442	道	500	15	3.7
"	" 일산동 1	"	600	24	5.7
"	" 행구동 777	"	1,000	32	7.2
은 행 나 무	원성군 부론면 경산리	"	1,000	15	4.0
느 티 나 무	" " 단강리	"	600	8	5.0
은 행 나 무	" 호지면 옥산리	"	600	20	10.0
"	원주시 무실동 820	市	300	30	5.5
느 티 나 무	" 봉산동 68	"	300	18	2.6
"	" " 162	"	350	15	2.7
"	" " 442	"	400	16	2.5
"	" 원 동 79	"	430	35	3.2
"	" 봉산동 442	"	430	16	3.4
은 행 나 무	" 개운동 333	"	300	30	4.6
향 나 무	" 봉산동 68	"	300	18	1.5
참 나 무	" 우산동 702	"	300	15	2.4
느 티 나 무	" 무실동	"	450	25	2.5
은 행 나 무	" "	"	350	25	5.5
"	" "	"	300	30	5.2
느 티 나 무	" 관설동	"	350	13	5.0
"	" 반곡동	"	350	15	4.0
"	원성군 소초면 장양리	郡	350	23	4.8
은 행 나 무	" " 교향리	"	350	40	6.0
"	" " 학곡리	"	430	16	5.1
"	" 문막면 전동리	"	300	15	5.5
느 티 나 무	" " 후웅리	"	300	20	4.9

나무명	소재지	지정처	수령	높이(m)	둘레(m)
느티나무	원성군 문막면 건동리	郡	350	30	5.5
"	" " "	"	300	12	4.5
"	" " "	"	300	18	6.0
"	" " 포진리	"	300	12	5.0
"	" 부론면 홍호리	"	300	20	7.0
"	" " 정산리	"	350	17	4.0
"	" 홍업면 사제리	"	300	25	3.4
은행나무	" " 대안리	"	350	30	6.0
느티나무	" " 매지리	"	370	40	5.4
"	" " "	"	400	35	6.3
"	" " 대안리	"	300	30	4.0
"	" " "	"	350	25	4.0
"	" " "	"	350	25	6.0
소나무	" 완부면 금대리	"	300	7	2.5
느름나무	" 신태면 구학리	"	300	30	3.6
"	" " "	"	300	30	4.0
산사나무	" " 성남리	"	300	6	1.0
계수나무	" " "	"	490	9	1.2
느티나무	원주시 단구동 798	洞	200	9	2.1
호야나무	" " 43-8	"	200	13	2.3
향나무	" " 176	"	200	8	2.0
은행나무	" 개운동 252	"	200	30	2.0
"	" " 333	"	260	20	1.3
느티나무	" 태강동 1033	"	200	16	3.0
소나무	" 봉산동 山 162	"	200	8	1.8
"	" 반곡동	"	270	9	1.5
느티나무	" 반곡동	"	200	28	1.5
"	" 무실동	"	250	26	1.5
소나무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	面	210	25	1.5
느티나무	" " 교향리	"	250	20	1.5
"	" " 평장리	"	210	15	1.5
"	" " "	"	204	21	1.5
"	" " 고산리	"	290	21	1.5
"	" " 장양리	"	270	19	1.5
"	" " "	"	210	21	1.5
"	" 호저면 대덕리	"	290	20	1.0
"	" 문막면 문막리	"	200	15	1.0
"	" " "	"	210	20	1.5
"	" " 건동리	"	200	20	1.5
"	" " 반계리	"	250	10	1.5
"	" " 후용리	"	200	20	1.5
"	" " 건동리	"	200	18	1.5
"	" " 비두리	"	250	15	1.5
"	" " 포진리	"	220	18	1.5
"	" " 궁촌리	"	200	17	1.0

나 무 명	소 재 지	지정 처	수 령	높 이 (m)	둘 레 (m)
"	원성군 문막면 궁촌리	面	250	15	1.0
"	" 귀태면 주포리	"	200	15	1.0
느 티 나 무	홍업면	"	200	35	1.5
"	" 판부면 서곡리	"	250	32	2.0
참 나 무	" " 금대리	"	220	29	1.5
스 나 무	" " 서곡리	"	250	15	1.5
갈 참 나 무	" " 금대리	"	250	17	1.5
느 림 나 무	" 신탄면 구학리	"	200	30	1.5
매 차 나 무	" " 용암리	"	220	25	2.5
참 나 무	원주시 행구동 689	마을	115	26	2.4
"	" 봉산동 山 162	"	150	15	1.8
엄 나 무	" " 山 560	"	120	30	1.5
"	" " "	"	150	12	2.0
느 티 나 무	" 태장동 20반	"	150	20	2.5
참 나 무	" 반곡동	"	150	10	1.5
향 나 무	" 관설동	"	170	8	1.5
느 티 나 무	원성군 소초면 홍양리	"	120	35	1.5
"	" " "	"	160	18	1.5
"	" " 수암리	"	140	18	1.5
"	" " "	"	150	15	1.5
"	" " "	"	110	20	1.5
"	" " 둔둔리	"	110	30	1.5
"	" " 홍양리	"	130	11	1.0
은 행 나 무	" " 장양리	"	150	22	1.5
전 나 무	" " 의관리	"	120	30	1.5
느 티 나 무	" 호저면 주산리	"	150	20	1.0
"	" 지정면 신평리	"	180	12	1.5
"	" " 월송리	"	180	20	1.5
"	" " "	"	150	40	1.5
"	" " 佳곡리	"	190	14	1.5
"	" " 보통리	"	190	14	1.5
"	" " 안창리	"	130	15	1.5
"	" " 간현리	"	180	20	1.5
"	" 문막면 건동리	"	110	15	1.5
"	" " "	"	180	22	1.5
"	" " "	"	180	13	1.5
"	" " 궁촌리	"	130	16	1.5
"	" " 후용리	"	150	12	1.5
"	" " 문막리	"	120	18	1.5
향 나 무	" 부론면 법천리	"	120	5	1.5
느 티 나 무	" " "	"	120	20	1.5
"	" " "	"	120	7	1.5
은 행 나 무	" " 손곡리	"	120	12	1.5
오 리 나 무	" " 노림리	"	120	15	1.5
"	" " "	"	120	15	1.5

나무명	소재지	지경처	수령	높이(m)	둘레(m)
오리나무	원성군 부문면 노탑리	마을	120	15	1.5
"	" " "	"	120	15	1.5
느티나무	" " "	"	170	10	1.5
"	" " "	"	180	10	1.5
"	" " "	"	150	7	1.5
"	" " "	"	160	10	1.5
"	" " "	"	150	20	1.5
"	" " "	"	120	15	1.5
"	" " 경산리	"	170	10	1.5
"	" " "	"	150	7	1.5
"	" 귀태면 주포리	"	115	15	1.5
굴참나무	" " 순계리	"	120	15	1.5
느티나무	원성군 용암면 매지리	"	100	32	1.5
"	" " "	"	150	23	1.5
"	" " 대안리	"	170	15	1.5
소나무	" 판부면 금대리	"	100	30	1.5
"	" " 서곡리	"	100	30	1.5
갈참나무	" 신림면 구학리	"	105	20	1.5
느티나무	" " "	"	106	21	1.5
"	" " 금창리	"	110	38	2.5
시루나무	" " 용암리	"	110	25	1.5
도나무	6그루	市 나무	14그루	郡 나무	23그루
洞 나무	10그루	面 나무	26그루	마을나무	57그루
計136그루					

## 第6節 史蹟

### (1) 史蹟 第 168號「居頓寺址」

所在地：原城郡 富論面 鼎山里 189

面積：未詳

이 寺址는 居頓寺址로서 新羅時代에 建築되었다가 壬辰倭亂 때 燒失된 以後 寶物級 遺蹟이 現存하고 있을 뿐 아니라 佛坐台石과 3層石塔 등으로 옛 寺址로 保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現在는 部落이 들어서고 耕作地로 되어 遺蹟의 손실이 우려된다. (사진 10호)

## 第7節 非指定 文化財(登錄)

### (1) 文肅公 金 悌甲牧使 忠烈塔(비지정 문화재 41-211)

所在地：原州市 鶴城 2洞 445번지

建立年代：1966年 6月 29日

크 기：高 19尺, 19層 계단式

管 理：原 州 市



문숙공의 충열탑으로 1966年 6月 29日 原州 애국애족 부활위원회에 의해서 原州驛前에 세워졌다. (사진 44호)

(2) 江原監營(門樓 및 宣化堂) 비지정문화재 (41-212)

所在地: 原州市 一山洞 1

建立年代: 約 300年前

管 理: 原州市

門樓는 元來 宣威樓이었다. 6.25以後 江原監營 門樓라고 했다. 宣化堂은 本來 客館이었다. 지금은 原城郡의 廳舍로 使用한다. (사진 20.21호)

(3) 石佛坐像(비지정문화재 41-213)

所在地: 原州市 一山洞 1

建立年代: 新羅末期 作品으로 推定

크 기: 高 240cm, 石佛高 120cm

管 理: 原州市

이 石佛像은 元來의 位置는 未詳이나 1926年度 調査에는 原州市 南山에 있다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 以前부터 南山에 있었음을 알겠으며 1951年度에 南山에서 現 位置로 移轉한 것이다. (사진 22호)

(4) 五層石塔(비지정문화재 41-214)

所在地: 原州市 一山洞 1

建立年代: 統一 新羅末期의 作品으로 推定

크 기: 250cm

管 理: 原州市

1951年度에 南山에서 移轉하다.

(5) 忠孝祠(비지정문화재 41-812)

所在地: 原城郡 文幕面 礪溪里

建立年代: 仁祖 12年(1634年)

管 理: 황 우필

忠孝閣으로 昌原 黃氏의 中始祖 黃 子龍의 祀堂(사진 40호)

(6) 龜龍寺 大雄殿(비지정문화재 41-813)

所在地: 原城郡 所草面 鶴谷里(九龍谷)

管 理: 龜龍寺

建立年代: 新羅時代 때 義湘祖師 創建

大雄殿內에 닻집이 有名하다. (사진 23.24.25.26.27.28.29호)

(7) 上院寺 大雄殿(비지정문화재 41-814)

所在地: 原城郡 神林面 城南里

管 理: 上院寺

建立年代: 1千4百年前 無着祖師 創建이라고 하나 建物은 最近에 新建된 것이다.

中年에 再重建한 것이다. (사진 32.33.34호)

(8) 立石寺 石塔(비지정문화재 41-815)

所在地: 原城郡 所草面 興陽里

建立年月日: 未詳

크 기 : 2m

管 理 : 立石寺

立石台 坐台上에 있다. 立石台에서 東方20m 地點에 아미타 보살상이 岩壁에 陰刻되어 있다. (사진 35.36호)

(9) 汶淵洞天 (비지정문화재 41-816)

所在地 : 原城郡 地正面 良峴里

良峴鐵橋 건너 右側 水中岩壁에 陰刻되어 있다. 汶淵洞天이란 四字가 日出時에 水上面에 그림자로 보일 때가 있다.

(10) 養興法寺址 (비지정문화재 41-817)

所在地 :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이 寺址에는 石塔과 眞空大師碑의 基부와 이수가 있고 옛 寺址임을 알수 있다. (사진 13.14호)

(11) 原城瓦窯址 (비지정문화재 41-818)

所在地 : 原城郡 所草面 수암리

面積 : 三町步의 山

### 第8節 鄉校·塔碑 및 祠宇

(1) 王女胎室墓碑

王女福蘭胎室墓碑

所在地 : 原州市 台庄 2洞 東山

年 代 : 成化 22年立(1486)(사진 )

(2) 趙曦先生 사적碑

所在地 : 原城郡 地正面 회현리 작동

建立年月日 :

크 기 : 高 380cm 幅 100cm

管 理 : 宗親會

(3) 金悌男 神道碑

所在地 :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413

建立年月日 : 1624年

크 기 : 高 370cm, 幅 30m

管 理 : 金氏 宗親會

(4) 橫城 趙氏 神道碑

所在地 : 原城郡 富論面 興湖里

建立年代 :

크 기 : 高 300cm, 幅 120cm 花崗岩

管 理 : 橫城 趙氏 宗親會

(5) 旌忠祠

所在地 : 原州市 開運洞 山 4번지

建立年月日 : 1970年

크 기 :

管 理 : 元氏 宗中(觀蘭派).

**〔6〕 林 慶業將軍 追慕碑**

所在地：原城郡 富論面 孫谷里

建立年月日：1968年 8月(原州文化院建立)

크 기：高 11尺, 幅 2尺

管 理：原城郡

林 慶業將軍의 生家터를 回想하기 위하여 세워진 비석이다.

**〔7〕 義兵將 李 殷讓公 追慕碑**

所在地：原州市 鶴城 2洞 445番地

建立年月日：1968年 10月 27日(原州文化院建立)

크 기：高 290cm, 幅 180cm

管 理：原州市 및 圓友會

이 追慕碑는 原州人 義兵將 이 은찬 공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것임

**〔8〕 閔 特務公 忠魂塔**

所在地：原州市 鳳山洞 1101

建立年代：1954년에 北部地區司令官 權準准將의 支援으로 建立된 것. (閔育鎬特務正校추모탑)

크 기：高 240cm, 4角 기둥式

管 理：姜 相俊

**〔9〕 顯 忠 塔**

所在地：原州市 台庄洞

建立年月日：1966年 6月 6日

크 기：高 370cm

管 理：原 州 市

**〔10〕 原州地區 戰鬪戰蹟碑**

所在地：原城郡 所草面 長陽里

建立年月日：西紀 1954年 3月 15日

크 기：高 270cm

管 理：原 城 郡

이 戰蹟碑는 6.25動亂 때 戰死한 靈魂을 慰勞하기 爲한 碑石이다.

**〔11〕 國軍 派越 記念碑**

所在地：原城郡 文幕面 文幕里 山 7番地

建立年月日 1969年 4月

크 기：高 350cm

管 理：七 星 庵

**〔12〕 故 李 舜學大尉 殉職記念碑**

所在地：原州市 一山洞 1番地

建立年月日：1964年 11月 10日

크 기：高 129cm

管 理：原 州 市

이 碑는 原城郡廳 前庭에 있으며 1964년에 原城郡內 山林의 松虫 박멸 作業中 飛行機 故障으로 추락사 한 李 大尉의 殉職을 記念하기 爲하여 建立한 것이다.

◁(13) 의사 인동 장 영옥의 무덤비

所在地: 原州市 鳳山 2洞

建立年月日: 1960年 5月

크 기: 高 110cm, 幅 13, 5cm

이 墓碑는 4.19 當時 서울에서 4.19 事件으로 죽은 장 영옥의 무덤비이다.

(14) 鄉 校

所在地: 原州市 明倫洞 225

建立年代: 高麗 仁宗때

규 모: 大成殿, 明倫堂, 西齋, 三門

管 理: 鄉校 財團

第9節 佛像 및 彫刻物

(1) 幢竿支石

所在地: 原城郡 鳳山 2洞 1155番地

建立年代: 未詳

크 기: 10尺

管 理: 原 州 市(國有)

이 幢竿支柱는 옛毗摩羅寺의 遺蹟으로 추측될 뿐 確實한 考證은 없다. 一柱는 세 동강으로 부러져 있어 補修를 要한다.

(2) 石造 彌勒佛

所在地: 原州市 台庄 1洞 87番地

建立年代: 未詳

크 기: 高 110cm, 둘레 100cm 하반신은 파손됨

管 理: 普 賢 寺

(3) 石造 彌勒佛

所在地: 原州市 鳳山洞 山 5番地

建立年代: 未詳

크 기: 高 1.8m, 둘레 80cm

管 理: 彌勒寺

(4) 石造 彌勒佛

所在地: 原州市 台庄 1洞 106番地

建立年代: 未詳

크 기: 高 1m, 둘레 50cm

管 理: 正 覺 寺

(5) 幢竿支柱

所在地: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619番地

建立年代: 新羅時代

크 기: 高 9尺

管 理: 原 城 郡

이 幢竿支柱는 法泉寺址에 있다. 保存 소홀로 土石에 3분의 1은 묻혀 있다.

##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 (6) 平庄里 石造佛頭

所在地：原城郡 所草面 平庄里 27

建立年月日：未詳

크 기：

管 理：所 草 面

이 石造佛頭는 어느 時代에 何處에 있었는지는 모르나 이 地方 住民에 依하여 岩石上에 安置 保存한 것이다. 口傳으로는 任辰倭亂 때 倭兵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傳한다. 이 佛頭 건너편 岩壁에 雲上女人像을 陰刻한 것이 있으나 確實하게 보여지지 못한다.

### (7) 梅芝里 彌勒佛 立像

所在地：原城郡 興業面 梅芝里516 (梅芝貯水池북관 龜島섬에 있다)

建立年月日：未詳

크 기：9尺 花崗岩

管 理：梅 芝 里 民(國有)

이 미륵불상은 어느 寺址에 있던 것인지는 모르나 梅芝貯水池를 新設할 때 河川 땅 속에서 찾아 세운 것이다.

### (8) 彌 勒 像

所在地：原城郡 貴來面 貴來里

建立年代：未詳

크 기：高 10餘m

管 理：黃 山 寺

### (9) 龜龍寺 浮屠之基

所在地：原城郡 所草面 鶴谷里 龜華寺 境內

建立年代：

管 理：龜龍寺

### (10) 黃山寺 三層石塔

所在地：原城郡 貴來面 周浦里 25-2番地

建立年月日：未詳

크 기：210cm

管 理：黃 山 寺

이 石塔은 옛 黃山寺에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떨어져 分散된 것을 970년에 張化主에 依해서 復元되었다.

## 第10節 城址 및 寺址

### (1) 鰲原 山城址(國有)

所在地：原城郡 板富面 金垆里 山 2番地

年代：新羅 神武王때 쌓았다 함

둘레：3,749尺

北原賊 梁 吉의 築城이라고 하며, 哈丹의 무리의 南侵때 元 冲甲의 擊戰地였으며 壬亂때 金 梯甲牧使의 마지막 격전지였다.

(2) 甄萱山城(面有地)

所在地: 原城郡 文幕面 厚用里 山 3番地

年 代: 千年 前 高麗太祖 王建과 甄萱의 激戰地

둘 레: 約3km

王 建과 대치하여 接戰할때 쓰여진 城地라고 한다. 石築은 무너졌으나 흔적은 남아 있다.

(3) 海美山城址(國有~石城)

所在地: 原城郡 板富面 金垠里 一翰洞

年 代: 新羅 神武王때 築城

둘 레: 6,000m

꽤이큰 벼랑을 이용하여 군데군데 石築을 하였으나 私有地로서 農耕地로 使用되고 있으므로 흔적만 남아있다.

(4) 法泉寺址

所在地: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院村洞

第11節 史蹟 및 文獻

(1) 啓下事目(一卷)

所在地: 原州市 台庄洞 1127番地

年 代: 1885年 發行

管 理: 權 鳳洙

(2) 加○申禁事目(一卷)

所在地: 原州市 鳳山洞 122番地

年 代: 1788年 發行

管 理: 洪 庚喜

(3) 月計圖

所在地: 原城郡 所草面 屯屯里

年 代:

管 理: 權氏 門中

원 호와 권 침의 유품임

第12節 動物碑

(1) 忠虎碑 및 碑閣

所在地: 原城郡 文幕面 礪溪里

建立年月日: 1968年 12月

크 기: 高 1m

管 理: 黃氏 宗親會

昌原 黃 子龍의 忠孝閣옆에 있다. 黃 子龍이 타고 다니던 호랑이의 碑閣이다.

(2) 忠犬碑

所在地: 原州市 戊寅洞 집가리

建立年月日: 미상

크 기: 岩上에 새겨져 있음

管 理: 路邊에 있으므로 무방비 상태

##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主人을 死境에서 살려줌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언제 누구라는 것은 모른다.

### (3) 忠犬碑

所在地：原城郡 所草面 長陽里

建立年代：미상

크 기：3尺

管 理：長陽國民學校

이 忠犬碑는 路上에 있던 것을 1975年度에 長陽國民學校 校庭으로 옮겨져 있다.

### (4) 도깨비碑

所在地：原州市 開運洞 구만이

建立年月日：미상

크 기：高 4尺, 幅 2尺 花崗岩

管 理：

金 公之碑라는 데서 도깨비 비라고 부르고 있다.

## 第13節 名勝地 및 遊園地

### (1) 秋月臺

所在地：原州市 一山洞

原州市 園洞에 있으나 옛날에는 이 山을 南山이라고 하였고, 樹木이 옥어져 수목 사이로 가을 달을 바라보며 놀던 곳으로 原州의 唯一한 놀이터였으나 지금은 住宅이 꼭 들어차 있어 그 흔적만 남아 있다.

### (2) 花香臺

所在地：原城郡 貴來面 龍岩里

이 花香臺는 옛날 忠州收使와 原州收使가 만나서 놀던 곳인데 花香臺는 花香이라는 妓生이 그 臺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그때 부터 생긴 이름이며 지금도 많은 놀이꾼들이 찾는 곳이다.

### (3) 立石岩

所在地：原城郡 所草面 興陽里

크 기：高 10尺 4角 大石

黃谷洞에서 雉岳山 主峰인 비로봉에 오르는 溪谷에 우뚝 서 있는데 約 50m 되는 廣大한 巨岩 위에 다시 四角의 大石이 서있다.

### (4) 怪石(龍岩)

所在地：原城郡 貴來面 龍岩里

長：約 25m

이 怪石은 흡사 黑龍이 꿈틀거리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龍岩이라 부르고 있다.

### (5) 天然동굴

所在地：原城郡 板富面 金垈里

깊 이：約 2km

管 理：鐵道廳

本 洞窟은 中央鐵道 施設 때 또아리굴을 뚫다가 發見된 것으로 入口가 터널안에 있다. 內部에는 4個의 넓은 廣場이 있고 4通 5達로 通할 수가 있으며 鍾유석의 석종과 석순 그리고 커-텐 등 地下 金剛을 이루고 있다. 안에 우물이 세군데 있고 흐르는 물도 있다.

(6) 玉山東臺

所在地：原城郡 好楮面 玉山里

이 東臺는 先人 墨客들의 놀이터로 알려져 있으며, 只今도 많은 觀客이 찾아들고 있다. 여름 한철 피서지로 찾는 사람이 더욱 많다. 蟾江邊으로 白沙場도 廣大하며 물고기가 많다.

(7) 高山立石

所在地：原城郡 好楮面 高山里

크 기：高 4百餘尺 4角 大石

이 立石은 立岩(立岩)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주위가 절경이다.

(8) 隱舟岩

所在地：原城郡 地正面 良峴里 앞 江전너 五兄弟峰에 있다.

이 은주암은 隱趙岩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江邊 五兄弟峰의 절벽끝에 岩穴이 있어 저나는 배들이 쏘나기나 풍낭을 피해서 임시 대피하기가 좋은 곳이어서 배가 숨는 바위라는 뜻으로 隱舟岩이라고 해왔다. 그후 李 活의 亂때 李 活에게는 3代 兪族의 숙이 내리자 그의 장모인 璿성 조씨부인이 피해서 원주로 오는 길에 배를 이용하여 이곳까지 왔을때 관군이 쫓는 바람에 조씨부인이 타고 있는 배가 은주암 바위굴로 숨었다. 관원들은 배가 갑자기 없어졌으므로 파선된 것으로 알고 돌아갔다. 그후 조씨부인은 무사히 난을 피하여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 부인이 원주에 있는 한산이씨의 10代 祖母라고 한다.

(9) 良峴遊園地

原城郡地正面 良峴里 蟾江邊은 白沙場과 그물이 좋아 避暑地로 한여름이면 많은 사람이 모여 들고 있다. 뽕-트와 노리매도 마련되어 있고 물고기로도 有名하다.

(10) 平川遊園地

原州에서 西北方으로 約 8km 떨어진 好楮面 珠山里에 있는 이 遊園地는 물이 맑고 백사장이 광활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 第2章 碑碣 및 碑銘

지난 6.25動亂 以前까지만 해도 原州邑內에 많은 碑石들이 있었다. 現 中央市場 附近과 鳳山洞에서 沱庄洞間 路上에 數十個의 善政碑와 頌德碑 그리고 孝子閣과 烈女閣이 있었다. 6.25動亂 때 이 모두가 破壞 又は 埋沒되었다. 鳳山洞 路上에 一部 남아 있던 것은 6.25動亂 直後 道路擴張과 市街地 整備作業 當時 美軍 工兵隊에 依하여 모두 破壞 乃至 埋沒되었다. 때문에 中心街에 있던 頌德碑나 善政碑는 하나도 없고 一部 남아 있는 것은 忠烈碑로서 牧使 金 梯甲의 事蹟碑가 北門外 정지에 있던 것을 原州驛前 廣場으로 옮겨 놓았다. 原州市內에 6.25以前까지 있다가 埋沒된 碑石들은 다음과 같다.

### 第1節 善政碑

牧使 李 裕仁 碑 萬曆 48年癸丑8月 日立 樓門	具 思稷 碑 萬曆 34年 5月 日立 樓門
權 慶祐 碑 萬曆 40年癸丑8月 日立 樓門	洪 得一 碑 崇禎 3年 11月 日立 樓門
閔 機 碑 天啓 6年4月 日立 樓門	金 燾 碑 崇禎 3年 10月 日立 樓門
李 培元 碑 崇禎 9年4月 日立 樓門	鄭 維成 碑 壬午 4月 日立 樓門外
朴 純義 碑 立沙川	李 楷 碑 丙申 4月立 北門外
李 峻岳 碑 順治 17年庚子 10月 日立 衙門外	許 秩 碑 乙卯 10月日立 樓門
宋 時喆 碑 立 樓門	姜 琛 碑 癸酉 10月日立 樓門
李 益著 碑 1立軍門外 1立沙堤村 1立 旆乃 20里郊	
李 萬稷 碑 立本部 可馬兄	判官 李 明中 碑 安昌路邊 岩刻
李 圭新 碑 立客舍前	宋 基弼 碑 在 客舍前
洪 履燮 碑 在 酒泉	宣諭御使 李 奮 碑 立樓門
觀察使 李 明漢 碑 在 樓門	尹 履之 碑 在 布政門外
柳 景緝 碑 立客舍外	洪 得一 碑 立 樓門
李 濡 碑 在蛇峴岩	李 雲徵 碑 立 樓門
柳 慶昌 碑 立 樓門	鄭 始城 碑 立 樓門
崔 重泰 碑 在 蛇峴岩	金 禹錫 碑 在 蛇峴岩
金 致龍 碑 立 碑門	俞 得一 碑 立 樓門
李 喜茂 碑 在 蛇峴岩	呂 必容 碑 在 蛇峴岩
李 台佐 碑 在 客舍門外	沈 鏞碑 在 蛇峴岩
李 時秀 碑 在 客舍前	李 魯春 碑 在 客舍前
申 獻朝 碑 在 客舍前	洪 義謨 碑 在 客舍前
南 履翼 碑 在 紅箭門傍	申 在植 碑 在 客舍前
尹 命烈 碑 在客舍前	徐 迥修 碑 在 客舍前
鄭 尙愚 碑 在樓門	鄭 元容 碑 在 樓門

李 紀淵碑 1立在 蛇峴岩—在栗木亭

以上の 碑石은 모두가 善政碑로서 原州市內에 있던 것으로서 樓門이라고 한 곳은 現 鶴城洞

驛前 遇邊이었으며 客舍前이라고 한 곳은 現 原州 中央市場과 自由市場 사이가 된다. 그리고 北門外라고 한 곳은 現 驛 後便 鶴城國民學校附近이며 蛇峴岩이라고 한 곳은 現 鳳山一洞이런이  
들이터 앞 鶴鳳亭 및 路上을 말한다. (그러나 以上 碑石들은 하라도 남아 있지 않다). 다음에는 現  
存하고 있는 墓碑와 碑銘

## 第2節 墓碑와 碑銘

### (1) 參議公韓百謙久菴神道碑銘

有明朝鮮國通政大夫戶曹參議 閣領議政久菴先生韓公神道碑銘

萬曆43年乙卯秋久菴韓公考終于漢師西郊勿移村之私第計出賢公卿大夫以同道經生學子以考德傷離

平日不相識亦皆齊咨歎惜曰善人亡矣所莅郡邑父老子士爭來致奠聞哭之甚哀君子以爲得此於人蓋有道

焉質端而氣和言溫而顏恭其慈詳足以利物其惻愍足以動人其秉平恕幾采所謂無怨於一人宜其死之哀

而歿之不忘也嗚呼此可謂善觀公者而遇若公之所存又有非此言所可及者公諱百謙字鳴吉其先清州人

名蘭當麗興初勳墜上三韓爵三重大臣位太尉子孫世冠冕有以功業顯有以德行著相望於麗乘入我朝有

名尙敬策開國勳官至領議政論文簡議政生成吉道觀察使惠觀察生左贊成繼禮贊成生漢城府判官諱士武

是於公爲高祖 贈左參贊曾祖諱承元旌善郡守 贈左贊成祖諱汝弼文川郡守 贈領議政考諱孝胤以禮治躬

爲時所重不幸早世卒官兼春秋館記注官 贈領議政貲貞敬夫人申氏麗朝忠臣臣壯節公崇謙之後禮賁寺正

健之女也公生有美質幼而耽書十七八概然有求道之志間習靜閣公純隱居行誼以古道訓後進造其門請教

閱公與語而愛之乃告日子不聞朱子之說乎修身大法小學書備義理精微近思錄詳之作聖根基不外 二

書士欲爲學當從此人公惕然感發遂從而卒業得問功程師友淵源甚親切雖嘗隨象作學子陞上舍所貴不在

焉庚辰丁外難外除纔開歲又受重王母憂積年染疾絕無外誘乃得專意於窮格之功先取啓蒙書沉潛觀玩夜

而繼日其於象數原變化之妙蓋有神融心會欲罷不能之味自是屏去科業杜門下帷大有力於義理之書上自

六經語孟之志下逮濂洛關建之言無不漸涵尋繹反覆參考其研索之精見識之透已非世儒所及而專於爲己

恥求於聞常以窮欲爲務人亦鮮知焉爲學之士丙戌有薦者授中部參奉尋換慶基殿未幾又換宣陵病不就已

丑逆獄起柄權諸務入人一時縉紳多見誣讎公坐在湖南與 李震吉相知彼收待幾死責配慶源壬辰蒙大霽路

梗不得歸適有邊民煽亂以應倭官軍潰散莫敢誰何公與同敵一二舍人瀕泣號召得首惡者誅之一方以定事

聞行在特叙爲內資直長明年始授 朝移拜漢城府參軍甲午 宣祖開講筵命進讀義易竟重更始之初也帷幄

諸公共薦精於易學諸破格入侍以資講說上許之事雖中廢時以爲榮大巨急人材建勳以十條取士勿拘資格

公學術識時務應旨選擢拜戶曹佐郎尋移刑曹出補安岳縣監治嘗最歷授咸鏡安岳民諸公車號縣命增

秩而仍之已亥有不便謝痛歸廬子以刑曹正郎除寧越郡守辛丑弟西平公貳體府臨本路法應避授工曹正

郎宣廟以周易傳彖互 有不同句讀音聲當頃兩存而學者偏主程傳 命聚中外儒臣設局而釐正之未出身與

其選者公與洪公可巨鄭公述數人而已尋以詔使將至停其役出公爲延安府使詔使回馳驛召還陞司諫寺正

討論商議多出於公事完賜一等寅時公已爲清州牧使特命進參亦異數也甲辰本道上貴續下教書褒之進陪

通政丁未考滿入爲掌議院判決事遷戶曹參議議改申宣祖昇遐兵火之後機輒散失禮官當大事蒼黃間措大臣

知公習於禮極令入治殯殿事屢飲諸儀賴而不愆時貞敬夫人享西平公榮養在平壤不安節呈告馳省上章乞

解職因極論賈物之獎爲生民大憂并陳改絃之策節目甚詳事下廟堂李相公元翼力聽撫已善其言建置憲廳

先試京畿畿民之息肩自此始五月丁憂庚戌服闋例授西御唱然數日吾素多疾痛不樂仕進今老矣親又不在

豈亦從吾所好以終餘年先是西平公買田西湖下水移村以餉公公亦築小屋以居使暇赴任俄解綬歸至癸

丑之變西平公被重譴益無意人世藏坡州解由於家却掃深居絕口時事日子任掌談說經史細釋義理瓶粟屢

空而晏如也越二年流頭日舊時食家廟因傷暑疾革遂不起享年六十四西平擊其孤以黃東卜是年九月葬干

原州治西佳麻鳥先兆次用顯命也姑議政既歿公梓家墓奉貞敬夫人承顏義志靡不曲盡室妹未笄者數人教

養以方婚嫁以時時王母夫人亦在堂期功滿室而能左右周旋未嘗以事育之具少貽貞敬憂常慕張公藝之風欲與宗人共襲略倣司馬家儀草成一書以爲制財用給養餼之規雖力屈勢拘未克如意猶與西平公半歲同財婦媼僮僕皆服其誠家庭穆然處事制行動以古人爲法如冠婚喪禮之儀必博考禮經務要情文兩盡平居端坐一室凝神靜默終日讀書聲不出口望之莊重若不可親而及其接人則和平樂易披露誠悃人無賢愚皆得其歡心遇後生小子必爲之陳說道義其言明白懇惻簡易條昌扣竭兩端皆欲其入於善蓋其好善之誠無間人已故其爲郡邑亦是心行之興學講武必先教養治民御史一以恩信未嘗以鞭撻督責爲務凡有設旋春春於遠圖而不欲求効於目前故當國家多事競爲嚴急之日能體統相維情義交孚事集而民不怨規模布置常爲後至者所取法公爲恬夷簡靖若無所能而見諸行事必詳密有條理窮經致用之力也公之學以思爲主字求其訓句求其義錯綜處欲其融會疑會欲其破綻反覆研窮不得不措諸誦六經文字爲註疏所掩寢失本旨讀者不可太泥於心有所未安則雖先賢所論亦不苟同如孟子恐慕章曰孝子之恐正所以慕其親自與不敢疾恐別是一義故此章及小弁章皆先言恐意而歸宿以慕字孟子之意斷可見矣豈獨子之於親爲然臣妾之事所天莫如此此終風離騷所以爲忠臣節女之先唱而人不以訕上詈夫疵之也怨望之律擬之之道乃漢家深文非先王忠厚之意也眞所謂發前聖所未發而有功於世教者大矣在北塞艱危濱死猶以書籍自娛有生死相徇意方徹縣西平公侍扣以死生之理則公已氣不續而猶舉大易原始返終之說作喉中語以應之且吾誠不自遜於書有一點明處恨病不能自力止於此耳其終始與學之誠顛沛不貳至死炳然嗚呼眞可謂篤好矣所著若干篇藏於家其言理到多可傳者間或五言於先賢成說之外雖其精粗淺深有不可易言而覃思力索之功開卷者嘗自矣知公先聘綾城具氏士人思仲之女未一年而歿繼室以金氏咸昌大姓也麗朝侍中寶文閣大提學麟苑之後兼節校尉廷俊之女妣全州崔氏成均生員應詢女夫人生長鄉曲家素饒財能勤儉守禮法事舅姑奉祭祀一遵夫子之爲行罔或失墜處兄弟媼姪之間盡其愛敬撫育甥姪不啻己出宗族皆歸仁焉夫人生于癸丑後公十七年而歿享年七十有九舉一男一女男日興一弘文館校理娶判書吳公億齡之無子取從兄會○之子以明爲後女適士人洪渠興一有錄靖社原從贈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夫人卦貞夫人公卒之蓋十年西平公以書來徵銘於經世日知吾者多矣其深莫如子子其圖立應經世從公遊久聞所未聞者多觀異日學少進得以就正今已失所圖矣惟是直叙平生以告來世及不華者之責其忍辭諸謹撰西平公之狀參以平日所親記書其大者如系以銘日

溫溫德基大雅有訓昔公舉此日學之本我繹思之亶其旨哉先賢立言志孫修來既而 公允蹈斯語思學兩進謙謙作所幽明鉅細索邱墳典靡不探會之一源既有而實若無若虛神明內腴和煦外噓人悅其光莫窺其蘊其蘊伊何可施而運小施于邑非而未究卷懷長逝在公奚疚莫久匪言不朽者存銘而相之石于墓門

愚伏鄭經世撰竹南吳坡書

## (2) 文翼公諱浚謙號柳川神道碑銘

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兼知春秋館事五衛都總管西平府院君贈諡文翼韓公神道碑銘

吾東方世家名聞載於國乘者班班可譜然或始盛而終衰中室而遂不振至於世繼赫業彌久而彌昌者則清之韓爲最其日蘭佐麗祖統合三韓位太尉三重大匡公至諱康用儒術顯相忠烈王爲中贊諡文惠日謝奇寶文閣提學日渥右政丞上黨府院君諡思肅日公義政堂文學清城君脩平簡日諡右文館大提學亦以勲封城君諡文敬日尚敬領議政西原府院君諡文簡日惠威古道觀察使日繼禧左贊成西平君諡文靖蓋 九代連爲卿相是後四代官雖不大顯亦皆聞人諱士武漢城府判官 贈左參贊諱承元旌善郡守 贈左贊成諱汝弼中樞 府經歷 贈領議政諱孝胤以經禮學重諸公間卒官鏡城判官 贈領議政公其第三子也諱溪謙字益之號柳川妣平山申氏太尉壯節公崇謙之後禮賓正健之女以嘉靖丁巳生公於漢城之第岐○風成六歲能屬文出語驚人甫十二三所興遊皆名勝間有吟述人多傳誦己卯生員壯元進士第七其發解俱擢三場而詩疑亦居魁華譽籍甚庚辰遭議政公憂乙酉薦授泰陵參奉丙戌登第即選吏局爲檢閱尋錄玉堂南床宣廟出御題命儒臣製進公居首賜豹皮褥李公山海函稱之曰他日秉文衡者必此人也又次 御製詩以進賜馬粧俄薦注書還奉已教丑

例陞典籍即出補矜川縣監宣廟詢于政廳知公有老母及點下群議譚然以用顛倒効政官秋賜暇書堂冬汝立謀逆事覺公坐薦李震吉論罷被逮經月得釋伯氏參議公亦杖配北塞人皆爲公危之而公處之怡然買田原州移家就農壬辰叙拜禮曹正郎江原都事侍講院司書冬拜原州牧使拓集流込振無疲羸一境賴之乙未以持平召移弼善正言弘文館校理兼弼善都體察使柳相成龍辟公從事出巡兩西柳相器重公契許如平交有軍國大事須公參決迂議方欲不次用公一日政擬副修撰又擬嶺南方伯世所僅見也俄拜校理兼輔德薦拜議政府檢詳舍人歷副應教司諫輔德執義兼承文院參校掌撰召揭文書丁酉八月自典翰特拜同副承旨陞至左副時賊迫湖畿天朝提督麻貴邀上并馬渡江請遣有智謀宰臣一人先往備葛糧上即命公往賊敗乃還陞右承旨建請依天朝設擺撥邊書疾傳至今稱便冬陞拜京畿監司戊戌辭遞僉樞拜大司成己亥出爲慶尙觀察使時洪汝諄等既構劾柳相欲并及公未有以發之也及公按嶺南素惡鄭仁弘爲人過其門不有所托亦不施仁弘大憾嗾其徒文弘道構捏論罷庚子叙拜兵曹參判同知春秋館事辛丑兼四道都體察副使壬寅復自兵曹參判出拜全羅監司癸卯辭遞授禮曹參判時疆域多虞上謀元帥於大臣李相德馨曰韓某職秩雖卑望實具優無諱於此人遂拜四道都元帥嘉善元帥國朝一人云仍拜弘文館副提學甲辰移吏曹參判遞授副提學工曹參判冬復拜吏曹參判兼右賓客乙巳視師于湖嶺將行乞解銓不許有旨召還賜內厩馬屢辭得逝拜大司成副提學特陞戶曹判書值丙午詔使之行能調度贏詘接應有裕歷大司憲兼同知經筵事出拜平安盛司戊申丁夫人憂制除拜判尹大司憲成鏡道觀察使下車之初慨然以風化自任禮高年旌行異誘掖士子設爲程式以與勸刊家禮小學冠婚喪祭之制課以方書廣布閭巷俾民誦讀天荒之域一變文教癸丑死囚朴應屏與爾瞻謀從獄中上變獄讎爲逆遂殺國舅延興府院君金悌男囚永昌大君于江華辭連薦紳初宣廟疾大漸憲光洵不克保骨肉乃手書遺教畧曰死生有命夫復何言但大君幼稚未及見長成以此耿耿耳我不幸後人心難測萬有邪說願諸公愛護扶持敢以此托之外面書公等七人名封置宮中諸公莫之也至是爾瞻謂遺教爲矯誣獻紉柳活等先論七臣不即辨明公亦削任板俄有鄭浹者受凶徒陰誅廣引名公卿逮捕四出公又被囚光海親鞠問狀即放歸田里公與廷興素不相能有事可證臨聽親戚勸公供實公曰死生命也急難之際賣人而圖免吾不忍爲蒙釋之日即出湖庄與伯氏參議公分山而居杖屨來往討閱經史詩酒爲樂凶徒欲來訪避之不見有候問亦不答其待小人之嚴如此爾瞻輩欲遂廢母后追戮延興屍陳諸市丁巳復論竄七臣公付處忠原集茅爲數椽居謫五年不出戶庭辛酉量移驪州奴賊陷遼聲言東槍中外凶凶將出元帥而難其人備局會推以爲非韓某不可遂自謫所叙拜知中樞府事兼五道都元帥積禍之餘賄勉赴召而時事無可爲者矣公拜疏乞免光海以大寒索裘爲批冬賊至林畔公收拾舊部伍疾驅而西開府中知癸亥我聖上學義反正中宮殿下正位坤極進拜公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西平府院君朝議以國舅禮尊不宜居外召公還公承命踰蹠寢食不寧兼留都都體察使公以椒親不當與軍國事屢辭不允甲子逆适稱兵公扈駕南遷适誅厖還兼知春秋同修光海日記力辭不拜又辭遞都體察使都總管丁卯奴賊之變公以陪衙大將從王世子分朝南下至全州爲撫軍司堂上課護說施軍民大悅賊退奉分朝會行在還京疾甚公招子弟書啓草若將有遺表而已不能言矣猶使正席遷廳事遂卒七月十七日也春秋七十一訃聞上震悼輟朝三日遣中使庄喪事王世子即日舉哀屯葬臨吊自卿士以至禁族市民胥吏僕隸莫不奔走涕泣曰善人亡矣國其如何來吊者哭之皆哀甚會窆者三百餘人其年九月壬午葬原州陰枝村庚向之原(後移葬安山大月里)太常議易名之典贈諡曰文翼公夫人黃氏昌原望翊世有衣冠諱考城禮曹正郎贈吏曹參判娶高原郡守李公阜女生夫人於辛酉年十四歸公端莊淑哲舅姑愛之治家主饋咸有法式公家素貧朝夕假貸而頻繁酒食之供未嘗見寺色年三十四卒于原州牧衙後贈貞夫人進封檀山府夫人舉二男四女長曰會一南陽府使娶判書李誠中女生二男三女男以成以平女適士人申翊隆鄭何餘幼曰一秀而夭娶領議政柳永慶女生一女亦夭女長適宗簿寺正李幼潤生一女適別坐安獻規次適侍講院輔德呂爾徵次適大司諫鄭百昌生一男一女男曰善與女幼次即我中宮殿下載誕元良尊居儲貳次曰鳳林大君(李宗御諱)曰濟曰滾賻夫出閣側室有二女許通李煥珍原副守世完其婿也以成娶典籍安弘量女生一男申翊隆二男一女鄭何二男安獻規三男一女煥一女世完一男皆幼公額秀而氣完質厚而材良寬平而嚴重篤實而華雅望之

## 第6編 文化財と名勝古蹟

知爲大德君子平居無疾言遽色舉止凝遠恒若有所壽度接物渾是一團和氣間人過輒不樂雖可怒不形於色辭人或故激之亦笑而不嗔其彼逮自址來也金五郎承賦臣指窘辱備至公待之益恭飾子弟無敢恐言後有問其名者終不言嗜儒教書尤好禮學博問強記觀書數行俱下一經眼終身不忘明習國家故事交獻典章損益沿革靡不貫穿以故朝廷凡有事必就質於公考友敦睦出於至性早與伯氏參議公受庭訓一家之內恒有師友講磨之樂事大夫人色養無方雖在患難貧約必書脂隨之供逮公歷鎮雄藩參議公連宰巨邑迭奉板輿極繁華娛樂之榮每壽席大夫人輒止衆樂使奏感君恩公演其辭爲續曲以進又與朝中士大夫作壽親楔時節稱觴上壽宜廟特賜酒樂以榮之其歸親也必賜藥物公每勸仲氏早逝姊妹多歿無諸孤逾己出與參議公半世同居索棧之樂至老如一日重然諾好縣施威故窮乏者咸取足焉設同宗會以明昭穆之序清州有太尉舊里伯氏牧是州公議於伯氏築壇以祭立石記之嘗築小齋於松楸扁之曰歸來蓋州其雅志也爲文平鋪瞻暢不事溪靡詩又適逸有趣不喜諛詡故牧錄不多惜矣噫公以文章行誼遇知宜廟負一時經濟之望入而論思經幄出而宣力四方風猷顯重績庸茂着此可以觀公之業歟屢遭禍網不以爲戚起謫所登將壇不以爲泰卒遇之若素忽歛之如寂其可以進退榮辱窺公之淺深哉身都官府位絕百僚而宅不廣一架奴俸之籍不增一人恭儉之操晚而益篤此亦公之細行也超然富貴之外絕口不道時事扶植士類遇絕姦倖使君子有所持小人不敢肆致國家和平之福此可以觀公之大歟餘公文酒遊徒四十餘年矣一未見暴慢之色一未聞妨害之言公眞長者矣既葬之明年公之胤南陽公以大司練鄭公百昌之狀位而叩余曰先君雅重子大夫人幽墟之石子實銘之今謹治石以俟此蓋先志也願子之絡惠也凡往返三四請益勤則謹鄭公之狀若譜得其所以基于初盛于中施于復者如是而公之德業有以光大先烈者又如如是也銘曰遠矣華胄太尉業之

### (3) 八溪君諱鄭宗榮神道碑銘

故贊成八溪君鄭公以文學德望으로 爲四朝名臣하고晚年勇退之節은尤令人聳慕而端夏 夙從家庭鄉黨間하야 習知公事行이有深於世之知者라 今公曾孫觀察使鐵斗縣宰錫胤과外曾孫崔承旨文湜諸公이相繼過 端夏曰先祖墓隧에 尙闕幽誌라 蓋嘗請銘於先大宰而不獲幸하고奄 捐館舍하니龍門未就之業은責實在子라 子繼繼圖而克成之也요 端夏辭以不文하니觀察使請益堅하고於私義에 亦有未忍終辭者라遂據 聽天沈相國之狀而兼彩家譜하고 問附舊聞하야叙而銘之하니 謹按 公諱는宗榮이요字는仁吉이요號는恒齋니鄭氏는望族이라高麗禮部尙書 贈光儒侯諱倍傑은 其上祖也라 是生貞簡公文하니 亦位禮部尙書 麗史有傳하고其後有諱曰允耆曰僖이 皆爲集賢館大提學하고 至諱溫이武科通政 贈工曹參判하니寔公曾祖也라祖諱允謙이亦登武科하야策靖國勲하야 封清溪君 贈兵曹判書諱莊襄公하고考諱淑은 唐津縣監 贈左贊成하고妣慶州金氏는鷄林君裊後也라以正德癸酉月日에生公하니生有美質이라八歲에喪妣하니哀慕如成人하고 少病弱호대猶自力學하다 稍長에師慕齋金先生하야受性理書하니 考



索精深이라先生이函稱之하다 庚子에陞丙舍하고癸卯에登文科하야 選補槐院하고屬入吏館하야爲檢閱하다乙巳에 轉至奉教하고 丙午에陞成均館典籍하고由殿中戶曹佐郎하야 出爲平安道評事하다時에土禍大作이라 公이於柳相灌에爲姪婿하고 又於三大臣之死에秉史筆書法不隱하니 同僚는 有禍及者而 公은素謹飭하야無可媒孽故로止外叙하다 丁未에八援戶曹正郎하니主將이謂公有親趣還하야函設錢行하니 公曰代者未至에豈可以私情으로廢邦憲가하고仍從巡江邊하니主將歎服하다 會에東臯李相國이還自關西하야薦公于朝하야 以司諫院獻納으로召還하니啓陳兩西民瘼하다 戊申至壬子에爲弘文館副修撰하고 歷踐至副應教하다 移憲府하야爲持平掌令하고間授禮工曹正郎 司僕寺僉正兼春秋館記注官宣傳官等하다 嘗薦銓郎이나爲元衡所擠하야竟未授하다 公在玉堂에陳復昌이爲提學이라公이醉 賜醢하야切責復昌所爲하고引觴罰之하니傍觀悚然하다 及在霜臺에維新人崔賀孫이希權奸旨하야 欲嫁禍士林하야訴縣大獄有餘黨하니 復昌이爲大憲이라強欲聽受어늘 公曰此非憲府所知라하고左右遂合辭却之하니 復昌이噤口甚이나然이나終不能害也하다 明廟 命揀朝臣之廉謹者하니 公이與焉하야賜宴 闕庭하고且賜物以寵異之하다 癸丑에丁外艱하니 上이特賜祭需하다 公은廬墓盡禮하고 一不到家러다 制除에以校理召하야 歷拜執義議政府舍人檢詳應教典翰하야至直提學하니三司則前後薦除가多再授하고 丁巳에特陞刑曹叅議하다 朝家嘗釐定四書口訣하니公이爲都廳하야 至是句管卒事하고拜同副承旨하야 序進至都承旨하고特陞工曹叅判하고 尋出觀察江原道하다 秩滿에襲封君하고特拜漢城府右尹하니 方李樛用事하야忌公久置散班故로有是命하다 壬戌에出觀察慶尙道하니元衡親黨이多守郡邑하야特勢貪縱이라 公이悉貶逐之하니元衡이大卮하다 又有妖僧이稱內旨고 伐盡 仁廟胎封樹木이어늘公이嚴訊置之死하니 東朝震怒하야命遞方伯이러니三司并爭하고 太學陳章하야得仍之하다 癸亥에貳京尹兼同知義禁府하고由工叅出觀察平安道하니辭日에賜煖帽皐比하다 按事에痛革秕政하고 儉己裕民하니一方이懷之하다 俗尙弓馬하고昧儒學이라 公이悉誠導誨하야建書院于平壤하고 又設印書局하니自是登科名者繼踵하다 秩滿에以大司諫召하야未至에移拜吏曹叅判하다 公에庶姑는爲元衡寵妾이라元衡이顯國에舉世附麗하되 公은獨毅然自守하다元衡이初不知公心하고當乙巳構禍하야 欲使公叅勲하야邀與語하니 公이佯若不識其意者라元衡曰此不可與計大事라하고遂疎之하다 元衡이又以妾爲妻하고受封誥하니親屬이咸畏敬之호대 公은獨不加禮하니內外積憾하야 累欲中以奇禍로대賴妾母救護得免하고 至是元衡이敗하니始登顯仕하다 丙寅에擢授京兆尹五衛都摠管하다 丁卯에以進香使朝京하고 及還에以皇朝所見聞陳啓하니 意在諷諭하야勸戒深切이라人韙之하다 冬에以刑曹判書로出懷詔使라가中路病遽하고仍留爲錢慰使하다 乙巳에朝廷이有南顧憂라大臣이舉公巡察全羅道하니 道內爲清하고戎備一新하다 秩滿에拜刑曹하고辛未至乙卯에歷拜吏戶工曹判書하고 再拜吏兵禮刑하니工則五授하고間知中樞敦寧兼知 經筵春秋備邊司堂上하다 仁聖王后不豫하니公이以內醫提調侍藥하다 方當盛熱하고爐火四周호대 公은不脫冠帶하고終日端坐하니人以爲難이라 以勞陞正憲하고再爲叅贊하고 擢拜右贊成하다持論者知 公이將大拜하고恐其裁抑後進하야論請改正하니 上敎略曰 新贊成은曾在先朝에不媚於竈하고 逮及寡躬에稔益弘多하니 其才其器는固非不合이요 但不如時人之矯激耳라하니臺論이即停하고遂辭遞하다 再爲判中樞하고壬午四月에乞致仕하야再啓不許하다 嘗有詩曰周流八部今成老하니端合田園退省愆이라하다 公이每欲退歸而勲府에無他宰管領하야以是遲回者六七年이라가鄭西川崑壽襲封하니遂決退志하다 己丑에命家人하야勿受夏祿하고乃伸前請乞骸하다 上이命啓舊典하니 禮曹以退溪乞致仕로授啓라 上이特允公請하니實曠世盛事也라 特命給馬하고且諭本道賜食物하다 公이陳筵辭謝하니答以欲爲引見이로대 聞卿이艱於行步故로不果라하고仍賜毛褥藥物하고遣中使宣 醢於江樓하고命一行親屬并人參하다 行路聳觀하야歎息泣下하고頃都出錢하야車馬無算하다 即還原州故家하야日與鄉里親舊로優遊山水間하야歌酒娛樂하다 七月에寢疾하야以八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月十一日卒하니 壽七十七이다 上이震悼援朝하고 賻祭如令式하고官底葬事하야 十月二十三日에 禮堂于橫城縣北公根里子坐之原하다 鄉士追慕하야配享于原州七峯書院하다 公의資性이愷悌하고 局量이弘毅하야以嚴敬飭身하고以禮法御家하며 日必夙興하야正坐觀書하고口爲疾言하고 體無惰容하며年踰七十호대祭必親執薦奠하고 睦婣任恤에恩義周遍하다 與庶弟妹析貨에多出已得與之하고 慕齋卒後에는母事其夫人하며子視其後嗣하고 忌日에는必助祭食素하야誠禮備至하다 國忌亦然하야雖衰老不輟하다將詣 經筵에必易服齋戒하고取進講書至夜深하다 恬靜却掃하야不事交遊하고 定力堅確하야不爲威利所奪하고 見人過誤하면專務蓋覆하고人有毀已하면 若不問하니其人以後自媿服하다 慮事綜理緻密하고巡歷邊陲에不憚險遠하야 關防要塞와兵力殘盛을一經瞭然하야早被儒將하니 世將以師坦重望歸之하다 按四道爲六卿하야必以興學固本하고 遵守成憲으로爲務하야雖不汲汲於施爲而自有月計之效하다 久掌司冠에按獄平恕하야唯恐有冤民이라 嘗以執法緩刑으로忤當路罷免하다其主本兵에公이選任振掩滯하니將士咸悅하다 時에士論方貳라公은介立不倚하야絶不與後輩相昵하다 初爲吏判하니不悅者彈遞라가未久復授하다 郎官이未嘗開款通塞人하니 郎官이因子弟하야告銓規不然하니 公이笑曰公座亦可商量이니何必私議오由其莊重始此하야 深爲後輩忌憚하야或遭撓撫나亦不恤也하다 居家에不問有無하고既爲宰相호대非公服이면不衣錦하고 非衰病이면不乘輜하고 未嘗增拓居室하며經理田園하되但歸庄戶하다 輟賦에必先齊民하고常以盛滿爲懼하야 婚嫁에必避朝士家하다 每戒子弟曰吾未嘗求便於己而貽害於人이라 若曹體此意하면庶乎寡過矣라하다 公이學務本實하고不尚詞華하야或有吟詠이면無非發於性情者也라 早從碩師하야講學最專이라一生沈潛經訓하야手不釋卷하다 柳公眉菴이嘗稱公曰讀書之功到老尤著하니 此不可處也라蓋眉菴이少與公同學故로云然也라東阜相公은以精金美玉으로諭公하고 蘇齋相公은亦謂公鐵石肝腸하고曹南溟은嘗作詩美公하야 有丹鳳高飛不待風之句하니 蓋其避遠權執也라人이有問公於洪相暹하니字其季公疊曰太虛는清濫하야少許可로대 惟於某則敬服不已라하니 即此數君子之評은亦足觀 公德矣라 公先娶文化柳氏는司導寺正淸女호대後娶星州李氏는繕工監役淸女니 星山府院君溍后也라賢有婦德하야理 勤敏하고 自以紡績하야取美衣食家衆하고 別藏公俸祿於一庫하야以備不時之需曰官祿은非常有者라 經用을何可靠此리요하니 此는公之忘內顧而專心德業者也니 蓋賴夫人之助也라 夫人이生嘉靖癸未四月五日하야 卒萬曆己亥九月二十九日하니 壽亦七十七이라耐葬公墓後하다 有四男二女하니 男長燾은通政牧使요 次烈은別提니老職嘉善이요 次默은郡守요 次穀은文科觀察使다 女長은適 贈大司憲崔景祥하고次適進士趙文璧하고 側室四女婿니 朴大慶尹湜 金仁元 李興孝다 燾은四男이니長基廣은文科左尹八川君이요 基成은副護軍이요 基平은宣務郎이요 基豐은文科承旨다 五女니丁好敬은進士요韓復胤은都事요權宗吉이요 尹穀立은判書요 李應著는大司憲이다 烈은二男이니基南은敎官이요 基達이요 四女니李奇英은判官이요 高愼吾요元慶寅이요韓泰一은察訪이다 默은一男이니基磅은監察이요 三女니李盼이요金琰은牧使요洪順一이다 穀은三男이니基崇은府使요基徵이요基岡은縣監이다 二女니朴純義는牧使요宋暉吉이다 崔景祥은五男이니基錫은通政基鐵은嘉善并老職이요 基鎔基鏞는別提基鉅은文司藝다一女니禹弘績은正字다 趙文璧은一男이니基蕃은老職僉知요 三女니南宮苒李天直金輔臣이다 朴大慶은三男이니愼明愼哲愼行이요二女니李淑行金仁忠이다 尹湜는二男이니 己生壬生并武科요二女니柳潤洪仁立이다 金仁元은二女니 丁潤英은武萬戶요閔應說은進士다 外孫及内外曾玄孫以下가多至二千餘人이라主公記者는 朝廷이例加錄用하고 玄孫洙明은方爲縣監이다

銘曰

光儒之後世其文學 亦用武進公其厥緒 既文且武廉白忠蓋 出曜福星入輝卿月 咫尺秉鈞學有淵源 行無瑕玷正士完人 休致邊鄉國朝无二 疏傳於漢位匪不崇 名非不尊視德未滿 宜爾子孫昌大輝赫



畫錦相承述此銘章 揭其墓道百世是徵

嘉善大夫原任吏曹參判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同知成均館事 李端夏 撰

曾孫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鎭 篆

外後孫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知製敎兼徑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丁昌燾 書

崇禎甲申後六十四年丁亥月日五代孫通訓大夫 橫城縣監 宇 柱 立

#### (4) 莊襄公諱允謙神道碑銘(所在 原城郡好橋面光格里)

##### 神道碑銘

公諱允謙 字益夫니 系出草溪하다 鼻祖諱倍傑은 顯于麗朝하야 官至侍中封光儒侯하고 門徒之多是殆埒崔文憲하다 子貞簡公文은 迺克趾美하야 屢知貢舉하고 其後曰允耆曰億이니 亦世其家하야 並爲進賢館大提學하다 入本 朝하야 有諱便은 通禮門奉禮郎 贈禮賓正하고 諱興은 贈僉知中樞府事하고 諱溫은 僉知中樞府事 贈工曹參判草溪君하니 皆以 公貴로 推恩三代也라 參判이 聘生員元自敏之門하니 公其胄子也라 生未踰失恃하다 及長에 志業에 志業未究去하고 事弓馬하야 頗通曉六韜之法하다 弘治辛亥에 國家用事北鄙할새 成廟即禁苑하야 親閱從征士勇愔하니 公射居最라 特賜酒褒諭以遣하다 明年壬子에 濯武科屬訓練院하야 序陞參軍하고 逮躋參秩歷司憲監察 軍器 廣興軍資主簿하고 轉司僕判官하다 正德丙寅에 參靖國功하야 賜勲號臧獲田土하고 仍超授軍器僉正하다 丁卯에 遍力功臣官秩하니 公亦與하야 陞通政階하고 出守杆城郡하다 俄丁外憂하고 又值繼母服하야 居草土者五年이라 服 卽拜熊川府使하다 公이 承倭寇兵燹之餘하야 力補羸弊하야 實復其舊하다 秩滿에 內授西衙하고 兼將禁旅하다 未幾에 出鎮忠清水軍하고 踰年에 濯拜咸鏡南道節度使하니 首請築北青城하야 以壯營鎮形勢하다 戊寅에 以僉正中樞召還하다 己卯에 特授會寧府使하고 進秩嘉善하고 封清溪君하다 庚辰에 移鎮北道하야 居二瓜하니 勞益著하다 嘉靖壬午에 由同知中樞 節度全羅水軍하다 時에 殺掠上國逋倭가 漂到我境하야 出沒諸島라 公이 至鎮하야 大修戰艦하고 嚴利器械하야 癸未夏에 追勦倭船하고 擒斬賊賊하니 命力一階하고 仍賜弓矢衣帶하고 又遣侍從宣勞하고 中朝亦賜白金獎之하다 甲申에 遞授訓練都正하고 乙酉에 賀 聖節于燕하다 丙戌에 平安謀師難人할새 僉舉屬公하다 巡歷既訖에 卒伍中有弓鉞甲冑弊鈍者면 官爲易新하니 由斯戎備一新하다 戊子에 有鎮將이 輕涉虜境遇害者하니 公이 坐不戢하야 謫拜唐津하고 秋賜鑲하야 己丑에 超授上護軍하고 庚寅에 摠戎忠清하다 任未滿에 坐无妄하야 復配橫城이라 是年에 蒙恩 得釋하다 壬辰에 西叙僉樞하고 兼帶副摠管하다 甲午에 轉同知中樞하다 公이 素有謝事之志하야 焉外 補三陟府使라 乙未에 換授寧海하다 丙申에 謝病就醫于京하고 六月에 寢疾考終하다 公이 生于癸未하야 至是嘉靖丙午하니 春秋七十有四라 訃聞에 命有司吊祭하고 官庇葬事하고 進秩兵曹判書하고 贈諡莊襄公하다 用是年八月에 禮窆于原州隔洞하다 公性이 清儉하야 不喜華靡하고 居常早起終日匡坐하야 不設情容하고 絲竹宴遊之娛를 未嘗留意하고 酒戶甚大로 剛制不飲하야 常不及亂하다 接人以此하고 莅官以勤하고 濟以綜密하야 隨事辦治하다 任邊○垂三十年에 勤身設備하고 盛陳軍容하야 常如敵至하니 有古良將之風이라 世以是多之하다 公配元氏는 禦侮將軍仲穉之女니 賢而有嫻德하다 先公三年而歿하니 與公同塋異室하다 生一男曰淑이니 唐津縣監이요 次室南氏는 有一男三女하니 曰淡이요 女歸左贊成尹元衡하야 恩封貞敬夫人하다 縣監이 娶忠義衛金季勲之女하야 生一男一女하니 男曰宗榮이니 登癸卯科하야 爲弘文校理하고 女適別坐趙舜資하다 贊成은 生一男三女하니 皆幼라 余雖年輩不倫이니 知 公行蹟最詳故로 贊成公이 以神道碑文으로 見屬하다 銘曰

故家積慶彌遠不窮 光儒啓源派屬于公 謝事素業蘊略珠鈴 動不言功蕃多寂廉 酬未滿効而止節鎮 非不自由歸裕後胤 況貴門楣延緒絡顯 責報之厚於古爲鮮 原麓儲祥寔藏冠佩 石表有儀用飭稚昧

嘉善大夫禮曹判書兼大提學 湖隱 鄭士 龍 撰



猶子副提學 凌 書

校 理 朴 泳篆

(5) 江原觀察使松浦公諱穀墓碑銘 並序

公의諱는穀이요字는晦爾號松浦니己未生하고丁巳卒하다 己丑司馬兩試하고甲午庭試에文科하야歷銓郎春坊하고 守江原道觀察使하야光海朝不仕하다 配安東權氏父察訪守요祖監司應挺曾祖監司希孟 墓在原州西北三十里之定面松峴里廬陵洞良坐合窆하다 碑銘曰草溪鄭氏는顯於麗朝하니光儒侯倍傑最盛하고其後累世以文學致位하다 有奉禮郎諱便이值麗運訖하야 遯跡原州以歿하고歷贈都承旨諱興과 贈工曹參判草溪君諱溫과 靖國功臣清溪君諱允謙과 唐津縣監贈左贊成諱淑하고至議政府右贊成八溪君致仕諱宗榮이復以文學德望으로爲四朝名臣하다 配星州李氏監役揜之女니寔生觀察使公하다

公諱穀字晦爾니公自幼德器夙成하고語默異常兒라 萬曆己丑에 陞兩司하고丁亥成公憂하야廬墓致哀하다 登甲午文科하야選承文正字하고薦承政院注書兼春秋館如例하고 遷侍講院說書 陞司諫院正言遞爲司書選知製敎歷弘文館修撰校理司憲府持平吏曹佐郎正郎常兼司書文學하다 漢陰相이開禮府할새 辟爲從事하야從征湖南할새 物命兼暗行御史하고及復命에 朝論方貳하야西崖相이譴罷李爾瞻等할새以公이曾尼其銓郎으로 薦斥하니公爲柳黨하야公即引疾解職하다 己亥春에 挈家歸原州先庄하다 俄除遂安郡守다가旋丁大夫人憂하야廬制如前喪하다服○에 拜司成하니時에 爾瞻等失柄이라公이復爲修撰校理하고 陞掌令軍資正하야三除司諫兼德輔하다 會에 鄭仁弘以都憲으로驟被 寵遇하니 垵中懾憚이라公惡其熾하야因事抗爭하야顯斥其失하니 仁弘大沮나然因此遞爲司僕正하고同諸儒하야校正周易傳義하다 歷拜檢詳舍人應敎典翰하고擢同副承旨陞右副遞爲禮曹參議하다 甲辰에 以陳奏使朝燕하고竣事還하니 拜右承旨遞爲兵曹參議參知하고出按江原道하다 秩滿復歸鄉하야仍欲休致라時에 爾瞻已擅朝라以蜚語構公하니 光海惑之하야物問其不仕狀이라 公이勉還朝하야力求補外하야以體府로薦蔭平山府使하야 俄被垵劾하니亦爾瞻指也라 癸丑禍作에 漢陰筭論全恩이라重得諱以卒하니 爾瞻이知公與有贊助하고密啓行譴하야事將不測이라幸權威有居間救之者하야得稍解라親舊皆爲公懼而 公不爲動하고唯酣飲沈晦라每慨傷時事하야語及長秋輒泣下하다 丁巳七月二十三日卒하니距生年嘉靖己未五月二十一日壽五十九다 明年春에 廢論決하니識者謂某公在者면必死於此라하다 公質直和厚하야持身待物에一以誠信하고居家簡嚴儉約하야 雖篤於恩愛而訓戒甚切하고撫恤親戚에先從孤寡하고 始推行鄉里하니莫不歸德하고當官奉事에廉節尤著하다 襟懷坦蕩하야不以外物累心이니然於去就從違之間에確然內守하야雖危機交迫이나未嘗撓屈하다 其在戎幕에與賊對陣하야刀斗徹宵而獨解衣卒睡恬然하니 漢陰이服其量焉하다嘗於丁巳歲首에 忽命酒飯하고 卽屏處酬之라夫人密問其故하니 公曰吾平昔若有一神童하야護我不離러니今辭去하니 我亦知不允故로禮而餞之矣라未幾而其言驗하니噫라其生死有異而能前知如此라即其所存者豈可測哉아 夫人安東權氏니曾祖希孟江原觀察使祖應挺黃海觀察使考察訪諱守다 配晉州河氏別坐灌女니庚申正月三十五日生하야夫人慈順儉勤하고 婦道極備라配公四十五년에 嘗違忤色辭하고 內外無間言하니推爲賢婦人하다 及寡而從子莅縣에 恒加飭戒하야務持節儉而周急親戚을 如公在時故로二郎君이皆以治績聞하다 己卯十二月十七日에 從長男基崇하야在楊口縣衙舍卒하니壽八十 生三男二女하니楊口爲長 次基徵先公歿하고次基崗狼川縣監 女婿長縣監朴純義次士人宋暉吉이다孫男六彭爲別坐及鎰鉦號楊口子요鏞鏞狼川子다孫女四曰李明徵韓五相楊口婿요曰李壽賓狼川婿次女未行하다 朴純義三男四女니男廷相廷振廷翼女長適鄭萊彥次適金鎰次適鄭載厚餘幼하고 宋暉吉三男二女니男長揆次授餘幼하다 曾孫男洙碩洙晚洙性鉉出이요洙賢出이요洙全出鉦也요餘男女皆幼하다 墓在原州西北松峴里 良坐之麓하니夫人同葬하다 鉉이婿於賤息故로二郎君要余序銘이니然이나植이托姻公家是其有所取焉耳라今

不敢孤其請하고亦不敢溢其辭者는知公雅志然也斗銘曰 有翹其英或撓而傾 此令君子唯德之行 師心契道物莫能攖 璞豈珍珎 桃自蹊成 有述匹美乃後與榮 銘茲不媿來世是程

資憲大夫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

世子右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 李植 撰

(6) 文肅公金悌甲收使忠烈塔碑 領議政兼領 經○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衆監事

(전편)有明朝鮮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水軍節度使巡察使毅齊金先生忠烈碑世子師行通政大夫守忠清道觀察使兼兵馬達所向判邑望風奔潰無能禦之者時公守原州舊義雪萬曆壬辰之亂東方自剖判以采所未有也兇土民土人姓鄭者素稱驍猛公島以同事鄭對以賊鋒銳漢募繁兵糧保鵠原城爲死守計以忠義勸勵謨摩而出之仰天嘆曰吾一死決矣乃益修守戰備晝夜甚冒出遊乘便圖之未晚也公叱曰奴不乞與一使誘令降且責之公立斬其使以徇軍中人皆股慄莫躬自巡飭城中待以無懼賊洞知公固守先遣莫如避之公曰守土之官去將安之敢言避者斬衆議遂敢仰視衆議以爲明日賊必大舉而采肆其念戰日過午矢盡力竭城遂陷軍官吳杭力士也欲背負以定翌朝賊果大至四面矢石雨集城中亦殊死避之亦可也遂朝眠坐胡床流矢中背猶不動賊執公迫避公曰平生受國厚恩臨難豈忍偷生若輩伯終始不離側與公同殺後夫人李氏亦伏劍而死方有之令拜公植立不屈罵不絕口遂被害少子時伯終始不離側與公同死後夫人李氏亦伏劍而死方有娠云吳杭等乘夜城收 得三尸與土人高峴藁葬于州之酒泉縣賊退始歸葬驪州地後移葬雨忠州福盛洞城陷前二十日寄子時獻書曰余今復何爲○只期不失一節而已至是果如其書初守鵠原也李判書璽以號召使在原之西界貽公書曰○欲守土死職奈城孤事急何須采與璽共事驪原之境隨勢進退可也公復書陳大義示以必死無貳李○○人曰此人忠憤如此豈人所移易者那惜乎其死矣

(후편)嗟嘆不已韓西平浚謙代牧本州報觀察窃念變起以采無一人效死守土者狎前牧使金以死守城至柘園門被害而不移其志朝廷嘉其忠節既 贈正卿之職則葬空之際宜有優恤之典請上聞于朝憲公之自守之○柘寄子書可見也公之見信於人於李公言可知也公之節義之高於西平報可驗也一城之中一日之內父雨死忠子而死孝婦而死節是昂發夫婦之雙節卞壺父子之并死可謂兼之也捨命不渝爲萬世三綱之標準倘所謂臨 大節不可奪者非耶倘所謂刑干妻御千家者非耶人貌榮名豈有既萬曆戊申故相國完平自沙一松諸公建白旌表門閭今其里有忠臣孝子烈女之門原人又爲之立廟以祠之今 上朝賜額曰忠烈遺禮官致祭公諱悌甲字順初姓金氏安東人爲人魁偉有大節簡默好讀書自號毅齋登文科歷敷清班三按兩道其守原自求補外也參判時獻其胤也而無嗣時寧越郡守尙康郎時伯之孫而爲次嫡者也今左相許積牧使許秩其宅相也秩又爲原州牧繩其遺化士民懷之銘曰死非難處死則難惟君子拾生取義 當危急視如平素勵忠憤不移終始 臣死忠婦貞子孝扶植萬古之綱常雉岳東峙與鳳川西流先生之名與之俱長州人生 鄭 故老所傳以記顯末因敬書

崇禎丙子後二十五生庚戌 三月 日立

(7) 朝鮮 贈左贊成行執義

知製 教申公命圭之墓碣

贈貞敬夫人宜寧南氏祔

(후편)公諱命圭字元端號默齋系平山祖大司成敏一號化堂昔忠貞公恂妣星山李氏監察與仁之女萬曆戊午生丙戌進士除洗馬與直諫薦田三曹郎出判咸興壬寅魁增廣歷兩司玉署春坊爲湖南御史 顯廟稱府古御史鳳曾効李敏永族虜請叙之罪丁未劾許積媚 厚國之罪譴南海初公董 寧陵役請黨國 陵橫公罪癸丑窮博川甲寅祀濟州庚申移終爲壬戌又移康津癸亥蒙律戊辰卒珍島人士祠以俎豆配宜寧南氏司禦好學之女端莊貞淑有女君子之稱焉生於丁巳卒於丁卯合窆於原州門村壬坐原男銓參奉銓判書謙兵使錄鑒皆生員端府使○監役鍾參議女金浣牧使徐子思爽○○飪子思遠判官錄子思說○監錄子思永承旨思敬爲鐸後思問兵使思鼎徐子思鉅領府○○子○須監役徐子思迪牧使思建大司憲曾玄以下多不盡譯牧使子謨判原州謹國先父所護狀使兄處士韶所錄使韶子光蘊撮記而樹石

第6編 文化財・名勝古蹟

玄孫通訓大夫行司僕寺命正 光福撰 三代孫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 庄植書辛巳十月 日立  
原州市 鶴城洞에 있다.

높이 200cm 넓이 25cm

(8) 嘉靖大夫工曹 判權公諱護 1 配貞夫人原州元氏祭壇碑

(후편) 公諱護高麗嘉靖大夫公曹參判配貞夫人原州元氏開城尹寅女安東權姓高麗太師公寔始祖十三傳諱溥修文殿大提學吏部事諡文正世稱菊齋先生諱阜門下侍中永嘉府院君諡忠靖諱僖修文殿太學士諡貞簡諱衷議政府贊成事諡平厚寔公之高曾祖考四代也嗚呼異哉公之生卒與墓所譜史无錄行蹟遺事亦無所徵抑或文獻不足故歟遭離後裔顛倒不省故歟失傳五百五十餘稷原州右孫慕先迫奉禮議峻發謹依墓所失傳設壇奉祀有前賢之訓封圻于原州市牛山洞奄視後麓公之曾孫直長公墓左歲祀之繼先祖爲支宗奠敬百世明誠感神爲孝莫大天燈故事至理貽將以俟后孫太師始祖受姓庚寅後千三十三年壬寅仲夏

十七世孫 徹植謹撰

(측측) 歲在壬寅十月 日立

有司十六世孫 鳳洙 健洙 十九世孫 赫魯 赫斗

壬寅十月 日立

높이 165cm 넓이 21cm

(9) 贈左通禮李公千年墓碑

淑人原州元氏附

(후편) 公姓李氏諱千年原州人始祖諱春桂十世而有諱邦珍載寧縣令是爲公高祖曾祖諱珣通禮門奉禮郎祖諱○考諱性純妣安東權氏深之女娶元招鄉女生子芬○○牧使孫旭武同中樞晦武郡守無后曾孫應男武縣令應順武益興君應寅武原興君應禮承議郎以益興兄弟扈從 宣廟功推 恩公左通禮生卒年見無徵玄孫以下多不盡錄葬原州南松良坐之原舊有碑毀破七代孫嘉泰謀諸宗改立  
原城郡(現 관설동)

높이 112cm 넓이 17cm

(10) 贈 貞敬夫人安東權氏附

蒙監事平原府院君行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衛將李旭之墓碑

贈 純忠衍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 筵觀

(후편) 天啓三年癸八月 日立

原城郡所在

높이 120cm 넓이 15cm

(11) 淑夫人全義李氏之墓

盡誠衛 聖功臣 贈資憲大夫兵曹判書

知○禁府事原興君行折衝將軍僉知中樞

府事兼內禁衛將李應寅之墓碑

原城郡所在

높이 135cm 넓이 21cm

(12) 通政大夫行齊陵參奉

全州崔公九顯之墓碑 配淑夫人平山申氏 附右

(후편) 妙方救濟蒼生爲已任雖難治之痼病仁手到處立見其効舉世咸指爲神醫令名錚錚子當世每遇貧寒疾病者則輒無料施方藥雖夜闌地遠不憚勞而 診焉四十餘霜如一不解京鄉之間稱頌籍籍而其高德之遺澤到令生光耳乙酉正月二十八日公卒享年七旬葬干鳳山良坐之原配淑夫人平山申氏壬午十月一日生

壬辰三月二十日卒壽七十附其右看二子長日鎮浩次日鎮求長出繼于公之仲兄琦顯生翼馨次爲嗣子承父業益磨其遺術名聲大振可謂有旻父有旻子也鎮求生澈奎尙幼此其家乘之大略也鎮求爲人敦厚謹實以至孝奉其先既治石請余文感其誠而爲之識

檀紀 四二八七年 九月

成均館大學 教授 南原后人

梁大淵 識并書

(좌측) 崔公九顯米出全州西洲廷吉先生之裔女 高祖諱昌度曾祖諱守○祖諱弘舜官至禁府僉正父諱在禧正二品司憲大夫公其○九子也生丙子六月三日于京邸自幼勤業篤行仁義孝婦儉行聞于朝○拜通政大夫齊陵參奉桑致仕隱原州之鄉獨究華扁之神術得神農之

(우측) 歲甲午秋九月十日

嗣子 容濟 敬立

甲午秋 九月十日

原州市 鳳山洞

높이 165cm 넓이 20cm

(13) 禦侮將軍行廣梁鎮水

軍僉節制使權公之墓碑 淑人原州元氏附

(후면) 公諱嘆字君澤其先安東人父通禮門通贊淳祖果毅校尉忠佐衛強曾祖通政大夫行谷城都護府使護高祖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贊成事哀謚平厚外祖宣教郎安峽縣監李光英公天順癸未二月初七日生嘉靖乙未八月二十二日終其年十月二十二日葬于奄峴娶掌隸院司評元顯女天順甲申七月十三日生嘉靖丁未正月初七日終其年九月十八日合葬生三男一女長樣次矩次征女婿李泓崇禎紀元後再庚申九月 日改立辰向原

檀紀 四二九五年壬寅十月 日 十六世孫 鳳洙 建洙

十六世孫 赫魯 赫斗 文仍墓刻而重建新碑

높이 155cm 넓이 175cm

(14) 配 淑夫人 竹山安氏 附右

行春川府使教授官府君原州元公孝坤之墓碑

(후면) 檀紀四千三百七年 甲寅四月二五日

十六代孫 容碩 昌喜 謹立 容九

原城郡

높이 92cm 넓이 14cm

(15) 配 儒人全州李氏 附右

學生原州元公景禧之墓碑

(후면) 檀紀四千三百七年甲寅閏四月二十五日

十五代孫 容碩 昌喜 謹立 容九

原城郡

높이 92cm 넓이 14cm

(16) 原州市 丹溪洞에 있는 仁同 張氏의 墓碑

贈 通訓大夫軍資監正

仁同張公今○之墓碑

贈 淑人寧越辛氏青龍第二位

**贈 淑人密陽朴氏附左**

(후면) 壬辰秋 玄孫 文寬

七代宗孫 範哲 奉建

높이 89cm 넓이 14cm 烏石

◎ **贈通政大夫工曹叅議仁同**

張公萬吉之墓碑

**配淑夫人金海金氏青龍第三位**

(후면) 壬辰秋曾孫文寬奉建

높이 82cm 넓이 11cm 烏石

**贈嘉善大夫漢城左尹象五衛都**

總府副總管張公五順之墓碑

**贈貞夫人昌原黃氏附左**

(후면) 嘉慶 15庚午 秋夕 立

높이 118cm 넓이 18cm

(17) **草溪君諱溫墓碑**

有明朝鮮國贈純忠輔祚功臣嘉善大夫工曹叅判草溪君行通政大夫僉知中樞府使諱溫之墓

配貞夫人原州元氏

**配貞夫人密陽朴氏附左**

墓所在 原城郡 好楮面光格里

既積而播惟德與位世趾其美至公益大我公益大我公之才天實生之將以厚用爰自布衣期以公輔走卒皆誦如海之涵如春之和如鳳之儀既備全德恒持重望福祿隨之翊我 宣廟爲瑞于朝潤色鴻猷爲祥于家篤降姒似啓無強休惟禮是服惟才是惜好善之誠經濟之手暫試而室十載艱貞日月重明風雷震盪公屹如山釋師歸朝將數相數萬人環之公愈歛退避權若浼澹然寒壬自家而國坤化丕行關麟唯趾嗟公之業奚但光前澤在斯民公歸于天我詩于石不昧精神

月沙 李達龜 撰

(18) 朝鮮國 **贈吏曹判書兼兩**

館大提學行通政大夫

左副承旨鄭公杖之墓碑

**贈 貞夫人全義李氏附左**

(후면) 先府君諱棡字敬叔迎日鄭氏鼻祖諱宗殷新羅諫議大夫高麗有諱思道政堂文學諡文貞我 朝 知議政諱洪諡恭簡兵曹判書諱淵弘文館典翰諱彥浩最顯曾祖幼清 贈執義祖諱淹刑曹佐郎 贈吏曹叅議以氣獎詞翰見重老諱道成魁文科官正言有古文美質不幸早世妣延安李氏牧使箕微之女延原府院君光庭之曾孫府君以 顯宗五年甲辰閏六月初三日生十五丁外憂王考教誨篤摯夫人勸課亦嚴府君服訓幼學文藝鳳龍丁卯歲進士己巳丙子連持承重服己卯魁庭試例授典籍郎于禮兵曹春坊則司書文學弼善(疑衍文) 兼輔德徽垣則正言諫相府則持平執義者或者或一再一或三四玉堂則修撰校理應教者凡三十四太僕一爲兼帶則漢學中東南學教授外則文化臨陂醴泉尙州龍密奉 使則萊館賓倭湖西檢田嶺南掌試隋城試方湖左暗行兼巡撫關西按邊服犯 越獄丙申夏由副應教擢同副承旨仍陞左副七月以應教時聯筭論家禮流源事謫寧邊冬司相臣節陳量移原州丁酉七月二十八日以疾卒于謫舍壽五十四卜新兆九月葬于原州治西楮田洞坐○之原戊戌夏特命給牒嗚呼府君儀觀粹重氣廢嚴整自布衣有公輔之望當 肅廟盛際處 紆轡十餘年啓沃弘多言議公匹最爲諸名流所重昆侖崔公昌大諫父有曰兄之學詞藻器能治諸諸大夫國人所共

悉唯是黨比成海擧一甘溺矣以同異爲正邪咸疏爲憎愛吾未見論人而公者焉則患夫激緩則流於嬖吾未見秉議而中者无能介立其間巍然

(斗幸)世令已四十九年墓道尙闕顯刻不肖兄弟 四人府使東遊郡守東羽府使東良次第奄忽獨不肖東明真然在世年又七十矣若干不盡實恐先蹟終泯益重不孝之罪謹以生卒履歷及昆侖之文略記于石實諸兄未卒之志也昊天罔極嗚呼痛哉

崇禎紀元後三乙酉 月 日不肖男通政大夫前行德山縣監東明泣血謹書

(斗幸)自樹曾不以一毫俯仰於是吾與國彥二三儔友所深知而誠眼者也謂可以處廊廟鎮位著而裕如令忽一疾不起天其遂無意於善類耶唯以喪一良材爲朝廷深悲痛惜耳國彥郎李相國台佐字也崔李諸公與府君有至絜諫辭皆記實也此豈以徵信於後不肖何敢私自揄揚馬先妣全義李氏司饗院奉事萬最之女右議政行遠之孫壬寅九月初五日生庚申歸府君莊重有梱範王考常稱曰吾孫德器又得賢婦吾無憂矣戊申十月初十日卒于男東遊金山郡任所十二月祔葬以男遊東奮武源從功贈府君吏曹判書兼帶如例 贈先妣貞夫人嗚呼府君下

崇禎紀元後三乙酉 月 日 原州市 一山洞에 있다.

高: 170cm 幅: 25.5cm

#### (19) 淑夫人趙氏之墓

樞府事鄭興之墓碑

贈折衝將軍兼知中

(辛申)鄭氏系出草溪八代祖禮賓正諱使當麗未○○始○本州干川里十代祖葬本峴即比墓也六五代並隅洞高曾墓在有峴南麓及橫城公根皆有碑誌其間封君至伯從祖父子六世不絕吁○盛矣哉自六代祖以後子孫世按本道節至不肖孫蓋五世矣雖非一派直傳而自先觀之則未當闕一世馬建節省掃父老聳○至於屈楮咨差掃乙先○倘矜謂餘慶者非耶亦知此後亦有○○者否也按道初偏省先龍見此山墓表字冠體缺不可不改故遂堅他石且加陰刻仍歷記世葬以志後云爾

崇禎後三○○○丁巳法月 日

七代孫 觀察使鎭誌

崇禎後三○○○丁巳五月 日立

原州市 高: 109cm 幅: 50.5cm

#### (20) 老職通政大夫安○龍

淑人坡平○氏祔 ○

(辛申)公字河瑞父磨禎縣監祖忠國僉法曾仁壽墓在川北五里化沙谷辛坐原七

祖珽僉使公生三男長雲壽次天壽次代孫判官世彬世輝丙溫司果大善聖

貴命俊宗奎 宗燦謹書

崇禎三巳卯三月 日立

高: 110cm 幅: 13.5cm

#### (21) 貞夫人 豐山沈氏祔

兵馬水軍節度使崔東立之墓碑通政大夫守黃海道觀察使兼

壬寅 五月 日 改豎

萬曆 41年, 2月 荷立

文幕面 桐華三里에 있다.

高: 100cm 幅: 15cm

#### (22) 通政大夫金公之墓

淑人完山李氏之

諱應立字世後慶州後人也

子繁僉將軍訓練判官鳳夏

第6編 文化財과 名勝古蹟

孫子廷壽

新養 孫子廷暉

庚熙 四十一年 三月 日立

所草面 橋項리에 있다.

高: 105cm 幅: 20cm

(23) 貞 敬 夫人 安 東 全 氏 附 左

贈忠勤貞亮扈 聖功臣大壓庄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益興府院 行忠勤貞亮扈聖  
功臣資憲大夫益興君象五衛都摠府都摠管訓練院都正李公應順之墓碑右

崇禎後再戊午八月 日改刻

原州市

高: 156.5cm 幅: 19.5cm

(24) 忠臣觀瀾先生旌忠碑

五倫之有君臣天之經地之義而所謂民彝之大者也然而載籍以來身蒙大難尙能知其義盡其分者蓋鮮矣而若集賢殿直提學元先生豈非扶樹天經地義之人耶在昔 端宗 光廟之際文學經術之士平時號賢士大夫一朝寐於禍福榮辱之分多喪其本然之天獨先生始以明哲處艱貞之世而不失其志終盡事一之忠而泯然如醉琴諸公異塗而同歸則其孤忠卓節之凜然煒燁猶可以想見於百載之下矣嗚呼築臺觀瀾東望歔歔方塋三年泣血盡哀土室東首終身不替堅相新貴矢死不貳圖非先生自靖自獻之義而圖僕之節也蟄戶霧巷焚其平生所著述詩文疏章戒子孫勿復讀書求名利而勸農匿跡尤其含冤痛憤迫不得已之情也餘嘗慕其節而悲其志適遊到平原見棹櫓之在山趾而即下馬而式訪其仍孫得明谷崔相公錫鼎所序碑銘而讀之蓋先生節義之始終顯晦無不備載獨霧巷之閭闕揄揚之言而旌閭傾圮風雨不敵餘於斯益悲先生子孫之替也先生諱昊觀瀾其號也霧巷即先生名所居村云觀瀾亭在寧越府之西思乃坪霧巷在平原治南五里程夫子顏樂亭銘曰水木忍廢地不忍荒烏呼正學其何可忘斯可以銘此閭矣先生之友崔直學德之亦退居烟村以終云原之人土能知之乎餘將誌之

(후면) 原州文化院長 黃柱益 主管  
十六世 后孫 峻常  
原州市長 金龍雲  
民議員 金龍鎬 協讚

世: 徽常

(좌측) 平山后人 申映 撰  
全州后人 李日泳 書  
礪山后人 宋喆顯 銘  
光復二十七年 辛亥四月 日立

原州市 觀雪洞

高: 210cm 幅: 32cm

(25) 民族英雄義兵隊長閔特務肯鎬公之墓碑

殺身成仁 精不神死

獻敬 所業鑛石重東上

(후면) 閔公靈前

公은 文弱하던 李朝末期에 나라의 防牌인 軍人의 지지를 굳게 지켜 原州鎭衛隊의 特務正校로

써 當時에 膨脹을 거듭하던 日本帝國主義가 侵韓의 第一步로서 軍을 強制로 解體코자 奸計를 試圖함에 愛國部下들을 領導하여 倭敵을 險峻한 江原 忠淸 및 慶尙의 山岳地帶로 誘引하고 激戰을 거듭하면서 內外에 倭敵의 野慾을 暴露하는 한편 우리나라 靑年들의 氣慨와 愛國精神을 宣揚하던 中 檀紀 4241年 寧越에서 殉國하였음은 半世紀를 隔한 오늘날에 있어서 滅共戰에 血戰奮闘하는 우리의 참다운 龜鑑으로서 그至誠과 愛國精神은 永遠히 大韓靑年의 胸襟에 繼承되어 그빛을 더하리라. (原州市 鳳山洞 鳳山에 있다)

檀紀 4287年 5月31日

陸軍參謀總長 陸軍大將 丁一權

### 忠魂塔記

오호라 公은 不幸히 李朝末 衰頹할때에 誕生하여 國家安危의 重責을 雙肩에 걸머지고 任務를 忠實히 遂行하던中 內로는 亂臣賊子가 充滿하고 外로는 倭寇가 우리나라 內政을 干涉하여 強制로 原州鎮衛隊를 解散할때에 公은 大義名分을 尊重하므로 義旗를 高揚하고 抗拒 倭敵하니 可謂 頹波의 砥柱이오 傾廈의 巨木이라 公의 精忠報國之大節은 後生의 寶鑑이오 祖國光復의 基礎이니 惜乎라 救國救民의 大志를 未成하고 身先殉國하니 忠魂義魄이 依歸할 바가 없어서 雉岳夜月과 鳳川秋雨에 想必泣泣彷徨이라 後學은 軍旅의 職을 負荷하고 맞침 이곳에 赴任하여 昔日敬慕의 誠으로 將兵諸君과 더불어 遺骸를 禮葬하고 또한 當地各軍政 機關長의 贊助를 得하여 忠魂塔과 忠烈亭을 建立하고 祭田을 置하여 春秋享祀를 奉케 해서 公의 忠魂을 萬分之一이라도 慰勞코자 하나이다.

檀紀 4287年 5月13日

後學陸軍准將 權峻 謹誌

檀紀 4287年 5月 日立

原州市 鳳山洞에 있다.

高 : 140cm 幅 : 22cm

### (26) 國軍派越記念(原城郡 文幕面 文幕里에 있다)

西紀 1969年 4月 日立

高 : 120cm 幅 : 20cm

### (27) 原城郡守金景山頌德碑(原城郡 所草面에 있다)

西紀 1969年 4月 日立

高 : 120cm 幅 : 20cm

### (28) 소초면 지서장 허만형 공적비(原城郡 所草面 面所在地에 있다)

나라 사랑은 저마다 맡은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길을 말한다. 여기 소초면 지서장 허만형 씨는 부임하여 4년동안 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빗을 잃은 여성들의 빗을 준 그의 공적은 별과 같도다. 그는 공무원이기 전에 면민의 근면한 일꾼이 있으며 경찰관이기에 앞서 면민의 따뜻한 벗이 었도다. 그가 있는곳에 질서가 있고 그가 가는 곳에 신뢰가 따랐도다. 이제 여기 우리 면민의 뜻을 모아 빗돌을 세워 그를 기념코자함은 후일 이를 되새기므로 그에 대한 우정을 새롭히고자 함이로다.

1969년 7월 일

월성군 소초면 면민일동

所草面 平長里에 있다.

高 : 140cm 幅 : 20cm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29〉 보살慶州金氏烈女碑

高: 90cm 幅: 13cm

〈30〉 橋項里區長金公炳濟記念碑

庚午 10月 日立

所草面 교항1리에 있다.

高: 140cm 幅: 15cm

〈31〉 顯忠塔(原州市 台庄二洞 後山에 있다)

이곳은 유구한 역사 전통이 서려있는 북원경 옛땅이라 치악산 정기로 태어난 이고장 젊은 이들은 남달리 가슴에 의기와 정열을 품고 자랐다. 1950년 6.25동란에 그들은 나라와 제례를 위하여 물 불 속으로 뛰어 들었고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총칼 앞에 달려 들었다. 또 그날 이지역 전투에서는 다른 고을 출신들도 같이 희생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탑을 세워 군 경 청년들 그날의 순국충혼 680위를 위로함과 아울러 앞으로는 나라에 몸을 바치는 정의의 영령들은 다 함께 모시려는 것이니 그 뜻과 이름은 세계에 이고장 강산과 더불어 같이 같것이다.

이 은상 글 김 기승 글씨

현충탑 건립위원회 세움

1966年 6月 6日

〈32〉 原州地區戰鬪戰功碑

천지를 뒤 흔들던 포성은 잠들고 비오듯 쏟아지던 총탄도 사라졌다. 단기 4284年 1月10일부터 2月28일까지 전락 요충지인 이 지구에서 인해전술로 덤벼 드는 중공 제37군 괴뢰 제8군단의 매적울 물리친 영웅적인 우리 제5사단 제6사단과 미 제2사단 미 제1해병사단 그리고 홀랜드 부대및 불란서 부대 용사들이 아니었던들 이날의 이곳이 있었을 것인가 뼈에 사모치는 6.25동란으로 조국의 가쁜숨이 경각을 다룰 때 임들의 몸은 방패가 되어 온겨레의 가슴에 꽃필 화살을 막았고 그 홀리신 피는 이 땅에 스며들어 우리나라를 영원히 받들것이다. 여기 임들의 빛나는 충성과 영웅무쌍한 모습을 후손들로 하여금 이어 받도록 하며 아울러 전몰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저 이들을 깎아 세우나니 비록 이들은 많아 없어질지라도 임들의 그 위대한 공훈은 저 해와 달로 더불어 빛을 다투어 이 강산을 밝히리라.

단기 4287年 3月15日

건립자 제1군 사령관

所草面 長陽里

高: 5m 幅: 1m角

〈33〉 故李舜學大尉 殉職記念碑

〈전면〉 소속: 27사단 포병사령부

제급성명: 대위 이 순학

숙직일시: 서기 1964年 6月22日

건립자: 강원도 지사 박 경원

순직장소: 원성군 홍업면 대안리

건립일자: 서기 1964年 11月10日

〈후면〉 고 이순학 대위 영전에

산 새 같이 날아 왔다 산 꽃 처럼 저버렸네. 녀인들 차마 어이 이 땅을 떠나리오. 푸른 숲 바라 볼 적마다 그대 이름 외우리.

명봉산 아침 저녁 산새들 노래하고 포복산 봄 가을에 산 꽃이 피어 나면 대대로

겨레들 그대 이름 외우리.

노산 이 은 상

서기 1964年 11月10日立

原州市 一山洞 原城郡廳內에 있다.

高: 5m 幅: 1m

(34) 의사인동 장영옥의 무덤비

〈후면〉 바르지 못 하고 의롭지 못 한 것을 끝내 그대로 볼수 없어 일어선 4月19日 학생 의거에 뒤이어 민주혁명의 목적이 바야흐로 생취된 4月26日 여기 고요히 잠든 장영옥 군은 불사조와 같이 네모대의 선두에서 용감히 싸우다 슬프게도 총탄에 맞아 쓰러지다. 역사 있는 뒤 이 처럼 비장한 의거는 따로 찾기 어렵거니와 나이 스물 여덟의 젊음이 조국의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꽃 잎 처럼 저버린 보람 헛되지 않아 새로운 민주 제이공화국의 탄생을 보았도다. 장영옥 군의 주검은 이고장 학도들의 명예요 교훈이거니와 민주혁명을 위해 우렁찬 쇠 북을 울리고 간 참다운 우리들의 벗이 었도다. 그가 희생 당한 곳은 서울 동대문 경찰서앞 노상 이었으나 이제 그리운 고향 산하에 돌아와 묻히게 되니 기뻐 하리롭다.

단기 4293年 5月 日

원주지구 중고등학교 학생일동세움.

〈좌측〉 장하도다. 생각 해도 목이 메니 쉔 일일까 영 간길 못 막아서 슬프다는 정이런가 옥이야 땅에 묻혀도 맑은 빛은 그대로.

〈우측〉 장구한 세월에도 자랑스런 그 일만은 영원한 이 겨레의 가슴 속의 별빛일테 옥 같은 그대 녀이며 이제 고이 자거라.

단기 4293年 5月 日

原州市 鳳山洞 鳳山尾에 있음

高: 110cm 幅: 13.5cm

(35) 林慶業將軍 追慕碑(原州市 文化院長 黃柱益과 韓國日報 原州 支社長 李鎬澄이 세우다)

1968年 8月 日立

富論面 孫谷里에 있다.

高: 330cm 幅: 61cm

(39) 義兵將李殷讓公 追慕碑

1968年 10月 日立

〈후면〉 一枝李樹 作爲船 欲濟蒼生 泊海邊  
寸公未就 身先溺 誰算東洋 樂萬年

〈후면〉 의병장 이은찬공의 약력

공은 한말 의병 운동에 앞장서 그 핵심을 이룬 이 고장의 애국선열 이시니 1877年 9月21日 에 탄생 하여 1909年 5月10日에 순국 하시니 마지막 남기신 시 한 수는 나라 사랑의 큰 뜻을 우리 가슴에 일 깨워 울려 주시는 듯 하다.

1968年 10月29日

원주문화원 건립

1968年 10月 日立

原州市 鶴城洞

高: 3m 幅: 1m (화강암 자연석)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내 력 비

(전면) 1907年 원주에서 의병 봉기하여 왜군과 싸우다가 1909年 5月10日 산화한 의병장 이은찬공의 넋을 길이 추모하기 위하여 원주 문화원장 황주익 씨 주선으로 1968年 10月26日 세운 것이다. 비문은 張臺淳 이 쓰고 宋喆顯 이 새겼다.

(후면) 전면의 사실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문화원 연지회원 일동이 자그만한 표로 이비석에 남기고 세운다.

1975年 5월 1

연지회장 김 영 자

부 회 장 박 금 자 정 중 남

총 무 양 연 홍

(37) 문숙공 김제감 충렬탑명

오오 당신은 원주의 빛이여

겨레의 스승이요

임진왜란 가등청정의

최후의 일각까지

마침내 시체를 말 가죽에 싣

아들과 아내 마저

왜란이 지나간지 삼백칠십사년

강원도민은 이 탑을 세워

강원도의 외기요

아들과 아내의 별이오이다.

불의의 군사를 무찔러

이땅을 지켰고

그 높고 씩씩한 정신 가룩하다

효와 정을 지켰네

자주 자립의 일에 불타는

천만대 후손에 빛을 전한다.

1966年 6月29日

글 지은이 박 중 화

글씨 쓴이 김 기 승

崇禎丙子後三十五生庚戌三月 日立

原州市 鶴城洞

高: 140cm 幅: 30cm

(38) 馬○鍊副使盧懷○之墓

大夫守○○都詔府使兼勸農兵 碑

년대미상이고 字樣이 확실하지 않다(石物과 四方石으로 가추어져 있다)

文幕面 桐華3里에 있다.

高: 130cm 幅: 20cm

(39) 朝鮮吏曹判書 贈 議政府

左贊成諡文翼趙公曠之墓碑

貞敬夫人豐山洪氏附左

墓前에 공적비가 있고 石物에는 羊石이 있다

高: 190cm 幅: 30cm

(40) 江原道知事朴敬遠頌德碑

適知道事 治政公明 開拓荒蕪 獎勸植桑……………蠶業漸昌 化及隣方 窮巷僻村 施設電燈  
勞心焦思 示範育成 活計漸進 大補民生……………山海之詠 於斯曙光 桑林益密 浚日甘棠  
碑雖幾尺 功顯千戈 去益不忘 頌聲遠長

西紀 1968年 5月 日

秋溪秋教成謹換

原城郡 所草面民 謹立

所草面 長陽里에 있다.

高：200cm 幅：25cm

(41) 面長南公相詰頌德碑

勸導畊桑 賴以安堵 咸稱懿德 立碑頌勳

1944年 2月 日達

所草面 鶴谷里에 있다.

高：160cm 幅：15cm

(42) 面長鄭公昌模永世紀念碑

尙謙素德 永尖于石 牖蒙是長 俾也可忘

1939年 6月 日立

神林面 금창리에 있다.

高：160cm 幅：27cm

(43) 巡察使李公紀淵永世不忘碑

德溢凌陰 多除民瘼 仁布田政 一境賀詠

道光10年 庚寅12月 日立

所草面 長陽三里에 있다.

高：150cm 幅：20cm

(44) 區長沈公能圭永世紀念碑

30餘年 勸儉治洞 始終如一 克盡奉公

昭和15年 庚辰9月 日立

所草面 長陽三里에 있다.

高：160cm 幅：20cm

(45) 墓碣銘

昔在 端宗初 光廟威德日盛集賢殿直提學元公謝病歸鄉里與世相絕及 端廟遜于寧越就就越之西築室名以觀瀾或臨流嘯咏或閉戶著書晨夕瞻望涕泣以寓戀 君之忱乙亥 端宗運訖服方滿三年制畢復歸原州舊廬不出戶庭人莫得見其面其姪子判書原城君孝然屏徒御踵門請見堅拒不許 光廟特除戶曹參議召之以死自誓不應命坐必東向臥必束首以終焉蓋以 莊陵在舊居之東也始 端宗降號 魯山君 今上朝陞封大君至戊寅冬追復位號爲 端宗大王陞享于 祔廟封寢園爲 陵時錫鼎實膺摠理使監蓋封 陵事白于 上褒尙其時節義人於是公則旌其閭金時習追 贈臺憲嚴興道 贈官配享于六臣祠因鄉儒疏請躋享公於耘谷書院又以公及李孟專趙旅金時習成聘壽南孝溫諸公建祠于嶺南之咸安並享焉曠世哀榮至此而殆無憾矣公諱吳元氏爲原州著姓曾祖諱廣明宗簿寺令祖諱方甫 贈吏曹參議考諱憲 贈兵曹參判妣元氏高麗國子進士天常之女非一元也詞公早成濯永樂癸卯 文科文學聲望大爲一時濟友所推重歷駁清顯 文宗朝官至集賢殿直提學其後公之孫叔康以史官直筆被禍公遂取平生著述及疏章盡焚之且戒諸子勿復讀書求名利以故家無隻字遺貲年代且久邈官歷生卒事行始終無傳焉噫當革除之際事有至難言苟非明識特操超然於利害福之道夫孰能高舉遠引歸潔其身以盡自靖自獻之義也哉若先生見幾勇退既得大雅之明哲精忠大節尤爲百代人臣之軌則而致命遂志又泯然無跡與成謹甫諸公異塗而同歸後之篤論者曰悅卿今之伯夷六臣今之方練又曰烟村霧巷比六臣較高嗚呼此可以尙論古人矣霧巷即公所居烟村即

第6編 文化財 名勝古蹟

崔直學德之云易曰明夷利艱貞內難以能正其志箕子以之余竊以爲元公以箕子爲心者也公娶寧越幸氏保勝郎將乙賢之女生四男一女男長孝行生員次孝兼文科弘文館校理次孝乾進士次孝坤進士女適吳致宗墓在原州南十里南松夫人同岡而異墳舊無碑表今將○石樹諸經後孫松齡草公遺事來請銘銘曰人臣事君盡節爲忠死生殊軌其心直同卓卓先生生際不淑天位有歸故主殞覆明燭幾先決焉遐征屏居鄉里脫○榮名越山之西爰來結屋坐臥必東若星拱北天地崩淪我守其貞身服方蔭跡不戶庭不事二君矢死罔僕倚嗟六子並我心曲聖上在有邦禮式昭新躋端廟列于宗祧洗雪積冤神人胥悅乃管先生旌褒棹楔贈享之曲廷泊梅巖百世之下有聳觀瞻舊關墓碑載營載刻節彼雉巖維水激激是邇莊陵遺魄所依靈神魄暨擁佑無違公有雲仍圭薦黍稷作爲銘詩風竑千億

崇禎紀元再癸巳12月 日立

大匡輔國崇祿大夫義政府領議政崔錫鼎撰大

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趙相愚書

雉巖山題名錄叙

元公觀首之次者趙公旅漁溪次者李公秀亭而姓名之下各以別號標之下方題以景泰年三月既望書于雉巖立石云而年上缺一字訥翁李公光庭之定以爲六臣就死之際未知何所考也然以此爲據則七年丙子矣夫石之爲物終古不訥其立者挺然不伏三君子題名必於是不以他人間之其亦有取於石歟雉即原之鎮山而原固元公所居之鄉也方其携手登臨籍草鼎坐西山之逸詩可和中流之楚辭可詠也撫其跡而想其心有不傷心隕涕者乎噫自當時觀之鐵其卷而金其槓者輝煌震耀何趙山阿片石而霜降水落百年論定人之摩挲而咨嗟者在此而不在彼矣余按端宗初年癸酉元公以集賢殿直提學謝病歸又四年而六臣死

叅判陸萬中撰

○故 法蓮居士李錄滄先生之墓碑

(후면) 生涯를 義와 正으로 一貫보다 찬란한 業績을 남기려다 哀惜히 가신분이 여기 고요히 묻혀 있으니 그 이름은 李錄滄先生 兩親 李海星 金性任의 孤 長男으로 山紫水明한 襄陽郡 襄陽面 銅湖里에서 孤聲을 울리다 어려서 聰明하였고 成長하면서 果敢함은 將來가 屬望되드니 會寧商業學校를 나왔으나 致富와 榮達과는 달리 奉仕와 自己犠牲으로 勞苦를 면치 못하면서 외려 삶의 보람을 거기서 찾으려 하였고 특히 한국일보 創刊時부터 江原支社長으로 就任 이 고장 言論暢達에 不撤晝夜 努力하였으며 한편 本道 體育向上을 爲한 그의 卓越한 指導力은 한결같이 世上이 稱頌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教育界에 功獻한 그의 힘은 자라는 靑少年들의 希望의 象徴이 었도다 범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그 이름을 後世에 떨친다 하였으니 이 어찌 자랑스런 일이 아니리오 그러나 부처님은 어진이 부터 娑婆世界에서 부르심인지 1967年 1月 29日(陰 12月 19日) 宿患으로 呻吟하시다가 슬프게도 숨을 건우시니 곳은 忠北 丹陽郡 大崗面 寺洞里요 享年 52歲였도다 臨終에 있어 遺家族에 對한 근심도 많았으나 遺子女들은 더욱 奮發하여 家和萬成하니 陰德인줄 알도다 앞으로 遺子들은 더욱 亡父의 生前의 德에 果를 끼치지 않도록 할것을 期待하며 여기 追慕의 情을 담아 삼가 이 碑을 세우도다

親友 朴一松지음

後援 原州 日刊新聞人 크럽 原州 記者 크럽

鄉友代表

孫義在

(우측) 1968年 4月 5日

永河

1968年 4月 日立

(좌측) 主管 한국일보 原州支社長 張振榮

發議委員友人代表 李圭祥 原州文化院長

前職社友代表

吳達泳

遺子 宗河

舍弟 鎬滄 謹立

高: 180cm 幅: 50cm

### 第3章 郷土遺蹟

#### 第1節 風俗

原州의 風俗은 「尙蓄積」이라고 했다. 즉 勤儉하고 貯蓄을 하는 習性이 있다는 말이다.

#### 第2節 形勝

東蟠雉嶽 西走 蟾江千年 古國十里長江이라고 했다. 尹 乂雲 詩에 曰 千年古國餘喬木이요 十里長江 繞郡城이라고 했다. (원주의 풍치를 말한 것이다)

#### 第3節 土産

原州의 土産品으로는 玉石이 「州西便 60里 塔前谷 今無」라고 한것으로 보아 原城郡 富論面 蒜谷里에서 나온 일이 있었으나 其後 안나왔고, 倭政初부터 金이 많이 나왔으나 只今은 金鑛도 하지 않고 있다. 羚羊, 蜂蜜, 海松子, 五味子, 人參 등이 雉岳山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나 亦是 나오지 못한다. 또한 紫草, 石簾, 納魚, 餘項魚 錦鱗魚, 鳳川小魚 등이 産出되었다고 하나 雉岳山에는 古木들이 없고, 雜木과 雜草뿐이고, 鳳川에도 水量이 적어서 魚族들이 別로 없고, 중타리. 피라지, 미꾸리가 약간 있을 뿐이다.

#### 第4節 進貢

原州에서 進上品은 다음과 같다.

人參, 生雉, 乾雉, 清密, 栢子, 生松茸, 銀杏, 菩篋, 茯神, 柴胡, 白笈, 白芍藥, 羌活, 川芎, 獨活, 牡丹皮, 紫草, 當歸, 鹿茸, 黃栢, 五味子, 兔絲子, 木通, 山藥, 連翹, 萬花山查, 蟬退, 瓜蒌仁, 金銀花, 茅香, 藥皮, 茵陳, 麻黃, 赤茯苓, 鶯粟穀, 鼯鼠, 石清, 熊膽 등이 進上品으로 나갔다. (舊原州郡誌 中에서)

現在는 더덕등 山采가 약간 나올 뿐이다.

#### 第5節 橋梁(舊原州郡誌)

近者의 橋樑에 對하여는 別途로 取扱되었으므로 舊郡誌의 記錄만을 옮긴다.

無石橋: 每歲 10日處: 成樑

酒泉津: 酒泉앞에 있었다고 하나 只今은 寧越땅이다.

安昌津: 在州西北倉前에 있었다. 現在도 나루배를 利用한다.

沙川津: 在州東 120里에 있다고 하였는데 現在는 平昌 땅이다.

梨湖津: 在州西 70里에 있는데 京畿道 驪州땅이다.

猫淵津: 在州西 70里에 있는데 忠北 中原郡이다.

#### 第6節 船隻(舊郡誌)

原州에서 管理한 船隻은 다음과 같다.

官船 5隻 進上船 1隻 稅軍米運船 4隻 地土津船 11隻 安昌津船 1隻 猫淵津船 1隻 鼎山津 農船 1隻 康川津 農船 1隻 梨湖津 農船 1隻 目瀨津 農船 1隻 山現津 農船 1隻 酒泉津船 1隻 沙川津船 1隻 魯林農船 1隻 玉造只 農船 1隻 등으로 되어 있으나 只今은 中央鐵道와 高速道路까지 있고 大部分

##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의 津에는 大橋가 施設됨으로 水路를 利用치 아니하고 陸路만을 利用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도 安昌津과 鼎山津 魯林 沙川 等地에는 나무배(農船)이 1隻式 있다.

## 第7節 堤 堰

原州의 現在의 堤防에 對하여는 별도로 다루었음으로 여기서는 舊郡誌에 記錄만을 다루기로 한다.

池內堤堰二周 640尺(長274尺 廣158尺) 水桶潰毀處(廣55尺 高12尺) 在州西70里去丁卯 大水堰皆潰破仍爲廢棄至今年而堰下土地皆沙 石無水之處蟠或改築 今無貯水蒙道利之道

沙堤=堰=周588尺 長311尺 廣89尺 水潰毀處廣13尺 高4尺 在州西30里去 丁卯大水亦爲毀破廢棄而 土地瘠薄本非貯水蒙利處故仍不修築今廢年久」라고 되어 있다.

## 第8節 市 場 五 處

邑內場 2日, 7日 安昌場 5日, 10日 興原倉場 3日, 8日 仵坡場 5日, 10日로 되어 있으나 只今도 2日, 7日은 原州 牛市場이 잡히고 있다. 仵坡場은 文幕場으로 興原倉場은 法泉場으로 安昌場은 艮峴場으로 바뀌었다.

## 第9節 驛 院(舊原州郡誌)

丹邱驛=在州南7里 察訪不驛大馬2, 騎馬1, 卜馬7, 吏35, 奴婢97로 되어 있다.

神林驛=在州東南45里 卜馬3, 吏無, 奴婢31이다.

神興驛: 在州東90里 大馬1 卜, 馬2, 吏無, 奴婢44이다.

安昌驛: 在州西35里 大馬1, 卜馬2, 吏1, 奴婢21이다.

由原: 在州北7里 大馬1, 卜馬6, 吏1, 奴婢80이다.

松院: 在州西40里 距安昌5里 今廢로 되어 있다.

阿也尼院: 在州西38里 今廢

屯吞院: 在州北38里 今廢

要濟院: 在州北82里 今廢

驛院은 韓日合邦直後 全體의으로 廢止되었다. (원말이니, 역둔지라는 말만은 지금도 사용된다)

## 第10節 站 舍 四 處(舊郡誌)

安昌站=在州西35리에 있었다.

興原站=在州西60리에 있었다.

神林站=在州東35리에 있었다.

酒泉站=在東100리에 있었다.

이상 4개의 站은 韓日合邦 때 모두 폐지 되었다.

## 第11節 牧 場(舊郡誌)

「本州分養馬 3匹 8月受東聖年 3月上納矣 庚申爲始馬則不爲受來以喂養雇價代錢上納」이라고 되어 있다.

## 第12節 烽 燧

昭君山頂 烽燧臺

原州에서 西北쪽으로 30里許 立岩에 있으나 여기서 漢陽까지 連結되는 것은 아니었고 地方間의 連絡方法으로 쓰여 졌던 곳이 아닌가 한다. 舊誌나 輿地勝覽에도 나타나 있지는 않다. 다

판 여기에 烽燧臺가 있었다고 傳하여 지고만 있을 뿐이다. 烽燧制는 火(炬)에 依한 信號通信으로 山上에 烽燧臺로 부터 烽燧臺에 相傳하는 것으로 無事時에는 1炬, 賊形이 나타날 때는 2炬, 境에 가까워지면 3炬, 境을 侵犯하면 4炬 接戰에는 5炬로 하여 相傳하며 夜間에는 火(炬)가 잘 보이지마는 晝間에는 火(炬)는 識別하기 困難하므로 煙(煙氣)로써 하였다. 全國 6百23個 烽燧는 4方에서 서울로 集되되고 서울木覓山(南山)에는 烽燧가 5個1列로 設置되어 東으로 부터 第1炬 第2炬 第3炬 第4炬 第5炬의 順으로 되어 있다. 第1炬는 咸鏡道와 江原道方面 第2炬는 慶尙道方面 第3炬는 平安道方面 第4炬는 平安道와 黃海道方面 第5炬는 忠清道와 全羅道方面으로 부터 오는 것을 連絡하는 것이다.

### 第13節 古蹟(舊郡誌)

酒泉石：酒泉에 있는 것으로, 只今은 寧越땅이다.

所吞所：在州東13里에 있었다고 하나 只今은 形體조차 없다.

金斤谷所：酒泉에 있었다. 今廢

射林所：在州東45里에 있었다고 하나 今廢 흔적도 없다.

刀谷部曲：在酒泉東20里라고 하였으나 영월땅이다.

刀乃部曲：在酒泉縣西 5里로 되어 있으나 주천이다.

乾巽石：「官門南北5里程各有三大石該傳道訛之州乾巽兩方空虛爲卦體置石壓之去」本官南北으로 5리쯤 떨어진 곳에 큰돌 3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道訛이가 본골의 乾方 巽方 두곳이 허하기 때문에 卦體를 응해 돌을 세워 눌러 놓았다고 하나 지금은 없어졌다.

鍊舟石：丹邱驛館앞에 돌질구(石臼)가 있는데 丹邱仙人的 丹砂를 पी던 곳이라고 하나 지금은 없어졌다.

立春壇：原州東쪽 4里許 永郎村에 있었다. 每年 立春日에 흙으로 소(土牛)를 만들어 立春壇에서 祭祀를 지내면 질병도 없고 豐年이 든다고 하더니 지금은 없어지고 흔적도 없다.

邀仙巖：酒泉에 있었다.

駐蹕臺：雉岳山北端 覺林寺 南쪽에 있다. 李朝의 太宗大王이 紇谷 元 天錫을 訪問하실 때 수레를 바위에 멈추었다. 뒤의 사람들이 그 臺石을 太宗台라 불렀고 壬戌年에 이름을 고쳐 駐蹕臺라고 큰 글씨로 새겼다. 이곳이 只今은 橫城郡땅이다.

御書碑閣：이 비각은 仁烈王后 誕生 舊地로서 在衙東 數10步에 있다고 하였으나 6.25동난 때 없어졌다.

西平府院君 韓浚謙이 宣祖朝 癸巳年에 原州牧使로 왔으나 壬亂後라 官衙가 모두 燒失되어 官吏 崔繼龍家에서 臨時執務를 하였다. 翌年 7月 初1日에 仁烈王后를 이자리에서 낳다. 그 후 7代만에 英廟戊寅에 와서 禮曹判書 洪象漢이 莊陵에 가는 길에 監司 沈鏞의 말을 듣고 장계(狀啓)를 올리도록 하여 右議政 李滄가 實地 踏查를 하고 道臣에게 命하여 비석을 세우게 했는데 碑文을 王이 親히 쓰신것이라고 한다. 그후 1950年에 6.25事變으로 碑閣이 破壤되고, 碑石은 그 자리 땅속에 묻혔다고 傳한다. 只今 그 자리는 原州市 仁洞22~25번지며 아래 층에는 世界소리社 2層은 青春미장원이 있는 2層建物이 세워져 있다. 碑石에는 前後面에 글이 있는데 前面에는 「仁烈王后 誕生之地」라고 쓰여 있고 後面에는 西平府院君 記「既稱 聖後之教」라고 썼다. (以下現存古址는 文化財欄에서 다루기로 한다). 乃仁烈王后 誕生舊地在衙東數十步. 西平府院君 韓浚謙 宣廟癸巳爲牧倭賊退後設衙於官吏崔繼龍家翌年七月初一日王妃殿下教問以所生之地今爲何人所居帳然有養不及之 教浚謙記其事留揭官館遺址初無封標 英庚戌寅禮曹判書 洪象漢於 莊陵奉審之行歸奏戰事監司沈鏞狀聞基 址右議政李滄奉審以來上令道臣堅碑建閣仍親鴈碑前後面以下又親製記文 命翰林洪



第6編 文化財과 名勝古蹟

秀輔書進刻揭工記面鴈旤馬於道臣地方官秀輔亦陞六 ◇碑前面書曰 仁烈王后誕生之地後面書曰 西平府院君記既稱聖后之教邑誌亦爲詳悉嗚呼我 聖后誕生之處豈可泯於後乎 盟平親書令道臣豎石 海西有聖祖誕降碑於海州關東有 聖后誕降碑於 原州豈偶然哉戊寅陽至月敬鴈親製記曰原州 仁烈王后誕生舊基小識噫先祖遺址敬而守之者子孫之道也王后誕生之地其或私第其或公館何標識之有而若不然表而記之不泯於後於義當然 列聖誌狀中 王妃誕降之地稱寓所者二稱材舍者一而村舍郎新豐國 豐田庖與松第無異寓舍一則 端懿王后誕生之所今無可問之人一則原州仁烈王后誕生之處(以下略)

第14節 陳頃免稅雜位(舊郡誌)

○元賦 元帳簿：(土地台帳에 付課된것)

田畓續并：4千6百54結 1束

○陳頃免稅는 황무지에 地稅를 免稅한 것      ○雜位：2862結 90負 5束

○時起田(파비일군땅) 760結 37負 8束

○畓(논) 257結99負9束

○續(논의원자리)：816結 71負 8束

○田稅(받지세) 논에 대 하여는 白米로 하고 129石 3斗 9升 4合 7勺 太1百

22石 8斗 3升 4合 4勺 田米 131石 2斗 7升 1合 4勺

○大同(나라에 下納하는 租稅)

白米：429石 7斗 3升 2合 4勺

田米：475石 12斗 9升 9合 6勺

○均役(일반부역)

大米：七十四石 七斗 四升 七合

田米：一百二十二石 十四斗 六升 五勺

太：四十一石 八升 六合 四勺

○結錢(돈으로 내는것)

一千一百十六兩 八錢

第15節 徭 役(부분적으로 배당되는 부역)

軍額：(武官：군인의 수)

訓練都監, 砲手, 軍, 餉保 合이 252名

御營廳軍保：并 688名

禁衛營軍保：并 653名

守禦營別破牙兵：并 252名

兵曹納布保：1, 275名

掌樂院樂生：并 8名

司應院匠人保：66名

戶曹水站水夫：125名

司僕寺諸員保：69名

繕工監匠人保：39名

監營牙兵馬步軍 1, 934名

本鎮東伍等 馬步軍：1, 351名

軍哭弓：288張(환)

鳥銃(새총)：508柄

箭(화살)：1, 737部

火藥：922斤零

震天雷：12座

環刀：221柄

鉛丸(탄자) 46, 400個

能麼兒：165箇

鎗：165柄

이외에 旗幟雜物은 不錄이다.

○糶糶(환자내준것과 받아드린것)

倉庫 6개인데 癸亥年 겨울에 穀物受合한 것이 26, 514石 5斗 9合1勺이었다.

○軍資倉에 穀物受合한 것이 모두 2, 232石 5斗 7升 6合 5勺이었다.

- 常賑廳(구호양곡을 보관하는 倉)에 各穀이 1,181石 4斗 7合 1勺이다.
- 備局句管(예비 저곡한것)에 各穀이 581石 9斗 1升 5合이었다.
- 帖別備(특별비상저곡)가 各穀物로 14,784石 2斗 12合 1勺
- 均廳句管(각청에 균배양곡)에 各穀으로 2,405石 5斗 1升 9合 1勺
- 補蔘還(강청에서 수요하는 인삼대금으로 상환하는 양곡)으로 나가는 各穀物이 2,833石 2斗 5升 5合 8勺이다.
- 黃賜給代還(황장독상납대금)으로 나가는 양곡이 各穀物로 119石 1斗 3升 7合 6勺이다.
- 軍需還(국박비)가 各穀物 1,000石 10斗 2升 3合 3勺이다.
- 中營還(營內에서 쓰는 경비)은 各穀物로 133石 3斗 7升 4勺이다.
- 砲保給代還(포수에게 지급하는 경비)이 各穀物로 543石 8斗 2升 2合 2勺이다.
- 監營別會(감영에서 쓰는 특별경비)는 各穀物로 1,368石 7斗 3升 1合 5勺이다.
- 營還上(농민에게 봄에 내주었다가 가을에 이자 환산하여 회수하는것)이 各穀物로 2,002石 13斗 9合 勺이다.
- 保安驛還上(영문에서 쓰는 것과 같이 각 보안역에서 쓰도록 내어주었다가 다시 건우어 드리는 것)이 各穀物로 240石 6斗 3升 6合 4勺이다.

## 第16節 陵 墓

### ○雉岳 胎峯

雉岳 胎峯은 雉岳山 高頓峙 제 넘어 右側峰에 있으나 碑石도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但 이것이 胎峯이라고 傳해져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찾기 어려울게 되어 있다. 이 胎峯은 恭愍王 2년에 누구의 胎를 묻었는지 胎峯이라고만 傳해질 뿐이다. 原州에서 約12km 地點에 있다. (舊郡誌)

### ○福蘭 胎峯

福蘭 胎峯은 在州北 10里有短碑라고 記錄에 있다. 只今은 原州市 台庄2洞派出所 後便 小峰에 있는데 碑石과 함께 잘 보존 되어 있다. 碑石에는 「王女福蘭胎室」 成化 22年立云이라고 되어 있다.

### ○雲山 胎峯

雲山 胎峯은 原城郡 興業面 大安里 솔미에 있다. 碑石에는 「壬寅世淑明淑徽兩公主胎室」이라고 새여져 있었으나 碑石은 破滅되었고 胎室도 파헤쳐져 돌항아리가 나와 산밑에 나 동글고 있다. 傳해지는 말에 依하면 倭政때에 盜掘犯의 所行으로 看做된다. 파괴된 비석이 그대로 있어 金甲洙에 依해 수리중에 있다.

### ○元 天錫 墓

舊郡誌에는 在州東沙斤寺面雉岳山下石逕村으로 되어 있으나 只今은 原州市 杏邱洞 山 37番地 石逕洞으로 되어 있다. 墓碑에는 高麗國子進士元天錫之墓라고 새여져 있고 墓앞에는 二분의 사적비가 세워져 있다. 1971年度에 盜掘犯이 墓 한 옆을 파헤쳤으나 石棺이었기 때문에 未遂에 그쳤다. 元氏宗中에서 參拜道 新設과 표적비를 석경동에 세웠다. (1975년에)

### ○金 悌男 墓

在州西三十五里安昌江邊即宣廟國舅延興府院君之墓라고 되어 있다. 只今의 地名은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部落뒤 松林속에 있다. 安昌리에 金 悌男의 祀堂이 있고, 神道碑가 있다.

### ○韓 汝弼 墓

在州西四十里釜島에 있으며 仁烈王后의 曾祖父의 墓다. 現在의 地名은 京畿道 驪州郡 康川面 釜坪里 釜島(가마섬)으로 되어 있다. 墓앞에 神道碑가 서있다.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元 吳 墓

在州南十里板梯面南松에 있다요 하였는데 只今의 地名은 原城郡 板富面 瑞谷里 內南松이다.  
元 吳는 生六臣의 한 사람이며 原州元氏 觀欄派의 中始祖이다. 丹邱洞에 旋忠閣을 1972년에 原州文化院에서 세웠다.

○鄭 允謙 墓

在州北三十里 好梅谷面 隔洞으로 되어 있으나 只今은 原城郡 好楮面 高山里 隔洞으로 되어 있다. 草溪鄭氏로 1526년에 訓鍊院 都正으로 聖節使가 되어 淸나라에 다녀와 副總管이 되었던 人物이다.

○韓 百謙 墓

韓 百謙은 號를 久菴이라고 했고 崇禎 7年 2月에 神道碑를 세웠는데 魯林里의 淸州韓氏이다.  
只今 墓는 韓 汝弼墓와 같이 釜島에 있다.

○韓 興 二 墓

釜島(가마섬)에 있다. 順治 9年 壬辰 2月 19日에 表石을 세웠다.

○李 應順 墓

原州市 觀雪洞 部落 뒷산에 있다. 宣祖때 功을 세워 益興君에 封해 졌다. 崇禎後 戊午 8月에 墓碑를 다시 세웠다.

○李 應寅 墓

原城郡 板富面 瑞谷里 內南松部落 뒷산에 있다. 原興君으로 萬曆 46年 2月에 表石을 세웠다.

○鄭 澈 墓

在州東十里 本部面陵으로 되어 있으나 原州市 鳳山洞 3區 陵谷(능골)에 있다. 草溪君之墓다.  
嘉靖 45年 丙寅에 墓碑을 세웠다.

○鄭 倫 墓

原城郡 好楮面 光格리에 있다. 淸城君으로 天啓 丙寅 2月에 碣石을 세웠다.

○鄭 熙 墓

在州南 40里 加里坡面社林里로 되어 있으나 只今의 地名은 原城郡 神林面이다. 亥坐之原에 碣石이 세워져 있다.

○鄭 穀 墓

原城郡 地正面 新坪里에 있다. 鄭穀은 江原道の 監司를 歷任했다. 墓碑가 있다.

○金 禮直 墓

原州 南쪽 60里 貴來面 楸고개에 있다.

○元 家 墓

原州 西쪽 70里 驪州郡 北內面 池內里에 있고 즉 忠莊公의 墓로 墓碑가 있다. 옛날 原州땅

○鄭 基廣 墓

原城郡 好楮面 光格리 光格洞에 있다. 八川君이며 墓碑가 있다.

○李 堅 墓

原城郡 地正面 艮峴里 뒷산에 있다. 號는 艮翁으로 萬曆 庚子年에 墓碑를 세웠다.

○鄭 基磅 墓

原城郡 神林面 墳土洞에 있고 壬坐丙向에 墓碑가 있다.

○趙 選 墓

原城郡 富論面 興湖里 후아차촌에 있고 雅號는 隱隱堂이며 標石과 墓碣이 있다.

○趙 誠立 墓

原城郡 富論面 興湖里 衙叉洞에 있으며 벼슬은 대사간이고 標石이 있다.

○元 裕男 墓

驪州郡 北內面 池內里에 있다. 池內里는 原州 땅이었으나 驪州로 移屬되었다.

○元 斗杓 墓

驪州郡 北內面 長岩里 長山村에 있고 原州人이다. 原平府院君이며 神道碑가 있다. 仁祖反正 때 사람이다. 옛 원주땅이다.

○丁 時輪 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에 있다.

○沈 命世 墓

原城郡 富論面 丹江里(검 단이)에 있다. 諡號는 忠肅公으로 神道碑를 세웠다.

○金 琮 墓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에 있고 延興府院君의 長子이며 또한 金 天錫의 父이다.

○金 天錫 墓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에 있다.

○朴 東燾 墓

原城郡 興業面 沙堤里 光垈村에 있다.

○安 績 之墓

原城郡 所草面 橋項公山에 있고 堂號는 鴈村이고 벼슬은 吏曹參判을 지냈다. 丙辰年에 墓碑를 세웠다.

○申 命圭 之墓

原州市 一山洞에 있고 벼슬은 增職으로 贊成이다. 墓碣이 있다.

○洪 萬紀 之墓

原城郡 貴來面 龍岩里에 있으며 벼슬은 承旨였고 墓碣이 있다.

○朴 權 之墓

原城郡 興業面 沙堤里 桃花洞에 있고 墓碑가 있다.

○金 相元 之墓

原城郡 板富面 瑞谷里 南松에 있고 벼슬은 留守이며 墓碑가 있다.

○元 銳 之墓

原城郡 地正面 月松里 龜尾洞에 있고 墓碑가 있다.

○元 景淳 之墓

原州市 台庄洞에 있고 벼슬은 禮曹判書이며 墓碑가 있다.

○鄭 杓 之墓

原州市 一山洞 山一五四番地에 있고 大提學 通政大夫 鄭杓의 墓다. 碑石이 세워져 있다.

○黃 子龍 之墓

原城郡 文幕面 潘溪里에 있고 墓前에 忠孝祠가 있다.

○元 潤 之墓

原州市 台庄洞 山一五五番地(가마기)에 있고 벼슬은 基川(豊基) 縣監이고 耘谷의 次子이다.

○洪 範憲 之墓

原城郡 興業面 興業里 山七五一番地에 있고 벼슬은 制憲國會議員이며 內務部次官이었다.

○崔 九顯 之墓

原州市 鳳山洞에 있다.

第17節 佛 宇

寺刹에 있어서는 먼저 舊郡誌의 記錄으로 부터 始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그것은 其間의 變化가 많았으므로 便宜上 이미 없어진 寺刹과 現存한 寺刹을 區分하여 다루어야 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覺林寺, 法泉寺, 桐華寺, 興法寺, 居頓寺, 文珠寺, 天王寺, 山城寺, 興寧寺, 聖住寺, 城南寺, 果山寺, 法興寺, 隱秀庵, 龍興寺, 靈山寺, 鬱巖寺, 等은 이미 없어진 寺刹로서 其中에는 寺址조차 不知한 곳도 있다. 雉岳山과 白雲山을 中心으로 原州 原城地域內에 옛날 절터였다는 곳은 무려 120個所나 된다. 그러나 언제 創建되었다가 언제 없어진 무슨 절이었는지조차 앞길이 없다. 其中에 傳說的이나마 이름만이라도 남아있는 절터중 앞에서 서술하지 않은 절터로는 비마라사, 개산절터, 범사터等은 只今 雜木 雜草가 옥어지고 옛모습이라고는 찾을길 없는 곳도 있다. 여기서 이 記錄에 남기고자 하는것은 비마라사(毘麻羅寺) 址인 것이다. 原州市 鳳山2洞 現 原州 國民學校와 原州市教育廳이 있는 一帶가 寺址였다는 것은 事實이다. 只今 咸 在騎家 前庭에 외로히 서있는 撞竿支柱가 證明된다. 現在는 그 一帶가 民家 學校 機關의 大小建物이 빈틈없이 들어서 있지만 只今으로 부터 50年前만 해도 여기에는 외마로 한적하게 原州國民學校가 세워져 있었고 그周圍는 모두 松林이 아니면 學校의 實習地로 개간된 田耕地였고 그러나 그 時期도 이 撞竿支柱는 서 있었다. 只今 60代에 있는 사람들은 말한다. 밭을 갈다가 佛像을 발견한 일이 몇번 있었고, 石物들이 많이 나뒹굴고 있었다고 한다. 只今은 매몰되어 없어졌지만 現 撞竿支柱에서 西便으로 50m 地點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이 井戶는 큰 石柱를 네귀로 짜서 싸 올린 것인데 地下 15m로 내려간 큰 우물이었다. 原州에 上水道가 施設되기 前까지만 해도 이 우물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舊郡誌나 其他 어떤 文獻에도 여기 撞竿支柱만은 舉論되지 않고 있다. 60餘年前 原州公立普通學校가 이곳에 建築될 때만 해도 여기는 森林속으로 白晝에도 도깨비가 나온다는 松林이었고 또한 이 撞竿支柱를 교수대(사형장)라고 傳해져 왔다. 只今도 或者는 그렇게 말한다. 그 後 繼續해서 한채 두채 人家가 생기게 되었고 6.25動亂 以後 잡작이 住宅이 들어서게 되어 빈틈없는 住宅街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原州에 비마라寺만은 옛寺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절터가 어디였느냐는 말이 자주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옛날 撞竿支柱를 큼직하게 세우리만치 큰 절이 있다면 그렇게 記錄에 없을리 만무한데 9百餘年을 자랑하는 法泉寺나 居頓寺, 興法寺等 寺址는 只今까지도 많은 記錄對象이 되고 法泉寺의 撞竿支柱의 規模보다는 原州 鳳山洞에 있는 이 撞竿支柱의 規模가 더욱 오래된 것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萬一 이것이 李朝以後에 세워진 寺刹의 撞竿支柱였다면 더욱 記錄에 남았어야 했을 것으로 안다. 그것은 먼 옛날 보다는 가까운 周圍에서 부터 記錄이나 말로 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도 된다. 여기서 原州地域에 있는 現存한 寺刹은 가장 오래된 것이 上院寺, 龜龍寺, 鶴原寺, 石逕寺, 國享寺等인데 舊郡誌에 國享寺가 記錄에서 빠져 있었고 黃山寺가 記錄에는 있었으나 中間에 없어졌던 것을 1970年度에 張화주가 再建을 서둘러 石造建物로 新築中에 있다. 舊郡誌 記錄에 靈山寺가 在州北15里에 있다고 하였는데 原州市 台庄洞에 靈泉寺라는 寺名으로 再建되어 있다. 다음에는 原州 地域內에 現存하고 있는 大小寺刹과 庵子를 하나 하나 들어서 記錄에 남기고자 한다.

## 第18節 樓 亭

奉命樓：原州客館 東쪽에 있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舊群誌 記錄에 있으나 언제 어떻게 없어진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觀風閣：正祖20年(1796年)에 觀察使 徐 有防이 蓬萊閣 北쪽 연못 가운데다 지었다고 하며 6.25 動亂後에 연못을 메우게 되매 헐어 없앴다.

馮虛樓：酒泉客館 西山頂에 있던 것인데 이미 폐지된지 오래다.

清虛樓：酒泉縣에 있는 것으로 判官 趙 銘이 創建한 것이라고 한다. 酒泉은 寧越땅이다.

崇化亭：原州市 丹邱洞에 있었다고 하나 百餘年前 폐지되었다고 한다.

雙樹臺：現 郡 廳舍자리에 있었으나 이미 폐지되었다.

清陰亭：原州 客館 南쪽에 있던 것으로, 李 光齊가 지었다고 하는데 이미 없어졌다.

浮萍閣：原州 客館 東쪽에 있었다. 바로 宣化堂 東便이다. 原城郡守 崔 桂明이 1974年에 重修 原州에서 가장 오래된 建物로 되어있다. 原州牧使 李 明漢이 세운것이다. 英祖 甲寅年에 李 雨臣이 重建을 하였다(1734年).

清燕堂：酒泉 清虛樓에 있었으나 없어졌다.

蓬萊閣：1744年에 監司 申 琬이 新築한 것으로 宣化堂 뒤 연못 가운데 있었으나 觀風閣보다도 먼저 없어졌다.

喚仙亭：이 亭子는 蓬萊閣 옆에 있었다. 丙寅年(1746)에 監司 金 尙星이 創建한 것으로 그 記文은 다음과 같다.

정자를 봉래각 우편에 세웠으니 그 구조는 一棟에 기둥이 6개라, 내가 날마다 감옷입은 君子의 道를 배우려고 이 정자에서 활을 쏘며 놀이를 하니 정자 이름을 君子라고 해도 좋겠고, 관덕(觀德)이라고 해도 좋을것을 하필이면 환성정(喚仙亭) 이라고 했으니 어떠한 이유인지 슬프도다. 내가 봉래각에 대하여 남 유달리 좋아하는 하면서 쓰러져가는 봉래각을 중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조그마하게 이 정자를 세우고 못을 판것이 흡사 十洲의 경치와 같다. 그러니 三山 X 洲 사이에 물론 제약하는 배가 있을 것이다. 청풍명월 좋은밤에 어여쁜 기생들을 배에 싣고 신선의 노래를 부르며 신선의 춤을 추어 진시황이 동남동녀 500명을 거느리고 海島中에 노는 것을 방불케 하노라. 그러나 말로만 봉래이고 신선이 없으면 이것은 가봉래(假蓬萊)에 지나지 못한다. 안찰사가 되어 원주에 오는자 이정자에 앉으면 앉은 신선이요, 누르면 누은 신선이요, 졸면 조는 신선이요, 이 정자에서 취하면 취한 신선이라, 또한 이정자에서 거문고 타고 바둑 뒤고 활쏘고 병던지기가 무비 신선의 일일즉 아직 못하거라, 신선이 나를 부르느냐, 내가 신선을 부르느냐, 신선이 내가 되고 내가 신선이 되면 마치 장주(莊周)가 호접(胡蝶)되고 호접이 장주되는 것과 같이 신선과 나의 사이를 어찌 분별하리요. 앞으로 신선을 배우는 자 어찌 이 정자를 구하려고 하지 않으리요. 邑誌 原文은 다음과 같다.

在蓬萊閣傍丙寅監司金尙星取建目作記揭之曰亭於蓬萊閣之右九一架六楹耳余日學附注之君子觀德於斯則亭之名君子可也觀德亦可也而必曰喚仙柳何哉噫余於蓬萊好之甚者也重修之不足而又蒞斯亭鑿方池者象十洲也而三山十洲之間又不可無采藥之舟則每風清月明之夜携妓載船奏羽衣之曲飄霓裳之舞以彷彿乎童女之遊者雖然蓬萊而無仙則是亦假蓬萊也爲按使者坐於斯則坐仙臥於斯則臥仙也睡於斯則睡仙醉於斯則也醉仙也以至琴棋射壺無事非仙則吾未知神仙喚我耶我喚神仙耶仙之爲我我之爲仙者譬如莊周之爲胡蝶爲莊周則仙我之間又孰能辨之也哉後之學神仙者蓋於是亭也求之

秋月臺：秋月臺는 原州市 園洞 南山에 있다. 옛날부터 南山이라고 하지만 6.25動亂以後 갑자기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스런 住宅增加로 只今은 民家가 꼭 들어찬 한 옆에 空地로 約 60餘坪은 남아 있다. 이곳을 秋月臺라고 하고 있다. 그 由來인즉 李 敏求라는 監司가 와서 있을 때 이곳에 올라 가을달을 바라보며 지은 이름이 秋月臺라고 했고 그후 이곳에서 많은 詩客들이 모여 秋月을 바라보며 詩興을 돋구었다고 한다. 只今 까지도, 亭子는 없지만 秋月臺라는 看板만은 세워져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李 敏求 詩를 소개 한다.

小山不滿眼：登望乃崔嵬  
野曠寒烟集：一水去縈迴  
是時稭稻鴈：驚驚相徘徊  
坐久畏霜露：暮景接金盃  
對景慰羈懷：將老悲歡催

東嶺見秋月：遂名秋月臺  
漠漠墟里外：桑柘西風推  
嵯峨鵠原城：懷古意悠哉  
勝事在須臾：歌笛清而哀  
不知千載下 何人繼我來

翠屏亭：原城郡 文幕面 翠屏里에 있었다. 翠屏里 앞 蟾江邊 푸른 절벽 맑은 강물가에 있었으나 今 모래밭과 푸르고 넓은 들이 가히 구경스러웠으리 蟾江에는 돛단배가 오고 가드니 그배 없어지니 亭子 또한 자취를 감추고 빈터만 남았다. 이 정자는 翠屏 金昌이라는 이가 이곳에 살며 정자를 짓고 취병정이라고 했던 것이리라. 정자는 없으되 翠屏이라는 말은 남아 이곳 地名이 되었다.

玉梳臺：옥소대는 酒泉에 있었으나 없어지진 오래되었다.

集勝堂：집승당은 原州市 台庄洞 現 變電所 자리에 있었다. 이 堂 뒤에 신기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珍岩이라고 했다. 只今도 亦是 集勝堂은 옛터 조차 없으나 그 뒤에 있었다는 珍岩이라는 바위는 그대로 있다. 奇妙하게 생긴 바위에 어린아이들의 놀이터로 올라 다니고 있다.

彌勒堂：주천에 있는 것으로 堂아래 바위가 있고 바위 위에는 楊 士彥의 筆蹟이 있다.

圓巖亭：原城郡 好楮面 珠山里에 있었으나 只今은 없어졌다.

月隱亭：原州市 丹邱洞 川邊에 있었으나 없어졌던 것을 最近에 38師團에서 그 자리에다 다시 亭子를 세우고 月隱亭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龜石亭(귀석정)：原州市 鳳山洞 2區에 있었다. 崇禎 庚辰年에 東洋 申 思洵이 創建하였고, 亭子 이름을 恩休窩이라고 지어 부르게 했다가 얼마후에 「귀석정」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只今은 없어졌다. 原州 觀察使 李 明漢 詩에 말하기를 東有蒼然이 蔚然히 蟠百里而 高峙者는 雉岳也요, 迤而南 奮而西走 如龍飛 鳳舞者는 白雲也라 一山이 張兩翅 南有石束立女牆 與立岩相對擁 一村은 鳳山之舟村也 水出 鵠原東洞 與白雲西北水로 合而爲一하여 曼延於丹邱驛下하여 屈曲於鄉校射堂之間하여 繞邑治北注而入於大江者는 東川也라(以下略)

觀魚臺：原城郡 好楮面 珠山里에 있다. 관어대는 글자 그대로 물고기를 보는 臺라고 한다. 여기는 雉岳山의 落脈과 白雲山의 落脈이 한데 모여서 서로 세차게 부딪치려는 기세를 가로 막거나 하듯 原州川이 뚫고 나갔기 때문에 原州를 形成한 마지막 水口門이기도 한 곳인데 奇岩 絕壁을 이룬 밑으로 냇물이 흐르니 물고기들 노는 것이 잘 내려다 보임으로 이곳을 이름지어 관어대라고 했고, 그러하니 옛 선비들이 이곳 바위 위에서 물고기 노는 것을 바라보며 술 마시고 詩도 읊고 했으니 이것이 傳해져 내려오기를 관어대라고 했다. 只今도 一週間 執務에 시달려던 公務員들이 週末을 利用하여 이곳에 와서 노닐고 한다. 관어대 아래에는 珠山亭이라는 亭子가 있었다고 하나 그것은 벌써 옛이야기이고 只今은 관어대라는 바위만이 남아서 옛말을 전하고 있다. 亦是 只今도 原州川의 小魚群이 이곳에는 많이 있어 하루 철렵하기에는 적당한 곳

이다.

**立石臺**：原城郡 所草面 興陽里黃谷洞에서 雉岳山으로 올라가면 中腹에 있다.

原州에서 10km 地點이며 高 20m 幅 5m 横 5m되는 네모꼴의 石柱와도 같은 것이 30m가량 되는 큰 岩石위에 웃뚝하게 서 있다. 금시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數百數千年을 그대로 서있는 것이다. 立石上峰에는 營養失調에 걸렸으면서도 온갖 風霜의 시달림속에서 죽지 않고 자라는 한그루의 老松이 돌틈에 뿌리를 의지하고 비가 와야만 뿌리의 물구경을 하면서도 잘 살고 있다. 보는 이/마다 양바탕하게 크지 못한 老松이지만 아마도 百年은 묵었으리라 하고 한다. 黃谷洞마을에 사는 金翁은 말하기를 내나이 90인데 여기서 나서 여기서 이 나이까지 살면서 어렸을때나 只今이나 그 소나무는 같다고 한다. 이 立石坐台 岩上에는 新羅때 것으로 추측되는 규모가 작은 三層石塔이 老松옆에 서 있다. 이것은 立石寺에서 세운것으로 看倣된다(塔에 對해서는 寺刹篇에서 다룬다).

**漱石亭**：수석정은 原城郡 地正面 月松里에 있었으나 없어졌다. 奇服齊 遵이 거쳐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挾仙樓**：原州市 丹邱洞에 있었으나 없어졌다. 그런데 楸仙루의 重修記 一部를 이 記錄에 남겨둔다. 먼저 뜻은 이러하다. 예전부터 신선이라고 이룬 말은 다만 그 이름만 듣고 그 자취는 보지 못하였노라, 진시황도 한무제도 신선을 만나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 못찾고 말았다. 후령(緱嶺)에 王子求仙이라는 말은 있지만 보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동정호(洞庭湖)에 동선낭음(洞仙浪吟)이라는 詩까지 있으나 역시 그 자취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다. 이와 같이 신선을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東方 高城에는 丹書石이 있고 原城에는 丹沙石이 있다. 단서석에는 신선들이 이름을 쓴 자취가 있고 단사석은 역시 仙人들이 단사를 고은 것이다. 이것이 모두 仙人들이 머무른 자취라고 한다면 淸동은 神仙의 소굴이요, 또 신선의 노는 장소이다. 그 자취를 찾으려면 단서신선이 단사는 여기서 고았고 이름은 저기다 쓴 것이 아닌가 예전에 丹沙亭이 있더니 이제는 빈터 뿐이다. 그 빈터를 가리켜 丹邱督郵라고 하고 館舍까지 지었다. 누는 挾仙樓라 했고 당은 羽化堂이라 한 것도 이에 연유한 것일가, 駕鶴川을 鳳溪라고 이름 짓고 山은 白雲과 雉岳이 돌아와 洞壑를 열었다네, 千嶂이 環列하고 淸川이 映帶하여 其溪山之勝이 實神仙翱翔之地고네 年代가 멀어지고 사람들은 신선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누대와 연못이 폐지되었으니 선인이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도다. 柳候 審이 참으로 옛 일을 좋아하는 선비라 도입한 이후로 原州의 신선에 대한 歷史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더니 자연이 마음이 흥분하여 自身의 月給을 털어 挾仙樓 보수공사를 시작한지 數個月만에 낙성을 보았다.

**挾仙樓**(註 原州 舊郡誌)：在南丹邱驛重修記曰古所謂神仙云者但聞其名而不見其迹秦皇漢武動於求仙者而并不得尋其跡而徒勞而已緱嶺有王子求仙之語而未聞有迹洞庭有洞仙浪吟之詩而亦未有跡之難尋者蓋如是夫至於我東高城有丹書石原城有丹沙石丹書石者是四仙題名之迹也丹沙石者亦仙人鍊丹也供是仙人之留迹者則關東即仙人所居之窟而此其所遊之也以是尋其迹則無乃丹書之仙鍊丹之干斯而題名干彼茲誠奇且異哉古有丹砂亭而今則墟矣名其地曰丹邱督郵仍而館焉樓有挾仙堂有羽化橋名○駕鶴川號以鳳溪山有白雲雉岳遠迤爲別開洞壑千環列淸川映帶其溪山之勝嶂實神仙翰翔之地而年代悠迫人不好古樓觀亭池廢而不治仙人所以不來遊者其固歟茲者柳候審誠好古士也筮任以來○其迹而工告訖挾仙之圯且陋者突元於眼前羽化之閣無光者生顏於庭際橋之頽者起而駕爲川之寒者疏而通爲於是柳候宴而落成而以記屬余余乃登茲樓而舉盃而賀曰秦皇漢武之所不得者候能不勞而得之候其可謂仙分者矣余聞神仙好樓居樓已成矣仙必續舊迹而鍊丹於斯余嘗與主人拍肩逍遙於其間則蘇仙所謂狹飛屐而傲遊者非斯柳候曰諾崇禎紀元溪再甲寅秋七月延安李雨臣書于伴鶴軒



羽化堂(우화당) 原州市·丹邱洞에 있었다. 옛 丹邱驛舍 안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어졌다.

## 第19節 宮室公廨

### (1) 궁실공해(宮室公廨)〔註 廨는官廳〕

原州에 있던 官廳에는 客舍 70間이 原州 北쪽으로 있었는데 壬辰倭亂때에 倭敵이 駐屯한지 7個月만에 間舍가 모두 燒失되고 말았다. 처음에는 客舍 10餘間을 짓고 新月軒이라고 이름하였는데 崇貞 甲戌年에 李 培元牧使가 옛터에다가 다시 建築을 시작하여 乙亥年에 落成하였다. 이때 東洲 李 敏求가 重修記를 지었다. 그 후 徐 居正 重修記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었다. 徐居正重新記原本高句麗之平原郡新羅置北原小京高麗杓置州後降知州又降爲一新縣中間陞爲靖原都護府改爲益興恭愍朝復爲牧舊屬楊廣道今爲江原道之界首官其地廣其民影山川之勝土地之饒物產之富爲諸州最其俗勤儉節用財殖貨水旱不能爲災案東道之美州也居正少時讀書雋岳法泉諸山寺邇來于州非一再每見中家以上務營居室豐堂廣宇高樓美榭在在皆也而獨奈何以如是之州之鉅之富而官廨之湫隘未振如是乎訊其經營歲月大元延祐年間所作也計今百數十年前後爲州者喜回循不暇修整此二州之大欠即 高句麗時代에는 平原郡이라고 이름하였고 新羅때에는 北原小京을 두었고 高麗초에는 「원주」라고 불리었다. 그 뒤에 강등되어 「지주」가 되었고 또다시 강등되어 「일신현」이라고 하였는데 중간에 승격하여 「정원도호부」를 삼았다가 다시 「익흥군」이 된 후 공민왕때에 비로소 목사로가 되었다.

한 때는 「양광도」의 속현이 되더니 이제와서는 「강원도계」의 수관(首官)이 되었다. 지팡이 넓고 백성들이 드무러 산천의 승경과 토지의 풍요함과 산물의 풍부함이 여러 고을중에 가장 수위를 점했으니 그 풍속이 근검절용하여 재산을 저축함이 많아 수해와 한재가 닥쳐와도 동요됨이 없으니 실로 강원도에서 제일 우수한 고을이라, 서거정이 어렸을 때에 글을 배우느라고 치악산 파법천사등 여러 사찰을 왕래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지만 원주에는 종류이상으로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집도 크고 화려하게 잘 짓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어찌하여 한 고을에 관청청사 하나 제대로 못이루고 이같이 험잡한가, 그러므로 발전이 못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이 청사의 건축한 연대를 따져보면 대원연우 연간이니 벌써 백수십년전이라 원주에 와 있는 소위 책임자들이 엄병덤덤 지내고 관사 수리함을 돌보지 않았으니 될 일이나, 한 고을에 흠이 아니냐(註 徐居正이 原州 住民을 對하여 官廳일에 協助가 있었다는 것과 官吏들이 너무 安逸하게만 지내고 있었다는 말이다). 成化 庚子年(1480)에 鐵城 李 候가 原州牧使로 와서 그 동안의 모든 폐단을 잘 정비하고 이때 通判 全 城과 李 候가 相議하여 官廳舍 重修를 計劃할 때 먼저 朝廷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고 財力을 모아 기와를 만들고 이때 權 綸이 많은 經費를 補助하였지만 마침 凶年이 들어 始作을 못하고 있다가 癸卯年 봄에 차차 時節도 潤澤하여지고 해서 工事を 始作하게 되었다. 이때 農民들에게는 큰 賦役도 시키지않고 놀고있는 者들을 모아 工事に 臨하게 하였다.

먼저 있던 建物を 보수하는 한편 間數를 늘리어 大廳 3間을 더 세웠으니 前에 比하면 대궐이었다. 그러자 鐵城 李 候가 廣州牧使로 榮轉되고 上洛 金 候가 그 後任으로 왔고, 李 通判은 任期가 차서 朝廷으로 들어가고 許 通判이 後任으로 왔다가 工事を 마치지 못하고 떠나는 鐵城 李 牧使는 上洛 金 牧使에게 金 牧使가 꼭 重修記를 써 달라고 付託을 했다. 上洛 金 牧使는 말하기를 世上에 評論하는 者들이 저마다 말하기를 官廳을 수리하고 못하는 것이 守令이 잘되고 못된데 달린것은 아니라고들 하나 그렇지 않다. 上古에 宮室이 없어 成人이 집 짓는 制度를 取해 宮室을 짓게 하였는데 하물며 官署는 客을 對接하는 嚴格한 官府인데 어찌 生覺지 않으랴, 내가 와서 보니 守令들이 오활하고 악착한 자들이니 그러나 簿書文書에만 맘을 흘린다 해도 官廳舍 建築일에

袖手傍觀한다면 무슨 큰 일을 할 것이며 또 어질고 능하다는 者는 時勢를 엿보거나 하고 제 이름만 내걸고, 官署修理 못함을 詰問하면 도리어 빈정대는 말로 나라의 禁法을 犯할수 없다고 나 하고 百姓들의 힘을 너무 피곤케 할수 없다는 핑계나 하고, 외면치레로만 번드름하게 하나, 實은 안일한 세월이나 보내려고 한다. 孟子 말씀에 편안하게 앉아서 백성을 부리려면 아무리 수고로우나 원만할 수 없으며 사실이 진실하고 道理에 合當한 일이면 무엇이 法을 두려워 하리요. 이와 같이 百姓의 父母된 것이 얼마나 貴한 것인데 이제 李牧使와 李通判 두분이 다 인자하신 官長이라서 牧民之道를 다 하시었으니 一邑이 安堵하여 남어지 恩惠가 피폐되었던 것을 興復시키고 金牧使 許通判이 또 舊官의 政治를 이어서 커다란 成果를 거두었으니 官府가 一新하여 樓閣도 고치고 廳舍도 바뀌었다. (이 말은 徐居正이 다시 原州에서 한 말이다).

本官이 前日에 本邑의 結점된 바 많다고 한것이 어찌 4君子(李牧使와 李通判과 金牧使 許通判)에 對한 기대함이 아니리오. 4군자의 재주와 덕과 정치와 현철함이 그 전의 首令들 보다 낫다는 것을 가히 짐작하겠도다. 슬프다 성인이 춘추대의에 증흥하는 세대를 기록한은 무슨 연고이노, 다름아닌 백성의 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해가 흥년들고 일손이 바쁘면 백성을 괴롭히고 무리를 동원하면 귀양보내고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면 상을 주게 되었으니 이제 4君자의 거사함이 춘추대의에 마땅히 크게 표창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首令의 地位에 있어서 어찌 한마디 찬양하는 말이 없으랴 鐵城의 諱는 堦요 字는 升卿이요 李通判의 諱는 祿崇이요 上洛의 諱는 積이요 許通判의 諱는 達이니 모두 한때 名賢들이다.

또한 東洲 李敏求가 쓴 重修記에는 原州는 關東에 第一都市라 서울의 距離가 300里인데 輦路까지 通했고 大關嶺 東西의 關門이요 方伯들의 행차가 머무르는 場所이고 使節團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골이 크고 道路가 넓어 마땅히 樓台와 棟宇를 두어 觀光地帶를 꾸며 藩籬官府를 마련할 것인데 兵火뒤에 接賓館이 헐려서 復舊하지 못한 채 40년이 經過됨에 거북이와 맹꽁이의 運動場이 되고 오소리과 여우의 巢窟이 되고 언덕은 가시밭이 되고 길은 풀밭이 되었으니 이것은 鄉堂富老들의 큰 수치이다. 壬申年에 李候培元이 原州牧使로 와서 근검 절약하고 公職에 이바지함에 一體 피폐되었던 것을 復興하기로 善務를 삼아 3年만에 本官이 대과없이 經過하였다는 行政報告를 올리고 觀察使 姜弘重으로 더불어 타협하여 接賓館 옛터에 현기와를 退治하고 오염물을 청소하기로 設計하고 經費를 마련하여 土木工을 모집하는 한편 役事는 노는 사람의 손을 빌게 하니 百姓들이 自進해서 役事를 도와 쉽게 正廳과 東西軒이 建築되었다. 役事が 끝나기도 前에 牧使가 交替되어 新任으로 李重吉牧使가 와서 남어지 工事を 마쳤다. 없어진지 40餘年만에 다시 接賓館인 宣化堂이 新築된 것이다.

宣化堂(선화당) : 예전에는 별달리 監營으로 지은 建物은 없었다. 顯宗 乙巳年에 監司 李晩榮이 새로 營舍를 客館 西쪽에 지었는데 이것이 宣化堂으로 完成을 보지 못한 것을 丁未年에 다시 李後山牧使가 와서 完工을 한 것이다. 그 外에 觀風閣은 宣化堂 東쪽에 있고 布政樓는 宣化堂 第3門위에 있었다.

只今은 宣化堂과 宣化堂 北쪽 옆에 淸雲堂이 남아 있을뿐이다. 또한 第3門과 中間門은 6.25때 없어지고, 東쪽에 첫번째 門인 門樓閣만이 남아 있다. 宣化堂은 原州郡 當時까지도 郡廳舍로 使用되어 오다가 6.25動亂때 臨時로 江原道廳이 이곳에 있게 되었으니 江原監營이 春川으로 移管된지 580年만에 비록 臨時라고는 하겠지만 제자리에 와서 이 宣化堂에서 布政을 한 것이다. 그러나 2年 3個月後에 다시 春川으로 復舊해 갔다. 그後 宣化堂은 原城郡 廳舍로 使用되다가 原城郡 廳舍의 新築으로 原城郡 郷土館으로 쓰게 되었던 것을 다시 原廳舍가 陝少하여 郡廳舍로 使用되고 있다. 宣化堂이 新築 竣工되었을 때 내려진 教諭書는 다음과 같다(받은이는 觀察使 洪

##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萬朝였다).

宣諭曰監司之職在於宣化承流觀風察俗其他事宜具載於教諭書而近年以來民生凋弊列邑空虛撫摩顛安集流亡勸課農桑俾存儲蓄無鍊威兵母怠守備點幽陟明考績必公此皆當務之急盡心職事以副朝廷委寄之意

즉 감사의 직분이 교화를 선전함에 있으니 먼저 민정과 풍속을 살피고 국민들을 잘 어루만져 한산한 것을 수습하여 교육도 권하고 농사도 힘쓰게 하며 저축도 실시하고 병력도 양성하여 국방도 게을리 말것이며 유령을 내치고 명철한 이를 등용하고 공적을 상고하여 상주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니 말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조정에서 위탁한 안에 맞도록 하라」는 내용의 선유문이다.

寂寂轅門 閉正牢：漆室默坐 似禍逃

睡殘○ 無留牒：興到梅窓 有染毫

不老丹燒雲滿竈：當歸酒熟雨鳴槽

逢僧更結蓬萊約：誰信方隅擁節旌

이것은 관찰사 洪 萬朝의 글이다.

親民堂：관아동헌(官衙의 東軒)이 바로 친민당이다. 6.25때 없어지고 말았다. 그 자리에 원성군청 청사가 새로 지어졌다.

舊郡誌에 있는 親民堂의 記錄을 옮겨둔다.

親民堂：衙之東軒雉岳山僧雲鑑寄河允源詩曰兒孀在母側思受尙未知母去兒啼呼典乃逼飢北原逢曰政寒仁德乃如斯赫然千載下再頌召南詩縉紳分韻賦詩李玖渾下字云盧山惠連受淵明閑向林下曾結社交道還隨世俗裏邇來儒釋相從寡鑑師好古少知音獨臥原城一簡若喜潯文章太守喪飛錫叩門明月下共江梭興寺樓剩將詩酒飽閑雅瓜期政治去朝天徙鶴山河誰曲夜回風寄詩頌遺處清詞美政汝高價見詩回看憶鄉人雉岳山幽遠車馬掛冠吾欲往從之葛巾野服誰得借

閱武堂(열무당)：閱武堂은 原州市 鳳山洞 2區 現 우물市場 一帶였다. 韓一合邦 때 없어졌다. 그後 이 地帶는 田畠으로 化했다가 6.25動亂 以後 原州牛市場이 서며 民家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어서 우물市場이라는 名稱으로 商街로 變化되었다. 閱武堂은 軍人을 檢閱하는 집으로 原州를 中心으로 邑의 軍兵들을 모아 練習도 하고 여기서 查閱도 한 것이다. 이곳 넓은 벌판에서 每年 春秋로 閱兵式을 舉行하였는데 그때마다 原州, 橫城, 寧越, 平昌, 三陟, 洪川, 春川等 7個邑 軍士가 모여 閱兵式을 하는 것이니 原州牧使의 부담은 컸다. 뿐만 아니라 原州府民들 까지도 그때마다 動員이 되어 幕舍도 지어야 하고 풀을 깎아 式場을 만들어야 했다.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爲하여 乙卯年에 李 雨臣牧使의 단안으로 쓸모있게 여기다가 閱武堂을 建築한 것이다. 李 雨臣의 新築記文은 다음과 같다.

### 新築記文

牧使李雨臣作記揭之曰記鶴城即關東最大邑而且近京師要害之地也惟其最大也故設爲方伯舍營之府惟其要害也故羔櫓七邑兵馬寔爲嶺西巨鎮每春秋方伯爲元帥營將爲副將合七邑軍伍櫟鍊試射於此堂豈重且大哉名其所曰教場而在於鳳川之上廣野中有空埤而無亭榭堂其教鍊試也數千軍卒一齊奔走誅等斫木合戶而構成州餘間假屋以爲點閱之所已成謬例其舉措之草創軍民之貽弊當如何裁然則亭榭之設正是意務而因循至此詎非一大欠事耶不佞至任以後遂欲擬構與將校相議且詢于軍卒則咸曰諾迺造于按使按使亦許之於是鳩衆財力厄釜而燂之工釜而餉之而棟村則衆卒自來助之瓶役數朔工乃告訖揭其額曰閱武堂今秋始鍊射于斯仍以牛酒大餉校卒旋旗列隊于上射砲應令於下軍容即整師律無遠諸校衆卒欣欣然相告曰元戎之威僅自此備矣軍卒之宿瘼自此去矣軍情之悅豫如此斯堂之成尙可謂一鎮之幸也歟遂書此顯末而界之

武學堂(무학당)：무학당도 열무당과 같은 것으로 元來는 軍士教育을 武學堂에서 하던 것이니

무학당이 陝少함으로 새로히 열무당을 신축한 것이다. 武學堂은 原州市 中央洞 舊市廳자리 現金 內科病院 자리에 있었다가 없어졌다. 武學堂의 創建記를 記錄에 남겨둔다.

記曰在衙東北三百有餘步夾右鳳川面揖鳳山微有臨眺之勝焉每春秋大閱則六邑之長領軍而至營將具威衙鼓吹而出中堂而坐六邑長佩釵握鞭由櫺外入以次升堂拜跪惟勤於是兵士整隊而進到于庭軍主吏執簿就右陞按名點然後乃退營將病則亞將代之而列邑亦以別駕行禮焉冬夏考績則營將亦於堂開坐如儀自營將以下諸校以序入行行再拜禮訖就堂之北具決拾帶張服選禍而升弓開箭落鉦鼓交鳴而優劣乃別檢授席進之右前講武經校陣器等其能否而殿最之太守仍鄉射亦成禮於是其無事時則亞將居之凡軍校之演校者人士之業武者咸會于堂設革懸帷較力而觀德降射斥飲盃無交錯咸談說兵家衆論蜂起亞將乃指穀○授旨訣折衷而訓誨之以曰爲榮而疎者精者拙者即才就而簿成遂梭其尤者甄用之此堂之所由設也蓋一路武士之修廢專責亞將而得其人則存乎營將其作興教育之方典學校之特諸生所以示文武經緯安不忘危其重有如是者堂久且圯廢不用軍吏咨馬辛未海平必優視州事慨然曰斯州也可何可無斯堂○亞將李虎臣撤其舊而將新之故事堂有役則隸鎮之邑咸出財力僕曰一屋者鳥足困六邑乃楨廡鳩財待時奧功候偶感疾棄官歸京師事亦中撤驪興代爲政以時繼不遺土木奧甲戌麥稍登民始蘇候○虎臣曰前候之志汝其成之乃以是歲之八月始事閱三朔而功告成役皆募遊水軍民不知勞而堂乃輪夏焉凡爲十八楹壁其五立一爲寢處所餘皆爲廳牙而中外仍爲上下堂以鄭升降四週爲窓櫺南北庭開闔幽動息咸宜冬則負奧面陽以迎暄夏則反之以納涼斯皆堂之微改舊觀者也尹候諱淪閔候諱百行李君原州人以繕械詰恣旁賞階折衝役既且落李君請爲記遂書顯末此亦一州之政蓋以詩人免置之義望云爾甲戌通訓大夫前行弘文館校理洪重孝記口志喜奉主守韓令時聖疾纔○喜兩新浮武學堂華筍樂作大○張吾王無病甘霖霈野老來古寺場退漁子金鎮商梁之遙開雅堂體賓訓度此筵張席闔更用回腔法進交時怕濫觴疎窩韓德全口敬次外王考疎窩公韵清秋幢節駐華堂積兩初晴衆樂張舊壁舊題贈感慕可堪茲處又飛觴達城徐○修

## 第20節 高麗以來의 官衙建物

### (1) 官 衙

지금의 原城郡廳 構內에 있는 古色이 蒼然한 옛 建物(監營 宣化堂)의 建造年代가 果然 언제인지 몇 百年이나 되었는지 비록 처음 오는 뜻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궁금하게 여겨진다. 國역 新增東國輿地勝覽: 7面—9面에 依하면 徐 居正(西紀1420—1488 世宗以後 五朝歷任한 學者 高官)의 記述에 住民의 住宅들은 제법 넓고 좋은 材木으로 잘 지어놓고 사는 富裕한 고을인데 原州 官衙建物은 누추하고 좁아 초라하며 이 建物이 언제 지은 것이냐고 물으니 住民의 대답이 「이것은 元나라 延祐年間(高麗 忠肅王 때 西紀1315~1332 元 仁宗)에 지은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때마침 成化 庚子年(李朝 成宗11年 西紀1480年)에 鐵城君 李 堉(字升卿)가 原州牧使로 赴任하였기에 通判 金城과 3人이 相議하여 木材를 求하고 기와를 구어 官衙新築工事가 차츰 進行되니 江原監司 權 綸(江原道誌 道先生案에는 中宗朝라 했으나 동국여지승람에는 成宗朝人物로 되었음)도 工事費를 補助해주었으나 때마침 凶年으로(짓지 못하고) 3年後인 癸卯年(西紀1483年) 봄에 着工하였다. 이해 6월에 李 堉牧使가 廣州牧使로 轉任하고 後任으로 上洛 金 積牧使가 왔고 李 祿崇 通判이 瓜滿(任期滿了)으로 가고 許 達通判이 와서 새로운 여러 後任들이 잘 協力하여 工事を 進行했다. 그 規模는 먼 저 매청 3間을 세우고 날개(퇴?)를 부쳤고 東軒도 또한 같게 하니 크고 트이고 넓고 시원하대 높고 빛나더라고 記錄되었다.

위의 記錄으로 보아 原州의 東軒 建物이 新築은 지금으로 부터 490年前에 지었음을 알수 있다. 以上은 東國輿地勝覽의 記錄이나 다시 原州邑誌에 의하면 客舍가 70餘間이라 하였으니 그 후 계속 追加해서 增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이무렵의 原州는 「그 땅은 넓고 住民은 明朗하고 山川은 아름답고 토지는 기름져서 產物은 푸짐하니 여러 고을중에서 으뜸일터라, 住民의 풍속은 勤儉하고 貯蓄을 숭상하여 가뭄이나 장마 같은 災難에도 잘 살으니 本道內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을이다」라고 당시에 住民의 生活程度를 表現한 記錄(東國輿地勝覽原州邑誌)으로 보아 潤澤하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壬辰倭亂(西紀1592年)時 倭敵이 7個月이나 客舍를 占領하고 있다가 後退할 때 放火하여 東軒을 위시 70餘間의 官衙가 一朝에 全燒되었다니 住民들의 不安과 悲痛이 얼마나 컸으랴, 戰火가 쓸고간 뒤 스산하고 어지러운 이 고장 焦土위에 官衙의 復舊도 復舊려니와 住民들의 戰死傷과 避亂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住民들의 生計가 미처 자리잡히지 못했을 것이니 官衙의 再建인들 쉽지 아니 하였음은 당연하다. 뼈아픈 戰亂의 傷處가 아물기까지는 무려 40年이란 긴 歲月이 걸렸다. 仁祖 9年(壬申年 西紀1631年) 李 培元牧使가 와서 이듬해 甲戌年(西紀1634年)正月에야 옛터에 다시 官衙建物を 起工 겨우 10餘間의 客館을 1年이란 時日을 두고 지어 住民의 生活이 어려워 工事가 不振할 새의 完工(乙亥年 仲秋)을 눈앞에 두고 忠州牧使로 가고 後任으로 李 重吉牧使가 와서 竣工, 새 建物を 新月軒이라 이름을 지었다니 암담하던 그 形便에 새달(月)을 본듯 밝게 느끼었던 말일 게다. 그후 觀察使 姜 弘重이 東軒 西軒을 차례로 세웠고 다시 30年後인 顯宗 乙巳(西紀1665年)에 李 晩榮 監司가 먼저 지은 客舍 西便에 宣化堂을 起工하였으나 마치기 전에 轉任되고 後任 李 後山監司가 丁未年(西紀1667年)에 竣工하였다. 지금의 原城郡廳 新廳舍 뒤에서 文化院자리와 宣化堂 뒤 지금의 土木管區 마당 一帶는 연못(蓮池)이었는데 배를 타고 船遊를 하고 연밭을 따는 등 제법 風景이 아름다워 肅宗 甲子年(西紀1684年)江原監司 申 琬(西紀1646~1707領議政)이 연못 가운데 작은 섬위에 蓬萊閣을 세웠고 그후 正祖 20年 丙辰(西紀1796年)年에 觀察使 徐 有防이 연못 가운데 蓬萊閣 北便 지금의 土木管區 마당 北隅에 觀風閣을 세웠는데 그후 4年뒤 己未年(1799年)에 觀察使 南 公轍의 壽筵宴을 여기서 盛大히 하였다고 한다. 蓬萊閣보다 앞서 英祖 丙寅年(西紀1746年) 監司 金 尙星이 蓬萊閣 옆에 喚山亭을 세웠다고 한다. 이 세 亭閣중에 觀風閣은 西紀 1930年頃까지도 그殘影이 남아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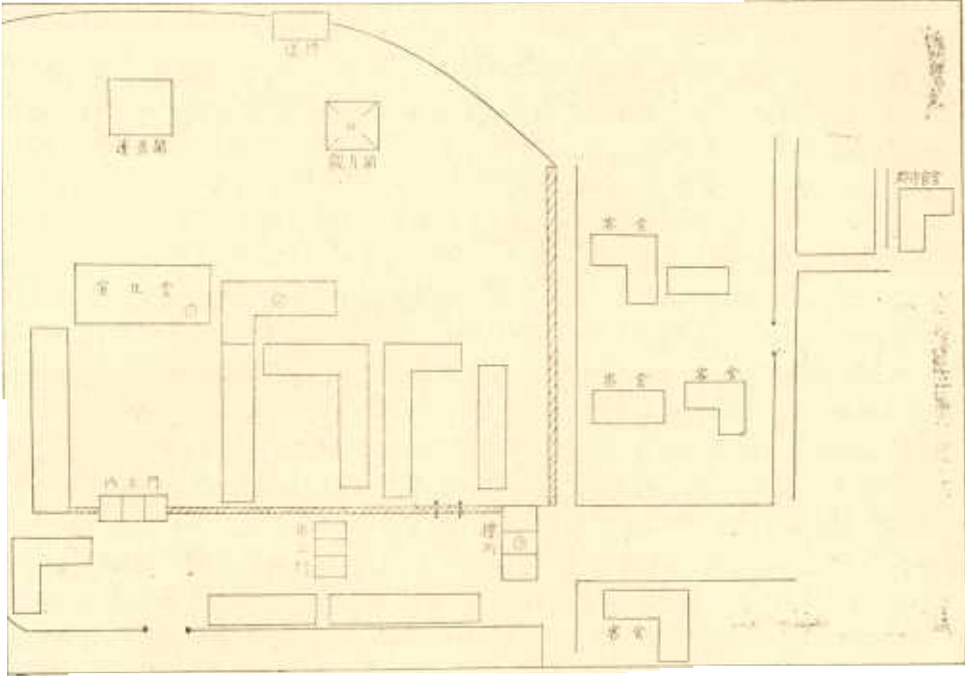
原州의 옛 官衙建物は 「郡」이었다가 江原觀察府가 있었던 까닭에 一般 他郡 建物보다는 若干規模가 크기는 하였으며 平壤이나 그 밖의 觀察府 建物보다는 작은 편이었던 모양이다.

옛 官衙建물이 온전히 남아있거나 建物の 記錄이 있다면 옛모습을 자세히 알수 있겠으나 建物の 一部가 겨우 남아 있을뿐 記錄조차 없으니 알길이 전혀 없음은 유감천만이다.

8.15 解放 直後만 해도 建물이 여러채가 남아있으나 워낙 너무 오래되어 비가 새고 서까래가 썩어 허무러지는데 保存시킬수 있는 財政조차도 없어 自由黨治下에서는 어쩔수 없이 헐어버린 것이 많았다. 헐어치우더라도 언제 무슨 建物 몇間을 헐어버린다는 記錄이나 당시 현황 사진 한장조차 없이 路邊에 임자없는 집 철거하듯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千秋에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후 이 옛 建物에는 倭政初期에 日本軍隊가 所謂 守備隊라는 名稱으로 駐屯하다가 1923年頃에 日本軍隊가 철수한 뒤 原州公立普通學校(지금의 국민학교) 學生數가 急増하자 이 建物中 宣化堂만을 教室로 3年間 使用하였다. 그후 原州郡 廳舍로 使用하게 되었고 또 6.25當時 臨時 江原道廳이 使用하다가 原城郡의 圖書館 事務室等으로 使用되고 있으며 地方 文化財로 登錄되어 있다. 1930年頃까지 있던 建物の 配置狀況을 大概 略圖로 보면 다음과 같다. 略圖中 ①②③은 現在까지 남아있다.

기왕에 없어진 옛 모습을 이제 닦만 한들 되살아 나올리도 없으니 本郡이 아닌 他郡의 建物에 대한 記錄이라도 상고하면서 아득한 우리 郡의 옛 모습을 더듬어 궁핍중의 한 끝이나마 달랠 수 밖에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 (2) 옛 官衙의 名稱

客館(客舍) 淳化館과 東軒(東閣) 同樂堂을 中心으로 鄉廳, 作廳, 官廳(食堂) 刑吏廳, 書員廳, 公需廳, 大同廳, 賑恤廳, 雇馬廳, 軍官廳, 訓練廳, 質廳, 紙所廳, 刑獄, 貢生廳, 使令廳, 官奴廳, 教坊廳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 閱武堂, 武學堂이 있었고 또 各處에 倉庫가 많았다. 彌

**客 館** : 구조는 甍大廳이 3間, 東軒이 3間, 西軒이 3間이며 이 客館의 備品은 다음과 같다.

硯匣 1, 祭床 1坐, 交椅, 1坐, 坐臺 1坐, 香床 1坐, 香爐 1坐, 香盒 1坐, 印床 2坐, 足床 1坐, 唾口 1坐, 溺江 1坐, 行步席 1件, 仰帳 1件, 衣巨里 1件, 寢帳 1件

**東 廳** : 客館의 東便에 있어 5間 守令이 政事를 다스리는 곳이다.

**鄉 廳** : 東軒의 東쪽에 있고 대개 7間

**作 廳** : 東軒 南쪽에 있고 14間

**官 廳** : 內3門 東쪽에 있어 三間 여기서 飲食 供饌을 主掌하여 官員들에게 朝夕食事를 마련하는 食堂이다. 來賓에게 茶와 果實을 낼때 이것을 茶啖床이라 하고 酒肴을 낼때 床을 酒案床이라 한다. 이 食堂에 長庫가 4間과 肉直庫가 1間이 附設되어 食糧米穀과 肉類를 調達 保管한다.

**刑 吏 廳** : 刑房廳 秋廳이라고도 한다. 刑房에는 獄牆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둥근 장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圓形刑獄이니 環獄이라고도 한다. 이 안에 重庫가 2間 보통방이 2間 廳이 2間 鎖匠房이 2間이다. 重罪人은 枷(갈)를 써워서 重庫에 가두고 輕罪人은 보통방에 가두는데 이윽장 안에서는 行動이 비교적 自由로웠다 한다.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書 員 廳** : 書廳이라고도 하며 事務를 執行하는 都書員들이 있다. 여기 量案(土地台帳)을 備置하고 稅穀을 받아 들인다.

**公需廳·大同廳·賑恤廳** : 이것은 災年에 農民들을 救護하는 李朝에서 가장 行政의 力點을 두어오던 制度이다. 豐年에 稅穀을 받아 貯藏하였다가 凶年에 貸與하는 事務를 主管하는 部署이다. 이 部署에는 여러 倉庫가 있는데 대개 명칭을 天庫 地庫等 天字文 初學부터 數字番號 쓰이. 듯 하여 창고이름을 붙였다.

**厰 馬 廳** : 오늘의 運輸課에서 車輛을 관리하듯 그 당시에 쓰이던 各種馬를 管理하던 곳.

**軍 官 廳** : 東軒 東쪽에 두어 5間 或은 6間 將校廳을 兼한다. 軍務를 다룬다(將廳은 演武所).

**訓 練 廳** : 演武所의 구실을 하는 곳.

**貿 廳** : 貿鐵契 또는 貿販을 다스리는 곳.

**紙 所 廳** : 官에서 쓰는 紙類 生産과 供給을 맡은 곳.

**貢 生 廳** : 鄉校를 관리하는 곳.

**使 令 廳** : 使令들이 있는 곳.

**官 奴 廳** : 官奴를 管理하는 곳.

**教 坊 廳** : 기생을 다스리는 곳.

**內 三 門** : 東軒앞에 있는 中央正門으로는 守令과 賓客이 出入하고 東陝門으로는 鄉民 訟民이 出入하고 西陝門으로는 衙前과 中 訟民이 出入한다.

**閱 武 堂** : 邑 東쪽 2리에 있던 옛 天王寺(지금의 原州國民校앞)터에 있었는데 이곳에는 原州鎭에 屬한 7邑의 軍兵이 모여 弓術과 武藝를 訓練하는 곳이다. 이 建物은 肅宗 乙卯年(西紀1675年) 牧使 李 雨臣이 廩建하였다.

**武學堂** : 이 建物은 지금의 第一銀行 앞 舊 市廳자리에 있었던 모양이다. 每年 春秋로 6邑의 長이 軍隊를 거느리고 나와 營將이 查閱을 받는데 칼을 차고 활을 쏘는 各長들이 쿵쿵 울리는 북소리에 발맞추어 차례로 營將에게 나와 禮를 올리고 나면 將校들에게 兵法講義와 陣法等을 論한 뒤 才能을 試問하였다고 한다.

倉庫는 7處司倉이 44間이고

別倉 35間·北倉 48間(安昌地)·西倉 32間(興原倉)·東倉 39間(酒泉)·覺林倉 30間(酒泉 覺林村)·古谷倉 36間(羣英村)

### (3) 官制의 護化

오늘의 原州가 10年內外에 一躍 人口 13萬의 中都市로 發展한 것은 其間 住民들의 所得增大를 爲한 艱辛한 努力의 代價라고도 하겠지만 또 交通, 軍事의 要地라는 地理的 條件에도 있다. 近來에 와서 爲政者(行政當局)의 大規模의 國土開發과 各種 建設事業과 아울러 積極的인 福祉行政에 힘입은 바 자못 크다. 爲政者의 힘이 그 나라 그 地方의 發展에 絶對의 影響을 준다는 것을 새삼 알수 있다. 예로부터 오늘의 原州가 있기까지에 爲政者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알자면 먼저 原州의 沿革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沿革은 이미 다른 部門에서 자세히 밝히었으므로 여기서는 官制에 대한 歷史를 더듬기 위해 이와 關聯된 部分만을 들어보기로 한다.

原州의 地名이 여러번 바뀔에 따라 統首者의 官職名 官憲等은 勿論 管轄區域의 變動까지도 屢번하였기 때문이다.

原州는 古代 漢四郡時代에는 一時 臨屯에 屬하였고 三國時代에는 濊에 屬하였다가 뒤에 高句麗 때에는 平原이라 하더니 三國統一이 될 무렵 原州로 改稱하고 統一以來 高麗를 거쳐 李朝에 이르기까지 가장 자주 地名이 바뀌었는데 대략 年代別로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北原小京(新羅文武王 西紀 668年頃)

原州牧(高麗太祖 23年 西紀 941年頃)

·知州事 (顯宗 9年 西紀 1010年頃 知州事는 地名이 아니라 統首者의 職名임 牧使同等)

·一新縣 (高宗 46年 西紀 1258年)

·知州事 (元宗 元年 西紀 1260年)

·靖原都護府 (元宗 10年 西紀 1270年)

·益興都護府 (忠烈王 17年 西紀 1291年)

·原州牧 (忠烈王 34年 西紀 1308年)

·成安府 (忠宣王 2年 西紀 1310)

·原州牧 (恭愍王 2年 西紀 1353年)

·原城縣 (李朝 肅宗 9年 西紀 1685年)

그밖에도 年代는 未詳이나 京一, 新淸源, 平涼京, 原城, 鶴城等으로 改稱하였는바 그에 따라 統首者의 職名도 牧使, 知州事, 都護府使, 判官, 郡守, 縣令 縣監等으로 바뀌어 呼稱하였는데 李朝初 太祖 4年(西紀 1395年)에 觀察府를 두었다가 其後 廢하고 다시 宣祖, 肅宗때에도 監營 討捕營을 設置하여 監司와 中軍을 두고 保安驛의 追設과 察訪을 두었다.

이때의 監司는 江原道 26郡을 統轄하였는데 西紀 1894年 地方官制의 改正으로 監營을 廢止하고 原州는 忠州 觀察府로 移屬되었다가 1896年 다시 春川 觀察府로 移屬되는等 마치 어린이의 노리게가 이손에서 저손으로 옮겨지거나 하듯 경솔하게 다루어졌다.

한 地方의 管轄權과 管轄區域이 固定되어야 計劃된 施策이 樹立되어 住民의 福利增進에 도움이 될것인데 이렇게 輕視變動되었으니 그 結果는 可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郡名과 管轄區域을 자주 變更한 理由로는 三國史記나 東國輿地勝覽에서 살펴보면 前述한 바와 같이 地方의 郡名을 함부로 變更한 事例를 자주 볼 수 있는데 特히 高麗朝에서는 이런 事例가 가장 많아 住民의 賞罰事項이 그 地方에까지 影響을 입어 州, 府, 郡, 縣의 陞格降等 또는 郡, 縣界의 區域變更의 例가 잦아서 그弊習이 近世朝鮮에까지 미치게되어 地方制度의 不安定으로 그만큼 發展에 障礙가 되었다.

#### 理由와 事例

첫째 功臣 寵臣의 出身郷이거나 國師의 鄉貫이라 하여 優待陞格시킨 例

高麗 元宗 10年(西紀 1270年頃) 林 惟茂(權臣 林衍의 아들)의 外郷이라 하여 一新縣이던 것을 靖原都護府로 昇格시켰었고 또 忠烈王 17年(西紀 1295年) 元 沖甲이 契丹兵의 來侵을 막은 功으로 다시 益興都護府로 昇格시켰었다.

둘째 住民中에서 悖倫 叛逆者가 있어 降等시킨 例

李朝 肅宗 9年(西紀 1685年頃) 原州住民中에서 殺夫한 惡妻가 있어 原城縣으로 降等시켰었다가 다시 原州로 復元하였다. 西紀 1728年 英祖 4年 住民 송 필 이라는者가 雉岳山 金臺城에 의거하여 叛逆한 일이 있어 또 原城縣으로 降等되었다.

셋째 王妃의 姓郷 또는 王陵 王의 胎封을 奉安한 關係로 昇格시킨 例

恭愍王 2年(西紀 1355年) 雉岳山에 安胎하여 原州牧으로 昇格시켰었다.

이상 세가지 理由밖에도 甚한 例로는 強盜를 歸順시키기 위한다는 口實아래 犯罪者의 故郷을 降等이 아니라 도리어 陞格시켜준 例도 있었다니 爲政者의 專橫이라기 보다 멋대로의 橫暴로 地方制가 極度로 紊亂되었을 것이 짐작이 된다.

原州郡 1邑 9個面中 原州邑이 1955年 9月 1日 市로 昇格되어 原州라는 從來의 이름은 市가 차지하고 남은 9個面으로 一郡이 됨에 새로 이름이 必要하게 되어 原州의 古號中의 하나인 原城을 再現하여 原城郡이라 부르게 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原城이란 名稱이 처음 알려진 때 一部 郡民들은 不平이 있었으나 그 原因은 옛날 처음 原城이라 한때는 李朝 肅宗 9年(西紀 1685年) 住民中에서 殺夫한 要素가 있어 原州牧을 原城縣으로 降等시켰었고 두번째 原城은 英祖4年(西紀 1728年) 住民 송 필 이라는 者가 金臺城에 依據해서 謀叛하여 原城縣으로 다시 降等한 이름으로 두번 다 좋지 않은 原因으로 말미암아 부친 이름을 하필이면 再現했다는 까닭이었다.



##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이같이 邑이 市로 昇格될 때 대개는 原郡名을 市에 부치고 郡에는 古號를 되살리어 부치는 境遇가(例 忠州市 中原郡, 水原市 華城郡等) 많으나 市와 郡의 住民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아 같이 쓰고 있는 곳도 있다.

例 1 忠州市와 中原郡

2 水原市

3 安東市와 安東郡

### (4) 李朝時代 道の 行政組織과 官職 解説

李朝 太祖, 宣祖, 肅宗때 原州는 江原道 26郡을 管轄하던 江原監營의 所在地였으므로 그 당시 道에 行政組織과 官職名을 다음과 같이 기록에 남기고져 한다.

觀察使—中央官廳의 堂上官(從二品)으로서 補職되어 道內的 守令과 水陸兩軍의 節度使를 指揮監督하여 一切의 司法行政을 管掌한다.

都 事—吏曹의 推薦으로 任命되어 觀察使의 幕僚로 觀察使以下 地方官의 不法을 糾察하고 科試를 掌理한다.

中 軍—兵曹의 推薦으로 任命 軍事事務를 掌理한다.

檢 律—刑曹의 推薦으로 任命 法律事務를 掌理한다.

裨 將—8名 中央의 任命 그中 6名은 6房(吏, 戶, 禮, 兵, 刑, 工)의 事務를 監督하고 2名은 觀察使의 前陪(秘書)의 任을 掌한다.

6 房 首 吏—各房首吏는 主로 各郡縣의 鄉吏中에서 學德具備者를 選定한다.

政 丞—議政府에 領相 左相 右相의 正一品 官名

贊 成—議政府의 從一品 官名

判 書—6曹의 長官인 正二品 官名

參 判—6曹의 次官

獻 納—司諫院의 諫爭論正의 責을 가진 正五品 官名

校 理—弘文館의 經籍 檢校의 責을 가진 正六品 官名

承 旨—承政院의 王命出納의 責을 가진 正三品 官名

監 司—地方長官으로 正三品以上 官名 觀察使라고 한다.

司 書—世子待講院의 正六品官職

主 簿—中央官廳의 監, 院, 部, 寺等の 帳簿掌理의 從六品 官名

參 奉—王家的 陵墓 守護의 八品以下 官名 또 中央官廳의 部, 寺, 院, 監의, 從九品 官名

按 廉 使—主로 地方官吏의 不法을 按察하는 臨時 官名

巡 察 使—地方의 官治 民風을 巡察하는 臨時 官名

暗 行 御 使—國王의 秘命으로 地方의 官治 民情을 査察하는 臨時 官名

兵 馬 節 度 使—兵使라고도 하는 地方陸軍의 司令官으로서 그 府를 兵營이라고 한다.

水 軍 節 度 使—水使라고도 하는 海軍司令官으로서 그 府를 水營이라 한다.

討 捕 使—地方에 變亂이 있을 때 그 徒黨을 討捕하는 臨時 特使

書 狀 官—所屬長官의 書狀掌理官

頒 報 官—國家慶吊가 있을 때 恩典의 王命을 傳達하는 臨時 官名

轉 運 使—戶曹所屬의 稅穀運送 官名

判 官—中央의 訓練院及 地方觀察使의 幕僚로서 從五品 官名

僉 使—水陸 重要鎮의 鎮守官 從五品 官名

都 護—軍隊로 一地方鎮守 官名인데 대개는 府使 李朝때 地方官衙의 하나로서 牧使의 아래

이며 郡守의 위에 있는 從三品官이 配置된다.

營 將—各道の 五營(前,後,左,右,中)에 各各 營將이 있어 監司 兵使의 指揮에 依하여 管内 軍事 事務를 掌理한다.

大 提 學—弘文館, 藝文館의 主務로 正二品 官名

大 司 成—成均館의 主務로 正三品 官名

通 判—온갖 일을 判정하며 고려때에는 大都護府의 判官이다.

### 李朝때의 官制

各郡에 配定된 官吏의 名稱과 定員은 다음과 같다.

郡守 1 (대개 舊官·4品—5品)

座首 1·別監 3·倉監 2

軍官 110 (首校·兵校)·衙前 69·知印 28·使令 31·官奴 24·官婢 9·妓生 23·

郷校 校生 50·校保 200·守僕 1

다음 各面에 配置된 吏屬數와 名稱은 아래와 같다.

執綱 1 (郷任이라고도함)·風憲 1 (都尹 尊位)·面差 1 (伺候)·約正·勸農·面主人(邸卒) 里正 (上任—村長·下任—村正)

#### (5) 統 首

#### 府, 州, 郡, 縣의 行政組織과 職責

地方 行政組織에 대하여는 이미 高麗 景宗(西紀 980年)과 成宗때 부터 차츰 整備되어 지금의 慶州를 東京이라 呼稱하고 留守(成宗 西紀 987年)를 처음 配置하였다. 그후 李朝때에는 漢城에 府尹, 水原, 廣州, 開城, 江華에 留守(正二品)를 두었다. 府尹(從二品) 府使(從三品) 州에는 牧使(正三品) 郡守(從四品) 縣令(從五品) 縣監(從六品) 郡守(留守, 府尹, 牧使, 縣監도 同一)는 中央官廳의 文武官으로 補外된 者로 管内의 行政을 掌理한다.

座首는 民風을 바로잡고 郡治助長の 責任이 있는데 地方의 德望家로 選定한다.

別監은 座首를 補佐한다.

吏 廳—吏, 戶, 禮, 兵, 刑, 工의 六房이 있는데 이 各房에는 대개 土着民을 任用한다.

吏廳所屬의 郷吏가 있어 소위 衙前들이니 대개 맡은 직책을 부쳐 色이라 한다. 吏房色, 戶房色, 禮房色, 兵房色, 刑房色 工房色 等이요. 그 밖에 田稅色, 官廳(食堂)色, 軍器色, 烽燧色, 水軍色, 舟師色등이다.

察 訪—各驛에서 말을 맡는 벼슬, 驛丞이라고도 한다.

將 校 廳—不正을 查察하는데로서 首校, 兵房, 立番軍官, 補校等の 吏校가 있다.

軍 官 廳—軍事事務를 맡는데, 府 州에는 千總, 把總, 哨官, 執事が 있다.

郡과 縣에는 把總과 哨官, 執事が 있다.

千總은 6,875名을 指揮하는 지금의 師團長格

把總은 1,375名을 指揮하는 聯隊長格

哨官은 275名을 指揮하는 大隊長格

通 引—守令(郡守)의 侍童(使喚)으로서 官印을 맡는다. 이는 吏屬 近親中에서 年少하며 明敏한 者로 選定한다.

冊 房—冊客 또는 書客이라고도 한다. 守令의 秘書

廚 房—官의 炊事를 指揮監督하는 吏屬 요즈음의 廚房長格

庖 奴—官의 炊事 담당자

## 第6編 文化財와 名勝古蹟

- 使 令—六房과 將校廳 軍官廳에 屬한 使喚  
 門 隸—守衛와 같다.  
 倉 奴—官庫 守直者  
 官 婢—女子使喚으로 妓生과 婢子 2種이 있다.  
 鄉 鄉(部曲)은 지금의 面인데 그 行政組織은 다음과 같은 任員으로 되어 있다.  
 鄉 任—지금의 面長과 같고 面內의 行政을 掌理한다.  
 風 憲—鄉任을 補佐하며 金錢 租穀을 受領한다(都尹 尊位도 같다).  
 約 正—鄉約을 勸獎한다.  
 勸 農—農業을 勸獎한다.  
 面 主 人—邸卒이라고도 하며 公文書를 送達한다.  
 里 正—지금의 里長과 같은데 洞里의 行政事務를 맡는다. 高麗때는 村長, 村正이라 했는데 村長은 上流級에서 選任하여 上任이라 하고 村正은 下流級에서 選任하여 下任이라 했다.  
 統 首—五家—統의 首로서 지금의 班長格.

### 地方의 軍隊機構

- 陸 軍；兵馬節度使—兵使—防禦使—特設鎮防에 · 節度使—牧使 府使兼任 · 僉節制使 郡守 縣令兼任 · 同僉節制使—縣監兼任  
 水 軍；三道統制使—一部를 統營에 두고 慶尙, 全羅, 忠淸의 三道水軍을 統轄한다.  
 水軍節度使(水使) · 防禦使(特設) · 僉使 · 萬戶

### 軍隊 編成制度

- 伍—1伍는 5人—伍長 1人(지금의 分隊)      隊—2伍가 1隊—隊長 1人(小隊) 11名  
 旗—5隊가 1旗 旗總 1人(中隊) 55名      哨—5旗가 1哨 哨官 1人(大隊) 275名  
 司—5哨가 1司—把總 1人(聯隊) 1,375名      部—5司가 1部—千總 1人(師團) 6,875名  
 營—5部가 1營—營將 1人(軍團) 34,375名      軍—5營이 1軍—大將 1人(司令部) 171,875名  
 但 陸軍은 各道에 前, 後, 左, 右中의 兵使가 指揮 監督하는데 慶尙, 咸鏡은 兵 水營 各2, 全羅는 兵營 1. 水營 2

### 原州의 兵力

#### 軍 額(軍人의數)

訓練都監, 砲手, 軍, 餉保 并 252名 · 御營廳軍保 并 688名 · 禁衛營軍保 并 653名 · 守禦營別破牙兵 并 252名 · 兵曹納布保 并 1,275名 · 掌樂院樂生 并 8名 · 司窺院匠人保 66名 · 戶曹水站水夫 25名 · 司僕寺諸員保 69名 · 繕工監匠人保 39名 · 監營牙兵馬步軍 1,934名 · 本鎮東伍等馬步軍 1,351名

#### 武 器

軍器寺弓 288張 · 箭 1,737部 · 鳥銃 508柄 · 震天雷 12坐 · 火藥 922斤 · 銘丸 46,400個 · 環刀 221柄 · 鎗 165柄 · 能麼兒 165個 · 旗幟雜物 多數

(6) 歷代監司와 守令의 名單

千年前 아득한 옛날에 松栢이 울창하고 머루 다래 淸물이 茂盛하게 榮키어 原始林을 이리저리 헤치면서 자주 이 고을과 山川을 넘나들던 수많은 人傑들은 이미 가고 없는데 그들이 남긴 크고 뚜렷한 발자취도 뒷사람들의 어지러운 발길 황급한 발길에 짓밟히어 묻히고 지워져서 어렵프시 남았던 그 자취 마저도 알아볼 길이 없는 것을 오늘 굳이 살피어 찾아보려하니 보이는 것 이란 그들의 이름 석자 만이 겨우 남아있음을 볼때 죽음을 모르고 악착스럽게 生에 대한 愛着만 지닌 우리 後生에게 더 없는 無常과 虛無感만을 한아름 안겨주고 있다. 와룡계·남은 이름만이 라도 여기 모아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 세상에 밝히어둔다. 高麗 以後 흘러간 千年에 이 고장을 위해 일하던 歷代 監司와 守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江原監營이 原州에 있을 때 觀察使로 在任한 분이 많을 것이나 그 時代와 이름이 分明치 않다 記錄하지 못하고 文獻에 뚜렷이 나타난 分만 王朝別로 여기 收錄함을 謝過한다.

李 朝 時 代

太宗朝: 柳 思訥

成宗朝: 權 綸(1480年)

宣祖朝: 鄭 澈(1580年)·鄭 述

仁祖朝: 李 敏求(1631年)·姜 弘重(1665年)·李 明漢

顯宗朝: 李 晚榮(1665年)·李 後山

肅宗朝: 申 琬

英祖朝: 洪 鳳祚·金 尙星

正祖朝: 徐 有防·南 公轍·金 尙星

※ 歷代 郡守 名單

高 麗 時 代

西紀1100年: 金 富俗·洪 侃·曹 愼·僕 長壽·河 允源

李 朝 時 代

西紀1402年: 金 春鄉·尹 祿·崔 哲寬·申 浩·田 興·閔 貞

西紀1481年: 李 堉

西紀1484年: 金 磧·李 祿崇·金 秀光·辛 尙謙

燕山朝 西紀 1505年: 韓 廷逢

中宗朝 西紀 1506年

張 伯孫·金 士元·金 滙·朴 亨麟·朴 蘭·張 彥邦·申 潤輔·李 元孫·鄭 維仁  
沈 思恭·尹 應奎·鄭 士謙·禹 仁秀·金 形謙·李 希文·田 汝霖·洪 碩觴·朴 栗  
徐 偉·梁 麟·權 克禮·李 應老·梁 士奇·李 裕仁·金 滉·閔 定命·李 庭虎  
(有善政碑)

成世平·李 輅·金 玉光·韓 宗胃·金 纘光

西紀1591年: 金 悌甲·韓 浚謙·柳 雲龍·具 思稷·梁 祚·李 世溫·安 大進·姜 大虎  
(有事績碑) (有善政碑)

金 庭陸·李 宗誠·李 繼光·金 星報·金 弘遠·黃 廷祿·任 就正·權 慶祐·李 綏祿  
(有善政碑)

李 軫·申 鑑·李 愼·韓 泳·柳 澈·洪 得一·閔 機·金 穫·洪 兩寶  
(有善政碑) (有碑) (有碑)

李 廷臣·黃 敬中·沈 命世·金 聲發·李 詠道

西紀1631年: 李培元

西紀1634年: 李 重吉·宋 時吉·鄭 維城·林 堧·羅 緯素·柳 俊昌·李 聖淵·鄭 知和  
(有碑) (有碑)

朴 純義·李 穫·李 緯國·金 鎬·尹 城·金 慶恒·李 竣岳·鄭 之虎·金 素  
(有碑) (有碑) (有碑)

李 晚榮·尹 徽·權 順昌·許 秩·李 敏章·宋 時喆·李 最·康 遽學·李 喜年  
(有碑) (有碑)

沈 瑞肩·吳 始益·鄭 始亨·金 斗明·朴 銑·申 瑞華·金 必振·李 世成·李 濟岫  
權 胃·姜 琮·鄭 峽·李 宏·朴 時環·許 頻·趙 泰來·李 益著·金 弘禎  
(有善政碑)

## 第6編 文化財과 名勝古蹟

金一燮·魚史徽·李寅錫·李昌齡·任陸·沈仲良·成璫·鄭復明·李東祿  
 金道復·金盛最·朴重圭·李徵海·李洙·朴彙登·李萬稷·李翊漢·沈廷輔  
 呂必容·權世恒·崔昌敏·金昌熙·崔星瑞·李衡佐·柳風齡·李守夏·李兩巨  
 沈宗賢·洪重寅·趙尙紀·李思一·韓德全·徐命五·南泰濟·李光運·朴弼幹  
 宋昌明·尹滄·閔百行·李思觀·任璫·鄭夏彥·趙載翰·李命楫·李明仲  
 金坦行·韓警·金魯·朴相圭·李聖模·金斗恒·申諤·徐琢珍·趙光遠  
 李時淵·閔百準·李太源·趙鉉·元羽孫·李協聖·洪養默·洪惟周·金魯應  
 沈誠文·金相穆·金相任·閔致謙·李奎新·張潛·李塢·尹致赫·李益秀  
 洪世周·李義溫·宋基鼎·尹稠·李玄五·洪履燮·尹宗鎬·李宜翼·林迥鎮  
 金在厚·金鎮華·李章愚·金喬根·鄭老容·李根天·金近喜·徐競輔·尹滋一  
 金炳皐·金炳淵·鄭基華·李忠翼·趙永和·李勉翼·金伯均·朴鳳夏·徐光斗  
 鄭翼永·李源進·李喆淵·沈英慶·任泰準·金英植·趙秉翼·洪承五·趙熙百  
 申泰榮·李珪應·李定植·金好謙·李鶴季·李昇宰·李徹愚·李承泌·李宗植  
 李秉和·朴齊七·沈相赫·洪秉愚·申炳休·崔允昇·金秉驥·宋文賢·金泳圭  
 倭政時代: 李宅珪·吳惟泳·申圭善·李東鎮·李炳千·鄭然基·張憲根·崔晚達  
 金用礪·德重隆彥·李弼國·木山永一郎·林龍俊·李季祿  
 (朴永賦)

(註)

以上麗朝以後, 李朝 倭政下의 歷代 郡守 名單은 江原道誌上卷 73面에 記錄된것을 參考한바 其中 李朝初期에 「李祿崇」의 이름이 있으나 新增 東國輿地勝覽(국역VI P10)에는 李祿崇이 通判으로 있을 때(西紀 1483年 成宗朝)의 牧使는 李輝와 金蹟이 前後任한것으로 記錄되었는데 江原道誌에는 李輝와 金蹟牧使의 이름은 없고 도리어 通判이던 李祿崇의 이름만 記錄되어있기에 本紙에는 李 金兩牧使 在任年代와 이름을 追加하였고 그보다 앞서 牧使로 在任하면서 原州鄕校를 創建한 申浩(建文4年 西紀 1402年)에 대한 記錄이 東國輿地勝覽 114面에서 發見되었기에 歷代郡守名單에 追加하였음을 밝히둔다.

### 8.15解放後 原州郡守

李季祿 閔庚植 李澤俊 洪昌燮 金善亮 張東國 咸基成 李永培 崔俊成  
 西紀1955年 9月 1日 原州邑이 市로 昇格되어 地方自治制에 依한 民選市長이 當選되었다.

#### 原州市 歷代市長

吳亨善民選 55.9.1—60.5.23  
 朴周根 61年 5月 4日—61年 7月 7日  
 韓東錫 63年 1月 25日—64年 11月 7日  
 金乘祐 66年 6月 7日—66年 9月 23日  
 朴建周 67年 12月 1日—69年 7月 21日  
 崔文圭 72年 4月 14日—73年 8月 4日  
 鄭箕勲 74年 9月 3日—

元寅植 60年 5月 23日—61年 5月 24日  
 朴魯榮 61年 7月 7日—63年 1月 25日  
 田英春 64年 11月 7日—66年 6月 7日  
 李東晉 66年 9月 23日—67年 12月 1日  
 金龍雲 69年 7月 21日—72年 4月 14日  
 金榮珍 73年 8月 4日—74年 8月 28日

#### 原城郡守(原州市 原城郡으로 分離後)

崔俊成 55年 9月 1日—56年 9月 17日  
 南元壽 58年 3月 12日—59年 1月 13日  
 楊紀洙 60年 5月 23日—60年 10月 27日  
 崔五喆 61年 7月 31日—61年 10月 6日  
 田英春 63年 7月 1日—64年 2月 4日  
 李東晉 65年 8月 20日—66年 9月 24日  
 金景山 67年 12月 1日—70年 3月 3日  
 崔文圭·李昌錫·林東燮·金五榮·崔桂明

李重淵 56年 9月 17日—58年 2月 24日  
 沈庚燮 59年 1月 13日—63年 5月 23日  
 張在勲 60年 10月 27日—61年 7月 31日  
 徐明澤 61年 10月 6日—63年 7月 16日  
 金勝吉 64年 2月 1日—65年 8月 20日  
 金龍雲 66年 9月 24日—67年 12月 1日  
 金元熙 70年 3月 3日—